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박사학위논문

# 체언 수식 부사의 역사적 연구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김 한 결



체언 수식 부사의 역사적 연구

김한결

부사는 문장 내의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품사이지만, 때로는 문장 전체의 명제를 수식하기도 한다. 또 같은 부사라 해도 그 수식 범위나 대상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특징도 지니고 있다. 한국어의 부사는 역사적으로 작용역의 변화·확대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용법을 획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도부사나 초점부사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용법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체언 수식 부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다의성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곧, 즉, 정히’, ‘꼭, 꼭히, 딱, 딱히’, ‘하필, 하필이면’을 세 부류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째, 지시성 부사류이다. 지시성 부사류는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의미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는 부사로서, ‘바로, 곧, 즉, 정히’가 여기에 포함된다. 중세 한국어 ‘바르’(直, 正)는 정상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로 기능하였으나 근대 한국어 이후부터는 초점부사 용법도 획득하였다. 이후 ‘바로’(<바르)의 모든 용법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중세 한국어 ‘곧’은 시간부사(卽, 便, 輒)와 초점부사(卽, 則, 直)였다. ‘곧’은 근대 한국어에 문장 접속의 용법을, 개화기 이후부터 명사구 접속의 용법을 획득하여 전형적 환언의 접속부사로도 쓰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곧’은 시간부사, 초점부사, 환언의 접속부사로 쓰이고 있다. ‘즉’(卽)은 중세 한국어에서 초점부사로만 기능하였으나, 근대 한국어부터 시간부사, 초점부사, 인과·환언의 접속부사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부사와 초점부사의 용법은 ‘곧’에 흡수되면서, 오늘날의 ‘즉’은 인과와 환언의 접속부사로서의 용법만 갖게 되었다. 중세 한국어 ‘정히’(正)는 정상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였다. 하지만 19세기를 기점으로, ‘정히’(<正히)는 유의 관계에 있던 부사 ‘바로’나 ‘곧’, ‘정’의 영향에 밀려 그 용법이 대폭 축소된 채 오늘날에 이르렀다.

둘째, 상징성 부사류이다. 상징성 부사류란 의성어·의태어에서 비롯하였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류로서, ‘꼭, 꼭히, 딱, 딱히’가 여기에 포함된다. ‘꼭’은

근대 한국어부터 등장한 의태어였지만, 19세기 이후부터 양태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 등의 용법을 획득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꼭히’(<꼭히)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까지 양태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로 기능하였지만, 20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꼭’과 ‘딱히’에 합류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 쓰이지 않았다. ‘딱’(<딱)은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하였는데, 의성어와 의태어가 애초의 용법이였다. ‘딱’은 20세기부터 정도부사, 시간부사, 초점부사의 용법을 획득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딱히’(<딱히)는 근대 한국어 시기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딱히’는 부정문에만 쓰이는 초점부사였으나, 곧 양태부사와 정도부사의 용법을 획득하였고, 오늘날에는 부정문이 아닌 환경에서도 쓰이게 되었다.

셋째, 평가성 부사류이다. 평가성 부사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양태부사로서 ‘하필’과 ‘하필이면’이 이 부류에 속한다. 중세 한국어 ‘何必’은 단독의 독립된 부사가 아니었으나, 19세기 이후부터 하나의 단위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당시의 ‘하필’에는 근대 한국어에서 비롯된 “어찌, 어찌 반드시”의 의미, 현대 한국어의 의미인 “굳이, 공교롭게도”, 이 두 의미를 이어주는 “굳이, 구태여”라는 세 가지 의미가 혼재해 있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오늘날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 20세기 중반부터 등장한 ‘하필이면’은 ‘하필’의 현대적 의미만 반영한 부사이다.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다수의 선행 연구는 품사 분류의 문제나, 개별 부사의 특성에만 주목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체언 수식 부사의 다의적 용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연구 대상의 모든 용법에 대하여 온전한 해석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주요어: 부사, 체언 수식 부사, 접속부사, 양태부사, 성상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 다의어, 의성어, 의태어, 인과, 환언

학번: 2011-30002

# 차 례

<b>1. 서론</b> .....	<b>1</b>
1.1. 연구 목적 .....	1
1.2. 선행 연구 검토 .....	3
1.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8
1.4. 논의의 구성 .....	13
1.5. 인용 자료 .....	14
<b>2. 지시성 부사류</b> .....	<b>21</b>
2.1. 바로 .....	22
2.1.1. 현대 한국어의 ‘바로’ .....	22
2.1.2. 현대 한국어 이전의 ‘바로’ .....	31
2.2. 곧 .....	60
2.2.1. 현대 한국어의 ‘곧’ .....	60
2.2.2. 현대 한국어 이전의 ‘곧’ .....	68
2.3. 즉 .....	85
2.3.1. 현대 한국어의 ‘즉’ .....	85
2.3.2. 현대 한국어 이전의 ‘즉’ .....	89
2.4. ‘정히’ .....	106
2.4.1. 현대 한국어의 ‘정’과 ‘정히’ .....	106
2.4.2. 현대 한국어 이전의 ‘정히’ .....	110
<b>3. 상징성 부사류</b> .....	<b>130</b>
3.1. ‘꼭’류 .....	131
3.1.1. 현대 한국어의 ‘꼭’ .....	131
3.1.2. 현대 한국어 이전의 ‘꼭’ .....	137
3.1.3. 현대 한국어의 ‘꼭히’ .....	150
3.1.4. 현대 한국어 이전의 ‘꼭히’ .....	153

3.2. ‘딱’류 .....	158
3.2.1. 현대 한국어의 ‘딱’ .....	158
3.2.2. 현대 한국어 이전의 ‘딱’ .....	165
3.2.3. 현대 한국어의 ‘딱히’ .....	179
3.2.4. 현대 한국어 이전의 ‘딱히’ .....	184
4. 평가성 부사류 .....	194
4.1. 현대 한국어의 ‘하필’ .....	196
4.2. 현대 한국어 이전의 ‘하필’ .....	204
5. 결론 .....	232
참고문헌 .....	236
<Abstract> .....	249

## 표 차례

<표-1> 현대 한국어 ‘바로’의 분류 .....	30
<표-2> 현대 한국어 ‘바로’와 중세 한국어 ‘바르’의 비교 .....	48
<표-3> ‘바로’의 역사적 변화 .....	59
<표-4> 현대 한국어 ‘곧’ .....	67
<표-5> ‘곧’의 역사적 변화 .....	84
<표-6> 현대 한국어 ‘즉’ .....	88
<표-7> ‘즉’의 역사적 변화 .....	105
<표-8> 현대 한국어 ‘정’과 ‘정히’ .....	110
<표-9> 중세 한국어 ‘正히’ .....	117
<표-10> ‘정히’의 역사적 변화 .....	129
<표-11> 현대 한국어 ‘꼭’ .....	136
<표-12> ‘꼭’의 역사적 변화 .....	150
<표-13> ‘꼭히’의 역사적 변화 .....	157
<표-14> 현대 한국어 ‘딱’ .....	164
<표-15> ‘딱’의 역사적 변화 .....	179
<표-16> 현대 한국어 ‘딱히’ .....	184
<표-17> ‘딱히’의 역사적 변화 .....	193
<표-18> ‘하필’의 역사적 변화 .....	231





# 1. 서론

## 1.1. 연구 목적

일반적으로 현대 한국어 부사는 용언이나 용언구를 수식하는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분부사라 불리는 범주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 부사에는 체언이나 또 다른 부사, 문장을 수식하는 부사도 있고, 문장 전체의 명제와 관련하여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도 있다. 이처럼 현대 한국어 부사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부사가 그 작용역(scope)을 달리함으로써 여러 하위 의미를 생산해 내기도 한다. 또한 어떤 부사가 동일한 작용역을 지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의적 용법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 (1) 가. 선을 바로 그어.
- 나. 종 치면 바로 나가자.
- 다. 어서 바로 말하지 못할까!
- 르.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야.
- 므. 바로 옆에 산이 있다.

(1가~다)은 ‘바로’가 용언을 수식하는 예이고, (1르~므)은 ‘바로’가 체언을 수식하는 예이다. 부사의 작용역이 다르므로 당연히 전자와 후자의 ‘바로’는 의미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전자와 후자에 소속된 각각의 ‘바로’ 역시 그 의미가 모두 상이하다. 즉, (1가~다)의 ‘바로’는 각각 “곧게”, “곧바로”, “있는 그대로”로, (1르~므)의 ‘바로’는 각각 “다름 아닌”과 “매우 가까이”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러한 부사의 다의적 용법은 현대 한국어 이전 시기부터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바로’의 다양한 의미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어렵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역사적으로 ‘바로’(<바르)는 ‘直’과 ‘正’이라는 두 가지 의미와 관련되었는데, (1)의 ‘바로’는 위 두 가지 의미 중에서 무엇에 가까운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진다.

이 논의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에서 쓰이는 주요 체언 수식 부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가 선정한 부사로는 ‘바로’, ‘곧’, ‘즉’,

‘정히’, ‘꼭’, ‘꼭히’, ‘딱’, ‘딱히’, ‘하필’, ‘하필이면’이 있다. 역사적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부사들은 매우 흥미로운 변화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른 것이다. 변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의미·기능의 변화, 즉 용법의 변화이다. 우리가 위에서 언급된 부사를 대상으로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는 크게 두 가지 까닭이 있다.

하나는, 부사 선택 범위의 문제이다. 어떤 논의는 다수의 부사를 대상으로 하여 그 나름의 방식으로 부사를 분류하고자 하였는데, 이런 부류의 논의는 개별 부사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의 부사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부사의 문법적·의미적 특징을 고찰하였던 논의도 존재하였다. 다만, 이런 부류의 논의는 해당 부사에 내재한 많은 언어적 현상이 골고루 언급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개별 부사에만 집중하는 바람에 ‘공통으로 묶일 만한 부사류’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지적된다.<sup>1)</sup>

다른 하나는, 연구 방법의 문제이다. 이것은 한국어 부사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두 가지 방향의 연구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과 관련된다. 역사적 사실은 덮어둔 채 해당 부사의 여러 용법을 현대 공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논의도 있고, 반대로 현대 공시적 해석은 소홀히 한 채로 역사적 변화 과정에 치중한 논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염두에 두면서 앞서 언급한 부사들을 선택하였다. ‘체인 수식’이라는 특성 아래, 일정한 공통점으로 묶일 수 있는 부사들을 대상으로 그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현대 공시적 해석도 병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해당 부사들의 역사적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한다.

---

1) 체인 수식 부사는 ‘체인 수식’이라는 공통점 외에 별다른 공통점이 언급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 1.2. 선행 연구 검토

‘체인 수식 부사’라는 명칭은 부사의 일반적인 수식 범주가 용언이라는 사실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따라서 체언 수식 부사라는 용어에는 ‘용언 수식 부사’에 비하여 무엇인가 특별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는 체언 수식 부사의 유효성을 드러내기 위한 연구로 이어졌고, 그 결과 체언 수식 부사는 용언 수식 부사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관형사와의 공통점을 드러내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즉,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해당 부사류가 부사이나 관형사이냐는 품사 문제로 귀결된다.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빼놓을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정리하고자 한다.

체인 수식 부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체언 수식 부사를 관형사로 처리하려는 ‘관형사설’이고, 다른 하나는 체언 수식 부사를 부사로 보되 이를 예외적으로 처리하려는 ‘부사설’인데,<sup>2)</sup> 학계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관형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품사 분류의 간결함을 가장 큰 근거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관형사는 체언을, 부사는 용언, 체언,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모두 관형사로 돌려 버리면 품사론에서 말하는 수식-피수식 관계가 깔끔하게 해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때와 용언을 수식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2) ㄱ. 겨우 셋이 그들과 겨룰 수 있겠니?

ㄴ. 나는 숙제를 지금에야 겨우 끝냈다. [이상 문순홍(1990: 143, 145)]

(2)의 ‘겨우’는 체언과 용언을 수식할 때 그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 따라서 관형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2)의 ‘겨우’를 각각 관형사와 부사로 분리함으로써,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문법적 파탄’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형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계사문에 대한 시각에서도 드러난다. 부사가 ‘체인+

---

2) 관형사설, 부사설은 황화상(2009)에서 제시된 용어인데,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시각을 잘 드러내는 용어로 생각되어 이를 인용하였다.

이다' 구성을 수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체언 수식 부사는 체언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체언+이-' 구문을 수식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임유중 1999). 화자의 양태성과 관련하여 관형사설이 지지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화자의 양태성이 드러날 경우, 일부 체언 앞에 부사가 올 수 있으므로 이를 양태관형사로 처리해야 한다는 시각이 그러하다(이수미·김민국 2009).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대체로 관형사설의 근거를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피수식어의 문법 범주를 기준으로 품사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우형식(2006), 황화상(2009) 등]. 이는 한국어 품사 체계(예: 학교 문법)에서 후행 단어의 특성에 의해 품사가 결정되는 것은 관형사와 부사밖에 없는데, 이러한 분류 방식이 과연 합리적이냐는 근본적 물음과 관련된다(김원경 2013). 따라서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관형사-체언 수식', '부사-용언 수식'이라는 엄격한 수식 관계를 상정하지 않는다. 부사가 체언과 용언을 수식할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다의적 의미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2)의 '겨우'는 본유적 의미가 같지만, 실제 문장에서 쓰일 때 세부 의미가 다르게 현현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김원경 2013).

다만, 기사문에 대해서는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부사가 체언을 직접 수식할 수 있으나, 그것은 해당 체언이 정도성을 지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서정수 2005), 아예 체언 수식 부사 논의에서 기사문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황선영·이공주 2002). 그런가 하면 기사는 체언 수식 부사의 목록을 식별하는 데에 영향력이 없으므로, 이를 '무관 조건'으로 처리하자는 입장도 있다(김원경 2013).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은 부사가 체언을 수식한다는 유표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수 있다는 체언 수식성을 상정한다거나(이규호 2008), 체언 수식 부사는 부사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황화상 2009)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체언 수식성'이나 '부사성'은 이미 부사 자체의 속성이라는 점에서 순환론적 설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김원경 2013).

관형사설이나 부사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피수식어인 체언이 대체로 정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러한 정도성은 양태성과 관련하여 관형사설이나 부사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었다. 세부적인 견해의 차이가

없지는 않으나, 최근의 연구를 보면 체언 수식 부사가 정도성과 양태성을 모두 지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이금희(2014), 김원경(2013) 등].

이처럼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해당 부사의 문법적 지위나 범주를 가르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체언 수식 부사의 여러 특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철저히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만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 글은 대상 부사의 품사 범주를 확정하고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므로, 체언 수식 부사의 품사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체언 수식 부사에 포함되는 부사들은 체언을 한정한다는 특성상 초점부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학계에서 ‘초점사’ 혹은 ‘초점부사’는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고려한다면, 국내 학계의 초점부사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부사의 분류에서 초점부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부사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양분되고, 각각의 부사들은 다시 몇 가지로 하위 범주화되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그렇지만 초점부사는 성분부사나 문장부사 중, 그 어느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전통 문법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 문법 연구의 초석을 놓은 주시경(1910)은 물론, 현대 한국어 문법을 최초로 체계적으로 집대성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최현배(1937/1971)<sup>4)</sup>에서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초점부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것은 애초에 전통 문법서에서 ‘초점’ 내지 ‘초점부사’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는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서도 동일하다. 특정 시대의 부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시적 연구이든(특히 현대 한국어), 부사의 통시적 변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든 초점부사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sup>5)</sup>

---

3) 김선희(1985), 민현식(2002), 이규호(2008), 이수미·김민국(2009), 김원경(2013), 이금희(2014) 등이 대표적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를 고려하면, ‘체언 수식 부사’의 주된 용법을 정도성 명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예: 철수는 아주 부자이다). 그렇지만 모든 체언 수식 부사가 정도부사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예: 철수는 바로 영화를 사랑한다), 이 글에서 언급되는 ‘체언 수식 부사’의 범위 역시 정도성 수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4) 『우리말본』의 전체 모습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1937년 이후 외술은 1955년에 김고고침판을, 1961년에 세 번째 고침판을, 1971년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침판을 펴냈다. 부사와 관련된 내용은 초판과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고침판인 1971년판을 활용하기로 한다.

오늘날로 오면서 초점부사는 현대 공시적 관점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후총(2017)은 ‘바로’에 대한 공시적인 연구를 하면서 초점부사로서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어 부사 ‘바로’를 성상부사, 초점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라는 네 가지 하위 의미로 분류하여 각각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다룬 논의이다. 이 연구는 ‘바로’라는 부사를 초점부사로 설정하고, 여기에 대하여 적지 않은 설명을 베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여 초점부사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논의를 편 것은 아마도 최규련(2005)일 것이다. 최규련(2005)은 그가 그간 발표한 연구들을 취합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최규련(2005)은 ‘focus particle’을 ‘초점사’로 번역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 역시 국내 학계에서 초점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으며, 주로 초점사의 개념을 한국어의 보조사와 부사에 어떻게 적용하고 이용할지를 고민하였다. 김한결(2018)은 여러 가지 초점부사에 대한 논의의 기본적 배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현대 한국어 부사 ‘정’과 ‘정히’에 대한 공시적 해석으로서, ‘정’과 ‘정히’에 대한 통사적·의미적 분석이 주를 이룬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정히’가 초점부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정’과 ‘정히’의 통사적·의미적 특징을 부각시킨 바 있는데, 이는 초점부사의 통시적 연구를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연구는 특정 부사에 대한 공시적 해석에 그쳤는데, 그 아쉬움은 이 연구를 통하여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글의 대상 부사 중 일부는 시간부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유창돈(1975)은 중세 한국어의 다양한 단어를 다루면서 이 글의 대상인 몇몇 부사들도 언급하였다. 예를 들어, ‘즉자히’, ‘즉재’, ‘곧’, ‘고대’ 등과 같은 부사들이 그것인데, 유창돈(1975)은 이 부사들의 조어적 특징과 어휘적 의미만 언급하였다. 심재기(1982)도 중세 한국어 ‘곧’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시간부사로서의 특징만을 지적하였다. 왕철(2011)도 중세 한국어 시간부사 ‘곧’을 다룬 연구이다. 이 연구는 시간적

---

5) 예컨대, 현대 한국어 부사어의 통사의미론을 정밀화한 박선자(1996)에 드러나 있는 ‘어찌찌(부사)’에도, 부사와 부사어에 모두 관심을 보인 김정훈(1996) 등에서도 초점부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가 없다. 또한 손남익(2006), 신서인(2011), 신서인(2014) 등과 같은 현대 한국어의 부사 분류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는 연구들에서도 초점부사에 대한 언급이 존재할 법한데, 그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중세 한국어나 근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적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 부사의 유의어에 대하여 다룬 민현식(1987), 15세기 부사들의 의미 자질을 다루는 박선우(1995) 등에서도 모두 초점부사와 관련된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렵다.

간격이 짧은 ‘곧<sub>1</sub>’, ‘고대’와 시간적 간격이 상대적으로 긴 ‘곧<sub>2</sub>’를 분류함으로써, 현대 한국어 시간부사 ‘곧’과 큰 의미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sup>6)</sup>

이 글의 연구 대상인 부사들은 양태부사(modal adverb)나 접속부사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최현배(1971), 왕문용·민현식(1993), 박선자(1996), 장영희(1994), 전명희(2016) 등에서는 ‘꼭’을 양태부사로 다루고 있으며, 왕문용·민현식(1993)에서는 ‘정’을 양태부사로 다루었다. 최현배(1971), 왕문용·민현식(1993), 김선영(2003), 임유중(2005), 신서인(2014) 등에서는 ‘곧’이나 ‘즉’을 접속부사로 다루고 있다. 대체로 양태부사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서 정의되는데, 이는 초점의 의미나 기능과도 일정 부분 통하는 면이 있다. 초점은 상호주관성(intersubjectivity)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태는 결과적으로 이 상호주관성과 의미적으로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이다. 접속부사는 문장과 문장, 또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것이지만, 구와 구,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기도 한다. 접속부사는 환언의 기능을 하는데, 환언은 초점과 일부 유사한 면을 지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별 부사의 다의적 특성에 주목하여 부사의 하위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후총(2017)이 그러하며, 정병철(2011)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병철(2011)은 ‘바로’의 다의 체계를 망 모형(Accompanied Experience Network Model)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바로’의 의미 구조를 체계화하였다는 점, 그리고 러시아어 ‘прямо’와 대비하였다는 점 등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이 부사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사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별로 언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딱, 딱히, 꼭히’ 등은 체언 수식 부사의 다의적 용법과 관련하여, ‘하필, 하필이면’은 체언 수식 부사의 어휘 의미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었는데도,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이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개별 부사의 온전한 의미와 용법을 파악하는 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부사의 분류와 품사의 문제를 다룬다거나, 개별 부사의 특정 용법만 다룬 것이 대부분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언 수식 부사가 체언과 용언을 모두 수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동일한 부사가 체언과 용언 중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의미가

---

6) ‘곧’은 ‘卽’과 ‘便’에 대한 언해이고, ‘고대’는 ‘當’, ‘當下’에 대한 언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왕철 2011: 45~55).



나타나는바, 이는 부사의 다의적 용법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러한 다의적 용법은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sup>7)</sup> 일반적으로 부사가 수식하는 것은 용언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특정한 환경이나 구문을 중심으로, 부사의 체언 수식 용법이 발견·확대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체언 수식 부사의 다의적 용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부사의 의미 변화나 확장을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1.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이 논의에서 연구 대상이 되는 부사는 ‘바로’, ‘곧’, ‘즉’, ‘정히’, ‘꼭’, ‘꼭히’, ‘딱’, ‘딱히’, ‘하필’, ‘하필이면’이다. 이들 부사는 체언을 수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곧’, ‘즉’, ‘정히’이다. 이들은 특정 환경에서 지시성을 갖는다는 점, 양태부사로서의 용법이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이들은 우리가 자료의 상한선으로 삼고 있는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등장할 뿐만 아니라, 초점 부사와 관련하여 용법이 넘나들 수 있다는 점도 유사하다. 편의상 이 부류를 ‘지시성 부사’라 불러 둔다.

두 번째 부류는 ‘꼭’, ‘꼭히’, ‘딱’, ‘딱히’이다. 현대 공시적으로 봤을 때, 이 네 부사는 외형적으로도 매우 닮아 있다. ‘꼭 : 꼭히’와 ‘딱 : 딱히’의 관계로 보거나, ‘꼭 : 딱’과 ‘꼭히 : 딱히’의 관계로 볼 때 그러하다는 것이다.<sup>8)</sup> 이 부류는 상징부사로부터 출발했다는 점, 전형적인 양태부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이 부류는 초점부사의 용법이 상대적으로 제약된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이 부류에 드는 부사를 ‘상징성 부사’라 칭하기로 한다.

세 번째 부류는 ‘하필’, ‘하필이면’이다. 어형과 의미의 유사성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부류는 강한 어휘 내적 의미로 말미암아 문맥에서 언제나 초점부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다른 부류와 구별된다. 이들은 명제에 대한

7) 기존 연구는 이러한 용법의 차이를 품사의 문제(부사 대 관형사)로 한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8)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관계가 액면 그대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후술됨).

화자의 부정적 평가나 감정을 드러내는 평가 양태와 관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부류를 ‘평가성 부사’라 불러 둔다.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자료의 수집·활용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부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피는 작업인 만큼, 자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당 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내용은 ‘1.5. 인용 자료’에서 언급하였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 자료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직관을 활용하여 직접 예문을 만들기도 할 것이다.

둘째는 자료의 기술 방법과 관련된 것이다. 우리의 논의는 각 부사가 현대 한국어에서 갖는 용법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우리에게서 현대 한국어를 분석할 수 있는 직관이 있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 제시한 뜻풀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그리하여 해당 부사가 갖는 다양한 의미가 어떻게 전승된 것인지를 살필 것이다.

셋째는 부사의 용법을 탐구하는 태도와 관련된 것이다. 이 논의의 출발점은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의 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sup>9)</sup> 부사는 용언류를 수식하는 것이 본령이기 때문에,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다소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당 부사가 체언 외의 성분에 선행하는 경우의 용법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말하자면, 체언을 수식하는 부사는 형식일 뿐이고 내용적으로는 그 부사의 모든 용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언급할 몇 가지 사안도 여기에서 정리해 둔다.

첫째는 부사의 분류 및 목록 기준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논의에서 쓰이는 부사의 범주는 접속부사, 문장부사, 양태부사, 성분부사(성상부사, 정도부사, 시간부사 등), 초점부사 등이다. ‘초점부사’는 그간의 부사 분류에서 잘 쓰이지 않았던 만큼,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초점이란 초점화된 표현의 값과 일련의 대안들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어는 초점이 보조사에

---

9) 체언 수식 부사는 피수식어의 특정한 품사 정보만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 수식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된다. 즉, ‘체언 수식 부사’는 피수식어가 체언이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성립이 되는 부사이다. 그런데 후행하는 체언의 성격에 따라 체언 수식 부사의 종류도 분류될 수 있다.

의해 실현될 수 있는데, ‘도’, ‘만’, ‘은/는’ 등이 대표적 예이다(예: 철수는 {영희, 순이, 그 사람, ...}도 사랑한다). 이처럼 보조사는 선행하는 체언에 결합하여, 선행 체언의 다양한 계열관계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세로 초점’의 역할을 담당한다(임동훈 2012). 한국어의 일부 부사도 세로 초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바, 이 글의 초점은 바로 이 세로 초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점부사는 세로 초점과 관련된 부사로 정리할 수 있다.

접속부사는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부사로서, 입장에 따라 접속사로 분류되기도 하는 부사이다. 이 글에서는 ‘곧, 즉’이 이 부류에 속한다. 정도부사는 성상부사의 하위 범주로 보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정도성의 개념을 넓게 해석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부사로 처리하였다. ‘같-’, ‘좋-’, ‘알맞-’ 등은 화자의 판단이나 심리와 관련된 용언으로서 일정한 정도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양태부사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정의되지만, 양태부사를 분류하는 기준이나 세부 목록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분분하다. 이것은 양태(modality)의 체계가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sup>10)</sup> 이 글의 목적은 양태부사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므로 양태나 양태부사에 대한 개별적 언급은 자제할 것이다.

둘째는 ‘체언 수식 부사’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체언 수식 부사는 ‘아주 바보, 매우 부자, 바로 내일, 겨우 셋’과 같이, 체언 앞에 오는 ‘아주, 매우, 바로, 겨우’ 등의 품사를 지칭하는 말이다.<sup>11)</sup> 우리는 이를 부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분포상 체언 앞에 오기 때문에 이들을 관형사로 부를 수도 있다. 이를 부사 또는 관형사로 보는 대표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는 ‘1.2.’에서 정리해 두었다. 우리는

10) 인식 양태(epistemic modality), 참여자 내부 양태[(participant-internal modality) = 동적양태(dynamic modality)], 참여자 외부 양태[(participant-external modality), 당위 양태(deontic modality) 포함], 평가 양태(evaluative modality) 등이 양태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강영리·서취아·박진호 2018). 그렇지만 양태의 하위 분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임동훈(2008), 김병건(2016), 전명희(2016) 등 참고].

11) 일반적으로 체언 수식 부사의 작용역은 체언에 한정된 것으로 논의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체언구(명사구)까지를 체언 수식 부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예컨대, “철수는 바로 {영희, 그 사람, 그런 친구, ...}를 사랑한다”에 쓰인 ‘바로’는 ‘관형사 수식 부사’라 하든가 ‘명사구 수식 부사’라 해야 할 것이지만, 이를 모두 ‘체언 수식 부사’로 처리한다는 뜻이다. 분포로 보면, ‘바로 내일’의 ‘내일’과 ‘바로 그 사람’의 ‘그 사람’이 같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도 ‘명사구 수식 부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내일’은 명사구가 아닌 명사이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라는 말을 쓴 것이다. 즉, 이 글에서 말하는 ‘체언’은 ‘체언구’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분포의 동일성을 증시한 편의상의 조치이다.

이런 부류를 부사라 부르기로 하는데, 그렇게 보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피수식어의 품사를 기준으로 부사와 관형사를 분류하는 것이 그다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sup>12)</sup> 정도부사가 실현된 ‘{아주, 매우} 덩다’를 예로 들어 보자. 여기에 쓰인 ‘아주’와 ‘매우’는 더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의미이다. ‘덩-’이라는 말은 ‘덩다, 더 덩다, 좀 더 덩다, 아주 덩다, 매우 덩다’ 등 ‘더운’ 정도의 차이가 있는 말이다. 이처럼 ‘아주’와 ‘매우’는 정도성이 있는 말을 꾸며 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정도부사로 불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정도성 표현은 용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위에서 예를 든 ‘아주 바보’나 ‘매우 부자’는 각각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나 ‘매우 부유한 사람’과 같은 뜻이다. ‘어리석-’와 ‘부유하-’는 정도성을 지니는 말이기 때문에, ‘아주’와 ‘매우’는 ‘바보’나 ‘부자’를 꾸밀 수 있는 것이다.<sup>13)</sup> 정도성을 지닌 성분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데, 단지 피수식어의 품사 정보가 다르다고 하여 그 두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바로’나 ‘겨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위 예에 쓰인 ‘바로’는 ‘무엇을 드러내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부사로서, 피수식어가 지시성과 관련되면 언제든 ‘바로’가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로 내일’(“바로 [오늘 그 다음날]”)이나 “옛말에 채주는 꿈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번다더니, 지금 상황이 바로 그렇다”의 ‘바로’는 모두 지시성을 지닌 성분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것이 없다.<sup>14)</sup> ‘겨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겨우 합격했다”에는 “어떻게 합격은 했으나 그것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드러나 있고, “겨우 셋”에는 “셋 이상을 기대했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의미가 드러나 있다. 즉, ‘겨우’는 용언 수식과 체언 수식을 불문하고 “기대치에 미치지 못함”이라는 공통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12) 학교 문법을 비롯한 현행 한국어 품사 분류 체계에서 후행 단어의 특성에 의해 품사를 결정하는 경우는 관형사와 부사의 구별에만 존재한다. 즉, 관형사와 부사의 분류 자체가 매우 특징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다[이상 김원경(2013) 2장 참조].

13) 몇몇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도부사는 ‘바보’에 있는 ‘어리석-’과 ‘부자’에 있는 ‘부유하-’와 같은 정도성을 꾸민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14) 이런 용법의 ‘바로’는 초점부사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 참조. 한편, 초점부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지시형용사와 같은 용언도 수식할 수 있다. 다만, 이 글은 체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초점부사가 ‘이러하-, 그러하-, 저러하-’ 등의 지시형용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15) 선행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관형사절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체언 수식 부사들이 용언을 수식하는 경우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에 그 의미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품사 분류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 차이가 품사 분류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기본 의미의 차이가 아니라 기본 의미가 실제 구문에서 실현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성을 부각시키지 않고, 단순히 피수식어의 품사 정보를 기준으로 하여 부사와 관형사를 분류하는 행위는, 부사의 용법을 오해하거나 지나치게 한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지만, 또 다른 부사나 관형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명사를 수식하는 일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sup>16)</sup>

다음으로, ‘관형사’라는 품사가 매우 특이한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수량관형사라는 ‘한, 두, 세, 네’는 수사로 보아도 무방하고(이익섭 2005: 76), 지시관형사라는 ‘이, 그, 저’는 대명사로 보아도 문제가 없으며, 정상관형사 ‘새’는 역사적으로 명사였고, ‘헛’은 ‘헛-’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에서 관형사라 부를 만한 말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sup>17)</sup> 부사로 보아도 무방한, 위에서 언급된 일련의 단어를 굳이 관형사로 다루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셋째는 성분부사의 하위분류에 대한 것이다. 동사는 일반적으로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나뉜다.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인 반면에, 성분부사는 문장 내 특별한 성분(주로 서술어)을 꾸며 주는 부사이다. 성분부사는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부사가 서술어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부사와 서술어 사이에 어떤 다른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이다. “그 사람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다”는 “그 사람이 열심히 노래를 부른다”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는 “\*그 사람이 잘 노래를 부른다”로는 쓰일 수 없다. 임홍빈·장소원(1995: 293~300)은 이런 차이에 주목하여 ‘열심히’와 같은 부사를 ‘동사구-부사’로, ‘잘’과 같은 부사를 ‘동사-부사’로 불러 구별하였던 것이다.

체인 수식 부사를 역사적으로 다루는 우리의 논의에서도, 부사를 동사구-부사와 동사-부사로 나누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같은 부사라 해도 그 부사가 동사구-부사로 쓰였는지, 동사-부사로 쓰였는지에 따라 세부 의미가 달리 해석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선을 바로 굿다”와 “바로 선을 굿다”의 ‘바로’는 정상부사이지만, 그 의미는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전자는 동사-부사로서 “곧게”로 해석되는 반면, 후자는 동사구-부사로서 “곧바로”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는 것이다.<sup>18)</sup>

---

용법의 차이로 처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김원경 2013: 32~33).

16) 최현배(1937/1971: 591~592)에서는 부사가 용언, 또 다른 부사, 관형사를 수식하는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일부 명사를 수식하는 일은 예외적인 것으로 보았다.

17) ‘지정사’, ‘존재사’ 등도 매우 한정된 어휘를 지칭하는 품사 범주라는 점에서 관형사와 일부 유사한 면이 있다.

18) 전자는 “곧게”의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반면, 후자는 일차적으로 “곧바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 1.4. 논의의 구성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과 제5장 결론을 제외한 제2장~제4장이 이 연구의 본론이다.

제2장은 지시성 부사를 다루는 데 할애된다. 이 부류에 드는 부사는 ‘바로’, ‘곧’, ‘즉’, ‘정히’이다. 이들 부사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등장한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바로’의 의미는 ‘直’이나 ‘正’과 관련된다. 이들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이어졌는지를 살피는 일도 중요하다. ‘곧’과 ‘즉’은 여러 면에서 서로 닮았지만, 그 용법이 반드시 일치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 논의될 것이다. ‘정히’를 다룰 때 ‘정’에 대한 언급 또한 빠뜨릴 수 없다. 그러나 이 들의 용법은 애초부터 꽤 달랐다고 해야 한다. 지시성 부사는 초점·환언과 관련하여 언급해야 할 점이 많다.

제3장은 상징성 부사를 다룬다. ‘꼭’은 의태어에서, ‘딱’은 의성어와 의태어에서 유래되었음이 먼저 언급될 것이다. 표기상 ‘꼭’은 ‘꼭히’와, ‘딱’은 ‘딱히’와 연관되지만, 사실 이 네 부사의 용법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전자는 ‘꼭’류에서, 후자는 ‘딱’류에서 다루어지겠지만 각 부분에서 해당 부사와 다른 부사들과의 연관성이 언급될 것이다. 이 부류는 전형적인 양태부사라는 점에서, 또한 근대 한국어 이후에 확인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제4장은 평가성 부사를 다룬다. 이들은 초점 기능은 물론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의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위의 두 부류와 구별된다. 이 부류도 근대 한국어 이후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상징성 부사류와 유사하다.

---

“곧게”는 조금 생각을 한 뒤에 얻을 수 있는 의미라는 것이다.

## 1.5. 인용 자료

이 글에서 다루는 부사들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현대 한국어 시기까지 전 시대를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부사들이 발견되는 문헌들 역시 시기별·유형별로 다양하다. 중세 한국어부터 개화기까지는 한국어사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문헌 자료들이 주종을 이룬다. 여기에는 각종 언해서와 외국어 학습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최근 국립국어원에서 공개한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는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이 다수 등장하는데, 이러한 자료들 역시 좋은 참고가 된다.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보다 다양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특히 신소설이나 신문·잡지들이 다수 발간되어 당시의 언어생활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박진호 교수(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가 개발한 Uniconc 프로그램과 해당 코퍼스가 활용된다. 20세기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자료들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의 언어 자료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sup>19)</sup>와 네이버 포털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뉴스 라이브러리’<sup>20)</sup>를 적극 참고하였고, 오늘날의 언어 자료에 대해서는 ‘꼬꼬마 세종 말뭉치 시스템’<sup>21)</sup>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세종 말뭉치 2010년 배포판을 활용하였다. 시기별·유형별로 다양한 자료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이 글에서 직접 인용한 문헌만 제시하기로 한다.<sup>22)</sup>

---

19) <http://nl.go.kr/newspaper/index.do>

20) <https://newslibrary.naver.com/>

21) <http://kkma.snu.ac.kr/>

22) 약호를 따로 쓰지 않고, 본문에 제시된 문헌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한편,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 문헌의 경우, 여러 선행 연구와 역주서가 존재한다. 본문에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글을 작성하면서 선행 연구와 역주서들도 참고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 1. 한글 문헌

시기	문헌명
1447	석보상절
1459	월인석보
1461	금강경언해
1461	능엄경언해
1463	법화경언해
1463	선종영가집언해
1464	반야심경언해
1465	원각경언해
1475	내훈
1481	두시언해 초간본
1482	금강경삼가해
1482	남명집언해
1489	구급간이방언해
1496	육조법보단경언해
1500	개간법화경
1510년경	번역박통사
1515년경	번역노걸대
1518	번역소학
1522	법집별행록절요언해
1569	칠대만법
1588	소학언해
1590	논어언해
1590	맹자언해
1598	무예제보
15--	구급방언해
1608	언해태산집요
1617	동국신속삼강행실도
1632	가례언해



시기	문헌명
1663	두창경험방
1670	노걸대언해
1677	박통사언해
16--	계축일기
16--	마경초집언해
16--	서전언해
16--	태평광기언해
17--	을병연행록
1704	청어노걸대
1721	오륜전비언해
1737	어제내훈
1737	여사서언해
1746	어제자성편언해
1757	어제계주운음
1761	노걸대신석언해
1762	지장경언해
1765	박통사신석언해
1765	어제백행원
1774	삼역총해
1783	자훈전칙
1790	무예도보통지
1795	중간노걸대언해
1796	증수무원록언해
1797	오륜행실도
1852	태상감응편도설언해
1864	성교절요
1865	주년참례광익
1881	효군령적지
1884년경	이언언해

1892	성경직해
1895	턴로력당
18--	한등록 가람본
1915	신자전

## 2. 언간<sup>23)</sup>

시기	문헌명
16세기 중반	순천김씨언간
17세기 초반	현풍곽씨언간
17세기 중반~18세기 초반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
17세기 후반~18세기 초반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
18세기 초반~19세기 초반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언간
19세기 초반~중반	추사 언간

## 3. 신문, 잡지<sup>24)</sup>

시기	문헌명
1896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896	독립신문
1898	매일신문
1898	협성회회보
1904	대한매일신보
1906	경향보감
1909	신학월보
1920	동아일보
1946	경향신문
1966	매일경제
1988	한겨레

23) 언간의 예는 대부분 『한글편지 어휘사전』의 해당 용례를 인용한 것이다.

24) 최초 발간일 혹은 창간일을 기준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4. 고전소설, 판소리계 소설<sup>25)</sup>

계우사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구운몽 경판 32장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구운몽 서울대학교 소장 필사본	[고전소설]
김인향전	[활자본고전소설전집]
남원고사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춘향전사본선집1]
녀장군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
도원결의록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림화정연	[활자본고전소설전집]
박타령	[신오위장본집]
박홍보가 신재효본	
박홍보전 임형택 소장본	[고소설선집]
변강전	[신오위장본집]
별주부전 국립도서관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별토가 가람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상강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소학스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신미록 경판 32장본	[영인고소설판각본전집]
신숙주부인전	[구활자본고소설전집]
심청전 국립중앙도서관 완판	[디지털한글박물관]
심청전 안성판 21장본	[디지털한글박물관]
열여춘향수절가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완판 84장본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적벽가	[신오위장본집]
춘향가(남창)	[신오위장본집]
춘향가 백성환 창본	[김창환제 춘향가]

25)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 시기별로 구분하는 대신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 ‘[ ]’는 해당 작품에 대한 영인본이나 실제 사진이 수록된 자료, 혹은 해당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춘향가 장자백 창본 [김창환제 춘향가]  
 춘향전 충주박물관 소장본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디지털한글박물관]  
 화산괴봉 [장서각소장고소설자료집]  
 효녀실기심청 박순호 소장 46장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후슈호던 낙선재 필사본  
 흥부전 경관 25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  
 [디지털한글박물관]

5. 신소설<sup>26)</sup>

시기	문헌명	
1906	귀의성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7	이국부인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8	구마검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8	빈상설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8	송퇴금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8	은세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08	철세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0	자유종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0	홍도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모란병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목단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쌍옥적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월양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죽서루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치약산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1	화세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구의산	[한국개화기문학총서]

26) 같은 연도에 발표된 작품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 ]’는 해당 작품에 대한 영인본이나 실제 사진이 수록된 자료, 혹은 해당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뜻한다.

1912	두견성	[아단문고]
1912	마상루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만인계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명월정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비행선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산천초목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옥호괴연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완월루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재봉춘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추풍감수록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한월	[아단문고]
1912	현미경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행락도	[아단문고]
1912	화중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2	황금탑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13	눈물	[신소설전집]
1913	추월식	[신소설전집]
1914	금국화	[신소설전집]
1914	안의성	[신소설전집]
1914	츄턴명월	[신소설전집]
1918	화의혈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21	월하가인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22	고목화	[한국개화기문학총서]
1923	십생구사	[구활자본고소설전집]
1924	비과성	[아단문고]

## 2. 지시성 부사류

지시성 부사란 부사의 선행 요소가 부사의 후행 요소를 의미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는 부사류로서, ‘바로, 곧, 즉, 정히’가 포함된다. 이 부류는 중세 한국어부터 “A{는, 이} {直, 卽, 則, 正} B이라”라는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초점부사로 기능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直, 卽, 則, 正’ 등을 언해한 결과가 ‘바르’, ‘곧’, ‘즉’, ‘정히’ 중의 하나였는데, 이 부사들은 A와 B가 의미적으로 동질적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A가 B로 지시·강조된다는 특성을 공유하였다.<sup>1)</sup> 또한 지시성 부사류는 양태적 의미가 덜 부각되므로 주로 성상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 용법으로만 쓰인다는 공통점도 지닌다.<sup>2)</sup>

지시성 부사류는 지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에는 지시대명사, 지시관형사, 지시부사(어)가 일정한 계열 관계를 지니는데, 이러한 지시사들은 사용 환경에 관계 없이 반드시 지시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지시성 부사류는 대체로 비전형적 환언문이라는 특정한 환경 내에서 지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up>3)</sup>

같은 지시성 부사라고 하더라도 ‘바로, 곧, 즉, 정히’가 경험한 역사적 변화는 꽤 달랐다. ‘바르’나 ‘곧’은 중세 한국어부터 굳건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오늘날에도 잘 쓰이는 부사이다. ‘즉’은 오랜 시간 ‘곧’과 유의 경쟁을 벌였으나, ‘곧’에 밀리게 되었고 오늘날에는 접속부사로만 쓰이게 되었다. 중세 한국어 ‘정히’는 ‘바르’와 ‘곧’의 유의어였는데, 이는 ‘정히’가 태생부터 이들과 경쟁을 벌였음을 암시한다. 역사적으로 ‘정히’는 ‘바로’나 ‘곧’에 밀렸고 오늘날에는 극히 일부 환경에서만 쓰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바르’, ‘곧’, ‘즉’, ‘정히’를 순차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각각의 현대 한국어 용법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어 이전의 용법을 확인할 것이다.

1) 이는 한자 본래적 의미와 관련된다. ‘直’, ‘卽’, ‘則’ 등은 “곧장”, “직접”이라는 의미와 밀접한데, 이것은 비전형적 환언문의 형식과 무관하지 않다. 전형적·비전형적 환언문에 대한 설명은 2.2.1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체언 수식 부사는 체언을 작용역으로 삼으므로, 대체로 정도부사나 초점부사에서 확인된다.

3) “바로 오늘이 내 생일이야”의 ‘바로’처럼 체언에 선행하여 해당 체언을 강력하게 지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체언에 선행하는 모든 ‘바로’가 지시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 ‘바로’는 다의적 용법을 지니기 때문인데, 일반적인 지시사에는 이러한 다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 2.1. 바로

현대 한국어 ‘바로’에는 성상, 시간, 정도, 초점 등 다양한 의미와 용법이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 ‘바로’는 형용사 ‘바르-’(直, 正)에서 파생한 부사 ‘바르’에서 온 말이다. 아래에서는 현대 한국어 ‘바로’의 다양한 용법을 분류하고, 그것의 변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바로’는 크게 ‘直’과 ‘正’의 의미로 분류되는데, 각 의미는 한자의 본래적 의미에 가까운 것과, 거기에서 번져 나간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적 의미에 가까운 의미는 동사-부사였고, 번져 나간 의미는 동사구-부사 혹은 명사구-부사였다.

‘바로’는 대부분의 경우 동사(용언)나 동사구(용언구)를 작용역(scope)으로 삼지만, 정도부사나 초점부사로 쓰일 때에는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삼기도 한다.<sup>4)</sup> 중세 한국어 ‘바르’는 다의적으로 쓰였으나, 그렇다고 모든 용법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어서 각 용법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점들도 함께 다룰 것이다.

### 2.1.1. 현대 한국어의 ‘바로’

#### <1> ‘바로’의 의미

현대 한국어 ‘바로’의 연구는 의미적 특징과 통사적 특징에 주목한 것으로 양분된다. 우리는 ‘바로’를 의미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을 취하고, 필요한 경우 통사적 특징을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방향으로 이 부분을 기술할 것이다. ‘바로’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바로’의 하위 의미와 그 의미 사이의 친소 관계를 다룬 연구로서, 대표적으로 후총(2017)과 정병철(2011)이 있다. 후총(2017)은 현행 사전에서 기술·분류된 ‘바로’의 의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이후, 이를 새롭게 기술·분류하고 있다. 편의상 후총(2017)에서 제시된 ‘바로’의 의미와 예들을 아래에 제시하겠다.

4) 정도부사 ‘바로’는 동사구-부사와 명사구-부사로 쓰이는데, 후자가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삼는 경우이다.

(1) ㄱ. 성상부사

바로1-1: 비뚤어지거나 굽은 데가 없이 곧게.

㉠ 선을 바로 굽다/바로 았다/바로 나가다

바로1-2: 도중에 딴 데를 들르거나 옆길로 빠지지 않고 곧장.

㉠ 오락실에 들르지 않고 바로 학교로 갔다./그 물건은 나에게 바로 오지 않고 그녀를 통해서 왔다.

바로1-3: 거짓이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 바로 말해라!/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증언해야 한다.

바로1-4: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

㉠ 마음을 바로 쓰다./문제를 바로 맞혔다./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다.

바로1-5: 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

㉠ 옷을 바로 입다./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정해진 격식대로 답안지에 바로 쓰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

ㄴ. 초점부사 바로2: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이/그/저

㉠ 오늘은 바로 내 생일이다./바로 그 사람이다./템플의 책은 바로 이 측면을 아주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ㄷ. 시간부사 바로3: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곧.

㉠ 숨 돌릴 결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갔다./지금 바로 가시오.

ㄹ. 정도부사 바로4: (장소) 멀지 않고 매우 가까이.

㉠ 바로 앞에/뒤에/동쪽/서쪽에/오른쪽에 았다.

㉠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바로’의 의미에 대해서는 후총(2017)에서 상세히 다루어졌기에, 해당 의미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하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후총(2017)의 방식을 대체로 수용하되,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우리의 틀로 삼고자 한다.

첫째, 의미의 순서에 대한 것이다. (1)은 부사의 분류 체계를 따른 것이지만, ‘성상부사→초점부사→시간부사→정도부사’라는 의미 순서는 자의적이다. ‘바로’는 ‘直’이나 ‘正’의 의미와 관련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正’보다는 ‘直’ 관련 의미의 비중이 훨씬 크다. 뒤에서 보게 되겠지만, ‘直’을 언해한 ‘바로’는 성상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로 쓰이고 ‘正’을 언해한 ‘바로’는 성상부사로만 쓰이므로, 의미의 배열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뜻풀이의 적합성인데, 몇몇 뜻풀이는 수정이 필요하다. 정상부사 ‘바로1-4’와 ‘바로1-5’는 “어떠한 기준을 충족하다”, “어떠한 기준에 잘 들어맞다”라는 공통 의미를 지니므로, 두 가지는 하나로 묶는 것이 합리적이다.<sup>5)</sup> 초점부사 ‘바로2’의 뜻풀이에는 지시관형사가 제외되어야 한다. 예컨대, (1ㄴ)의 ‘바로 그 사람’에 해당 뜻풀이를 적용하면, “다른 X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그 그 사람”이 되어 지시관형사가 두 번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바로2’의 의미는 “다름 아님” 정도에서만 처리해도 충분할 것이다. 정도부사 ‘바로4’를 장소 담당의 부사로만 본 것도 아쉬운 점이다. ‘바로4’는 시간과 관련해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예: 바로 두 시에 수업이 있다).

셋째, ‘바로’의 꾸밈을 받는 성분에 대한 것이다. ‘바로’는 대부분 용언을 수식하지만 일부 체언을 수식하여 체언의 의미를 한정하기도 한다. ‘바로2’와 ‘바로4’의 일부가 그러하다. ‘바로’의 작용역이 무엇이나에 따라 부사의 하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2) ㄱ. 바로 철수가 학교에 갔어.  
 ㄴ. 철수가 바로 학교에 갔어.

(2ㄱ)은 초점부사인 ‘바로2’로만 해석되나, (2ㄴ)은 정상부사 ‘바로1-2’나 시간부사 ‘바로3’으로 해석된다. 즉, ‘바로’가 체언과 용언을 수식할 때 각각의 의미는 서로 교체되어 쓰이는 일이 없다.

‘바로4’의 수식을 받는 체언은 위치나 방향, 장소 등으로 제한되는데, 이것들은 정도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체언을 수식하는 ‘바로4’는 정도부사로 인정된다.

- (3) ㄱ. 설악산은 바로 {뒤, 뒤쪽}에 있다.  
 ㄴ. 설악산은 바로 {\*동, 동쪽}에 있다.

‘뒤’는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더 뒤, 좀 더 뒤, 가장 뒤’처럼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위치나 방향은 화자와의 상대적 거리를 나타내므로 정도성이 인정되고, 그 결과 정도부사 ‘바로4’의 수식을 받

5) ‘바로1-4’와 ‘바로1-5’의 의미는 중세 한국어 ‘正’의 의미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을 수 있다.<sup>6)</sup> ‘바로 뒤’라는 표현만 하더라도 화자에 따라 ‘뒤’라는 물리적 거리가 달라지므로, ‘뒤’는 정도성을 지니는 말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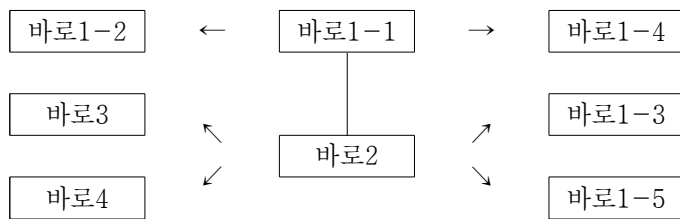
현대 한국어 ‘동’은 ‘바로’의 작용역이 되지 못한다.<sup>7)</sup> 이것은 ‘바로’가 방위나 위치를 나타내는 1음절 한자어와 공기할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인데, 여기에는 ‘동, 서, 남, 북, 상, 하, 좌, 우, 전, 후’ 등이 포함된다. 한자어가 ‘바로’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는 이 말에 상대적 위치나 방향을 나타내는 ‘쪽’, ‘녘’을 첨가해야 하는데, (3ㄴ)의 ‘동쪽’이 그 예이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뒤’라는 방향은 화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3ㄱ)에서 화자와 ‘설악산’은 각각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데, 두 대상은 가상의 직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 직선의 길이는 전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길고 짧음이 갈린다. ‘바로’는 “이 직선의 길이가 짧다”라는 화자의 인식이 반영된 부사이다.<sup>8)</sup> 따라서 ‘바로4’는 ‘바로1-1’이나 ‘바로1-2’와 밀접한 의미 관계를 맺는다.

#### <2> ‘바로’의 의미 관계

‘바로’의 하위 의미는 몇몇 부류로 묶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 의미들 사이의 친소 관계와 의미의 확장 방향을 다루었다. 대표적으로 후총(2017)과 정병철(2011)을 들 수 있는데, 각각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 (4) ‘바로’의 의미 조직도(후총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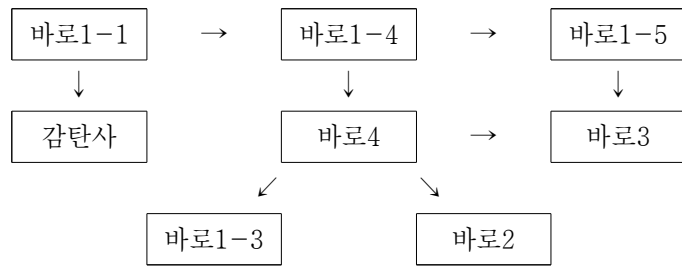
6) 김선희(1985), 황화상(2009), 김원경(2013), 이금희(2014) 등.  
 7) 중세 한국어에서는 ‘바르 北’처럼 방위를 나타내는 1음절 한자어가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8) 화자와 목표 지점 사이가 ‘실제 일직선’이어서 ‘바로’가 사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결과론적 해석이다. 화자가 특정 지점과 매우 가깝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자와 목표 지점 사이에 “거리적거리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이는 “곧은 직선”이나 “방해물이 없음” 등의 의미와 관련되는데, 이것은 중세 한국어 ‘바르’의 의미 중 하나인 ‘直’을 반영한 것이다.

(4)의 핵심은 ‘바로1-1’과 ‘바로2’가 ‘바로’의 중심 의미이며, 여기에서 여러 의미들이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후총(2017)은 ‘바로’의 의미를 ‘直’과 ‘準’으로 파악하였다. ‘直’은 사물의 곧은 상태를 나타내고, ‘準’은 목표물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뜻하는데(후총 2017: 20),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바로2’가 ‘準’의 의미이며, 이것이 중심 의미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 (5) ㄱ. ‘바로3, 바로4’는 ‘直’에 가까운 의미이다.
- ㄴ. ‘바로2’는 유표적이다. 유표적인 것을 중심 의미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정병철(2011)은 ‘바로’의 의미 관계를 인지언어학적으로 설명한 연구이다.

(6) ‘바로’의 동반 경험 망 모형(정병철 2011)<sup>9)</sup>



정병철(2011)의 핵심은 보편성과 경험주의에 있다. 보편성이 높은 신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개념일수록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음운 구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신체적 경험으로부터 의미의 발생과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설명이 그러하다. (6)은 인간의 신체 활동과 관련하여 그려진 모형이다. 예를 들어, ‘바로1-1’은 신체의 자세를 바르게 가다듬는다는 보편적 경험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러한 보

9) 정병철(2011)은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와 예문을 기준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따라서 동반 경험망 모형에 제시된 의미는 후총(2017)이나 우리의 것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정병철(2011)에는 ‘바로1-2’가 빠져 있는데, 관련 예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바로1-2’를 아예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듯하다. 다른 논의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감탄사 ‘바로!’의 의미가 포함된 것도 특이하다. 이것은 경험주의에 기반한 이론적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편의상 정병철(2011)의 동반 경험 망 모형의 의미는 후총(2017)의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대체되는 것은 순수한 의미만 해당된다. 정병철(2011)이 의미에 따른 부사의 범주까지 제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편적 경험에 가치 평가의 내용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이 ‘바로1-4’라는 것이다[이상 정병철(2011: 191~193)]. 이 연구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중시하여 인지언어학적으로 ‘바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수용할 점이 많다.

그렇지만 이 주장은 ‘신체적 경험’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 주었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정병철(2011)은 ‘바로4’가 근거리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경험으로 규정하고, 이것은 원거리를 ‘바르게 바라보는’ 경험(바로1-4)에서 비롯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를 입증하는 근거로서, ‘바라보다’(>바라보다)와 ‘바르’(>바로)의 음운적 유사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성조도 다르고, ‘·’와 ‘ㅏ’와 관련하여 표기도 달랐다.<sup>10)</sup>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바로1-4’와 ‘바로4’는 각각 ‘正’과 ‘直’의 하위 의미이다. 애초에 원문의 한자가 달랐던 의미를 굳이 ‘기본 의미 : 확장 의미’ 관계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 <3> ‘바로’의 분류

현대 한국어 ‘바로’의 용법은 통시적 정보가 함께 고려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통시적 정보를 감안하여 ‘바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7) ‘바로’의 분류 ①(의미 중심)

##### ㄱ. ‘直’과 관련된 ‘바로’

- 바로1-1(성상부사): 곧게.
- 바로1-2(성상부사): 곧장.
- 바로2(시간부사): 곧바로.
- 바로3-1(정도부사): (일부 용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 바로3-2(정도부사): (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 바로4(초점부사): (일부 체언 앞에서) 다름 아닌.

##### ㄴ. ‘正’과 관련된 ‘바로’

- 바로1-3(성상부사): 올바르게.
- 바로1-4(성상부사): 있는 그대로.

10) 정병철(2011: 195)도 이러한 사실을 피력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음운 체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험망에 의한 해석을 취하였다.

이 분류는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바로’는 역사적으로 ‘直’ 관련 의미가 ‘正’ 관련 의미보다 다양하므로, ‘直’ 관련 의미를 ‘正’ 관련 의미보다 위에 둔다는 것이다. 둘째, ‘直’ 관련 의미는 ‘바로1-1’이 주요 의미이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번져 나간 의미이며, ‘正’ 관련 의미는 ‘바로1-3’이 주요 의미이고 ‘바로1-4’는 거기에서 번져 나간 의미라는 것이다. 이것은 ‘直’과 ‘正’이 갖는 ‘바르-’(<바르-)의 원초적 의미를 고려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류 방법 외에도, 통사 구조를 바탕으로 한 문법적 분류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언급된 통사 구조란, ‘바로’의 작용역이 용언류인가 체언류인가, 용언류라면 다시 그것이 동사(V)인가 동사구(V')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의 문법적 분류는, 의미 중심의 분류 결과와 현격한 구조적 일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통사 구조를 기준으로 현대 한국어 ‘바로’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8) ‘바로’의 분류 ②(통사 구조 중심)

ㄱ. 작용역이 용언류인 ‘바로’

<동사-부사>

바로1-1(성상부사): 곧게.

바로1-3(성상부사): 올바르게.

바로1-4(성상부사): 있는 그대로.

<동사구-부사>

바로1-2(성상부사): 곧장.

바로2(시간부사): 곧바로.

바로3-1(정도부사): (일부 용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ㄴ. 작용역이 체언류인 ‘바로’

<명사구-부사>

바로3-2(정도부사): (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바로4(초점부사): (일부 체언 앞에서) 다름 아닌.

아래에서는 (8)의 분류에 따른 예를 보이면서, 약간의 설명을 더하고자 한다. ‘正’과 관련된 ‘바로’(‘바로1-3’, ‘바로1-4’)는 모두 성상부사이자 동사-부사이다.

- (9) ㄱ. 문제를 바로 맞혔다.  
 ㄴ. 바로 문제를 맞혔다.
- (10) ㄱ.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알고 있는 대로 바로 증언해야 한다.  
 ㄴ.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하면 바로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해야 한다.

(9ㄱ)의 ‘바로’는 바로1-3(“올바로”)나 바로2(“곧바로”)로 해석된다. 전자와 후자는 모두 동사 ‘맞히-’를 작용역으로 하는 동사-부사이지만, 전자는 성상부사이고 후자는 시간부사이다. 후자는 동사구-부사로 쓰인 (9ㄴ)의 ‘바로’의 의미인데, 이것은 동사구-부사가 동사-부사로 어순재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임흥빈·장소원 1995: 298). 반면, 그 역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9ㄴ)의 ‘바로’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0ㄱ)의 ‘바로’도 ‘바로1-4’(“있는 그대로”)나 ‘바로2’(“곧바로”)로 해석된다. 전자는 ‘증언하-’가 ‘바로’의 작용역이 되고, 후자는 (10ㄴ)에서 어순이 재배치된 결과이다. 그러나 (10ㄴ)의 ‘바로’는 ‘알고 있는 대로 증언하-’를 작용역으로 하는 동사구-부사이기 때문에, ‘바로2’로만 해석되고 ‘바로1-4’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즉, ‘正’과 관련된 ‘바로’는 동사-부사일 뿐, 동사구-부사가 될 수 없다.

‘直’과 관련된 ‘바로’는 동사(구)-부사, 명사구-부사로 쓰이는 경우로 양분되는데, 이 중에서 동사-부사로 쓰이는 것은 ‘바로1-1’(“곧게”)뿐이다. ‘바로1-1’을 제외한 나머지 의미들은 동사구-부사이거나 명사구-부사이다.

- (11) ㄱ. 선을 바로 굿다.  
 ㄴ. 바로 선을 굿다.

(11)의 ‘바로’는 각각 동사-부사, 동사구-부사로 사용되었는데, 동사구-부사는 동사-부사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11ㄱ)은 중의적이다. 즉, (11ㄱ)의 ‘바로’는 동사-부사인 ‘바로1-1’로 풀이되지만, 동사구-부사가 동사-부사로 어순재배치된 ‘바로2’(“곧바로”)로도 풀이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11ㄴ)은 ‘바로1-1’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러한 양상은 정도부사 ‘바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12) ㄱ.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바로 부엌과 붙은 방이었다.  
 ㄴ.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부엌과 바로 붙은 방이었다.

(12ㄱ)의 ‘바로’는 정도부사 ‘바로3-1’(“매우 가까이”)로서, ‘부엌과 붙-’을 작용역으로 삼는 동사구-부사이다. (12ㄴ)이 이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것은 동사구-부사가 동사-부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도부사 ‘바로3-2’와 초점부사 ‘바로4’는 ‘바로’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일이 자명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현대 한국어 ‘바로’의 분류

원문의 한자	분류	의미		문법적 분류
直	바로1-1	성상	곧게.	동사-부사
	바로1-2	성상	곧장.	동사구-부사
	바로2	시간	곧바로.	동사구-부사
	바로3-1	정도	(일부 용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동사구-부사
	바로3-2	정도	(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명사구-부사
	바로4	초점	(일부 체언 앞에서)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正	바로1-3	성상	올바로.	동사-부사
	바로1-4	성상	있는 그대로.	동사-부사

현대 한국어 ‘바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적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현대 한국어 공시적 자료들을 대상으로 각 의미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다. 다만, 의미의 친소 관계나 확장에 대하여 몇몇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현대 한국어 공시적 해석의 한계로 풀이된다. ‘바로’가 역사적으로 ‘直’이나 ‘正’과 관련되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역사적으로 살필 것이다.

## 2.1.2. 현대 한국어 이전의 ‘바로’

여기에서는 중세 한국어부터 오늘날까지의 ‘바로’(<바르<)의 변화 과정을 시대별로 살필 것이다. 우리는 현대 한국어 ‘바로’를 분류한 <표-1>과 중세 및 근대 한국어 ‘바로’(<바르<)와의 관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 <1> 중세 한국어의 ‘바르’

15세기 중세 한국어 부사 ‘바르’는 형용사 ‘바르-’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바르-’는 대부분 ‘直’으로 해석되었지만, ‘縱’이나 ‘正’으로도 해석되었다. ‘바르-’와 ‘바르’의 관계는 영과생의 관계로 보기도 하고, 한국어 용언의 어간이 본래 어미와 자유롭게 유리될 수 있었던 데서 온 결과로 보기도 한다. 이와 유사한 예로는 ‘느외(更), 및(及), 하(多), 일(早), 그르(誤), 브르(飽)’ 등의 부사를 들 수 있다(이기문 2000: 156~157).

중세 한국어 ‘바르-’는 ‘直, 縱, 正’을 언해한 것이다.

- (13) ㄱ. 直은 바를 씨라 <월인석보 1 서:18a>  
ㄴ. 다 일후미 病은 다 敎로 繩墨 삼디 아니흐며 스승으로 指南 삼디 아니흐고 [繩墨은 바르게 흐는 거시니 正과 邪와를 一定호물 니르니라] <원각경언해 하3-1:95b-96a>
- (14) 바르며 빗근 고대 흐다가 아디 몬흐린댄 ㄴ출 對흐스와 이셔도 여러 뵈히 ㄱ리 리라[縱橫如未曉근댄 對面흐야도 隔重巔흐리라][縱橫은 世間人 理와 事와 구브며 바르며 어려오며 도흐 境界 | 니라[縱橫은 世間人 理事와 曲直흐며 逆順한 境界 | 라]] <심현담요해 44a>
- (15) ㄱ. 흐 사르민 소노로 목을 쥐믈어 목 ㅁ뎛 ㅅ썩 썩 뿌쳐 바르게 흐고 가스물 놀러 ㅈ로 움즈기고 흐 사르민 발 뒤희 안자서 오스로 바를 ㅅㅁ 미되 다와다 ㄱ우니 나디 아니케 흐라(一人以手揉其項撚正喉嚨按據胸上數數動之 一人坐於脚後用脚裹衣抵住糞門勿令洩) <구급간이방 1:60a>  
ㄴ. 論語에 ㄱ오디 ㄱ기 바르디 아니커든 안저 아니흐더시다(論語에 曰 席不正 이어든 不坐 | 러시다) <소학언해 3:15b>



(13)과 (14)는 “곧게”로 해석되는 ‘바르-’이다. (13ㄱ)은 ‘바르-’가 ‘直’으로 쓰인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13ㄴ)의 ‘繩墨’은 ‘떡줄’을 뜻하므로 이때의 ‘바르-’도 ‘直’을 뜻한다. (14)의 ‘縱’은 본래 “세로”를 뜻하는데,<sup>11)</sup> 이 세로는 구불구불한 개념이 아니라 곧은 것으로서, 이 ‘바르-’는 “수직으로 곧다”라는 의미이다. ‘直’은 수직·수평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縱’은 수직만 담당하기 때문에, ‘縱’은 ‘直’의 하위 개념에 해당한다. (14)의 ‘縱’과 ‘直’이 모두 ‘바르-’로 언해되었다는 사실은 좋은 참고가 된다. 반면, (15ㄱ)은 사람의 어긋난 뼈를 “곧게” 맞춘다기보다 “바르게” 맞춘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15ㄴ)도 “자리가 올바르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이때의 ‘바르-’는 ‘正’을 뜻한다.

요컨대, ‘바르-’는 세 가지 의미를 지녔는데, 이 중에서 ‘直’이나 ‘縱’은 구체적인 의미를, ‘正’은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였다. 다만, ‘縱’으로서의 ‘바르-’는 문헌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수직의 개념은 대체로 가로·세로의 관계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문맥이 아닌 곳에서는 ‘縱’으로서의 ‘바르-’가 잘 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直’과 ‘正’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바르-’는 ‘直’과 ‘正’을 모두 뜻할 수 있었는데, 그만큼 ‘直’과 ‘正’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16) 劉公이 처어미 ㄱ장 쉬이 너기더니 밍 물러와 스스로 날마다 行ᄃᆞᆫ 바와 다뭇  
 물읷 니르ᄃᆞᆫ 바를 櫛括[고븐 나모 잡아 바르게 ᄃᆞᆫ 거시니 말과 횡실을 서르  
 마초야 보단 말이랴]ᄃᆞᆫ 보니(劉公이 初甚易之 | 러니 及退而自櫛括日之所行과  
 與凡所言ᄃᆞᆫ) <소학언해 6:123b>

(16)은 ‘櫛括’에 대한 협주로서, ‘櫛’은 흰 것을 곧게 만드는 것이고, ‘括’은 뒤틀린 방향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한다.<sup>12)</sup> 구부러진 것을 곧게 펴는 것은 ‘直’이고, 뒤틀린 것을 바로잡는 것은 ‘正’이다. 따라서 여기에 쓰인 ‘바르-’는 ‘直’과 ‘正’을 모두 아

11) 아래의 예가 참고된다.

縱은 南北이오 廣은 東西라 <월인석보 13:68a>

12)아래는 ‘櫛括’을 달리 언해한 예이다. 원문의 한자가 ‘櫛括’로 표기되었다는 점, ‘바르-’가 아니라 ‘고터-’로 언해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넷 글위레 講論ᄃᆞᆫ 마다드마 다든게 至極게 ᄃᆞᆫ 새 밍ᄃᆞᆫ 글위레 高터 다시 더어(乃講論研精於舊卷ᄃᆞᆫ 櫛括更添於新編ᄃᆞᆫ) <월인석보 1 서:18b>

우르는 형용사이다.

#### <1-1> ‘直’과 관련된 ‘바르’

‘바르-’에서 파생된 ‘바르’에도 ‘直’과 ‘正’의 의미가 모두 확인되는데, 이는 대체로 한문 원문에서 금방 드러나는 편이다. 먼저, ‘直’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를 보기로 한다. ‘直’의 본래적 의미는 “구부러지지 않고”인데, 이 의미는 문맥에 따라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으로 나타난다. 중세 한국어 ‘直’ 관련 의미 중 가장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성상부사 ‘바로1-2’ (“곧장”)와 시간부사 ‘바로2’ (“곧바로”)이고,<sup>13)</sup> 일부 체언 앞에 쓰여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3-2’ (“매우 가까이”)도 극소수 발견된다. ‘直’의 주요 의미인 성상부사 ‘바로1-1’ (“곧게”)과 일부 용언 앞에 쓰여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3-1’ (“매우 가까이”)은 자료의 한계로 인한 우연한 공백으로 보인다. 다만, 체언에 선행하는 초점부사 ‘바로4’ (“다름 아닌”)는 체계적 공백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 <1-1-1> 성상부사 ‘바르’

중세 한국어에서 성상부사 ‘바르’ (“곧장”)의 예는 쉽게 확인된다.

- (17) ㄱ. 須達이 브라습고 몬내 과흐스바 호디 부터 뵈습는 禮數를 몰라 바르 드러  
문즈보디 瞿曇 安否 | 便安호시니잇가(是時須達遙見世尊 猶如金山相好威容  
儼然炳著 過踰護彌所說萬倍 睹之心悅不知禮法 直問世尊 不審瞿曇起居何如)  
<석보상절 6:20b>
- ㄴ. 횡더글 發호야 ㅁ습과 法과 서르 맞게 호면 等覺 妙覺이 머러도 어루 바르  
나사가리라 <월인석보 2:60b>
- ㄷ. 이런드로 如來 密因菩薩萬行修證法이 一切 ㅁ차 일로 브터 가매 ㅁ외 나사  
닷고미 업고 바르 一乘入 두려이 微妙호 道에 나사가릴씩(故로 如來密因菩  
薩萬行修證之法이 一切畢竟호야 自此已往애 無復進修호고 直造一乘圓妙之  
道호릴씩) <능엄경언해 1:18b>

13)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중세 한국어의 많은 문헌이 불교 관련 언해서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17ㄱ)은 ‘수달’이 다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부처님께 부처님의 안부를 여쭙는 장면이므로,<sup>14)</sup> ‘바르’는 “곧장”으로 해석되는 성상부사이다. 원문 ‘直問世尊’을 보면 ‘直’이 ‘問’을 한정하게 되어 있으나, 언해는 ‘바르 드리 묻즈보디’로 되어 있어, ‘바르’가 ‘드리(들-)’를 한정하는지, ‘드리 묻즈보디(묻-)’를 한정하는지 알기 어렵다. ‘바르’가 전자처럼 ‘드리’를 한정한다면 ‘바르’는 동사 ‘들-’을 작용역으로 하는 동사-부사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들-’은 현대 한국어처럼 ‘~에 들다’라는 논항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sup>15)</sup> ‘바르’는 동사구-부사가 되므로 (17ㄱ)은 ‘바르 (자리에) 드리’ 정도가 된다. ‘바르’가 ‘묻즈보디’를 한정한다 해도 동사구-부사가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중세 한국어 ‘묻-’ 역시 ‘~을/드리 묻다’라는 논항 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sup>16)</sup>

(17ㄴ)은 “바르 아모티 나사가다”에서 ‘아모티’가 생략된 구성으로서, “마음과 법이 서로 맞게 되면 等覺과 妙覺이 멀어도 능히 바로 等覺, 妙覺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즉, 화자는 청자에게 마음과 법을 일치시키면 어떠한 장소에 “곧장” 다가갈 수 있다고 조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곧장”이란 “원하는 곳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해물이나 장애물이 없이 빠르게”라는 의미이다. 중세 한국어의 불경에는 추상적 공간이 다수 등장한다는 차이점을 제외하면, (17ㄴ)의 ‘바르’는 현대 한국어 ‘바로1-2’와 근본적으로 같다. 이 둘은 동사구-부사라는 점도 동일하다.

(17ㄷ)은 여래가 ‘密因菩薩萬行修證法’을 마치고 “곧장” ‘一乘’의 도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기의 ‘바르’도 ‘直’을 나타낸다. 이처럼 “곧장”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는 이동동사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의 ‘바르’ 역시 동사구-부사로 실현된 성상부사이다.

그런데 이 “곧장”은 시간적·공간적 의미로 양분된다.<sup>17)</sup> 같은 “곧장”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예는 공간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또 다른 어떠한 예는 시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는 ‘直’의 본래적 의미에서 기인한다.

14) (17ㄱ)에서 ‘바르’에 후행하는 ‘드리’는 ‘거성-거성’으로서 “들어가다”라는 의미이다. 원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으므로 ‘들-’과 ‘들-’에 대한 활용형의 차이는 성조로만 구분이 된다.

15) 外道 三億萬이 王사 알피 드라 <월인천강지곡 상:57b-58a>, 山僧은 너를 ㄹ르차 地獄애 드로리라 <사범어언해 7b> 등 참조.

16) 安否를 묻좁고 <월인천강지곡 상:36b>, 진실로 날드려 묻도 아니히시며 <번역소화 9:46b> 등 참조.

17) 이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기술된 ‘곧장’의 뜻풀이에서도 드러난다. 아래의 1이 공간적 의미이고, 2가 시간적 의미이다.

곧장: 1.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곧바로. 2. 곧이어 바로. (『표준국어대사전』)

시작점에서 도착점까지의 공간이 일직선(直)이라는 사실은 도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곳을 들르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시간적으로 도착점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한다.

- (18) ㄱ.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곧장} 나갔다.  
 ㄴ. 학원이 끝나면 {바로, 곧장} 집으로 오너라.

(18ㄱ)의 ‘바로’와 ‘곧장’은 시간적 의미로 해석된다. 전화를 받는 행위와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시간의 틈이 거의 없이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18ㄴ)의 ‘바로’와 ‘곧장’은, 학원이 끝난 이후 PC방이나 친구 집 등을 들리지 말고 집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로 해석된다. 물론, (18)의 시간적·공간적 의미를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것이 ‘바로’와 ‘곧장’의 전형적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형적 의미와 그렇지 않은 의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8ㄱ)에서 ‘바로’, ‘곧장’의 전형적 의미는 시간이고, 부차적 의미는 공간이다.<sup>18)</sup>

중세 한국어에도 이러한 중의성이 발견된다. 앞서 언급된 (17)의 ‘바르’가 그러한데, “곧장” 어디에 간다는 것은 목표 지점에 “곧바로” 가는 것과 의미적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정상부사 ‘바로1-2’와 시간부사 ‘바로2’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의성은 문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 (19) ㄱ. 우흐로 父母 仙駕를 爲호습고 亡兒를 조처 爲호야 셨리 智慧人 구루물 트샤 諸塵에 머리 나샤 바르 自性を 스뭇 아랴샤 覺地를 문득 證호시게 호리라 호야(上爲父母仙駕호습고 兼爲亡兒호야 速乘慧雲호샤 迥出諸塵호샤 直了自性호샤 頓證覺地호시게 호야) <월인석보 1 서:18a-18b>  
 ㄴ. 그 因緣으로 人間에 다 나니 魔王이 이런 相을 보습고 시름호야 도라가니라 菩薩人 힌 터리 바르 六天에 가아 그 그테 여러 蓮人고지 나니 그 蓮人

18) 이러한 분류는 이미 후총(2017)에서 시도한 바 있다. 후총(2017)은 (18ㄱ)의 ‘바로’를 시간부사로, (18ㄴ)의 ‘바로’를 정상부사로 처리하였다. 한편, 체언 수식 부사의 전형적·부차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원경(2013)에서도 비중 있게 논의되었다. 김원경(2013)은 체언 수식 부사를 정도성 유형의 체언 수식 부사(거의, 바로, 아주, 가장 등)와 양태성 유형의 체언 수식 부사(겨우, 다만, 천생, 무려 등)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문맥에 따라 양태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양태적 의미는 부차적인 것이 되고, 후자는 문맥에 관계 없이 양태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양태적 의미는 전형적인 것이 된다. 다만, 이 글에서 사용된 ‘전형적·부차적 의미’는 이러한 정도성·양태성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고재 날굽 부테 안자 거시며 (以是因緣受罪畢訖直生人中 魔見是相 憔悴愁惱忽然還宮 白毫直至六天 見白毫孔諸寶蓮華 過去七佛在其華上) <월인석보 4:13a-13b>

ㄷ. 舍利弗아 반드기 알라 鈍흔 根 저근 智엿 사르미 相애 着흔 憍慢흔 사르믄 能히 이 法을 信티 몬흐느니 이제 내 깃거 저품 업서 諸菩薩 中에 正히 바르 方便을 버리고 오직 無想道를 니르노니(舍利弗아 當知하라 鈍根小智人 이 著相憍慢者는 不能信是法흐느니 今我 | 喜無畏하야 於諸菩薩中에 正直 捨方便하고 但說無上道흐노니) <법화경언해 1:242b>

(20) ㄱ. 모로매 문져 圓妙흔 道理를 슬퍼 섯근 것 업시 眞實하야 거흔 것 업게 흐 後에사 憍터글 發하야 只슴과 法과 서르 맞게 흐면 等覺 妙覺이 머러도 어 루 바르 나사가리라 <월인석보 2:60a-60b>

ㄴ. 聲聞을 決定히 스뵈 알면 佛慧에 바르 들리라(決了聲聞흐면 直入佛慧하리라) <법화경언해 4:102a>

(19)는 시간으로 해석되는 ‘바르’이다. (19ㄱ)은 ‘自性’을 깨달음으로써 신속하게 ‘覺地’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이때의 ‘바르’는 시간과 관련된다. (19ㄴ)도 ‘흰 털’이 “여기저기를 거치지 않고”라는 의미보다는 “시간적으로 틈이 없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19ㄷ)은 부처님이 ‘方便’을 버림으로써 ‘無想道’에 도달하였다는 의미이다. 어떠한 수단을 거치지 않음으로 “신속하게” 목표점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여기의 ‘바르’도 시간으로 해석된다. 반면, (20)은 공간으로 해석되는 ‘바르’로서, 수행하는 사람이 ‘等覺 妙覺’[(20ㄱ)]이나 ‘佛慧’[(20ㄴ)]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바르’는 종교의 특정한 경지에 이르기 위하여 번잡한 요소들을 배제한다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공간적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옆길로 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시간의 “곧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는 부차적 의미일 뿐이다.

그런데 성상부사 ‘바로1-2’는 중세 한국어에서 “직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존재한다.

(21) ㄱ. 陛下는 버텅 아래니 皇帝를 바르 몬 슬바 버텅 아래를 슌느니라 <월인석보 2:65b>

ㄴ. 實相妙法을 蓮華애 工巧히 가줄비니 안흐론 一心을 바르 마르치고 맞스론

萬境에 너비 슴츠니(實相妙法巧喻蓮華 內則直指乎一心 外則該通乎萬境 )  
 <월인석보 11:11b>

(21ㄱ)은 ‘바르’와 ‘몸 슬박’ 사이에 ‘皇帝라’ 정도의 말이 생략되어 있다. 이 문장은 신하가 황제를 직접 지칭하거나 호칭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이때의 ‘바르’는 “직접”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1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實相妙法’을 알리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는 ‘實相妙法’을 알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하나는 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것이다. 외적인 것은 ‘實相妙法’을 연꽃에 비유하는 것이지만, 내적인 것은 ‘一心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어떠한 비유를 들지 않고 직접”으로 풀이된다. (21)의 ‘바르’를 “곧장”으로 해석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앞서 본 (17)의 ‘바르’를 “직접”으로 해석하면 매우 어색하게 느껴진다. 이는 (21)과 (17)의 ‘바르’가 어떠한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直’과 관련된 중세 한국어 ‘바르’는 ‘바로1-2’(“곧장”), ‘바로2’(“곧바로”)로 해석되는데, 여기서 ‘바로1-2’는 문맥이나 서술어에 따라 “직접”, “곧장”의 의미로 세분화되는 것이다.<sup>19)</sup>

#### <1-1-2> 정도부사 ‘바르’

‘바르’가 정도성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22) ㄱ. ्ह 光이 東녀그로 비취샤 周亘호야 두려비 現호샤미 이그티 子細히 다 호샤문 智境을 바르 브터셔 諸法 實相을 보시니라(一光東照周亘圓現 如此詳悉者 直依智境示諸法實相也) <월인석보 11:37b>

ㄴ. 내 願호되 일로 流布호되 다울 업시 호리라 호니 그 敎化혼 사르미 엇데 億萬 썩르미리오 바르 호 燈이 百千燈에 브터 어드운 짜히 다 밝게 호되 불고미 내종내 다오디 아니호미 곧호니라(我願以此로 流布無窮호리라 호니

19) (21)에는 발화동사(畵-)와 지시동사(ㄱㄷ치-) 앞에 “직접”의 ‘바르’가 쓰였다고 하여, 발화동사와 지시동사가 “직접”의 의미를 지니는 ‘바르’를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 문맥에 따라 “곧장 말하다”, “곧장 가리키다”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술어에 따라 부사의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술어가 부사의 의미를 무조건적으로 고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其所化人이 何啻億萬이리오 直如一燈이 然百千燈호야 使冥者 | 皆明호되  
而明이 終不盡호니라) <능엄경언해 1:4b-5a>

(22ㄱ)은 ‘NP를 바르 붙-’ 구문으로서, ‘바르’는 ‘붙-’의 정도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22ㄴ)은 두 문장으로 나뉘기는 하였으나, 실은 ‘NP<sub>1</sub>이 바르 NP<sub>2</sub>이 곧 호-’ 구문에 해당한다. ‘바르’를 기준으로 하여 NP<sub>1</sub>과 NP<sub>2</sub>는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유사성은 정도성을 지니기 때문에 이때의 ‘바르’도 정도성 서술어를 수식한다.<sup>20)</sup> 원문의 ‘直依’나 ‘直如’는 모두 특정한 대상과 대상 사이에 방해물이 없이 틈이 매우 조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2ㄱ)의 ‘바르’는 표면상 동사-부사로 보이기 때문에 ‘바르’가 동사-부사인지 동사구-부사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붙-’은 ‘~애, ~을, ~익그에’ 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동사구-부사에 해당하므로,<sup>21)</sup> (22ㄱ)의 ‘智境을 바르 브터셔’는 ‘바르 智境을 브터셔’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2ㄱ)의 ‘바르’가 동사-부사로 실현된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다. 하나는 현대 한국어처럼 동사구-부사가 자유롭게 동사-부사로 쓰일 수 있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언해문의 직역 태도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안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중세 한국어의 언해는 직역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러한 직역은 때로는 우리말의 어순이나 특징을 무시하고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중세 한국어의 한문 원문에서 ‘直...’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바르 ...’로 언해되었던 것이다. ‘直’에 후행하는 한자의 성분에 따라 ‘直’은 동사(구)-부사, 명사구-부사로 달리 해석되어야 하는데, 무조건적인 직역으로 의하여 언해문만으로는 이러한 구분이 불가능하다.<sup>22)</sup> 따라서 현대 한국어는 체언에 선행하는 부사와 그렇지

20) ‘곧호-’ 구문은 ‘동등비교구문’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한제영 1996, 김정아 1998). 정도의 차이를 표시하는 부사들은 비교 구문에서 그 특성이 잘 드러나는데(백채원 2010: 55~67), ‘곧호-’ 구문에 쓰인 ‘바르’도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21) 아래의 예를 참고한다.

ㄱ. 그윽 것과 아랴 거시 제이곰 싸해 브터셔 줌겨 저저 하늘 ㄱ마리 업도다(公私各地著 浸潤無天) <두시언해 초간본 7:36b-37a>

ㄴ. 오직 妄量엿 ㄱ스미 문득 니러나뉘 브트면 識境이 난것 뒤여 나가든(只緣妄心이 瞥起호면 識境이 競動호거든) <월인석보 1 서:3a>

ㄷ. 나는 어버시 여희오 ㄴ딴그에 브터 사로되(使我母子守孤抱窮) <석보상절 6:5a>

22) 경우에 따라 ‘바르’가 문두에 존재하여 마치 문장 부사처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실도 부사 ‘바르’의 성격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많은 부사가 표면적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중세 한국어는 그렇지 못하였다. 즉, 체언에 선행한 ‘바르’가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저 뒤에 있는 서술어를 수식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한문 원문으로만 확인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모호성이 체언에 선행하는 ‘바르’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된다.

(22ㄴ)의 ‘바르’ 역시 동사구-부사이다. 요컨대, (22)의 ‘바르’는 현대 한국어 정도부사 ‘바로3-1’과 근본적으로 같은 구성이다. 이런 ‘바르’는 일부 용언 앞에 쓰여 “매우 가까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정도성과 관련하여 ‘바르’가 체언에 선행한 경우도 확인된다.

- (23) ㄱ. 바르 北<sub>노</sub> 關山<sub>안</sub> 鍾과 桴 소리 振動<sub>호</sub>엿고 西<sub>니</sub>녀그로 征伐<sub>호</sub>는 車馬<sub>는</sub> 羽書<sub>ㅣ</sub> 더디도다(直北關山金鼓振 征西車馬羽書遲) <두시언해 초간본 6:8a>  
 ㄴ. 구루미 희오 피히 프른 萬餘 里로소니 바르 北<sub>이</sub> 이 長安<sub>이</sub>론 고들 시름<sub>호</sub> 야 보노라(雲白山靑萬餘里 愁看直北是長安) <두시언해 초간본 11:11b>

원문의 ‘直北’을 감안하면, 위의 ‘바르’는 문장 내의 특정 서술어를 수식한다고 보기 어렵다. 용언을 수식하는 ‘바르’는 한문 원문에서 ‘直+V’의 구성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바르’에 후행하는 체언은 화자나 서술자의 주관적 인식을 포함하는데, 이는 정도성이라 부를 만하다. 실질적 거리나 심리적 거리도 모두 이러한 정도성에 포함된다. “바로 {앞에, 뒤에, 위에} 학교가 있다”에서, ‘바로’의 수식을 받는 위치는 모두 화자의 인식에 따른 정도성을 지니는 말이다. 이때의 ‘바로’는 피수식어에 관계없이, 화자를 중심으로 한 기준점과 ‘학교’라는 끝점 사이가 “(화자가 생각하기에) 매우 가까움”을 의미한다.<sup>23)</sup> ‘바르 北<sub>노</sub>’에 대한 해석도 이와 동일하다. 즉, [+정도성]인 체언을 수식하는 ‘바르’는 정도부사이고, 정도성을 지닌 대상(‘바르’에 후행하는 성분)은 의미적으로 ‘正’이 아닌 ‘直’과 관련된다.

(23ㄴ)은 ‘바르’가 방위 명사에 직접 선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 한국어라면 (23ㄱ)만 적격문이 되겠지만, 중세 한국어에는 “正<sub>히</sub> 北<sub>으로</sub> ㄴ<sub>라</sub>가<sub>매</sub>”(正北飛)<두시언해 초간본 17:21a>’가 있는 것으로 보아, 중세 한국어 ‘바르’에는 고유어나 고유어가 포함된 방위 명사만 수식한다는 제약이 없었던 듯하다. 이 ‘바르’는 현대 한국어 정도부사 ‘바로3-2’[“(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와 동일하고,

23)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므로 이 의미는 ‘直’의 본래적 의미와 밀접하다.



명사구-부사라는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는 ‘바로1-1’과 ‘바로4’로 처리할 만한 적극적인 예가 보이지 않는다. ‘바로1-1’은 ‘直’의 주요 의미(“곧게”)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시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는 우연한 공백일 것으로 생각한다. 초점부사 ‘바르’는 체언을 수식의 작용역으로 삼는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에서 ‘바르’가 체언을 직접 수식하는 경우는 정도부사의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비전형적 환언에서 ‘바르’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지만, “A{이, 는} 바르 B이라” 구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초점부사 ‘바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것은 자료의 한계에 의한 우연한 공백일 수도 있고, 언어 내적인 요인에 의한 체계적 공백일 수도 있다. 그런데 비전형적 환언문에 관한 한 ‘바르’와 ‘곧’은 유의어였고, “A{이, 는} 곧 B이라” 구문이 생산적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중세 한국어의 초점부사 ‘바르’는 ‘곧’에 의하여 대신 구현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sup>24)</sup> 편의상, 중세 한국어 초점부사 ‘바르’는 체계적 공백으로 처리해 둔다.

#### <1-2> ‘正’의 의미로 쓰인 ‘바르’

‘正’의 추상적 의미는 “기준에 맞거나 어그러지지 않게”로서, 이는 실제 문장에서 “올바로”의 의미로 현현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의미는 ‘正’과 관련한 ‘바로’의 주요 의미가 된다(<표-1> 참조). 기준에 맞거나 옳고 바르다거나 하는 기준은 화자나 서술자에 의한 것으로서, 대체로 문맥에 의하여 확인된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 그것은 “올바른” 것으로 이해되고,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正’과 관련된 현대 한국어 ‘바로’의 의미는 ‘바로1-3’(“올바로”)과 ‘바로1-4’(“있는 그대로”)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바로1-3’이 주종을 이루고, ‘바로1-4’는 찾기 어려운데, 이것도 문헌의 제약에 따른 우연한 공백으로 보인다.

- (24) ㄱ. 아기를 누이고 우회 제 옷 돕고 보로기로 동이고 오좁 바들 박을 그 굵기  
바르 노코(着孩兒臥着 上頭蓋着他衣裳 着縹子絳住了 把溺葫蘆正着那窟籠裏  
放了) <번역박통사 상:56b>

24) 이는 ‘곧’ 부분에서 설명된다.

- ㄱ'. 아히로 히여 누이고 우희 제 옷 덮고 빅보로기 먹고 오줌 누는 박을다가 바로 더 굵기 노코 <박통사언해 상:50b-51a>
- ㄱ". 아히를다가 안히 누이고 우희 저근 니블을다가 덮혀(把孩兒睡在裏頭 上邊把小被盖着) <박통사신석언해 1:55a>
- ㄴ. 프레 주근 사르미 반날만 디나니여든 큰 독을 짜해 업고 그 주근 사르미 빅를 독 우희 업더이고 저고매 브를 독 안해 뛰워 주근 사르미 가스물 바로 다하면 아니 한 스시에 도기 더워 이브로 프리 다 나면 즉재 썬리니 너 무 덤게 말라(溺水死已經半日 取大壘覆地以溺死人腹伏甕上 以微火於甕下燃之正對死人心下 須臾甕煖口中水出盡即甦 勿令過熱) <구급간이방언해 1:69b-70a>
- ㄷ. 論語의 ㄹ로되 님금이 바블 주어시든 모로매 듯글 바른 히고 몬져 맞보시며 님금이 놀고기를 주어시든 모로매 니겨 조상씨 薦히시며 님금이 산 것슬 주어시든 모로매 치더시다(論語에 曰 君이 賜食이어시든 必正席先嘗之히시고 君賜腥이어시든 必熟而薦之히시고 君賜生이어시든 必畜之러시다) <번역소학 3:6b-7a>
- ㄷ'. 論語의 곶오되 님금이 음식을 주어시든 반드시 듯글 바른 히고 몬져 맞보시고 님금이 놀고기를 주어시든 반드시 니켜서 제히시고 님금이 산 것슬 주어시든 반드시 기르더시다 <소학언해 2:41a>
- ㄷ". 君이 食을 賜히야시든 반드시 席을 正히 히고 몬져 嘗히시고 君이 腥을 賜히야시든 반드시 熟히야 薦히시고 君이 生을 賜히야시든 반드시 畜히더시다 <논어언해 2:59b>

(24ㄱ)은 아기가 오줌을 눌 때를 대비하여, ‘오줌 받을 박’을 아기의 살에 두라는 조언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저귀 채우는 법으로서, 박을 오줌이 나오는 해당 부위에 ‘정확하게’ 두라고 말한 것이다. (24ㄴ)은 익사할 뻔한 사람을 구하는 방법이다. 독을 뒤집고 그 안에 불을 피운 뒤, 따뜻한 독의 바닥 위에 환자의 가슴을 올린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때의 ‘바른’은 환자를 ‘독의 바닥’에 ‘정확하게’ 위치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24ㄷ)은 임금으로부터 음식을 받을 때의 예법을 설명한 부분이다. 신하가 임금을 대할 때에는 법도가 있으므로, 그 법도에 잘 맞도록 행동해야 하는 것과 관련된 말이 ‘바른’이다. 이처럼 (24)는 “어떠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옳고 정확하게” 또는 “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라는 의미를 지닌다.<sup>25)</sup> 이

25) ‘바른’의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의술이나 왕실의 법도는 그 기준이나 규정이

는 현대 한국어 ‘바로1-3’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바르’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동사-부사이지, 동사구-부사일 수는 없다.

그런데 「번역박통사」에서는 ‘오줌 바들 박을 그 굵기 바르 노코’가 「박통사언해」에서는 ‘오줌 누는 박을다가 바로 더 굵기 노코’로 언해되어 있다. 전자의 ‘바르’는 동사 ‘노코’를 작용역으로 하는 ‘正’의 의미가 분명하지만, 후자의 ‘바로’는 동사구 ‘저 굵기 노코’를 작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sup>26)</sup> 이 대목에서 후자의 ‘바로’를 ‘바르게’로 대치하여 이 문제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편의상 예문은 현대 한국어로 대치함).

- (25) ㄱ. 오줌 누는 박을 바로 저 구멍에 놓고
- ㄴ. 오줌 누는 박을 바르게 저 구멍에 놓고
- ㄴ'. 오줌 누는 박을 저 구멍에 바르게 놓고.

현대 한국어라면 (25ㄱ)의 ‘바로’는 ‘直’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sup>27)</sup> ‘正’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sup>28)</sup> 반면, ‘바르게’에는 시간부사어나 초점부사어 용법이 없으므로 (25ㄴ, ㄴ')은 ‘正’으로만 해석된다.

표면상 동사구-부사처럼 보이는 (24ㄱ')의 ‘바로’도 ‘正’ 관련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때의 ‘바로’(正)는 동사구-부사이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의 동사-부사인 ‘바로’(正)와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24ㄱ')은 언해 과정에서 온 잘못이거나 예외로 생각된다. (24ㄴ, ㄴ)에서 보듯, ‘正’의 의미를 지닌 ‘바르’는 동사-부사로만 쓰이지 동사구-부사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를 아래에서 정리해 본다.

---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24ㄴ, ㄴ)에는 엄격함이 연상된다. 그런데 (24ㄱ)에는 그러한 엄격함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대체로 (24ㄱ)은 사리나 원리와 관련된 기준이고, (24ㄴ, ㄴ)은 법식이나 규정과 관련된 기준이다. 후총(2017)이나 일부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전자를 ‘성상부사(“옳고 바르게, 또는 정확하게”)'로, 후자를 ‘성상부사(“정해진 격식이나 규정, 기준 등에 맞도록 어긋나지 아니하게”)'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의미는 ‘正’으로서 동일한 것이다.

26) 중국어 원문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후자의 ‘바로’는 ‘더 굵기’를 작용역으로 하는 초점부사로 이해될 정도이다.

27) 시간부사(동사구-부사)인 ‘바로2’(“곧바로”)나 초점부사(명사구-부사)인 ‘바로4’(“다름 아닌”)로 해석된다.

28) 성상부사(동사-부사)인 ‘바로1-3’(“올바로”)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26) ㄱ. 주근 사르미 가스물 바르 다히면 [(24ㄴ)의 일부]  
 ㄴ. 바르 주근 사르미 가스물 다히면
- (27) ㄱ. 모로매 돛글 바르 흐고 몬져 맛보시며 [(24ㄷ)의 일부]  
 ㄴ. 모로매 바르 돛글 흐고 몬져 맛보시며

일반적으로 중세 한국어 ‘直’은 (26ㄴ)처럼 동사구-부사로 언해되었는데, 동사구-부사는 어순재배치에 의하여 (26ㄱ)과 같은 동사-부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 원문을 배제한 채 언해문만 놓고 보면, (26ㄱ)의 동사-부사 ‘바르’는 ‘正’에 해당하겠지만, 어순재배치를 경험한 ‘直’으로도 해석된다. 이처럼 동사-부사인 ‘바르’가 중의적이라는 사실은 오늘날와 동일하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 동사구-부사 ‘바르’는 대부분 ‘直’을 언해한 경우이므로, 동사-부사 ‘바르’는 전적으로 ‘正’을 언해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27ㄱ)의 ‘흐-’를 ‘整備흐-’ 정도로 풀이하면, 이때의 ‘바르’ 역시 ‘正’으로 해석되는 동사-부사(“올바로”)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正’의 의미와 관련된 중세 한국어 ‘바르’는 동사-부사였다.

(24ㄷ, ㄷ’, ㄷ”)은 같은 내용이 문헌에 따라 달리 언해된 예이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서는 ‘正’이 ‘바르’로 언해되었지만, 「논어언해」에서는 ‘正히’로 언해되어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正’은 ‘바르’보다 ‘正히’로 언해되기에 이르는데, 이것은 ‘바르’가 ‘直’의 전용 언해 표현으로 인식되는 것과 연관이 있을 듯하다(후술됨).

한편, ‘正’ 관련 ‘바르’의 의미 중에서, 성상부사 ‘바로1-4’(“있는 그대로”)의 예는 찾아지지 않는데, 이것은 문헌의 한계로 인한 우연한 공백일 것으로 생각한다.

### <1-3> 우연한 공백인 의미

앞에서 중세 한국어 ‘바로1-1’(“곧게”)과 ‘바로1-4’(“있는 그대로”)가 발견되기 어려웠으며, 그것은 우연한 공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전자는 한문 원문의 ‘直’과, 후자는 한문 원문의 ‘正’과 관련된 의미이지만, 모두 중세 한국어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아래에서는 이 의미 체계상의 우연한 공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바로1-1’과 ‘바로1-4’의 공백은 부사 ‘고디’의 존재와 관련된다. 중세 한국어 ‘고디’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당하는 부사였기 때문이다.

- (28) 고디 셔도 머리 사해 드리코(直立<sup>ㅎ</sup>야도 頭垂地<sup>ㅎ</sup>고) <금강경삼가해 3:22a>
- (29) ㄱ. 내 너교디 다몬 佛乘뎌 讚嘆<sup>ㅎ</sup>면 衆生이 고디 듣디 아니<sup>ㅎ</sup>야 惡道에 빠러 디리니 출히 說法 마오 涅槃에 어서 드사 고디로다(我卽自思惟 若但讚佛乘 衆生沒在苦 不能信是法 破法不信故 墜於三惡道 我寧不說法 疾入於涅槃) <석보상절 13:58a>
- ㄴ. 이제 남진 고디 일코 고디오삿 모물 쥬변 못<sup>ㅎ</sup>며 고디물며 王<sup>쥬</sup> 쥬 드습거니 엇데 거스스<sup>ㅎ</sup>별리잇고 커니와 오노른 避<sup>ㅎ</sup>홀 이리 이실쥬 다른 나를 기드리쇼셔 王이 고디 드리 그리 고디라 고디야시늘(今良人已失 獨身不能自持 況爲王御 豈敢相違 今有所避 請俟他日 王信而許之) <삼강행실도 열녀도:30b>
- ㄷ. 다시 싱각히여도 부쳐 스이 둥커니 믿던 일 거즈 이리라 히여도 는 고디 아니 듣다니 고디 나히나 저머시면야 더도록 설오라 <순천김씨언간 73>

(28)과 (29)의 ‘고디’는 각각 ‘바로1-1’(“곧게”)과 ‘바로1-4’(“있는 그대로”)에 해당한다.<sup>29)</sup> 특히, (29)의 ‘고디 듣-’은 원문의 ‘信’에 대한 언해로서, 오늘날의 ‘곧이 듣-’이나 ‘곧이곧대로 듣-’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고디’에는 ‘바로1-1’과 ‘바로1-4’ 외의 다른 의미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로’는 ‘고디’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부사로 볼 수 있다.

‘바로1-1’과 ‘바로1-4’의 공백은 다른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바로1-4’의 ‘고디’는 거의 대부분 ‘듣-’만을 수식하였는데, 이는 ‘바로1-4’의 ‘고디’가 매우 제한된 작용역을 지녔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바로1-4’는 주로 발화동사와 호응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의미로서, ‘듣-’만을 수식하는 ‘고디’에서는 그러한 용법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바로1-4’의 공백에는 다른 요인도 작용하였음을 암시한다.<sup>30)</sup> 여기서 말하는 ‘다른 요인’이란 중세 한국어의 언해와 관련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 문헌은 대다수가 불경이다. 불경은 대표적인 문어로서 구어에서 등장할 만한 표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고, 문헌 특성상 종교적 해석과 표현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다. 먼저, ‘直’의 의미를 지닌 ‘바로’가 어떻게

29) 원문에 나타난 것처럼 (28)의 ‘고디’는 그 단독으로서 ‘直’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반면, (29)의 ‘고디’는 원문의 ‘信’을 번역한 ‘고디듣-’의 일부로서 ‘正’의 의미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29)의 ‘고디 듣-’은 ‘부사+동사’의 구성이 아닌, ‘고디듣-’이라는 합성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여기에서는 ‘고디#셔-’(‘#’은 단어 경계임)가 존재한다는 점, ‘고디듣-’도 기원적으로 ‘고디’와 ‘듣-’의 결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디#듣-’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편의상의 조치이다.

30) ‘바로1-1’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후술한다.

전형적으로 해석되는지를 살펴보자.

- (30) ㄱ. 大覺尊이 本來 흔 字도 세디 아니흐샤 人心을 바르 ㄴ르치거시닐 須菩提  
근업시 特別히 일흠 지후물 請흐스 와 強히 가지 ㄴ디를 내도다(大覺尊이  
本來不立一字흐샤 而直指人心이 어시닐 須菩提 | 無端히 特請標名흐스 와 而  
強生枝節흐도다) <금강경삼가해 3:15a>
- ㄴ. 阿難아 네 이제 眞實스 三摩地를 닷가 바르 如來스 大涅槃에 가고져 흥넌  
몬져 받드기 이 衆生 世界의 두 顛倒因을 아롬디니(阿難아 汝 | 今에 欲修  
眞三摩地흐야 直詣如來스 大涅槃者 ㄴ덴 先當識此衆生世界의 二顛倒因이니)  
<능엄경언해 7:70b>

불교 문헌에서는 어떠한 경지에 ‘바로’ 도달할 것이 강조된다. 예컨대, 여러 가지  
번뇌가 수행자를 방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번뇌에 빠지지 않고 ‘곧장’ 득도나 열반  
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맥에서는 ‘바르’가 ‘바로1-2’  
 (“곧장”)나 ‘바로2’ (“곧바로”)로 해석될 뿐, ‘바로1-1’ (“곧게”)로는 해석되지 않는  
다.<sup>31)</sup> (30ㄱ)에서 ‘大覺尊’은 ‘文字’라는 수단을 거치지 않고 ‘人心’을 가리키므로,  
이 ‘바르 ㄴ르치-’는 “곧장/직접 가리키다”이지, “곧게 가리키다”로 해석될 수 없다.  
이동동사가 나타난 (30ㄴ)도 위와 동일하게 풀이된다. 이처럼 불경 문헌의 ‘直’은  
‘바로1-1’로 해석될 만한 여지가 없었다.

대체로 발화동사와 어울리는 ‘바로1-4’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의미상 ‘直’  
보다는 ‘正’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正’의 의미를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  
르’가 아니라 ‘正히’였다.

- (31) ㄱ. 諸法の 寂滅相은 말로 펴디 묻고 오직 方便으로 여러 뵈야 제 아라 들에  
흐야샤 흔릴씩 아래 正히 니르산 文字에 다몬 니르샤디 이 근흔 妙法은 諸  
佛如來 時節에샤 니르시느니라(蓋諸法寂滅相不可以言宣 唯在方便開示 使自  
悟入 故 下正說之文 但云 如是妙法諸佛如來時乃說之) <월인석보 11:93b>
- ㄴ. 부테 니르샤디 ㄴ장 도타 흰히 묻는다 내 正히 니르고져 커늘 네 이제 쏘  
묻는다(佛言 大善快問 我正欲說 汝今復問) <월인석보 23:97a>

31) 원문의 ‘直’을 고려하면 이때의 ‘바르’는 ‘바로1-4’ (“있는 그대로”)로 해석되기 어렵다.

(31)은 ‘正+발화동사’ 구문인데, 이때의 ‘正’은 ‘바르’가 아닌 ‘正히’로 언해되었다. 그런데 이때의 ‘正히’는 ‘바로1-3’(“올바로”)으로 해석될 수는 있어도 ‘바로1-4’(“있는 그대로”)로는 해석되지 않는다.<sup>32)</sup> 불교 문헌 특성상 ‘바로1-4’가 등장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물론, ‘直’의 의미를 지닌 ‘바르’가 발화동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32) ㄱ. 華嚴에 니르샤디 初地菩薩은 해 閻浮提王이 드외오 二地는 輪王이오 六欲과 三梵天王에 니르로미 이라 이는 바르 論호샤미 호마 ㄹ츠신 전츠로 通히 結호야 ㄹ르치시니라(華嚴에 謂호샤디 初地菩薩은 多作閻浮提王호고 二地는 輪王이오 乃至六欲三梵天王이 是也)라 此는 豎論이 已終故로 通結指호시니라) <능엄경언해 9:31b-32a>

ㄴ. 法性은 諸法스 性이니 호다가 本體를 바르 닐올던덴 일후미 覺性이오 호다가 差別호 法을 推尋호야 窮究홀던덴 다 自體 업서 호 性에 곤호니 곤 일후미 法性이라(法性者는 諸法之性이니 若直譚本體ㄴ덴 則名覺性이오 若推窮差別之法인덴 皆無自體호야 同於一性호니 卽名法性이라) <원각경언해 하 3-1:5b-6a>

‘直+발화동사’ 구문에서 ‘直’은 ‘바르’로 언해된다.<sup>33)</sup> 그런데 이때의 ‘바르’는 ‘正’의 의미가 아니므로 애초에 ‘바로1-4’의 의미를 지닐 수가 없었다. 불교 문헌에서 발화동사와 함께 등장하는 ‘바르’는 대체로 ‘바로1-2’(“곧장”, “직접”)로 해석될 뿐, ‘바로1-4’로는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 ‘바로1-4’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의미 역시 실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로 이후 시기에 ‘바로1-4’가 등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의미의 공백은 자료의 한계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4>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바르’

문헌에 따라 의미가 편재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래의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불경 이외의 서적에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바르’의 일부 의미가 간취된다.

32) ‘正히’의 하위 의미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3) (32ㄱ)의 ‘바르’는 ‘豎’에 대한 언해인데, ‘豎’ 역시 “直”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였다.

- (33) ㄱ. 王子 | 언 比干은 쏘 紂의 권당이라 箕子 | 諫하다가 듣디 아녀늘 좃 되옵  
을 보고 곧 곧오되 님금이 허물이 잇거시든 죽으모로써 간티 아니하면 곧  
百姓은 므슴 죄오 하고 말씀을 바르 하야 紂를 諫한대(王子比干者는 亦紂  
之親戚也 | 라 見箕子諫不聽 而爲奴하고 則曰 君이 有過 而不以死爭이면 則  
百姓은 何辜오 하고 乃直言諫紂한대) <소학언해 4:26a-26b>
- ㄴ. 쏘 工巧한 匠人이 아히 모기 건 낙슬 아소되 고티를 돈 ㄴ티 브리고 네  
면을 쭈드려 보드랍게 하고 기르므로 저지고 가온되 혼 구무 들워 몬져 낮  
긴혜 빼오 버거 念珠 세다섯 나출 빼오 아히로 바르 앓고 입 버리게 코 점  
점 念珠를 더 미리 모기 다든게 하야 낮 미온 되 니른가 식브거늘 아래로  
흔 변 미니(又方巧匠取喉鉤 將繭剪如錢 大用物搥四面令軟 以油潤之 仍中通  
一竅先穿上鉤線 次穿數珠三五枚 令兒正坐開口漸添引數珠挨之到喉 覺至繫鉤  
處 乃以向下一推) <구급방언해 상:48a>

(33ㄱ)은 신하가 임금에게 직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원문에 ‘直’이 쓰였고, 그 뒤에 체언이 아닌 용언이 온 이상, ‘바르’의 의미는 ‘바로1-1, 바로1-2, 바로2, 바로3-1’ 중 하나의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이 중에서 가장 근접한 의미는 ‘바로1-1’(“곧게”)이다. 신하가 한 치의 비뚤어짐도 없이 간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sup>34)</sup>

하지만 이때의 ‘直言’은 ‘正’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즉, 정치를 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이 있고 그것에 벗어나지 않도록 간언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3ㄱ)은 “신하가 임금께 말씀을 {바르게, 올곧게} 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다. 이때의 ‘바르-’는 ‘正’의 본유적 의미(바로1-3)에 해당하고, ‘올곧-’은 ‘直’의 본유적 의미가 가미된 ‘正’의 의미(바로1-1)에 해당한다.

(33ㄴ)은 아이의 목에 걸린 가시를 빼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원문의 ‘正’을 감안하면, 이 ‘바르’의 의미는 ‘바로1-3, 바로1-4’ 중의 하나이다. 엄격하고 세밀한 의술의 과정이므로 이때의 ‘바르’는 ‘바로1-3’(“올바로”)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만 목에 걸린 가시를 빼는 것은 자세(특히 목 부위)를 ‘곧게’ 하는 것과 밀접하기 때문에(바로1-1), 이때의 ‘바르’는 ‘直’으로도 해석된다. 따라서 (33ㄴ)은 “아이를 똑바로 앓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4)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위의 네 가지 ‘바로’ 중 ‘바로1-1’만이 동사-부사이고, 나머지 세 가지는 동사구-부사라는 점이다. ‘바로’의 세부 의미가 통사 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33)의 ‘直’과 ‘正’은 본유적 의미를 지니면서도 서로의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直’과 ‘正’의 의미가 그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불어 (33)은 문헌 자료에 따라서 ‘直’과 ‘正’의 모든 의미들이 고르게 분포될 수 없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지금까지 언급한, 중세 한국어 ‘바르’의 용법을 현대 한국어 ‘바로’와 견주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2> 현대 한국어 ‘바로’와 중세 한국어 ‘바르’의 비교

원문의 한자	현대 한국어	중세 한국어	의미		문법적 분류
直	바로1-1	우연한 공백	성상	곧게.	동사-부사
	바로1-2	바로1-2	성상	곧장.	동사구-부사
	바로2	바로2	시간	곧바로.	동사구-부사
	바로3-1	바로3-1	정도	(일부 용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동사구-부사
	바로3-2	바로3-2	정도	(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명사구-부사
	바로4	체계적 공백	초점	(일부 체언 앞에서)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正	바로1-3	바로1-3	성상	올바로.	동사-부사
	바로1-4	우연한 공백	성상	있는 그대로.	동사-부사

## <2> 근대 한국어 이후의 ‘바르’

중세 한국어 ‘바르’는 별다른 변화 없이 근대 한국어로 이어졌다. 다만, 이 시기에는 일부 체언을 수식하는 정도부사 ‘바로3-2’ (“매우 가까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바르 北嶽 關山, 바르 北’ 정도의 예만 발견된 데서 알 수 있듯이, ‘바로3-2’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용법은 중

세 한국어에서도 있었고 현대 한국어에서도 그 쓰임이 확인되기 때문에, 근대 한국어에서도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대 한국어에는 이전 시기에 적극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바로’(<바르>)의 의미들이 차례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아래에서는 각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근대 한국어 ‘바로’에 대하여 살펴보겠다.<sup>35)</sup>

#### <2-1> ‘直’의 의미로 쓰인 ‘바로’

‘直’과 관련된 근대 한국어 ‘바로’에는 <표-2>에 제시한 현대 한국어 의미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우연한 공백이라 표현한 ‘바로1-1’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고, 19세기 말엽에 이르면 ‘바로4’(초점부사)도 확인된다.

##### <2-1-1> 정상부사 ‘바르’와 시간부사 ‘바르’

먼저,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하기 어려웠던 ‘바로1-1’(“곧게”)부터 살펴본다.

- (34) ㄱ. 평일 제도 시위 아녜던 사름이오 곱디 아닌 양즈의 취여 들고 바로 안자 감히옵기 어렵고 젓스온 일이로되 ㄱ장 도흔 양 혀여 툇 취여 들고 번드시 나아 안거늘 <계축일기 하:26a>
- ㄴ. 윈 녘피 흰 털이 바르 올라 이시면 일흠을 골운 칼홀 춘 거시라 혀느니 사름의게 도티 아니혀니라(左脇에 有白毛 | 直上 혀면 名曰帶刀니 不利人이오) <마경초집언해 상:8b>
- ㄷ. 혀 편 밧탕은 드는 은을 언소 혀 편 밧탕은 약과 모양 ㄱ흔 방정혀 쥬석을 언즈니 그 우히 근냥을 찢느니라 저울씨를 바로 혀야 은 근냥이 쥬석 무게와 ㄱ흐를 알게 혀미라 <을병연행록 1:45b>
- ㄹ. 혀 부인이 나히 설흔 나쁜의 역질혀느니 이서 역질이 쾌히 나디 아니혀고 눈을 톱쓰고 기운이 천축혀고 목의 담이 막커 온몸을 움즈기디 못혀야 혀 주검이 되여시니 사람이 츠마 바로 못 불러라(有一婦人年近三十而患痘痘 不快出目竄氣喘 喉痰用事四體不動 爲一臥屍令人不忍正視) <두창경험방 35b>

35) 17세기 자료에는 ‘바르’로 많이 표기되었으나 18세기 이후로는 ‘바로’의 표기가 훨씬 자주 등장하였는바, 아래에서는 ‘바로’로 표기하여 설명하겠다.

(34ㄱ)은 화자가 반갑지 않은 인물(궁중 나인)과 한 자리에 있는 장면이다. 화자는 나인과 시선을 맞추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므로 여기의 ‘바로’는 “똑바로”, “꼭꼭하게”로 해석된다. (34ㄴ)은 말의 털이 “곧게” 서 있는 것을 언급한 부분이고, (34ㄷ)은 무게를 ‘정확히’ 달기 위해서 저울대를 “곧게” 한다는 내용이다. (34ㄹ)은 역병에 걸려 죽은 시신을 응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로서, 오늘날로 치면 “차마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기 어려움”에 해당한다. 한문 원문에 ‘直’이 아닌 ‘正’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한데, 이는 앞서 언급하였던 ‘直-正’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과 관련된다. (34ㄱ, ㄷ)은 한문 원문이 없지만 여기에 등장한 ‘바로’는 모두 ‘直’에 해당한다.

다음은, 성상부사 ‘바로1-2’(“곧장”, “직접”)의 예이다.

- (35) ㄱ. 나는 집으로 바로 내려 가고 아기 다른 덕 가 든녀갈 덕 이시니 양식과 물  
콩을 보내소 <현풍곽씨언간 104-19>  
 ㄴ. 너게 락매를 마초고져 헛덕 날드려 바로 말하기를 어려워 너여 니익드려  
 니르는가 시브더라 <을병연행록 8:58b>  
 ㄷ. 게으른 계집의思量홀 줄을 아디 못호고 黃昏의 혼 번 자매 바로 하늘 빛  
 나기썬지 니르려 날이 三丈이 높도록 오히려 床의 썬나디 못호다가 날어  
 오매 이뉘 느저실식(莫學懶婦의 不解思量호고 黃昏一學에 直到天光호야 日  
 高三丈토록 猶未離床이라가 起來已晏일식) <여사서언해 2:11b>

(35ㄱ)은 ‘곽주’와 ‘곽주의 자녀’의 동선을 비교함으로써 ‘바로’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곽주의 자녀’는 다른 데를 들렀다가 집으로 가지만, ‘곽주’는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것이다. (35ㄴ)은 어떤 사람이 화자에게 말을 바로 하지 못하고, ‘니익’이라는 인물을 통해 말을 전달하려는 상황이다.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으므로 “곧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얼굴을 마주 보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35ㄷ)은 게으른 사람이 한번 잠을 자면, 다음날 낮까지 쪽 잠을 잔다는 내용이다. 어떠한 방해를 받거나 도중에 깨면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의 ‘바로’도 “곧장”으로 해석된다. ‘바로1-2’는 시대를 불문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의미이다.

근대 한국어 자료에는 ‘바로2’(“곧바로”)의 예도 다수 확인된다.

- (36) ㄱ. 최씨는 강능부 사름이니 첨디 덩곤의 안해라 성되 지극히 효도롭더니 흘른 지비 블브터늘 바로 모딘 불곤 가운데 드러가 늘근 어미를 업고 힘이 약하야 시러곰 나디 못하야 어미와 쫓이 혼디 주그니라 공헌대왕도애 정문하시니라(崔氏江陵府人僉知鄭崑之妻也 性至孝 一日家失火 直入烈焰中 負老母力弱不得出母女同死 恭憲大王朝旌門)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4:88b>
- ㄴ. 김가 관원이 스형을 제 집의 잠간 쉬여 차를 권코자 하니 스형이 불안하다 하여 아니 드러가니 계뵈 쏘흔 바로 도라가시고 나는 주인 집으로 다시 드러가 차 두어 그르슬 먹고 도라올시 <을병연행록 2:60b>
- ㄷ. 화성돈이 굴기하야 모단 부락을 합하야 강흔 영국을 썩그니 이에 영국 사름이 동으로 오인도를 아올나 바로 동양 제국의 압핍하니 미양 혼 번 빠함을 지닌디 판국 형세도 변하며 인지도 썩혀 나는지라(及華盛頓崛起自立 合衆部以挫強英 於是英人 乃東併五印度 直逼東洋諸國 每經一戰 局勢詭變 人材挺生) <이언언해 1:2a>

‘바로2’는 문맥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36ㄱ)은 아주 긴박한 상황이므로 이 경우 ‘바로’는 “지체없이”로 해석된다. (36ㄴ)은 앞의 경우만큼 긴박하지는 않으나 그래도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고, (36ㄷ)은 이들 예 중에서 시간 간격이 가장 느슨하다. ‘바로2’도 문헌의 종류나 시기에 관계없이 자주 등장하였다.

#### <2-1-2> 정도부사 ‘바로’

정도부사는 일부 용언이나 체언 앞에 쓰이지만, 그 의미는 “매우 가까이”로서 동일하다. 다만, 문헌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도부사 ‘바로’의 예는 소수에 그친다.<sup>36)</sup>

- (37) ㄱ. 덩특 이월 십삼일의 정성왕후겨오셔 숙환이 졸연 등호오셔 슈조가 다 프르 오시고 토혈호오신 거시 혼 요강이나 되논디 빗치 바로 불근 피는 아니오 검고 이흔 거시 쇼시브터 적년 모히오신 거시 나오신지 <한동록 2:32b>

36) 아래의 ‘바로’는 정도부사나 시간부사로 처리될 수 있는 예이다. ‘인의가 크게 우회로 헿고’와 ‘충효가 바로 아래에 밋쳐’가 대응하는바, ‘바로’가 위치를 나타내는 ‘아래’를 수식한다고 보면 이는 명사구-부사인 정도부사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충효가 바로 아래에 밋쳐’를 “충효가 곧바로 아래에 밋쳐”로 풀이하면, 이 ‘바로’는 동사구-부사인 시간부사가 된다.

사름 사름이 비를 두다려 아비와 형은 즈식과 아우를 잘 교혹하야 인의가 크게 우회로 헿고 충효가 바로 아래에 밋쳐 몇 히가 못 되야 이 세상이 일노브터 크게 문명흔 세계가 될지라 <1897.02.06. 독립신문 4면>

- ㄴ. 쇠들은 등문간방이 바로 횡남 압히읍기 아히들이 드러스끼 브리는 종과 깃  
종도 횡남 종만 드러스읍닌디 <은진송씨 동춘당 송준길가 언간-92>

(37ㄱ)은 ‘정성왕후’가 갑자기 병이 심해져서 피를 토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핏빛을 “온전히 붉지도 검지도 않은 괴이한 것”으로 표현한바, 이때의 ‘바로’는 ‘붉-’의 정도성을 부각시킨 정도부사이다. (37ㄴ)의 ‘바로’는 체언을 수식하는 예로서, “횡남 앞”이라는 위치에 매우 가까이”를 뜻한다.<sup>37)</sup> (37)은 원문이 전제된 텍스트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아래의 ‘바로’는 정도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 (38) 올히 雨水 | ㄹ장 만히여 바로 蘆溝橋 우희 獅子 머리를 즘가 넘어 더 城門을  
다가 다질러 문희 치고 더 一帶 地方에 田禾 | 다 즘겨 못치엿고 村庄 人家에  
房屋 牆壁이 太半 다 물에 질리엿느니라 네 집 牆垣은 엇더히엿느뇨(今年雨水  
狠大 直滄過蘆溝橋上獅子頭了 把那城門都沖塌了 那一帶地方的田禾都滄沒了 村  
庄人家的房屋牆壁太半都被水衝了 你家的牆垣如何) <박통사신석언해 1:9b>

(38)은 호우로 인하여 다리가 물에 잠겼다는 내용으로서, ‘바로’는 ‘蘆溝橋 우희’라  
는 위치를 수식하는 정도부사처럼 보인다.<sup>38)</sup> 그렇지만 원문을 고려하면 이 부분은  
“다리 꼭대기까지 잠겨 물이 곧바로 (다리를) 넘었다” 정도로 해석되므로, 이때의  
‘바로’는 시간부사이다.

37) 정도부사 ‘바로’나 초점부사 ‘바로’는 모두 체언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횡남 앞’의 ‘바로’  
는 초점부사 바로4(“다름 아닌”)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개화기 이전의 자료에서, ‘바로’가  
초점부사로 기능한 예는 찾기 어려우므로(비전형적 환언문에서 ‘곧’이나 ‘즉’이 해당 기능을 수행  
함.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는 신소설 이후부터 확인됨), 이때의 ‘바로’는 체언의 정도성  
을 수식하는 정도부사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초점부사와 관련된 것은 <2-3> 참조.

38) 이 부분의 ‘바로’는 「박통사신석언해」에만 등장한다. 이전 시기의 박통사류에서는 원문에 ‘直’이 없  
기 때문에 ‘바로’가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ㄱ. 올히 비 므슬히 ㄹ장 하니 므리 蘆溝橋入 란간엿 스지 머리를 즘마 너머 쉬문을 다가 다 다  
덜어 히야브리고 던희 다 신셔 히 불희도 업다 보니 느미 짓 담들 다 물어디뎡더라 네 짓 담  
은 엇더히뇨(今年雨水十分大 水滄過蘆溝橋獅子頭 把水門都沖壞了 滂了田禾 無一根兒 看那人  
家牆壁都倒了 你家牆如何) <번역박통사 상:9a-9b>

ㄴ. 올히 雨水 | ㄹ장 만히여 물이 蘆溝橋 獅子入 머리를 즘가 너머 水門을 다가 다질러 해야브  
리고 田禾에 물 끼여 히 불희도 업고 더 人家 牆壁을 보니 다 문히더시니 네 집 담은 엇더히  
뇨 <박통사언해 상:9b-10a>

아래의 예도 정도부사 ‘바로’가 체언을 수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 (39) ㄱ. 풀홀 불로호야 바로 압퓌 가 모모로써 더퍼 ㄱ리오니 도적기 다 늘호로 주  
기다(奮臂直前以身翼蔽 賊竝刃之)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도 1:63b>  
ㄴ. 응익기 풀홀 불로호야 바르 아퓌 가 모모로써 ㄱ리오니 도적이 다 늘호로  
주기다(應翼奮臂直前以身翼蔽賊竝刃之)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7:3b>  
ㄷ. 범이 이미 다 먹고 비불러 누엇거늘 누빅이 바로 알퓌 드라드러 범을 꾸디  
저 골오디(虎既食飽臥 婁伯直前叱虎曰) <오륜행실도 효자도 1:60b>

언해문만 본다면 ‘바로’는 명사 ‘앞’을 꾸미는 정도부사나, 동사구 ‘압퓌(아퓌) 가-’  
를 꾸미는 시간부사로 해석된다. 물론, 원문의 ‘直前’이 “바로 앞”으로 해석되지 않  
으므로, 위의 ‘바로’는 시간부사이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直前’이 나오는 예는 모두 열 개였다. 그 가운데 여덟  
예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나고, 「동문유해」와 「오륜행실도」에 각 한 예씩  
나온다. 그러나 「동문유해」에서는 ‘直前’이 ‘내똥-’으로 언해되어 ‘바로’와는 직접적  
인 상관이 없다. 나머지 아홉 예 가운데, (39)의 세 예를 제외한 나머지 예는 다음  
과 같이 ‘앞’이 언해에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두 예만 제시한다.

- (40) ㄱ. 늘홀 다와다 바르 나아가 도적과 더브러 서르 잡드러 해흠을 님고 어미는  
완전호물 어드니(冒刃直前與賊相搏被害母則獲全)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  
녀도 4:73b>  
ㄴ. 손소 도척 가져 바로 나아가 범을 주기고 그 아비를 아아 돌아오니라(手自  
引斧直前殺虎奪其父而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 5:33b>

‘前’은 명사가 아닌 동사이므로 언해문에서 ‘나아가-’로 번역되었다. (39)에서 이  
‘나아가-’와 분포가 같은 것이 ‘압퓌(아퓌) 가’이기 때문에 ‘압퓌(아퓌) 가’는 동사  
구가 될 수밖에 없다. (39)의 ‘바로’는 표면상 체언에 선행하여 있기는 하지만 시간  
부사일 뿐, 체언을 꾸며 주는 정도부사로 볼 수 없다. 이처럼 직역에 의한 어순의  
고착은 근대 한국어라고 하여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원문-언해문의 관계  
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개화기 이후부터는 이러한 중의성이 사라지게 된다.<sup>39)</sup>

39) 정도부사 ‘바로’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대체로 ‘원문-언해문’의 관계에 있을 때였다. 당장  
(37)만 하더라도 ‘바로’는 정도부사로 이해된다.

마지막으로, 초점부사의 등장과 관련된 것이다. 초점부사는 중세 한국어에서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고, 19세기 중반까지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부사가 명사구를 직접 수식할 만한 환경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바르’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바르’과 계열 관계를 이루는 ‘곧’이 초점부사로 기능하였다는 점, 신소설 자료부터 초점부사 ‘바로’의 용법이 적극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을 보면 이는 체계적 공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이다. 초점부사와 관련되는 문제는 <2-3>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 <2-2> ‘正’의 의미로 쓰인 ‘바로’

‘正’과 관련된 ‘바로’는 ‘바로1-3’(“올바로”)과 ‘바로1-4’(“있는 그대로”)인데, 아래에 각각의 예문을 든다.

- (41) ㄱ. 애산은 낄은 아기 둘 제 빗복 주레 아기 엇게 걸여 벗디 못흐모로 비록 덩바기 내와다도 나디 못흐느니 내힐 사름이 ㄱ만ㄱ만 아기를 우흐로 밀고 날회여 손놀 너히 가운데 가락으로 아기 두 엇게를 놀러 빗복 주를 벗기고 아기 바르 순케야 약 먹고 힘쓰라(礙産謂兒轉之時臍帶攀掛兒肩不能脫 故雖露頂而不得出 今產母仰臥收生者輕輕推兒近上徐徐 通手以中指按兒兩肩理 脫臍帶候兒正順方服藥用力) <언해태산집요 24b-25a>
- ㄴ. 업싱이 곶오디 불도의 능업경과 도가의 황정경과 유도 불을 징계하며 욕심을 막고 가뉘움을 바로 하고 게어름을 경계하라 하는 여덟 즈는 평싱의 심히 도하하느니 <을병연행록 13:48a-48b>
- ㄷ. 무인 이월의 디도의셔 또 무슨 일노 불평호오셔 쇼도 겨오신 디로 츠즈 가오시니 하고 겨신 거시 엇지 눈 걸니지 아니호오시리오 승문당으로 오시고 쇼도를 부르오시니 지월후 처엄 만나오신지라 여러 도건을 만히 꾸종호오시고 사름 독이오신 거슬 우히셔 응당 아오시고 바로 하시는가 보라 호오셔던지 호오신 일을 바로 알의라 호오시니 <한둥록 삼:1b>
- ㄹ. 덩순이 꾸지저 낄오디 너히 하는 일 괴이면 다 잡아 가도오실 거시니 바로 니르라 디답호디 아는 일이 업스니 죽이오시라 모르는 일이야 할가 <계축일기 하:32a-32b>

(41ㄱ)은 난산 가운데 하나인 ‘礙産’을 설명한 것인데, ‘애산’은 아기가 탯줄에 걸

려서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부분은 텃줄에 걸린 아기를 “올바르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므로 이때의 ‘바르’는 ‘바로1-3’이다. (41ㄴ)의 해당 부분은 전후 문맥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움에 빠지지 말고 올바르게 행동하라”로 해석되므로 역시 ‘바로1-3’이다. (41ㄷ)은 ‘딛도’와 ‘쇼도’ 사이의 갈등이 드러난 부분으로서, 여기에는 ‘바로1-3’과 ‘바로1-4’ (“있는 그대로”)가 다 드러나 있다. 먼저 나오는 ‘바로’가 ‘바로1-3’이고, 뒤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1-4’이다. (41ㄷ)의 해당 부분은 오늘날의 “바른대로 말해!”에 해당하는 표현으로서,<sup>40)</sup> 역시 ‘바로1-4’의 의미이다. ‘바로1-4’는 불경 문헌에서 등장하기 어려웠는데, 이 시기부터는 문헌에서 종종 확인된다. 이처럼 ‘正’의 의미를 지니는 ‘바로’의 하위 의미는 근대 한국어에서 모두 발견된다.

#### <2-3> 초점부사 ‘바로’의 등장

초점부사 ‘바로’의 전형적 용례는 19세기와 20세기의 교체기에 확인된다.

- (42) ㄱ. 이 덕네는 바로 변서방의 본실 아씨야 <명월정 66쪽>  
 ㄴ. 너가 그늘 단여와서 시각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낮낮치 도수히서 바로 이 저고리 갈 피에다 단단히 집어 너어 꼭 두었는디 그제 엇의로 갖슬신 <월하가인 25-26쪽>  
 ㄷ. 어- 신세도 험 일 업다 년전 스월 팔일날 밤에도 바로 이 자리에서 침세갓던 사름이 괴식을 햏야 무한 신고를 햏야 간신이 구원햏았더니 오날 쏘 이 광경을 당햏는구나 <옥호괴연 48쪽>  
 ㄹ. 후쥬 | 복지 통곡햏며 굴으디 일전에 슈상스러운 일이 잇더니 이제 이 디경에 이루니 세상에 몃슬 사름도 잇도다 죽이면 바로 나 죽이지 어린 거슬 무슴 죄로 죽엿는고 햏며 <완월루 54쪽>

위의 예에서 빗금친 부분이 초점으로서 명사구나 대명사가 초점의 대상이다. 초점부사는 명사(구)를 수식하여 선택 가능한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키는데, (42)의 ‘바로’에서 그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0) 드물지만 근대 한국어 시기에 현대 한국어 ‘바른대로’에 대한 표현이 등장한다.

아므리 대단티 아니호라 햏여 겨시온들 괴운이 울햏여 겨시렁잇가 힘혀 날 용녀홀가 햏여 바른대로 괴별티 아니햏여 겨옵신가 더욱 민망햏오이다 <진성이씨 이동표가 연간-27-1>



20세기 이후의 문헌 자료에서도 초점부사 ‘바로’의 예는 금방 확인된다.

- (43) ㄱ. 제일 큰 놈은 바로 너를 내려다 보며 굵직한 음성으로 이 말 저 말을 대답한다 <聖心保育園 訪問 앞날의 “丈夫”로 邁進. 1949.02.06. 경향신문 4면>  
 ㄴ. 깊은 한밤에 壁을 두드리는 소리. 창을 울리는 鐘, 鐘소리. “누구를 위해 좋은 우는가 너희는 이를 알고져 使者를 보내지 말라.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하여 울고 있는 것이다” <命題에 壓倒. 1957.01.10. 동아일보 4면>
- (44) ㄱ. 서거정은 주는 시를 받아들고 한참이나 멍멍하니 있다가 “이것은 바로 나의 죄안(罪案)일세 그려” 하였다. <狂風 (124). 1953.12.21. 동아일보 2면>  
 ㄴ. 꼬마들은 지난번 위장 이민 가능성의 저명인사 이니셜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을 때에도 “정계의 누구는 바로 누구고 전직 장관은 바로 누구누구라고 하더라” 하고 서슴없이 이름을 대더니 <황설수설. 1975.06.16. 동아일보 1면>  
 ㄷ. 권서방이 “네 그것은 우리 마누라여요” 하고 대답을 한즉, 그 량반은 “여기는 좀 갑갑하니 바깥에 나가서 리약이를 합시다” 하고 들어서 나가버렸단다. (...중략...) 내 맘에는 그 량반이 바로 너의 아버지인 듯싶어서 무슨 리약이들을 하였는가 하고 들어오난 길로 물어본즉 <부평초 (八十八). 1920.07.31. 동아일보 4면>  
 ㄹ. 나는 왜 묶는 거요, 하고 실모자를 정면으로 쏘았다. 입 닥쳐 새끼, 지서를 지을 때 돌을 주워 나른 게 바로 너란 말이야. 나는 또다시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비둘기. 1967.01.04. 동아일보 6면>

(43)은 ‘바로’가 대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예로서, ‘바로’는 후행하는 ‘나’, ‘너’를 수식하는 초점부사(“다름 아닌”)이다. (44)는 “A{는, 이} 바로 B이-”라는 비전형적 환언으로서 B에는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환기되므로, 이때의 ‘바로’도 초점부사이다.

(43)의 ‘바로’는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 초점부사로 쓰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전 시기에서 초점부사가 쉽게 등장하였던 환경은 (44)와 같은 비전형적 환언문이었기 때문이다(‘곧’과 ‘正히’ 부분에서 설명됨). 초점부사는 반드시 체언을 수식의 작용역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초점부사는 명사구를 직접 수식할 만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동사-부사와는 관련이 없다. 동사-부사란 부사와 동사가 인접한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조적으로 명사구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 초점부사 ‘바로’의 성립 과정

그렇다면, 초점부사는 동사구-부사 구성에서 부사와 동사 사이에 존재하는 명사구를 작용역으로 하는 부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동사구-부사 ‘바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1-2’(성상부사), ‘바로2’(시간부사), ‘바로3-1’(정도부사)가 있다.<sup>41)</sup>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동사구 내부의 명사구가 어떤 과정을 거쳐 부사의 작용역이 될 수 있었을까? 먼저, 시간부사의 경우부터 확인하여 보겠다.

- (45) ㄱ. 당시 듣고 실성 통곡하고 머리 풀고 재를 너머 바로 그 던으로 드러가 오  
술 주어 이걸흔대 텃병이 노타(張氏聞之 失聲慟哭 被髮踰嶺 直入其陣 賂衣  
哀乞 天兵釋之)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녀도 5:8b>
- ㄴ. 굶비늘 두르혀 므를 터 바로 도적의 던으로 향흔대(遂回轡策馬 直向賊陣)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도 1:44b>

원문을 통해 (45ㄱ)의 ‘바로’는 ‘그 던으로 드러가-’를 작용역으로 하는 동사구-부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문을 배제한다면 이 ‘바로’는 명사구 ‘그 던’을 작용역으로 삼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당시’의 남편이 잡혀 있는 곳은 여러 장소 중의 하나일 것이므로, ‘당시’가 들어간 진은 ‘이 진(陣)’도 아니고 ‘저 진’도 아닌 “다름 아닌 그 진”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45ㄴ)의 ‘바로’도, ‘도적의 던’을 작용역으로 하는 초점부사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문맥에 따라 ‘賊陣’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45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도적의 던’으로 향했다고 보는 것이다.<sup>42)</sup> 이처럼 시간부사(동사구-부사)는,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 초점부사가 등장할 가능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테면, 시간부사는 동사구-부사였으나 그 작용역이 동사구 내부의 명사구로 바뀌어 초점부사로 변화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한문-언해문’의 대응 관계가 사라지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41) 이것들은 모두 ‘直’과 관련된 용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42) 이런 예들은 개화기 이후의 자료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 ㄱ. 벽동집을 마루로 불너 내세고 당장 벼락이 나릴 듯이 야단을 혼바탕 치라다가 얼핏 싱각흔즉  
‘내가 바로 저 계집을 아니 다리고 살라면 모르거니와 쇼견업는 것을 넘우 과격히 헛앗다가  
도로혀 함험을 헛기 쉬운즉’ <월하가인 59쪽>
- ㄴ. 木柵을 方形體로 圍周한 其內에 「我太祖御手植松」라는 標木이 잇소 바로 그 곁헤 碑閣이 잇  
는데 碑石이 大小兩個가 잇소 <釋王寺에서 (一). 1920.06.12. 동아일보 1면>

자리를 잡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의 예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46) 명보는 권도스를 다리고 자기 큰집으로 가지 안코 바로 자기 집으로 드러가 사랑에 안치오고 안으로 들어가는디 <마상루 96쪽>

이때의 ‘바로’는 정상부사(“곧장”) 혹은 시간부사(“곧바로”)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기 집’은 그 앞에 나오는 ‘자기 큰집’과 대조되면서 초점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바로’가 초점부사라고 한다면, 이때의 대안 집합의 원소는 ‘자기 큰집’과 ‘자기 집’이 되고 이 가운데 ‘자기 집’이 선택되어 초점이 된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정도부사의 경우를 살펴보겠다.

(47) ㄱ. 이 사람이 인도된 곳은 바로 부엌과 붙은 방이었다.

ㄴ. 바로 {앞, 뒤, 동쪽, 서쪽, 오른쪽, 왼쪽}에 앉다.

위의 정도부사 ‘바로’는 각각 동사구-부사와 명사구-부사로서, ‘바로’의 초점부사화와 관련되는 예는 (47ㄴ)과 같은 명사구-부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환경만 주어진다면 (47ㄱ)의 ‘부엌’도 얼마든지 초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한 중세 한국어의 예를 보기로 한다.

(48) ㄱ. 바르 北<sup>녝</sup> 關山엔 鎗과 북 소리 振動<sup>헛</sup>엿고 西<sup>니</sup>녀그로 征伐<sup>헛</sup>는 車馬<sup>는</sup> 羽書<sup>ㅣ</sup> 더디도다(直北關山金鼓振 征西車馬羽書遲) <두시언해 초간본 6:8a>

ㄴ. 구루미 희오 뵈히 프른 萬餘 里로소니 바르 北<sup>이</sup> 이 長安<sup>이</sup>론 고들 시름<sup>헛</sup>야 보노라(雲白山靑萬餘里 愁看直北是長安) <두시언해 초간본 11:11b>

원문의 ‘直北’을 감안하면 ‘바르’는 명사구를 꾸미는 정도부사이지만, 이러한 정도부사 역시 초점부사로 인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예를 들어, ‘關山’을 “국경이나 주요 지점 주변에 있는 산”으로 풀이하면, ‘관산’은 동녝, 서녝, 남녝, 북녝 중 어디라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48ㄱ)의 해당 부분은 “다름 아닌 북녝 관산”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문맥이 주어진다면, ‘北(녝)’과 같은 정도성 명사(구)도 초점을 받을 수 있고, 선행한 ‘바르’는 초점부사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초점부사 ‘바로’는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다가 동사구-부사로 쓰인 ‘바로’를 시작으로, ‘바로’는 명사구를 직접 수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원문에 대한 직역이 전제되지 않는, 개화기 시기 이후부터 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바로’는 오늘날 비전형적 환언문과 그것이 아닌 환경에서도 초점부사로 기능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로’의 의미·문법적 특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바로’의 역사적 변화

원문의 한자	분류	의미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	문법적 분류
直	바로 1-1	성상	곧게.	우연한 공백	○	○	동사-부사
	바로 1-2	성상	곧장.	○	○	○	동사구-부사
	바로2	시간	곧바로.	○	○	○	동사구-부사
	바로 3-1	정도	(일부 용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	○	○	동사구-부사
	바로 3-2	정도	(일부 체언 앞에서) 매우 가까이.	○	우연한 공백	○	명사구-부사
	바로4	초점	(일부 체언 앞에서) 다름 아닌.	체계적 공백	○ (19세기 후반)	○	명사구-부사
正	바로 1-3	성상	올바로.	○	○	○	동사-부사
	바로 1-4	성상	있는 그대로.	우연한 공백	○	○	동사-부사

## 2.2. 곧

현대 한국어의 ‘곧’과 ‘즉’은 다의적 용법을 지니며, 특히 환언의 접속부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유의어이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 ‘곧’과 ‘즉’은 적지 않은 차이점을 지닌다. 예컨대, 오늘날의 ‘곧’에는 시간부사와 초점부사 용법이 존재하지만 ‘즉’은 그렇지 않은데, 이는 역사적 변화의 결과로 이해된다. ‘곧’과 ‘즉’이 ‘고유어-한자어’ 관계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즉’에도 ‘곧’의 다양한 용법들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곧’과 ‘즉’은 지속적인 유의 경쟁의 관계에 있었는데, 아래에서는 그러한 사실들도 함께 살필 것이다.

### 2.2.1. 현대 한국어의 ‘곧’

현대 한국어 ‘곧’에는 시간부사, 접속부사, 초점부사 용법이 있는데, 아래에서는 각각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 <1> 시간부사 ‘곧’

시간부사 ‘곧’은 두 가지 의미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 (1) ㄱ. 전화 끊자마자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 ㄴ. 지금 곧 출발할 수 있죠?
- ㄷ. 소한, 대한도 다 지나고 이제 곧 입춘인데 봄이 오면 난 뭘 할까.
- ㄹ. 우리 팀은 곧 혹독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1ㄱ, ㄴ)의 ‘곧’은 “시간 간격이 매우 짧게”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1ㄷ, ㄹ)의 ‘곧’도 시간적 간격이 짧다는 것을 나타내지만, 이는 앞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부사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곧’과 연결된 어미나 단어에 따라 결정된다. (1ㄱ, ㄴ)의 ‘곧’은 어미 ‘-자마자’, 시간부사 ‘지금’과 호응하여 “시간 간격이 매우 짧게”를 나타내지만, (1ㄷ, ㄹ)에는 그러한 장치가 없기에 상대적인 여유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즉, 시간부사 ‘곧’의 세부 의미는 특정 표현이나 문맥에 의하여 구별된다.

- (2) ㄱ. 방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께서 곧 오실 거야.
- 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께서 곧 오실 거야.
- ㄷ. 어머니께서 곧 오실 거야.

(2ㄱ)의 ‘곧’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을 뜻하지만, (2ㄴ)의 ‘곧’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느껴진다. (2ㄷ)은 어떠한 맥락도 주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여기에 쓰인 ‘곧’은 중의적이다. 따라서 시간부사 ‘곧’은 문맥 의존적 부사이다. 그런데 문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오직 시간의 간격이 좁으냐 넓으냐의 차이일 뿐, 그 외에는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시간부사 ‘곧’은 “시간적으로 머지않아”라는 하나의 의미만 사용해도 충분하다. ‘머지않아’라는 표현에 문맥 의존적·상대적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전에 따라서는 시간부사 ‘곧’을 장소부사로 해석하기도 한다.

- (3) ㄱ. 고무 공장을 지나서는 곧 잠실이였다.
- ㄴ. 거실에서 문을 열면 곧 마당으로 연결된다.
- ㄷ. 뒤꼍으로 나가니 곧 작은 텃밭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상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가져옴.)

위의 ‘곧’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잠실, 마당, 텃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사전에서는 이 ‘곧’을 “멀리 떨어지지 않고 아주 가까이”라는 장소부사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 장소부사라는 용법은 시간과 공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이므로 이를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과한 처사로 보인다. (3ㄱ)의 ‘곧’을 ‘금방’, ‘금세’와 같은 다른 시간부사로 대치하더라도 문맥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시간부사 ‘곧’이 가장 보편적인 용법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해둔다.

시간부사 ‘곧’은 동사구-부사이다.

- (4) ㄱ. 전화 끊자마자 곧 그리로 가겠습니다. [= (1ㄱ)]  
      ㄱ'. 전화 끊자마자 그리로 곧 가겠습니다.  
      ㄱ". 전화 끊자마자 곧 가겠습니다.  
      ㄴ. 우리 팀은 곧 혹독한 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 (1ㄴ)]  
      ㄴ'. 우리 팀은 혹독한 훈련에 곧 돌입할 예정이다.  
      ㄴ". \*우리 팀은 곧 돌입할 예정이다.

(4ㄱ, ㄱ', ㄱ")은 동사구-부사 ‘곧’이 동사-부사 ‘곧’으로도 쓰일 수 있음을 보인 예이다. 이때 동사구를 이루는 ‘그리로’는 수의적으로 생략이 가능하다. (4ㄴ, ㄴ', ㄴ")도 ‘곧’이 동사구-부사임을 잘 보여주지만, (4ㄴ)에서 동사구 내의 부사어는 필수적 논항이므로 생략이 불가능하다[(4ㄴ")]. 즉, 필수적 부사어를 제외하면 시간부사 ‘곧’에는 여러 성분(특히 부사어)이 포함된 동사구가 후행할 수 있고, 이 동사구 내의 부사어들은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다. 부사어가 수의적으로 생략되거나, ‘곧’이 어순재배치되면 ‘곧’은 동사-부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사구-부사이다.

## <2> 접속부사 ‘곧’

‘접속’은 무엇과 무엇을 이어준다는 뜻인데, 여기에는 구 이상의 단위도 모두 포함된다. 접속부사 ‘곧’은 의미적으로 환언의 기능을 수행한다.<sup>1)</sup> 환언이란 “A라는 것을 B라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이다. 환언의 표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

1) 환언이란 ‘paraphrase’에 대한 번역어이다. 이 외에도 ‘paraphrase’는 ‘바꿔쓰기, 변용, 변환, 의역, 말바꿈, 다시쓰기’ 등으로도 번역된다[이성만(2009: 593)의 각주 1번 참조]. 각각의 번역어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A라는 것을 B라는 것으로 달리 표현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환언의 기본적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하나, 용어와 관련된 세세한 차이는 존재한다. 이것은 “달리 표현함”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달리 표현함”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층위이고 어떠한 방법에 의한 것이냐에 따라 환언의 성격이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 특히 환언을 번역이나 대용과 관련시키는 입장이 그러하다. 환언과 번역, 환언과 대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나는 어휘적 환언 표지로서 ‘그러니까, 곧, 즉’이고, 다른 하나는 통사적 환언 표지로서 ‘바뀌 말하면, 달리 말하면, 다시 말해’ 등이다(이홍매 2013: 222).<sup>2)</sup> ‘곧’과 즉은 어휘적 환언 표지로서, 대체로 사전에서 “다시 말하여, 바꾸어 말하면” 등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환언의 접속부사 ‘곧’과 시간부사 ‘곧’은 체법 큰 차이가 있다. 시간부사 ‘곧’은 생략이 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지만, 접속부사 ‘곧’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sup>3)</sup>

- (5) ㄱ. 서로 만난다고 곧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ㄱ'. 서로 만난다고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ㄴ. 고무 공장을 지나서는 곧 잠실이었다.  
       ㄴ'. 고무 공장을 지나서는 잠실이었다.
- (6) ㄱ. 포스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곧 기발한 발상이다.  
       ㄱ'. "포스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기발한 발상이다."<sup>4)</sup>  
       ㄴ. 그녀는 지역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품 곧 치약, 일용품 등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ㄴ'. "그녀는 지역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품, 치약, 일용품 등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5ㄱ, ㄴ)의 ‘곧’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가 보존되지만[(5ㄱ', ㄴ')], (6ㄱ, ㄴ)의 ‘곧’을 생략하면 본래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된다. ‘곧’이 생략된 (6ㄱ', ㄴ')은 각각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 ‘상품’과 ‘치약, 일용품’이 나열 관계로 변모되기 때문이다. 즉, 생략이 되어도 본래의 의미가 보존되는 것이 시간부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접속부사이다.<sup>5)</sup>

2) 이홍매(2013)은 텍스트언어학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텍스트언어학에서 제시한 환언의 개념을 인용하여 환언의 표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홍매(2013: 221)은 “환언은 의미적 동질성을 전제로 한 재해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여기서의 ‘의미적 동질성’이란 텍스트언어학에서 언급하는 의미적 등가성과 동일한 것이다.

3)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전형적 환언의 경우이다.

4) ‘!’’는 의미가 서로 달라진다는 것을 뜻하는 기호이다.

5) 동일한 환언의 접속부사라도 환언의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6ㄱ)의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은 동위 관계에 있으나, (6ㄴ)의 ‘상품’과 ‘치약, 일용품’은 상하 관계에 있다. 환언 표지를 기준으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는 몇 가지 의미 관계를 지닐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추상적-구체적’ 관계에 해당한다(이홍매 2013: 236). 의미 관계에 차이가 있으나, 결국 (6ㄴ) 역시 ‘곧’의 선행 요소와



이러한 환언은 “A 곧 B”(‘곧’에 선행하는 요소가 A, 후행하는 요소가 B. 이하 동일)라는 구조를 지닌다. 여기에서 ‘곧’이 생략된 “A B”는 환언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A and B”로 해석될 뿐이다. 우리는 이것을 ‘전형적 환언’으로 불러둔다. 전형적 환언은 A와 B의 의미·형식 범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7) 포스터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곧 기발한 발상]이다.

위 문장의 ‘이다’는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을 아우르는 요소이다.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은 명사구라는 점에서, 그리고 의미 영역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 제약을 지키고 있다. 편의상 ‘곧’의 선·후행 요소가 제약을 지키게 하는 속성을 ‘평행성’(parallelism)으로 명명한다. 즉, 전형적 환언은 이 ‘평행성 원리’(parallelism principle)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다.<sup>6)</sup>

평행성 원리는 전형적 환언과 관련한 모든 형식 범주로 확대될 수 있다.

- (8) ㄱ.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이 인간이요, 곧 남녀요, 곧 부부이다. <결혼과 성>  
 ㄱ'. NP가 [[인간이요, 곧 남녀이]]다  
 ㄱ''. NP가 [[인간이요, 곧 부부이]]다.  
 ㄴ. 전체적으로 보면, 곧 조금 떨어져서 보면 남다른 웅장함이 느껴진다.  
 ㄴ'. [[전체적으로 보면], 곧 [조금 떨어져서 보면]] 남다른 웅장함이 느껴진다.  
 ㄷ.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는 관혼상제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곧 관혼상제례의 사례를 사회의 실천윤리로 승화시키게 되었다. <한국민속의 세계 2권>  
 ㄷ'.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는 관혼상제례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곧 [관혼상제례의 사례를 사회의 실천윤리로 승화시키게 되었다.]]

(8ㄱ', ㄱ'')은 (8ㄱ)의 주어 부분을 공통의 ‘NP’로 대체하고, 서술부를 ‘곧’으로 접속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곧’의 전후에 있는 서술부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

후행 요소는 의미가 동질적이다.

6) ‘평행성 원리’는 원래 한국어 비교구문을 다룬 김정대(1993: 78)에서 제안된 것이다. 이 원리는 비교구문, 전형적 환언 구문, 등위접속 구문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금자(2002)에서는 환언을 정의하는 데에 ‘자질동위적(isotipisch)인 다른 표현, 관계성(relevance)에 기초한 다른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 평행성 원리와 무관하지 않다.

의 형식·의미 범주가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8ㄴ)은 ‘곧’이 절과 절을 접속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8ㄴ')으로 도식화된다. 선행절과 후행절이 조건절이고 각 문장의 내용이 상관적이라는 점에서 (8ㄴ)도 평행성 원리를 지키고 있다. 문장과 문장의 접속을 보이는 (8ㄷ, ㄷ')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이처럼 전형적 환언의 ‘곧’은 구, 절, 문장을 1:1로 환언한다.

### <3> 초점부사 ‘곧’

‘곧’은 초점부사로도 기능하는데, 대체로 “A는 곧 B이다”와 같은 기사문에서 쓰인다.

- (9) ㄱ. 침묵한다는 것은 곧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ㄴ. 이는 곧 경제적인 문학이 아니면 문학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말이다.  
 (이상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가져옴.)

이러한 유형의 문장은 ‘곧’이 생략되어도 명제의 내용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는 점, ‘곧’의 선·후행 요소에 문법형태소가 반드시 결합한다는 점에서 전형적 환언과 다르다. “A 곧 B”의 구문으로 실현되는 전형적 환언은 평행성 원리를 지키므로, A와 B는 대치되어 쓰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의 문장에서는 A와 B에 문법형태소가 결합하므로, A와 B가 대치될 경우 명제 내용이 기존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을 ‘비전형적 환언’으로 불러둔다. 비전형적 환언에서는 A와 B는 구까지만 가능하고 문장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A는 곧 B이다”라는 비전형적 환언의 구조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할 수 있다.

편의상 비전형적 환언으로 부르기는 했지만, (9)의 ‘곧’은 환언의 접속부사가 아니다. 이때의 ‘곧’은 “A는 B이다” 기사문에서 B를 수식하는 요소이다.

- (10) ㄱ. 철수가 들렀던 곳은 곧 마산이다.  
 ㄱ'. 철수가 들렀던 곳은 바로 마산이다.  
 ㄴ. 나를 도와 준 사람은 곧 철수이다.  
 ㄴ'. 나를 도와 준 사람은 바로 철수이다.

7) 이런 평행성 원리는 ‘즉’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0ㄱ, ㄴ)의 ‘곧’은 “다시 말하면”이나 “바꾸어 말하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언의 접속부사가 아닌 초점부사(“다름 아님”)에 해당한다. 초점부사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키는데, (10ㄱ, ㄴ)에서는 모두 그러한 원소들이 떠오른다. (10ㄱ)의 대안 집합의 원소들은 ‘철수가 들를 만한 장소’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마산’이 선택된 것이다. (10ㄴ)도 화자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대안 집합의 원소로 떠오른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10ㄱ, ㄴ)의 ‘곧’은 초점부사 ‘바로’로 대치될 수 있다[(10ㄱ’, ㄴ’)]. (10)의 ‘곧’이나 ‘바로’의 기능은, 선행 요소를 후행 요소로 환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동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전형적 환언의 ‘환언’은 평행성 원리 중에서 의미 영역만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초점부사 ‘곧’은 구정보-신정보의 관계에서도 다를 수 있다.

- (11) ㄱ. 대한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은 “현대건설의 부도 위기는 곧 국내 건설업과 주택업의 붕괴 위기”라고 잘라 말했다. <조선일보 2001년 기사: 경제>  
 ㄴ. 이른바 근대적 의미에서 자녀의 결혼은, 곧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에의 의존을 떠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민속의 세계 2권>  
 ㄷ. 가출은 왜 곧 탈선이 되는가. <사회를 보는 논리>

(11ㄱ)의 A에 해당하는 ‘현대건설의 부도 위기’는 이미 널리 알려진 구정보이고, B에 해당하는 ‘국내 건설업과 주택업의 붕괴 위기’는 ‘대한주택보증 강홍민 팀장의 진단’(개인 생각)이기 때문에 신정보이다. 이 신정보는 전적으로 화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다. 예컨대, B에는 ‘국내 건설업과 주택업의 붕괴 위기’, ‘건설 업체에 대한 대대적 정비 작업’, ‘신규 대출 억제로 가는 신호탄’, ‘현대그룹의 재편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등이 고려될 수 있는데, 화자는 첫 번째를 신정보로 선택한 것이다. 이것은 (11ㄴ, ㄷ)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11ㄷ)은 의문문의 형식을 통하여 후행 요소에 다양한 구정보들이 제시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다.

환언의 접속부사 ‘곧’이 초점부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은 환언의 신정보와 초점부사의 대안 집합이 특정한 부분에서 성격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언의 신정보는 화자의 판단에 의하여 여러 가지의 정보들 중에서 하나가 선택된 것이다.

그런데 대안 집합의 원소라는 것도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선택된 ‘하나’라는 점에서 환언의 신정보와 일정 부분 공통점을 지니므로, 환언의 ‘곧’이 초점부사로도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이다.

비전형적 환언에는 신정보 표지가 실현된 “A가 곧 B이다” 유형도 존재하지만, ‘곧’의 후행 요소에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상정된다는 점에서 “A는 곧 B이다” 유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sup>8)</sup>

- (12) ㄱ. 철수가 들렀던 곳이 {곧, 바로} 마산이다.
- ㄴ. 나를 도와준 사람이 {곧, 바로} X이다.

(12)는 “A가 곧 B이다”라는 비전형적 환언문인데, A가 구정보이고 B가 신정보라는 점에서 (10), (11)의 A-B와는 정반대 관계에 놓여 있다. 그렇지만 (12)의 ‘X’ 자리에는 다양한 선택지들이 환기된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된다. 사전에서 “A는 곧 B이다”나 “A가 곧 B이다”의 ‘곧’을 “다름이 아니라 바로”라고 풀이한 것은 이 때문이다.

<4> 요약

지금까지 논의된 ‘곧’의 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4> 현대 한국어 ‘곧’

분류	의미		문법적 분류
곧1	시간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동사구-부사
곧2	환언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접속부사
곧3	초점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8) 신정보-구정보는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내의 관계로서 가로 초점과 관련되고, 대안 집합은 세로 초점과 관련되는 것이다. 가로 초점과 세로 초점은 서로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가로 초점과 세로 초점에 대해서는 임동훈(2012)를 참고한다.

‘곧1’은 동사구-부사지만, 어순재배치 등에 의해 동사-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이 점은 앞서 언급된 ‘바로1-2(성상부사), 바로2(시간부사), 바로3-1(정도부사)’과 같다. ‘곧2’는 접속부사로서 구와 구, 절과 절, 혹은 문장과 문장을 1:1로 환언하는 역할을 한다. ‘곧3’은 초점부사로서 비전형적 환언문에 쓰이는 명사구-부사이다.

## 2.2.2. 현대 한국어 이전의 ‘곧’

### <1> 중세 한국어의 ‘곧’

중세 한국어 ‘곧’은 시간부사, 초점부사로 사용되었으나 접속부사로 쓰이지는 않았으므로 시간부사와 초점부사에 집중하여 살필 것이다. 그런데 소수이지만 시간이 나 접속과는 관계가 없는 ‘곧’도 존재하므로, 이 점부터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 (13) ㄱ. 無明入 根源이 性이 本來 解脫호야 十方에 求호야도 곧 못 어드리로다(無明本際性本解脫 於十方求了不能得) <석보상절 23:17a>  
 ㄴ. 十二部 修多羅에 出入호되 곧 기튼 히미 업스며 혼두 句를 더으며 더러 버리며 뿌디 몯습 다보물 닐웁 ㄱ장 기지호야(出入十二部之修多羅호되 曾靡遺力호며 增減一兩句之去取호되 期致盡心호야) <월인석보 1 서:19a-19b>

(13ㄱ)은 ‘了’가 ‘곧’으로 언해된 예이다. ‘了’는 한문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無’나 ‘不’의 앞에 쓰여, “전혀, 극소수의”로 풀이되는 글자이다(김원중 1989: 221). 따라서 위의 문장은 “무명의 근원은 성품이 본래 해탈하여 시방에서 구한다고 해도 전혀 얻지 못할 것이다/극소수만 얻을 것이다” 정도로 풀이된다. (13ㄴ)의 ‘曾’도 특이하다. 한문에서 ‘曾’자가 서술어 앞에서 부사로 쓰일 때에는 “심지어, 결과적으로”, “~조차도, ~까지도”라는 의미를 갖는다(김원중 1989: 551~552). “出入十二部之修多羅호되 曾靡遺力호며(十二部 修多羅에 出入호되 곧 기튼 히미 업스며)”는 불경 十二部經 가운데 첫 부분인 ‘修多羅’ 내용을 알기 위해,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全心全意하였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13ㄴ)의 ‘곧’은 “결과적으로” 정도의 뜻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이러한 ‘곧’은 별로 보이지 않고, 대체로 시간

부사나 초점부사로 사용되었다.

<1-1> 시간부사 ‘곧’

시간부사 ‘곧’은 ‘卽’, ‘便’, ‘輒’ 등을 언해한 것이다. 이 중에서 ‘卽’은 시간부사와 접속부사를 아우르는 한자였다. 접속부사 ‘卽’은 조금 더 뒤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시간부사 ‘卽’을 살펴보겠다.

- (14) ㄱ. 忽然히 化生호야 곧 아버 爲호야 偈를 닐오디(忽然化生 卽為其父而說偈言)  
<월인석보 18:33b-34a>  
ㄴ. 三賢位 못거든 반드기 이 ㄹ새 다시 功行을 더호야샤 곧 聖位에 들리니(三賢位極거든 當於此際에 復加功行호야샤 卽入聖位호리니) <능엄경언해 8:40a>  
ㄷ. 이런드로 受陰이 다오면 곧 건네뿌리라(故로 受陰이 盡호면 卽超之호리라)  
<능엄경언해 9:68a>
- (15) ㄱ. 善友太子 | 즉재 慈心三昧에 드니 三昧力으로 곧 니러 蓮花入 니플 불바  
가니 毒蛇들히 害호디 못호더라(爾時善友太子卽入慈心三昧 以三昧力 卽起  
進路 踏蓮華葉而去 時諸毒蛇而不毀傷) <월인석보 22:42b>  
ㄴ. 부테 이 經 니르샤디 八千 劫에 값간도 마디 아니호샤 이 經 니르시고 즉  
재 靜室에 드르샤 禪定에 住호샤미 八萬四千 劫이어시닐(佛說是經호샤디  
於八千劫에 未曾休廢호샤 說此經已호시고 卽入靜室호샤 住於禪定호샤미 八  
萬四千劫이어시닐) <법화경언해 3:148a>  
ㄷ. 이 사름 命終흙 저기 므스미 어즐티 아니호야 즉자히 極樂國土에 가아 나  
리니(是人終時 心不顛倒 卽得往生阿彌陀佛極樂國土) <월인석보 7:71b>

‘卽’은 ‘곧’으로 언해되기도 하였으나[(14)], ‘즉재’, ‘즉자히’로도 언해되었다[(15)]. 한문의 ‘卽’은 시간적 간격의 길고 짧음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는데, 위의 예는 그러한 ‘卽’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것이다. 시간적 간격이 짧다고 생각되면 ‘즉재’, ‘즉자히’로 언해하고, 그렇지 않거나 중의적으로 시간을 표현하려 했다면 ‘곧’으로 언해하였던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시간부사 ‘곧’은 동사구-부사였다. 예를 들어, (14ㄴ)의 ‘卽入聖位’는 ‘곧 聖位에 들-’로 언해되지, “聖位에 곧 들-”로는 언해되지 않았다. 물론,

‘卽’이 (14ㄷ)처럼 동사-부사인 것처럼 언해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생략된 것일 뿐이다.<sup>9)</sup> 동일한 한자를 언해한 ‘즉재’, ‘즉자히’도 마찬가지이다. ‘즉재 慈心三昧에 드니’[(15ㄱ)], ‘즉재 靜室에 드르샤’[(15ㄴ)], ‘즉자히 極樂國土에 가아’[(15ㄷ)]의 ‘즉재’, ‘즉자히’도 모두 동사구-부사이다.

‘卽’과는 달리, ‘便’, ‘輒’을 언해한 ‘곧’은 시간부사로만 해석되었다.

(16) ㄱ. 아되나 겨지비 아드를 나코져 호야 觀世音菩薩을 절호야 供養호면 곧 福德智慧 잇는 아드를 나호리어며 쓰를 나코져 호면 곧 端正호 相 잇는 쓰를 나하 아래브더 德根源을 심거 모든 사라미 다스며 恭敬호리라(若有女人 設欲求男 禮拜供養觀世音菩薩 便生福德智慧之男 設欲求女 便生端正有相之女 宿殖德本 衆人愛敬) <석보상절 21:7b-8a>

ㄴ. 호 天子 | 모미 黃金色이오 白象 타고 諸天子 더블오 도호 淸류호고 光에 빼여 내 올호 너브로 들어는 몸과 ㅁ슴과 便安코 즐겁더니 곧 悉達太子를 빅여 나하 世界를 淸기 호니(見一天子身黃金色 乘白象王從諸天子 作妙伎樂觀日之淸 入我右脅身心安樂 卽便懷妊悉達太子爲世照明) <석보상절 23:27a-27b>

ㄷ. 能이 듣고 넛 緣이 이서 호 客이 銀 十兩을 가져다가 能 주어 늘근 어미 옷 밥 치오고 곧 黃梅에 가 五祖를 저스와 다 ㅁ락초물 니버 能이 어미 편안히 잇게 호물 못고 곧 아버지 여희오 三十日 디내디 아니호야 곧 黃梅에 가 五祖를 저스오니(能이 聞說호고 宿昔有緣호야 乃蒙一客이 取銀十兩호야 與能호야 令充老母衣糧호고 敎便往黃梅호야 禮拜五祖호야 能이 安置母畢호고 卽便辭親호고 不經三十餘日호야 便至黃梅호야 禮拜五祖호니) <육조법보단경언해 상:5b-6a>

ㄹ. 두 글워를 어울워 釋譜詳節을 ㅁㅇㅁ라 일우고 正音으로 翻譯호야 사름마다 수비 알에 호야 進上호스보니 보물 주스오시고 곧 讚頌을 지스샤 일후물 月印千江이라 호시니(爰合兩書호야 撰成釋譜詳節호고 就譯以正音호야 俾人人이 易曉게 호야 乃進호스보니 賜覽호시고 輒製讚頌호샤 名曰月印千江이라 호시니) <월인석보 1 서:12b-13a>

(16ㄱ)은 “여인이 아들을 위하여 관세음보살께 불공을 드리면 곧 아들을 얻고, 딸을 위하여 불공을 드리면 곧 딸을 얻을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의 ‘곧’은 ‘불

9) 원문의 ‘卽超之’에서 목적어 ‘之’를 확인할 수 있다.

공을 드린 때'와 '자녀를 얻은 때'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다는 것을 뜻한다.<sup>10)</sup> (16ㄴ)은 석가모니의 잉태 과정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중세 한국어의 '卽'이 시간부사와 접속부사의 용법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때의 '卽'은 선행하는 시간부사 '便'의 용법에 이끌린 것으로 볼 수 있다. (16ㄷ)에는 便'과 '卽便'이 모두 '곧'으로 이해되어 있다. 둘 다 시간 간격이 짧다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卽便'이 '便'에 비하여 더 짧은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16ㄷ)의 '輒'은 한문에서 일반적으로 “언제나, 항상” 혹은 “곧, 즉시” 등의 의미로 쓰이는데(김원중 1989: 554~555), (16ㄷ)에서는 후자의 의미로 쓰였다. (16ㄷ)을 의역해 보면 “내가 임금께 석보상절을 진상하였다. 임금께서 그것을 살펴보고 곧 찬송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을 ‘월인천강’이라 하셨다” 정도가 된다. 이때의 '곧'은 “지체 없이”, “곧바로”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간부사로써, 앞의 예들보다는 시간 간격이 훨씬 짧음을 드러낸다.

#### <1-2> 초점부사 '곧'

초점부사 '곧'은 '卽', '則' 두 가지 한자에 대한 이해였다. 초점부사의 기능에 관한 한, 이 두 한자는 별다른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sup>11)</sup>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 초점부사 '곧'은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쓰였다.

- (17) ㄱ. 常은 곧 法身이오 寂은 곧 解脫이오 光은 곧 般若 | 니 옴디 아니호며 變티 아니호미 常이오 <월인석보 1 서:5a>  
 ㄴ. 너븐 부텃 世界는 곧 法界라(普佛世界는 卽法界也 | 라) <능엄경언해 1:79b>  
 ㄷ. 正遍知는 곧 般若 | 니 眞諦오 應供은 곧 解脫이니 俗諦오 如來는 곧 法身이니 中諦라(正遍知 卽般若德 眞諦也 應供 卽解脫德 俗諦也 如來卽法身德 中諦也) <월인석보 9:11a>

(17)은 비전형적 환언문으로서 '곧'의 선행 요소에 주제 보조사가 결합해 있다. 주

10) '便'이 '즉자히'로 이해된 예가 참고된다. 이때의 '즉자히'는 위에서 쓰인 '곧'보다 시간적 간격이 훨씬 좁다는 것을 드러낸다.

즉자히 니러 竹園으로 오더니(便趣竹園) <석보상절 6:12b>

11) 평행성 원리를 지키는 전형적 환언은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 무렵에 이르러서야 문헌에 등장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제 보조사가 결합한 A는 구정보로서, 앞선 문맥에서 제시된 개념을 다시 지칭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A는 곧 B이라”의 유형은 주로 협주로서 실현되는데, 이때의 ‘곧’은 초점부사이다. 즉, A를 설명하는 데에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다양한 개념이 동원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특정한 하나(B)가 선택된 것이다.

(17ㄱ)은 ‘常=法身’, ‘寂=解脫’, ‘光=般若’라는 동의 관계를, (17ㄴ)은 ‘너븐 부텃 世界=法界’라는 동의 관계를 보여준다. (17ㄷ)은 ‘正遍知’를 설명하기 위하여 ‘般若’와 ‘眞諦’라는 두 개의 개념이 동원된 것이다. 후행 요소가 한 가지 더 추가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17ㄷ)도 위의 예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러한 의미 관계는 불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정되는 것들이다.

“A는 곧 B이라”가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8) ㄱ. 奢摩他 전츠로 비록 寂호야도 상네 비취오 毗婆舍那 전츠로 비록 비취여도 상네 寂호고 憂畢叉 전츠로 비취음도 아니며 寂도 아니니 비취여도 상네 寂홀씩 俗을 닐어도 곧 眞이오 寂호야도 상네 비취씩 眞을 닐어도 곧 俗이오 <월인석보 8:66b>

ㄴ. 妄心을 브리느니 므슴 가져 妄 덜면 妄이 도르혀 기프리라 妄이 곧 眞인들 아라 眞을 두디 아니호면 혼 愚 삼시레 두 愚 바느리리라 (捨妄心호느니 將心除妄호면 妄還深호리라 了妄卽眞호야 眞不有호면 一條麻線에 兩條針이리라) <남명집언해 상:78b-79a>

(18ㄱ)은 ‘A는’이 생략되어 표면상 ‘곧 NP이라’ 구문으로 보이는 예이다. ‘곧’에 선행하는 요소가 없어서 이것이 초점부사가 아닌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여기에 쓰인 ‘곧’은 시간부사로 해석할 수 없다. 즉, (18ㄱ)의 ‘곧’은 “俗=眞”, “眞=俗”이라는 동의 관계를 드러내는 초점부사이다. (18ㄴ)은 A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였지만 이는 ‘妄’이 내포문의 주어이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특성상 내포문에서 주제어의 사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하고자 하는 명제는 “妄은 곧 眞이라”이다. ‘眞’에 서술성이 없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A이 곧 B이라” 유형도 중세 한국어에서 확인된다.

(19) ㄱ. 들흔 末을 거두자바 本에 가므로 不異를 볼기니 經에 닐오되 衆生이 곧 如이라 호며 또 涅槃에 닐오되 十二因緣이 곧 佛性이라 호며(二 攝末歸本 明不異 經云 眾生卽如也 又涅槃云 十二因緣 卽佛性故) <월인석보 11:57b>

- ㄴ. 深密經에 니르샤되 阿陀那識은 甚히 微細호되 一切入 種子 | 暴流 | 드와느  
 니라 내 凡愚에 여러 불어 니르디 아니호되 데 分別호야 자마 나 사뭇가 전  
 노라 호시니 外道의 잡는 神我 | 곧 이 識이라(深密經에 曰阿陀那識은 甚微  
 細호되 一切種子 | 成暴流호느니라 我 | 於凡遇에 不開演은 恐彼分別호야 執  
 爲我호노라 호시니 外道の 所執神我 | 卽此識也 | 라) <능엄경언해 5:13b>

(19ㄱ)의 ‘衆生’과 ‘十二因緣’은 선행 문맥에서 따로 언급된 적이 없는 신정보이지만, ‘곧’의 수식을 받는 요소(=‘곧’의 후행 요소)가 대안 집합의 원소 중 하나라는 점에서 “A는 곧 B이라” 유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19ㄴ)에서 “外道의 잡는 神我 | 곧 이 識이라”의 ‘곧’도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키며, 수식을 받은 ‘이 識’(阿陀那識)이 선택된 결과라는 점에서 위와 동일하다.<sup>12)</sup>

비전형적 환언문에는 ‘直’도 쓰일 수 있었는데, 그 언해가 좀 특이하다.

- (20) ㄱ. 니르산 戒는 禁止호야 마고모로 뜯 사르니 涅槃에 니르샤되 戒는 곧 이 一切  
 惡法을 마가 그췌미라 호시니라(所言戒者는 以禁防으로 爲義호니 涅槃에 云  
 호샤되 戒者는 直是遮制一切惡法이라 호시니라) <선종영가집언해 상:73b>  
 ㄴ. 無相은 이 虛호 기픈 道理오 無住는 이 着 업슨 眞宗이니 호다가 이 眞宗  
 妙道는 곧 이 法身오 못 우히라(無相은 是虛玄妙道 | 오 無住는 是無著眞宗  
 이니 若是眞宗妙道는 直是法身向上이라) <금강경삼가해 2:27a>

위 예문은 모두 “A는 곧 B이라”의 구조를 취하는 비전형적 환언문인데, 원문의 ‘直’이 ‘바르’가 아니라 ‘곧’으로 언해된 사실이 주목의 대상이다. 중세 한국어의 ‘바르’

12) 중세 한국어의 ‘X-이’는 의미 해석상 화제로 실현될 수 있었으므로, 이때의 주격 조사를 구정보 표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는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에서 모두 동일하게 확인된다. 장면층위 술어란 어떤 개체의 일시적 속성(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이고, 개체층위 술어란 개체의 지속적 속성(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속성)을 나타내는 서술어이다[이상 두임림(2014: 3장 2절) 참조.] 예를 들어, 아래의 ‘곧’은 개체층위 술어와 호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經이 (...중략...) 이 經이 곧 이 ㅁ스ㅁ 印이며 이 ㅁ스ㅁ 누니라[經이 (...중략...) 此經이 卽爲是心之印이며 是心之眼也 | 라] <능엄경언해 1:9a-9b>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면, ‘이 經이’(此經)는 예문의 맨 처음에 언급된 ‘경’을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신정보라고 하기 어렵다. 이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 經이’는 ‘이 經은’ 정도로 해석되므로, 위 예문은 표면상 “A이 곧 B이라”이지만 해석상 “A는 곧 B이라”이다. 다만, 두임림(2014)는 전적으로 현대 한국어 번역을 기준으로 중세 한국어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재론의 여지가 있다.

는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쓰이지 않았는데, 이는 동일한 환경에서 쓰였던 ‘곧’이 ‘바르’를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초점부사 ‘곧’이 당시의 ‘바르’를 압도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적어도 비전형적 환언문에 관한 한, ‘곧’이 초점부사로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였던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는 비전형적 환언만 나타나지만, 전형적 환언의 출현 가능성도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A는 곧 B이라” 구문에서 A와 B가 문장인 경우에 두드러진다.

(21) ㄱ. ㅎ다가 小法 즐기느 사르문 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에 着홀씩 곧 이 經에 能히 드러 바다 날그며 외와 늣 爲ㅎ야 사겨 니르디 못ㅎ느니라(若樂小法者 著我見人見衆生見壽者見홀씩 卽於此經에 不能聽受讀誦ㅎ야 爲人解說ㅎ느니라) <금강경언해 하:97a>

ㄴ. 能히 이 信을 發ㅎ면 無明業識을 다 두위혀 見聞覺知 | 一切 種智 드외리니 곧 이 經에 信으로 시러 들며 信으로 隨順호미 이 곧ㅎ니라(能發是信ㅎ면 頓離無明業識ㅎ야 見聞覺知 | 成一切種智矣리니 卽於此經에 以信得入ㅎ며 以信隨順者 | 如此ㅎ니라) <법화경언해 2:160b>

ㄷ. ㅎ다가 理를 보디 못ㅎ면 니르왁는 善惡과 八禪에 니르리 이 集諦오 身心의 生滅이 나 업슨 들 보면 곧 이 觀智 이 道諦오(若不觀理所起善惡 乃至八禪是其集諦 若觀身心生滅無我 卽此觀智 是其道諦) <월인석보 11:119b>

(21)의 ‘곧’은 현대 한국어에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곧’의 용법과 비슷하다. 이들은 모두 ‘곧’에 선행하는 부분이 접속 구성으로 되어 있다. 즉, ‘곧’을 기준으로 하여 접속 구성의 선·후행절을 문장으로 바꾸면, 이것은 전형적 환언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1)은 전형적 환언에 ‘비교적 가까운 단계’로 생각된다. (21ㄱ)의 의미를 재정리하면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편의상 해석은 현대 한국어로 바꾸었다).

(22) [만약 小法 즐기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我見 人見 衆生見 壽者見에 着하게 된다.] [그러므로 달리 말하면 그 사람은 이 經에 能히 몰입하여 받아 읽으며 외워 남 위하여 새겨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22)는 (21ㄱ) 선행절의 ‘-을씩’를 ‘그러므로’로 바꾼 뒤, 후행절 첫머리로 위치시

킨 것이다. 이것이 전형적 환언은 되지 못하지만, 그것에 매우 근접하여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21ㄴ)도 전형적 환언의 기원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곧ㅎ-’ 구문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편의상 (21ㄴ)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재정리한다.

- (23) ㄱ. ①能히 이 信을 發하면 無明業識을 다 뒤집어 見聞覺知가 一切 種智 될 것이다. ②사람들이 이 經에 信으로 얻어 들며 信으로 隨順하려는 것은 이와 같다.  
ㄴ. 能히 이 信을 發하면 無明業識을 다 뒤집어 見聞覺知가 一切 種智 될 것이다. 이는 곧 사람들이 이 經에 信으로 얻어 들며 信으로 隨順하려는 것과 같다.

(23ㄱ)의 ②는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고 ①은 그 결과에 해당하는데, 이 두 문장은 ‘곧ㅎ-’로 연결되어 있다. (23ㄱ)은 (23ㄴ)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세 한국어 ‘곧ㅎ-’ 구문과 비전형적 환언문의 유사성에 기인한다. “A이 B이 곧ㅎ-” 구문에서 A와 B는 의미적으로 동일함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의미적 동일함은 “A는 곧 B이라”의 ‘A, B’ 관계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3ㄴ)은 형식적으로 비전형적 환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21ㄴ)의 ‘곧’은 의미적으로 전형적 환언에 가깝다. 전형적 환언에서는 ‘곧’의 생략이 불가능한데, (21ㄴ)에서 ‘곧’이 생략되면 그것은 환언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 (24) ①能히 이 信을 發하면 無明業識을 다 뒤집어 見聞覺知가 一切 種智 될 것이니 ②이 經에 信으로 얻어 들며 信으로 隨順함이 이와 같다.

‘곧’이 생략된 (24)는 ‘① : ② = 이유·원인 : 결과’로 해석될 뿐이다. 그렇지만 본래의 의미는 그것과 정반대인 ‘① : ② = 결과 : 이유·원인’으로서, ‘곧’은 이러한 의미적 파탄을 해결하는 장치이다. ‘곧’은 (24①)과 (24②)를 의미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선·후행 의미 관계가 도치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아 준다. 그러므로 이때의 ‘곧’은 생략이 어렵다. (21ㄴ)이 의미적으로 전형적 환언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21ㄴ)보다 전형적 환언에 더 근접한 것은 (21ㄷ)이다.

(25) ① ㅎ다가 理를 보디 못ㅎ면 니르얌는 善惡과 八禪에 니르리 이 集諦오 身心의 生滅이 나 업슨 들 보면 ② 곧 이 觀智 이 道諦오 [= (21ㄷ)]

(25②)에는 두 종류의 지시 표현 ‘이’가 있다. 전자의 ‘이’는 원문의 ‘此’를 번역한 것이고, 후자의 ‘이’는 원문의 ‘是’와 관련된다. 즉, (21ㄷ)은 ①의 내용을 ②의 ‘觀智’로 환언하고, 그것을 ‘道諦’라고 다시 표현한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21ㄷ)을 현대어로 풀어 쓰면 다음과 같다.

(26) 身心의 生滅이 내가 없는 것을 보면, 곧 이 觀智이고 바로 그것이 道諦이다.

(26)은 ‘觀智=道諦’라는 것이고, ‘觀智’를 다시 바꾸어 쓰면 “‘觀智’=‘身心의 生滅이 내가 없는 줄을 보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것은 전형적 환언과 매우 유사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A 곧 B”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전형적 환언이라 하기 어렵다. 요컨대, 전형적 환언에 가장 근접한 것은 (21ㄷ)이고, (21ㄴ), (21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전형적 환언은 이런 과정을 거쳐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 문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 <2> 근대 한국어의 ‘곧’

중성 ‘ㄷ-ㅅ’의 혼기에 의한 ‘곧-곳’의 표기 변화를 제외하면, 근대 한국어 ‘곧’은 중세 한국어의 특성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다. ‘곧’이 시간부사와 초점부사로 기능하였다는 점도 동일하였는데, 아래에서는 몇몇 예들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먼저, 시간부사 ‘곧’의 예들이다.

- (27) ㄱ. 무근 물과 언 콩과 무근 풀과 물래과 지 퇴글과 검의줄과 터릭 등물을 ㄱ장 기홀디니 먹그면 곧 여위여 병이 나느니라(切忌宿水凍料陳草沙磧灰塵蛛絲毛髮等物이니 食之即瘦瘠生病이니라) <마경초집언해 상:39a>
- ㄴ. 이제 王이 곧 命ㅎ야 니르샤되 功의 宗을 記ㅎ야 功으로 卞 元祀를 作ㅎ라 ㅎ시고(今王이 卽命曰 記功宗ㅎ야 以功으로 作元祀ㅎ라 ㅎ시고) <서전언해 4:30a>
- ㄷ. ㅎ다가 선디식을 만나 권ㅎ야 ㅎ 탄지홀 ㅎ이나 디장보살을 귀의케 ㅎ면

- 이 중칭들히 곧 삼악도보 버숨을 득흐리니 <지장경언해 상:29a>
- ㄷ. 데 꾸지즈니 네 곳 더를 터죽이도다(他罵你便打死他) <오륜전비언해 1:48a>
- ㄹ. 흔 번 야고버를 보매 곳 막음에 우러러 스모흐야 성인으로 놉히고 스승으로 맞들지 아니흐는 이 업고 또 용모가 예수로 더브러 서로 방불흐니 사름들이 더욱 공경흐는지라 <주년첨례광익 2:106b>

시간부사 ‘곧’은 문맥에 따라 상대적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27ㄷ)은 이 예들 중에서 시간의 간격이 가장 짧은 것으로 해석되지만, 나머지 예들은 그보다는 여유가 느껴진다. (27ㄱ, ㄴ)은 시간부사 ‘곧’이 동사-부사로 쓰인 예이지만, 나머지는 모두 ‘곧’이 동사구-부사인 예이다. 동사구-부사는 동사-부사로 쓰일 수 있으므로, 근대 한국어의 시간부사 ‘곧’ 역시 동사구-부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초점부사 ‘곧’의 예이다. 중세 한국어의 초점부사 ‘곧’은 크게 “A{는, 이} 곧 B이라” 구문에서 실현되었는데, 이것은 근대 한국어도 마찬가지였다.

- (28) ㄱ. 변씨는 곧 안찰스 변윤의 썩리라(邊氏卽按察使邊胤之女也)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충신도 1:22b>
- ㄴ. 點劔勢는 곧 칼을 點흐야 디름이라 <무예도보통지 16a>
- ㄷ. 그러나 술 금흐는 령은 곧 나의 고심이라(而然이나 禁酒之令은 卽予苦心이라) <어제계주운음 24b>
- ㄹ. 敬順은 곧 처음 章에 卑下하고 부즈런을 니기는 일이라 <여사서언해 1:7a>
- ㄹ. 親을 結혼은 곧 義를 結혼이니 아므 人家|라도 관첩디 말고 그저 門이 서르 當하고 戶| 서르 對홀이를 要혼이 곧 무던하다(結親卽結義 不管甚人家 只要門相當戶廝對便罷) <오륜전비언해 2:11a>
- ㅁ. 內訓七篇은 곧 우리 昭惠王后의 纂述흐샤 글으치시물 드리오신 글이오(內訓七篇은 卽我 昭惠王后의 纂述垂訓之書) <어제내훈 1:1b>
- ㅂ. 이 약은 전동디유행의 지은 배니 그 셔이 닐러시되 열희셔 열희 살고 빅의셔 빅이 다 산다 흐야시니 이는 곧 넘우 니른 말이니 반드시 맛디 못홀 말이여니와(此藥卽全同知有馨之所製也 其自跋有曰十全十百全百 此則自多之辭也) <두창경험방 68b>
- ㅇ. 효는 빅힘의 근원이니 오륜 가운데 회 문져 되느니라 순의 성흔 세에도 그 오히려 설을 명흐야 글으샤디 오품이 손치 아니타 흐시니 오품은 곧 오륜이라(夫孝子는 百行之原이니 五倫之中애 孝| 爲先이라 舜之盛世에도 基猶

- 命契曰五品不遜이라 하시니 五品者는 卽五倫也 | 라) <어제백행원 11a>
- (29) ㄱ. 전일 탄금하던 녀관이 곧 양당원이라 <구운몽 경관 32장본:14a>  
 ㄴ. 또 날다려 일너 곁오디 이거시 곧 죠군의 침셔니라 <죤군령적지 26b>  
 ㄷ. 만일에 밋스럽고 든든하여 죽방을 갖하여 손에 닳티는 거시 곧 밋친 쏱이  
 니 쥐믈러 그 쏱을 파하면 즉시 효험 보리라(如遇滑硬如毬하야 打手者이  
 卽是結糞이니 掘破其糞하면 便時見效라) <마경초집언해 하:91a>  
 ㄹ. 북편 벽 우히 당둥하야 혼 사람의 화상을 그려시니 겨집의 의상이오 머리  
 를 프러 좌우로 드리우고 눈을 뺨기여 먼 덕을 바라보니 무흔흔 식과 근심  
 하는 기상이라 이거시 곧 텃쥬라 혼 사람이니 <을병연행록 7:48b>

(28)은 “A는 곧 B이라” 구문이고, (29)는 “A이 곧 B이라” 구문인데, 모두 초점부사 ‘곧’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구문에 대해서는 이미 중세 한국어 부분에서 언급하였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

17세기 말엽부터는 전형적 환언의 기원이라 할 만한 예들이 등장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전형적 환언은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라고 하여 전형적 환언이 곧바로 등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 (30) ㄱ. 이를 率하야 陳을 두어 殷을 保父하니 故로 殷이 禮로 陟하야 天에 配하야  
 年을 歷하 所 | 多하니라 天이 佑하샤 命하샤미 純혼 디라 곧 商이 實하야  
 百姓과 王人이 德을 秉하며 恤을 明티 아니하며 小臣과 屏賢 侯甸이 ㅎ믈  
 며 다 奔走흠이썩녀(率惟茲有陳하야 保父有殷하니 故殷이 禮陟配天하야 多  
 歷年所하니라 天惟純佑命이라 則商이 實하야 百姓王人이 罔不秉德明恤하며  
 小臣屏侯甸이 矧威奔走 | 썩녀) <서전언해 4:62b-63a>  
 ㄴ. 바른덕로 말이지 도련님이 외입당이러라 곧 오미지상이오 초병 막기오 말  
 게 친인 영덩이오 들의 친인 복성화썩오 산기암이 밋궁이오 경계쥬머니 아  
 들일너라 <남원고사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1:21a-21b>

(30ㄱ)의 ‘곧’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동시에, 선행문과 후행문이 동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다만, (30ㄱ)에서 ‘곧’을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전형적 환언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전형적 환언이라면 형식 범주도 동일해야 하는데, (30ㄱ)은 선·후행문의 문장종결법이 다르다는 점에서 평행성 원리를 어기고 있다. 즉, (30ㄱ)은 의미 범주는 동일하지만 형식 범주가 동일하지 못한 환언문이다.

그에 비하여 (30ㄴ)은 의미나 형식 범주에서 모두 전형적 환언으로 인정될 만하다. (30ㄴ)은 ‘곧’을 기준으로 하여 두 문장이 병렬된 구조이다. ‘곧’의 선행 문장과 후행 문장이 모두 ‘-러라, -너라’로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문장의 형식 범주가 일치한다. 선행 문장은 ‘이몽룡’이 오입쟁이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이고, 후행 문장은 그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 범주도 일치한다.<sup>13)</sup> 「남원고사」는 19세기 중엽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sup>14)</sup> 우리는 전형적 환언이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에 등장한 것으로 상정한다.

### <3> 20세기 초·중반의 ‘곧’

시간부사 ‘곧’의 위상은 20세기에 와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또한 비전형적 환언의 기능을 하는 초점부사의 위상도 여전히 굳건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명사구] 곧 [명사구]’ 구성이 처음 등장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전형적 환언은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접속하는 것으로서, 이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온전한 환언의 접속부사 ‘곧’이 등장한 것이다. 즉, 전형적 환언의 ‘곧’은 문장과 문장의 접속이 먼저였고, 명사구와 명사구의 접속이 출현한 것은 그보다 이후였다.

시간부사와 초점부사 ‘곧’은 이전 시기와 거의 동일하므로 부연하지 않고, 여기에 서는 접속부사 ‘곧’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31) ㄱ. 예수께서 물 우흐로 도라오심[짜은 게네스렛 호슈와 가베나움 년디는 슈 후 二十八년 三月 二十五일노 二十六일 곧 레빅 스 일과 오 일] <신학월보 1909. 7권 1호:42>
- ㄴ. 그러치오 그러헝기에 루테로도 텃쥬교를 비판헝기 전에는 고희를 헝엇고 루테로가 날 쎄(강싱 후 일천스빅팔십삼년)에 잇던 모든 디방 텃쥬교인들이

13) ‘烏梅, 醋瓶 마개, 산 개미 밧궁’은 신맛을 내는 요소이고, ‘말에게 차인 엉덩이, 돌에 차인 복사뼈’ 등은 육체적인 짜릿한 통증을 나타내는 요소이며, ‘경계주머니 아들’은 여러 여자들과 관계를 맺는 남성을 뜻한다. 이것들은 모두 「춘향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열거법 중의 하나로서 성적인 유혹과 관련된다(설성경 1993: 88 참조). 이러한 열거법은 “X는 A, B, C이다”를 뜻하는데, 여기서 열거된 ‘A, B, C’ 등은 선행 요소 ‘X’를 다룬 것으로 환언한 것이다.

14) 「남원고사」는 5권 5책으로서 각 권 끝에 필사된 연도가 적혀 있어서 필사된 기간을 추정할 수 있다. 권1~3에는 甲子년으로, 권4~5에는 己巳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864년에서 1869년 동안이 필사된 기간이다[이상 김진영 외(1997:1) 참조].



다 고회를 흐였고 스기를 보면 루테로가 나기 전(륙빅년 전 곧 강싱 후 팔빅년)에 가오로 황데씨서 고회를 자조 밧으섯단 말이 쪽쪽흐며 그 황데씨 고회를 준 신부의 성명식지 쪽쪽히 기록흐였고 루테로가 나기 전(천여년 전 곧 강싱 후 삼빅팔십년)에 암보로시오 성인 밀나노 주교씨서 밤낫으로 교우들의 죄 고희는 것을 드렸단 말이 스기에 쪽쪽흐고 <경향보감 4:156>

(31)은 20세기 초반에 드물게 등장하는,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주는 접속부사 ‘곧’의 예이다. 전형적 환언은 ‘곧’에 선행하는 요소에 주격 조사나 주제 보조사가 통합하지 않고, ‘곧’의 선·후행 요소를 서로 대치하여도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환언이다. (31)은 그러한 특성을 모두 충족시킨다.

한편, (31)의 예는 모두 특정 시간대를 환언하는데, 시간 명사구가 전형적 환언으로 실현된 예는 ‘즉’에서도 발견된다(후술됨). 그러한 의미에서 (31)은, 명사구를 잇는 전형적 환언의 기원이 어디에서 기원하였는가를 암시적으로 보여준다.

명사구에 대한 전형적 환언이 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인가? 이미 앞선 시기부터 의미·형식 범주에서 전형적 환언에 가까운 예들이 등장하였다. 비록 문장과 문장의 접속에 국한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예들은 전형적 환언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라 부를 만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명사구에 대한 전형적 환언의 성립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지는 않는다. 명사구의 전형적 환언은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주격 조사나 주제 보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NP 곧 NP’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31)은, 애초에 문장을 염두에 둔 것도 아니었다.

‘곧’이 명사구 접속 용법을 획득하게 된 데에는 ‘즉’의 영향이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 ‘곧’은 한자어 ‘卽, 則’ 등에 대한 번역어로서 시간부사, 초점부사로 쓰이던 것이었다. ‘곧’의 여러 하위 의미들의 그 위력은 막강하여, 별다른 의미의 변화나 손실이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한자 ‘卽’<sup>15)</sup>을 한자음 그대로 읽은 ‘즉’의 운명은 그렇지 못하였다.<sup>16)</sup> ‘즉’은 일련의 변화를 경험하고 독자적인 부사로 쓰이면서 접속부사로서의 기능도 획득하게 되었다.<sup>17)</sup> 후술하겠지만,

15) 관련 내용은 ‘2.3.2’를 참고하기 바란다.

16) 뒤에서 상술하겠지만, 애초에 ‘卽’은 시간부사로 쓰이지 않았다. 시간부사로서의 의미는 ‘즉자히(> 즉제)’라는 번역어나 ‘卽時(예)’라는 또 다른 시간 표현이 전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卽’은 연결어미 ‘-ㄴ즉’으로도 이해되었는데, 이는 더더욱 부사 ‘곧’과의 유의성을 따지기 어렵게 만들었다.

17) 관련 내용은 ‘2.3.2’를 참고할 수 있다.

당시의 ‘즉’은 전형적 환언의 접속부사로 쓰이고 있었다.

- (32) ㄱ. 경주년 즉 일천팔백스십년 정월 이십삼일에 <경향보감 4:136>  
ㄴ. 고 신부가 조선으로 향했스니 (...중략...) 무술년에 외교 지방에 가 전교  
홀 예비를 하고져 하여 전교학당에 가 있다가 기해년 즉 일천팔백삼십구년  
오월 초칭에 볼도에서 비를 타고 썩낫는디 <경향보감 4:136>  
ㄷ. 영록이가 그어머니 압히 하직을 하고 죽장망혜로 나셔라 한디 즈기 부인  
셔씨 즉 연희가 역시 남북을 츠리고 나아와 먼저 오씨 부인에게 즈기 남편과  
자치 나아가 원슈 갑기를 청한다 <비과성 106쪽>  
ㄹ. 여러 가지 약을 쓰며 여러 가지 방법을 행하야도 조금 효험 없이 주야 고  
통이 쓴이지 안이한디 의스는 본래 신경쇠약증(神經衰弱) 즉 기부족증이  
잇는 우에 비상이 놀나고 비상이 두려운 생각이 이러나 <눈물 하:150쪽>  
ㅁ. 몸을 피하기는 록용갓치지고 서울로 갔던 사람 즉 최군심의 가속이 문보가  
용갑을 선당하야 주어 저의가 포슈에게 부딪기지 안케 혼 일을 감격히 녀  
여 결초보은(結草報恩)을 홀 작덩이러니 <황금탑 78쪽>

이때의 ‘즉’은 명사구 접속부사로서, 오늘날의 ‘즉’과 동일한 것이다. 위 예들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즉’이 지니고 있던 명사구 접속 용법(전형적 환언)이 ‘곧’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곧’이 명사구를 환언하는 접속부사의 기능을 획득하게 된 것은, ‘즉’과의 끊임없는 유의 경쟁의 결과일 것이다. 이것은 ‘곧’이나 ‘즉’이 ‘卽’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세기 극초반에는 명사구 접속부사 ‘곧’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당 용법의 빈도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 (33) ㄱ. 더욱히 금년은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싱기어난지 육십일년 곧 환갑 되는 날 이라 <東學의 回甲日. 1920.04.06. 동아일보 7면>  
ㄴ. 후에 그 變服한 憲兵 곧 警官은 文官의 直轄 下에 歸하였스니 將次 그 壓迫威脅이 少할 터이며 그 權限이 縮少되야 過去의 失을 補함이 잇스리라 <朝鮮統治改良에 對한 外國人의 觀察 (四). 1920.04.26. 동아일보 1면>  
ㄷ. 금년은 음력 十一月 十五日 곧 一月 二일부터 한 달 동안 개시하기로 되었는데바 한약상조합(漢藥商組合)에서는 모처럼 문제되든 이전(移轉)도 하지 안코 <開市期迫頭한 大邱의 藥令市. 1931.01.02. 동아일보 3면>

- ㄱ. 明年 五月四日로부터 三日間 “호놀룰루”에서 國民外國貿易會議及太平洋貿易外國會議의 聯合會議를 개최하는바 參席者는 米國 곧 太平洋 沿岸 諸國의 代表的 實業家들이겠습니다 <國際貿易會議에 出席을 慫慂. 1931.10.11. 동아일보 2면>
- ㄴ. 이 冊 題目 中에 ‘膳’이라 함은 소반 곧 食床을 가르침이다 <淺川巧 著 『朝鮮의 膳』을 읽고. 1931.10.19. 동아일보 4면>
- ㄷ. 그 모부인은 순신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고 숲버서 병이 생긴 것이었다. 그러다가 순신의 꿈자리가 사납던 바로 그날 곧 十一일에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李舜臣 (131). 1932.01.31. 동아일보 7면>
- ㄸ. 檀君 紀元 千餘年만에 檀君大朝鮮이 列國 곧 扶餘 後朝鮮, 馬韓, 卞韓, 辰韓, 濊, 沃沮의 七國으로 分立되었다가 <古都史蹟探查記 (1), 1933.05.03. 동아일보 4면>
- ㄹ. 漢陽朝에 들어서도 亦是 禮判으로 門下右政丞 (곧 左相)까지 되고 七十 享壽에 贊化功臣으로 驪興伯이 되고 <己卯와 人物. 1939.01.01. 동아일보 5면>

(33ㄱ, ㄷ, ㄷ)은 시간 표현을 다른 수단으로 환언한 것으로서 직전 시기의 문헌 자료에서 확인된 용법이다. 그 외의 예들 역시 모두 ‘곧’을 중심으로 하여 명사구와 명사구를 선조적으로 연결하는바, 이는 오늘날의 전형적 환언을 드러내는 ‘곧’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특이하게도 (33ㄹ)은 괄호 안의 내용을 통하여 환언을 시도하였다. 괄호 안에 쓰인 ‘곧’은 ‘門下右政丞=左相’으로 만들어주는 장치인데, 이는 전형적 환언이 아니면 불가능한 방식이다. 이후에도 전형적 환언의 ‘곧’이 다수 등장하였고, 이것은 오늘날로 이어진다. 몇몇 표기를 제외하면 오늘날의 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기에, 여기에서는 일일이 예를 들지 않는다.

초점부사 ‘곧’은 여전히 활발하게 등장하였다.

- (34) ㄱ. 올치 그 놈들에게 욱불 번히고 도망히다든 계집이가 곧 너로구나 <현미경 54쪽>
- ㄴ. 그 뒤에 운동 모자를 꼭 숙여 쓰고 짜라오는 사람은 곧 정이의 남형 박춘식이니 <안의성 31쪽>
- ㄷ. 일주일전에 한번 바외우에서 물거품과 갖히 업서지려하던 혜경을 붓잡은 사람이 곧 이 부인이라 <두견성 하:82쪽>
- ㄹ. 그시 벼 뷔다 늦코 니러서 녕감과 수작하는 사람은 곧 그곳 수농인인디 위인도 통실하고 그 쥬인 녕감의 뜻을 아는고로 <행락도 9쪽>

- ㄷ. 밧게 온 손님은 곧 벨돈 씨닌디 길동이에게 즈기와 밧 즈기의 족하 으히로  
더부러 식로 난 동물원 구경을 가자고 옴이러라 <만인계>
- ㄹ. 이췌 법국과 좁은 바다물 한아를 격혀 이웃헌 나라는 곧 영국이라 이 두  
나라가 빅년 이리로 원슈가 되여 날마다 싸흠을 일삼는지라 <익국부인전 4  
쪽-5쪽>

당시의 ‘곧’은 모두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초점부사로 기능하였다. 그런데 ‘바르’는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도 초점부사로 기능할 수 있었으나, ‘곧’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를테면, “{바로, ??곧} 오늘이 내 생일이다”처럼 ‘곧’이 후행하는 체언을 직접 수식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이것은 ‘곧’이 온전한 접속부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이후, 접속의 기능에 특화된 존재로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 등장한 ‘곧’은 시간부사나 접속부사로 해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 <4> 요약

‘곧’은 중세 한국어에서 시간부사, 초점부사로 기능하였다. 시간부사 ‘곧’은 ‘卽’, ‘便’, ‘輒’ 등을 언해한 것으로서, 동사구-부사로서, 동사-부사로도 쓰일 수 있었다. 초점부사 ‘곧’은 비전형적 환언문 내에서만 등장하였는데, 보통 ‘卽’, ‘則’, ‘直’ 등에 대한 언해였다. 중세 한국어 시기까지 전형적 환언의 접속부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 도 ‘곧’은 시간부사와 초점부사의 용법을 유지하였는데, 18세기~19세기 교체기를 기준으로 문장과 문장을 환언하는 접속부사 용법이 등장하였다. 이후 개화기 시기를 전후하여 명사구와 명사구를 환언하는 접속부사 ‘곧’이 등장하면서, ‘곧’은 온전한 접속부사로서의 용법을 획득하였다. 이것은 ‘곧’이 접속부사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곧’은 시간부사, 초점부사(비전형적 환언문), 접속부사의 용법을 지닌다.

<표-5> ‘곧’의 역사적 변화

원문의 한자	분류	의미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	문법적 분류
卽, 便, 輒	곧1	시간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	○	○	동사구-부사
卽, 則, 直	곧2	초점	다름 아닌.	○	○	○	명사구-부사
卽, 則	곧3	환언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	○	○	접속 부사

## 2.3. 즉

현대 한국어 ‘즉’은 접속부사로서의 특징이나, 유의어 ‘곧’(환언의 접속부사)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언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오늘날 ‘즉’이 매우 한정된 용법만 지닌다는 사실을 뜻한다. 그렇지만 ‘즉’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검토하면, 짧은 기간이기는 해도 ‘즉’에는 다양한 용법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근대 한국어 시기의 ‘즉’은 시간부사, 초점부사의 용법도 지녔는데, 이러한 용법의 존재는 ‘곧’과의 유의 경쟁과 맞물려 매우 흥미로운 결과로 이어졌다. 우선 현대 한국어 사전에 쓰인 ‘즉’의 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즉’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확인하겠다.

### 2.3.1. 현대 한국어의 ‘즉’

현대 한국어 ‘곧’이 시간부사, 접속부사, 초점부사로서 기능하는 것에 비하여, ‘즉’은 환언의 접속부사로 인식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즉’이 ‘곧’의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사전에서는 동일한 환언을 두고서 여러 가지 뜻풀이를 시도하기도 한다.

(1) ㄱ. 바꾸어 말하자면. 다름이 아니라.

¶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즉 마음의 뜻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작가는 이 인물들의 특징적 삶을 통하여 그녀가 처한 현실, 즉 우리들 삶의 실질 내용을 보여 준다.

ㄴ. (앞의 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접속 부사로 쓰이어) 다시 설명하자면. 더 쉽게 말하자면.

¶ 이솝 우화의 거의 모두가 그렇지만 이 바람과 해에 대한 우화도 아주 교훈적이다. 즉 강압적인 완력보다 온화한 순리적인 방법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다.

ㄷ. (앞에서 말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는 접속 부사로 쓰이어) 부연하면. 자세히 말하자면.

¶ 대장을 만난 그는 커다란 도박을 벌였다. 즐 그는 자기를 부대장으로 임명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이상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가져옴.)

접속부사 ‘즉’은 다양한 의미로 풀이되지만, (1)은 환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다. 환언문은 의미에 따라 ‘개괄형’, ‘주석형’, ‘예시형’ 등으로 분류되는데,<sup>1)</sup> (1)은 이러한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된다. 즉, (1)은 환언의 다양한 의미 표현 방법들을 다르게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전의 기술 태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세한 의미 분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은 궁극적으로 “A라는 것을 B라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맥에 따라 (1)처럼 다양하게 해석된다고 하면 그만이다.

접속부사 ‘즉’은 전형적·비전형적 환언문에서 모두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 (2) ㄱ. 그 문제는 화용론, 즐 단어와 문장의 뜻과 실제 상황에 나타나는 발화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다.
- ㄴ. 작가는 이 인물들의 특징적 삶을 통하여 그녀가 처한 현실, 즐 우리들 삶의 실질 내용을 보여 준다.
- ㄷ. 이솝 우화의 거의 모두가 그렇지만 이 바람과 해에 대한 우화도 아주 교훈적이다. 즐 강압적인 완력보다 온화한 순리적인 방법이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내용이다.
- (3) ㄱ. 힘은 즐 옳음이었다. 약함은 즐 죄였다. <김동인, 젊은 그들>
- ㄴ. 나의 임무는 즐 이 집에다 편지를 바치고 그 답장을 맡아 오는 것이다. <김유정, 생의 반력>

(2)와 (3)은 사전에서 모두 환언의 예로서 등장하는 것들이다. 사전에서 “다시 말하여”, “바꾸어 말하자면”, “자세히 말하자면” 등의 의미로 제시된 것들은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2)는 평행성 원리를 지키는 접속부사 ‘즉’의 예이다. 따라서 환언 표지에 선행하

1) 이홍매(2013)에 따르면 환언문은 구조적 특징, 의미적 특징, 화용적 특징에 따라 몇몇 유형으로 분류된다. 우리가 언급한 의미적 특징은 개괄형, 주석형(단어 의미 해석, 비유적 의미 풀이, 열거에 의한 명시, 지시 대상에 대한 명시), 예시형이다(이홍매 2013: 229~237). (1)의 예들은 모두 이 유형 중 하나에 속한다.

는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는 모두 형식·의미 범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실제로 (2)의 문장들은 모두 “A 즉 B”(A는 환언 표지의 선행 요소, B는 후행 요소. 이하 동일)의 구조를 취하는데, 여기서 A와 B는 형식과 의미 범주가 동일하다. A와 B에는 구 이상의 문법 단위가 올 수 있다. 특히, 전형적 환언의 A와 B에는 문장 단위까지 올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즉’에 적용된다. (2ㄱ, ㄴ)은 해당 위치에 명사구가, (2ㄷ)은 해당 위치에 문장이 온 예이다.

(3)은 초점부사 ‘즉’의 예로서, 비전형적 환언문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직관에 따르면, ‘즉’이 쓰인 (3)은 거의 비문으로 느껴질 정도로 어색하고, 이때의 ‘즉’은 ‘곧’으로 대체될 경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 예들은 모두 1930년대 텍스트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sup>2)</sup> 이는 적어도 20세기 중반까지는 초점부사 ‘즉’이 나름 쓰이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즉’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현대 한국어에 이르는 과정에서 초점부사 ‘즉’은 사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즉’과 ‘곧’은 완전한 동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을 일반적인 환언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다.

- (4) ㄱ. 것처럼 까마득한 갯을 여자가 드나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즉 사고나 일으키기 안성맞춤이었다.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에서 가져옴.)
- ㄴ. 신체적 통증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치료할 수는 없으며, 신체적 고통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도 없다. 즉, 다양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학>
- ㄷ. 또 출판업자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출판해야 하고, 감수자도 감수료만 받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감수하여 좋은 양심적인 책이 나와야 몇몇한 것이다. ‘한국야생조류’에도 39팔색조는 개나리 숲에 앉지 않는다. 상록수림에만 서식하는 새이다. 즉 새와 환경이 맞지 않는다. <천리안의 자연과학 서적 서평,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4)는 모두 “A 즉 B”의 구조로서 이때의 A와 B는 문장이다. 일부 사전에서는 (4ㄱ)의 경우에 일정한 인과 관계가 드러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3)</sup> 후행절의 내용이

2) 「젊은 그들」은 김동인이 1930년부터 연재한 소설이고, 「생의 반려」는 김유정이 1936년부터 연재한 소설(미완)이다.



선행절의 원인이 될 경우 ‘즉’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4ㄱ)은 ‘선행절 : 후행절 = 결과 : 원인’의 관계라는 점에서 다소 특수한 경우로 생각된다.<sup>4)</sup>

반면에, (4ㄴ, ㄷ)에서는 ‘선행절 : 후행절 = 결과 : 원인’과 같은 인과의 역전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의 선행절과 후행절은 각각 원인과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즉’이 인과의 접속부사로도 해석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환언의 특성에 기대어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환언은 후행하는 내용이 선행하는 내용을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환언 표지의 선·후행절의 관계가 ‘구체적-추상적’인 경우라면, 이는 ‘원인-결과’처럼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4ㄴ, ㄷ)은 형식 범주면에서 전형적 환언에서만 실현되고, 그 중에서도 문장과 문장의 접속에만 나타난다. 또한 의미 범주면에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가 ‘정확하게’ 1:1의 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를테면, (4ㄴ, ㄷ)의 ‘즉’은 ‘곧’보다는 ‘따라서, 그러므로’로 대치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4ㄴ, ㄷ)의 ‘즉’은 인과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부사로서, 환언의 접속부사와는 달리 처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즉’의 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6> 현대 한국어 ‘즉’

분류	의미		문법적 분류
즉1	환언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접속부사
즉2	인과	따라서, 그러므로.	접속부사

환언의 접속부사라는 점에서 ‘즉’과 ‘곧’은 유의어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즉’은 시간부사로서 쓰이지 못하지만 ‘곧’은 가능하다는 점,<sup>5)</sup> ‘즉’은 문장과 문장의 인과 관계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곧’은 그렇지 못

3) 이러한 의미를 지닌 것은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이 유일하다.

4) 통시적으로 볼 때 ‘즉’이 연결어미 ‘-ㄴ즉’과 연관을 맺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때의 ‘-ㄴ즉’은 ‘선행절 : 후행절 = 원인 : 결과’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였을 뿐, (4ㄱ)과 같은 방식의 인과(결과-원인)를 나타내는 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할 예정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5) 통시적으로 볼 때 ‘즉’에 시간부사 용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즉’이 ‘곧’과의 유의성

하다는 점, ‘즉’은 초점부사로 쓰이지 못하지만 ‘곧’은 가능하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역사적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

### 2.3.2. 현대 한국어 이전의 ‘즉’

‘즉’은 한자 ‘卽’에 대한 한국 한자음으로서, 시간부사, 초점부사, 접속부사의 용법을 지니고 있었다. 대체로 ‘卽’자는 중세 한국어 시기는 물론 17세기에 이르기까지 ‘곧’으로 언해되었고, 짧은 시간 간격을 드러낼 때는 ‘즉자히, 즉재, 卽時에, 즉시’ 등으로 언해되었다. 이런 상황은 역사적으로 ‘즉’자가 문면에 출현하는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았다. 초점부사 ‘즉’이 출현한 것은 중세 한국어부터였지만, 그 이외의 용법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즉’은 현대 한국어의 사전에 적힌 용법으로 축소되었다. 요컨대, ‘즉’이 오늘날의 용법으로 굳어지게 된 것은 언어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 <1> 시간부사 ‘즉’

‘즉’은 시간부사로 기능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근대 한국어 이후부터였다. 중세 한국어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드러내는 ‘卽’은 아래와 같이 언해되었다.

- (5) ㄱ. 아되나 病이 이셔 이 經을 드르면 病이 즉자히 업서 늙디 아니흐며 죽디 아니흐리라(若人有病 得聞是經 病卽消滅 不老不死) <석보상절 20:30b>  
ㄴ. 또 皂莢과 細辛스 곁을 디허 콩 낫만 흐닐 두 곳굽기 불라 또 들기 벼출 뻗어 피내야 이베 처디면 즉자히 사느니(又方擣皂莢細辛屑如豆大吹兩鼻中 又方刺雞冠 血出滴口中 卽活) <구급방언해 상:75b>  
ㄷ. 그뵈 無盡意菩薩이 즉재 座로셔 니르샤 올흔 엇게 메밧고 合掌흐야 부터 向흐스바 슬브샤디(爾時 無盡意菩薩卽從座起 偏袒右肩 合掌向佛 而作是言) <월인석보 19:8a>  
ㄹ. 오직 어딘 사름 어두므로 寶 사므라 니르시놋다 后 | 즉재 拜謝흐샤 슬오

---

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하겠다.

샤디 眞實로 聖言 곤호시이다(但謂以得賢으로 爲寶耳로다 后 | 卽拜謝曰호  
샤디 誠如聖言호시니이다) <내훈 2 하:46a>

- (6) ㄱ. 一心으로 觀世音菩薩사 일후믈 일크르면 卽時예 音聲을 보아 다 버서나물 得  
호리라(一心稱名 觀世音菩薩卽時觀其音聲 皆得解脫) <월인석보 19:19a-19b>  
ㄴ. 또 金瘡이 창지 나가든 卽時예 미리 녀코 쑥 거츠로 실 땡마라 호면 도호  
니(又方金瘡腸出隨 卽推入 用桑皮作線縫佳) <구급방언해 상:87b>  
ㄷ. 인호야 架上勢를 호야 호 번 디르고 또 호 번 디르고 즉시 호 거름을 낮드  
러 闌下 되여 架上으로써 호 번 디르고(以架上—刺又以拗步退退一步爲闌下  
以架上—刺) <무예제보 25a>  
ㄹ. 나는 즉시 갈 거시로디 당니를 반도 못 바다시니 <순천김씨언간 51>

(5)는 ‘卽’이 ‘즉자히’와 ‘즉재’로 언해된 예를 보인 것이다. ‘즉자히’나 ‘즉재’는 모  
두 시간의 간격이 매우 짧다는 사실을 뜻한다. 따라서 이때의 ‘卽’은 현대 한국어의  
“즉시”, “곧바로” 등으로 해석된다. (6)은 ‘卽時예’와 ‘즉시’가 쓰인 예이다. 모두 ‘卽’  
에 ‘時’가 결합한 것으로서, 매우 짧은 시간을 뜻한다. 그렇지만 중세 한국어 시기  
에 관한 한, ‘卽’이 단독의 시간부사로 사용된 적은 없었다.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부터 단독의 시간부사로 쓰이는 ‘즉’이 등장하였다.

- (7) ㄱ. 월이 답 왈 나의 성명은 알아 쓸 대 업스니 내 아에 고하되 정부 공자 |  
부인께 보이러 와 계시와 하쳐에 머무시고 시종으로 문져 알외라 하시더이  
다 하라 아역이 즉 이대로 고하니 <립화정연 3 제29회>  
ㄴ. 통변홀 쎄에 지동지셔호 죄인 김홍륙은 티 일빅류 종신에 처호였는디 속전  
이십팔 원은 이틀 이십륙일에 내고 즉 발비가 되였는디 빅소논 라쥬군 흑  
산도라더라 <1898.08.29. 매일신문 3면>  
ㄷ. 그 편지 스연은 그에게 즉기를 위호야 즉 직업 한자리를 엇어 쥬소서 호고  
즉기가 감당홀 만호 줄로 밋는 일을 느러 쓴 거신디 <만인계>  
ㄹ. 십오일 과거에 장원급제 하여 즉 출륙 한님학사 한 후 취실하고 <십생구사 10쪽>

(7ㄱ)의 ‘즉’은 ‘즉시, 즉시예’로 대치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법한 시간부사이다.  
이때의 ‘즉’은 동사구-부사로서 “즉시”, “곧바로”의 의미를 지닌다. (7ㄴ)은 통역을  
잘못하여 형벌을 받게 된 ‘김홍륙’이라는 사람이 ‘속전’(贖錢,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을 먼저 내고, 곧이어 ‘발비’(發配, 죄인을 귀양살이할 곳으로 보내는

일)가 일어났고, 그 ‘비소’(配所, 유배지)가 ‘나주군 흑산도’임을 알려주는 신문 기사이다. 내용으로 보아, 이때의 ‘즉’은 시간의 흐름을 드러낸다. (7ㄷ)은 ‘즉기’를 위하여 “곧바로” 일할 곳을 얻어 달라는 내용이고,<sup>6)</sup> (7ㄹ)은 장원급제를 하여 “곧바로” 벼슬을 하게 된다는 내용으로서 이때의 ‘즉’도 시간부사이다.

그런데 개화기 이후의 자료에는 그 이전 시기보다 시간부사 ‘즉’이 쓰이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은 시간부사 ‘즉’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부사 ‘즉’은 ‘즉시’, ‘즉변’<sup>7)</sup> 등의 말 속에 흡수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시간부사 ‘즉’은 어디에서 기원한 것인가?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것은 중세 한국어에서도 발견되는 ①‘즉자히>즉재’, ②‘即時예>즉시에>즉시에’, ③‘즉시(卽時)>즉시’ 중의 하나이다. 18세기 후반기부터 보이는 시간부사 ‘즉’은 ①‘즉자히>즉재’에서 ‘재’를 탈락시킨 결과라고 생각한다. ‘즉재’는 18세기까지 생산적으로 쓰이다가 19세기 이후 갑자기 세력이 약화되었음이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그것은 ‘즉’에게로 역할을 넘겨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②‘即時예>즉시에>즉시에’와 ③‘즉시(卽時)>즉시’는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날에도 쓰이게 되었다. 15세기에 문헌에서 50여 회 검출되던 ‘即時예’가 16세기 이후 5회 안팎으로 검색되는 반면에, 15세기에 1회 검출되던 ‘卽時’가 16세기에는 40여 회, 17세기에는 270여 회, 18세기 이후에는 500~600여 회 검출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 시간부사 ‘즉’은 ③‘즉시’의 세력에 밀려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2> 인과의 접속부사 ‘즉’

용례가 많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18세기 후반 이후 ‘즉’은 조건, 이유나 원인과 같은 뜻을 갖기도 하였다. 그런데 조건, 이유나 원인과 같은 의미는 접속 구성의

6) ‘즉’에는 환언의 접속부사 용법이 있기는 하지만, (7ㄷ)의 ‘즉’은 시간부사로 해석된다. 인용 표지인 ‘헝고’를 감안하면, ‘편지 내용’은 “그에게 (...중략...) 엇어 주소서”이고, ‘즉’의 작용역은 해당 문장 안으로 한정된다. 이때의 ‘즉’은 접속부사가 아닌 동사구-부사로서, 생략되어도 본래의 의미는 보존이 된다. ‘즉’의 선·후행 요소가 동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7) ‘즉변’(卽便)은 현대 한국어의 여러 사전에서 ‘곧’과 ‘즉’의 유의어로 등재된 단어이다. 그렇지만 ‘즉변’은 이미 현대 한국어에서 거의 사어화된 듯하다. ‘즉변’의 항목에 별다른 예문도 없이 ‘곧’으로 상호 참조를 한 점, ‘즉변’을 표제어로 다루지 않는 사전도 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대 한국어 코퍼스에서도 ‘즉변’이 잘 찾아지지 않는 것을 보면, 오늘날에 이르기 전에 그 용법이 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선행절을 이루는 연결어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 (8) 우리 지금 경성을 먼니 썬나 군냥을 천니의 운전호고 식초를 십니의 슈운호니  
급전 즈 니호고 완전 즈 반드시 근호미 이실지라 <화산기봉 12:28a>

위 예문에서 ‘즈’를 생략하면 문장이 되지 않는데, 그것은 ‘즈’가 그 앞뒤 표현을 의미적으로 연결해 주는 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란 “조건”을 뜻한다. 해당 부분의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편의상 필요한 한자를 넣는다).

- (9) ㄱ. 急戰 즈 利호고 緩戰 즈 반드시 謹호미 이실지라  
ㄴ. 急戰호면 利호고 緩戰호면 반드시 謹호미 이실지라  
ㄷ. 急戰호즈 利호고 緩戰호즈 반드시 謹호미 이실지라

(9ㄱ)은 “빨리 싸우면 우리에게 이롭고, 천천히 싸우면 반드시 배고픔이 있을 것”<sup>8)</sup>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조건”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9ㄱ)은 (9ㄴ)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9ㄴ)은 ‘-면’에 의한 조건절로 구성되어 있다. 조건절의 기능도 가지면서 ‘즈’를 포함하는 형식은 ‘-ㄴ즈’밖에 없으므로, (9ㄴ)은 (9ㄷ)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9ㄱ)과 (9ㄷ)을 비교해 보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 ‘즈’는 ‘-ㄴ즈’와 관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sup>9)</sup> 우선 이것을 접속의 ‘즈’으로 불러 둔다.

접속의 ‘즈’은 조건 외에도 이유나 원인을 표현할 수도 있었다.

- (10) 경네를 두고 본니 과닌언 어물즌 도형슈 괴운닛닌 그러호나 천의도스계 문기병  
세 즈 진세순간 토간니 약니라 호니 <별주부전 국립도서관 소장본 5a>

- (11) ㄱ. 천의도스계 문기병세(問其病勢)호니 진세순간(塵世山間) 토간니 약니라 호니  
ㄴ. 천의도스계 문기병세(問其病勢)호즈 진세순간(塵世山間) 토간니 약니라 호니

8) 성을 공격하는 측이 멀리서 양식을 공급받기 때문에, 지공(遲攻)의 경우 양식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뜻이다.

9) 이는 ‘호~즈’의 교체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무성음과 ‘ㄱ, ㄷ, ㅂ, ㅅ’ 사이에서 ‘호’가 ‘즈’로 교체되는 것으로 기술된다. (9)의 자료는 중세 한국어의 것이 아니고, 또 뒤에 오는 음소가 ‘ㄴ’이기 때문에 중세 한국어 ‘호~즈’의 교체와 같은 것이라 하기 어렵다(오히려 ‘호~즈’ 교체가 일어난다). 그러나 어떤 이유로 ‘호’가 생략되면, ‘ㄴ’이 기댈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ㄴ’도 덩달아 지워지게 된다. 이러한 연쇄적 생략은 기능 요소에 한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대 1993: 198, 각주 14번 참조).

(10)의 ‘즉’은 생략할 수 없다는 점에서 (8)의 ‘즉’과 동일하지만, 그 의미는 조건이 아니라 이유나 원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0)의 ‘즉’을 앞서의 방식으로 정리하면 (11)과 같다. (11ㄱ)은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니’가 선택된 접속 구성이고, (11ㄴ)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의미의 연결어미 ‘-ㄴ즉’으로 대체한 것이다. 이 ‘즉’도 ‘-ㄴ즉’과 의미적으로 연관된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12) 리현 김덕슈 씨가 본사에 편지하기를 내가 치질 병으로 여러 희를 신고하더니  
 증셔승동 광대사에서 치질 곳치는 약을 신발명하야 문들었다 하기로 그 약을  
 엇어다가 한번 시험 하즈 치질 병이 일췌에 나엇스니 그 약이 과연 신통흔지라  
 <1899.07.22. 독립신문 3면>

- (13) ㄱ. 한번 시험하<sup>니</sup> 치질 병이 일췌에 나엇스니  
 ㄴ. 한번 시험하<sup>즉</sup> 치질 병이 일췌에 나엇스니

(12)는 ‘흔즉’이 아니라 ‘하즉’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것은 실수에 의한 오·탈자로 생각할 수 있으나, ‘-ㄴ즉’에서 비롯된 ‘즉’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후자의 방식을 취한다면, 이 경우 ‘즉’은 (13ㄱ)의 ‘-니’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요소가 된다. (13)에 대한 해석은 (9), (11)과 근본적으로 같으므로 부연하지 않는다. 이처럼 접속의 ‘즉’은 “조건”이나 “이유, 원인”과 관련되는 환경에서 쓰일 수 있었다.<sup>10)</sup>

조건, 이유·원인의 접속부사 ‘즉’이 어미 ‘-ㄴ즉’과 관련되는 것은, 이 둘이 ‘則’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 (14) ㄱ. 昔에 魯繆公이 子思의 側에 人을 업시하<sup>즉</sup> 能히 子思를 安케 묻호고(昔者에 魯繆公이 無人乎子思之側 則不能安子思호고) <맹자언해 4:29b-30a>  
 ㄴ. 만일 衣服이 넙기에 足하<sup>즉</sup> 구퓌여 箱즈에 ㄱ득게 말며(如衣服 | 足穿則不必盈箱也 | 오) <여훈언해 상:34a>

10) ‘즉’이 조건, 이유나 원인 외에 다른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와도 관련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즉’이 조건, 이유나 원인을 제외한 다른 연결어미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는 찾지 못하였다. 한편, 아래의 예는 ‘즉’이 조건으로도, 이유나 원인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것이다.

당당이 죽여 선조귀 사레하리니 유죄 즉 여백이 죽이고져 하미 당연하거니와 으녀는 결단코 천누흔 형실을 감심치 아니리니 <명주보월빙 필사본 80>

- ㄷ. 깃춘즉 앞굽으로 싸홀 허위며 심흔즉 니를 굴고 머리틀 싸해 드리오고 간  
으로 깃끼를 마디 아니면 담부 바드니(啞則前蹄跑地호며 甚則咬齒頭垂於地  
矣오 肝啞不已면 膽腑受之니) <마경초집언해 하:57a-57b>

이때의 ‘-ㄴ즉’은 ‘則’을 언해한 것으로서, 모두 조건의 연결어미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접속부사 ‘즉’이나 어미 ‘-ㄴ즉’이 표기·의미상 유사성을 지니는 것은 어찌 보  
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접속부사 ‘즉’에서는 조건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 것도 사  
실이다. 이것은 ‘-ㄴ즉’에서 비롯된 ‘즉’과 환언의 접속부사 ‘즉’이 표면상 구분되지  
않으면서, 조건과 관련된 의식이 흐려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접속부  
사 ‘즉’은 대부분 환언으로 해석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과로도 해석될 수 있다.

### <3> 초점부사 ‘즉’

오늘날에는 ‘즉’이 초점부사로 인식되지는 않지만, 이전 시기에는 초점부사 ‘즉’이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초점부사 ‘즉’은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확인된다.

- (15) ㄱ. 等은 謂等於定慧니 中이 卽 二邊이니 <선종영가집언해 상:9a>  
ㄱ’. 等은 定 慧 等호물 니르니 中이 곧 二邊이니  
ㄴ. 色이 卽 是空이며 空이 卽 是色이라 <칠대만법 4a>  
ㄷ. 卷耳는 卽 蒼耳니 뒷고마리라 <두시언해 초간본 16:71a>

(15)는 중세 한국어 문헌에서 확인되는 초점부사 ‘즉’의 용례이다. (15ㄱ)은 한문  
원문이지만 구결을 통하여 비전형적 환언문에 쓰인 ‘즉’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15ㄱ’)은 (15ㄱ)에 대한 언해문인데, ‘卽’이 ‘곧’으로만 언해되었을 뿐, 차이점이  
없다. (15ㄴ, ㄷ)도 모두 ‘卽’이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초점부사로 기능한 예이다.

고전소설 자료에서도 초점부사 ‘즉’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초점부사 ‘즉’은 제법  
오랜 기간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16) ㄱ. 대청 가경 황제 즉위 십육년은 즉 아조 성상 십이년이라 이썩 평안도 청북 이 누년 검세를 만나 스민이 상업을 닐우지 못흐는지라 <신미록 경판 32장본:1a>
- ㄴ. 모년 모월 모일의 처즈 심청은 근고우상천 일월성신 하지후토 산악성황 오 방지신 강신하빅 습천세계 보살님니 팔부신장 십왕신군 강임도령 흐감흐읍 소셔 하느님의 일월은 즉 인간의 안목이라 일월이 읍스오면 무슴 분별흐오 텃가 <효녀실괴심청 박순호 소장 46장본:16a-16b>
- ㄴ'. 모월 모일의 심청은 지성근고 우상천 일월성신이 흐지후토 신영흐오니 슈 츠 흐감흐읍소셔 흐날이 일월 두오미 스람의 안목이라 일월이 읍스오면 무 슨 분별흐오리가 <심청전 안성판 21장본:10b>

(16ㄱ, ㄴ)은 ‘A는 즉 B이라’라는 비전형적 환언문으로서, B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 중 하나가 선택된 결과이다. (16ㄱ)의 ‘즉’은 생략되어도 문맥에 전혀 이상이 없으며, “대청 가경 황제 즉위 십육년=아조 성상 십이년”이라는 동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비전형적 환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16ㄴ, ㄴ')은 모두 「심청전」 관련 텍스트로서 판본에 따라 같은 장면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6ㄴ)의 빗금체 부분은 “A는 즉 B이다”의 형식이고, (16ㄴ')의 해당 부분은 “A가 B이다”의 형식이다. 모두 “하느님의 해와 달을 인간으로 치면 눈(안목)이다”, 혹은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을 인간으로 치면 눈(안목)이 있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구문상으로 A와 B가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다시 ‘즉’이 첨가되어 그러한 동일성을 부각시켰다.

이러한 예는 개화기 무렵의 신문이나 신소설에서도 발견된다.

- (17) ㄱ. 이럿케 붉은 규칙 밋히셔야 그른 일을 흐기가 어렵고 만일 그른 일이 잇스면 곳 세상이 알 터이라 엇던 직판관이 법률과 규칙을 억이엿슬 것 곳흐면 그 직판관은 즉 나라 법률과 황데 폐하의 칙령을 범흐 것이니 <1897.11.06. 독립신문 1면>
- ㄴ. 작일에 진보흐다가 금일에 퇴보흐며 금일에 진보흐다가 명일에 퇴보흐는 것은 즉 마귀의게 유혹홈이니 <1908.04.02. 대한매일신보 1면>
- ㄷ. 그 정치를 보면 쏘 그 교도를 아는 바|니 이는 즉 금턴지의 소연히 현저하야 이의 서양 학문가와 의론이 밝히 잇는 바|라 <1907.05. 제4권 5호:210>
- ㄹ. 서양 글에 쟈가 즉 돈이라 흐는 말이 잇서 <1898.04.30. 매일신문 1면>



위의 예는 “A{는, 이} 즉 B이다”의 형식을 취하는바, 이때의 ‘즉’은 초점부사이다.

초점부사 ‘즉’이 “A{는, 이} 즉 B이라” 구문으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이런 구문이 압도적으로 많기는 하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일부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즉’도 있었다.

- (18) ㄱ. 하나은 연자중의 자이요 둘은 화숙여의 자이니 즉 나의 종매의 자이라 <림화정연 3 제36회>
- ㄴ. 첫지 법률노 빅성의 부모 되신 님군을 멸시호는 역적이오 들지 국중에 법 밋고 사는 동포를 해호는 전국에 원슈요 셋지 제 부모 처즈와 즈기 몸을 보호호여 슈는 법률을 업시호니 즉 제 손으로 제 목숨을 쓴는 세상에 어리석은 필부라 텃하에 용납지 못홀 죄인이어니와 <1898.06.11. 매일신문 1면-2면>
- ㄷ. 그 사름들은 만일 혼 시각이라도 놀고 보너면 즉 돈을 몇 원 너여 바린 줄노 알아 <1898.04.30. 매일신문 1면>

(18)은 공통적으로 ‘[선행절] 즉 [후행절]’의 구조를 취하므로, 이때의 ‘즉’이 선행절에 곧바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각 문장의 ‘즉’ 앞에는 ‘A{는, 이}’에 해당하는 성분이 생략되어 있다. 예를 들면, (18ㄱ)에는 ‘그는’이, (18ㄴ, ㄷ)에는 ‘이는’이 ‘즉’ 앞에서 생략된 것이다. 따라서 (18) 역시 비전형적 환언문에 쓰인 초점부사의 용법에 포함된다. 여기서 (18ㄷ)은 조건절 뒤에 ‘즉’이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형식과 구별된다. (18ㄷ)은 “서양 사람들은 짧은 시간이라도 허비하면 (이는) ‘곧/바로’ 돈을 낭비한 줄로 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환경에 나타난 ‘즉’이 어색하지만, 당시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지 않았다. 현대 한국어의 ‘즉’은 전형적 환언에서만 쓰이는데, 전형적 환언은 문장 단위까지를 포함하는 환언이다. (17ㄷ)은 문장까지를 환언의 대상으로 삼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전 시대의 모습을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경우이다.<sup>11)</sup> 그러한 점에서 이 예문들은 전형적 환언의 기원이라고 부를 만하다.

11) 당시의 신문에는 아래의 예(ㄱ)도 등장하지만, 이 예는 한문의 원문(ㄴ)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18ㄷ)과 다르다.

ㄱ. 그런고로 밋즈 곶으스대 포식난의호야 일거이무교면 즉-근어금슈라 호시니 <1907.05.23. 대한매일신보 3면>

ㄴ. 人이 道 | 이슌애 食을 飽히 호며 衣를 煖히 호야 편히 居호고 教흠이 업스면 곧 禽獸에 近호릴시 聖人이 憂흠을 두샤(人之有道也애 飽食煖衣호야 逸居而無教면 則近於禽獸릴시) <맹자언해 24b>

한편,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17ㄴ)의 ‘즉’도 매우 어색하다. 이를테면, (17ㄴ)의 “제가 즉 돈이다”는 “때가 곧 돈이다”로 대치되어야 자연스럽다.<sup>12)</sup>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예에서 더욱 잘 확인된다.

- (19) ㄱ. 감안감안히 뒤를 짜라오며 모기 소리만치 ‘셔방님 셔방님’ 오복이가 째짝 놀나  
 도라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즉 저기 집 하인 칠성이라 <구의산 하:41쪽>  
 ㄴ. 우리 누의님이 즉 저기 잇는 안가가 죽인 고소사다 <쌍옥적 90쪽>  
 ㄷ. 그척 쌍갈문이에서 부인을 로락하야 가던 놈은 즉 높흔 녀올 사는 김만보  
 라 흥는 놈이니 <홍도화 상:65쪽>  
 ㄹ. 그 쫄은 즉 나의 생질녀인데 옥동 심협판 아달에게로 식집을 가서 매오 자  
 미있게 사는 터이오 <홍도화 하:77쪽>

(19)는 비전형적 환언문을 취하는 초점부사 ‘즉’의 예이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즉’ 역시 오늘날의 ‘곧’으로 해석된다. 이 ‘즉’의 의미는 “다름 아닌”이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이 아니다. 예를 들어, (19ㄱ)은 “오복이가 자기를 부른 사람이 누군가 있어서 돌아보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집의 하인인 칠성이었다”로 해석된다. 이것은 (19)의 다른 예에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의 ‘즉’은 초점부사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시의 ‘즉’은 초점부사 ‘곧’과 유의어 관계에 있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즉’의 해당 용법이 ‘곧’에 합류되었던 것이다.

1920년대~1940년대에는 초점부사 ‘즉’이 어렵지 않게 검색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초점부사 ‘즉’의 출현 빈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편의상 10년을 단위로 하여 시기별 예문을 하나씩만 들어 본다.

- (20) ㄱ. 或者是 民族의 種類를 區別할 必要가 無함을 感하며 或者是 人心은 卽 我心으로 信하는도다 <苦海의 寄生觀 (五). 1921.02.26. 동아일보 1면>  
 ㄴ. 리발사, 이전 가트면 녀자야만 썩 쓰는 가위를 손 쓰데 걸고 벌이하는 남자가  
 즉 리발사다 <職業別로 본 그 生活相 (一). 1931.01.01. 동아일보 18면>  
 ㄷ. 또 이 땅 사람을 말하기를 大弓人(東夷라 함은 卽 東弓人을 말함)이라 하여  
 <朝鮮人の 地位現況과 그 向上策. 1940.01.01. 동아일보 6면>

12) 오늘날 “시간은 곧 돈이다”라고는 해도 “시간은 즉 돈이다”라고 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시각에 따르면, 이러한 ‘즉’은 ‘곧’으로 대체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날 이러한 환경에서 쓰이는 초점부사는 ‘즉’이 아니라 ‘곧’이기 때문이다. 1950년대 이후의 신문에서는 초점부사 ‘즉’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요컨대,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즉’과 ‘곧’이 세력 다툼을 벌였고, 그 결과는 ‘곧’의 승리로 돌아갔던 것이다.

#### <4> 환언의 접속부사 ‘즉’

현대 한국어에서 ‘즉’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전형적 환언이다. 그렇지만 ‘즉’이 처음부터 환언의 용법을 확고하게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은 비전형적 환언에서 쓰였던 것이 먼저였고, 오히려 전형적 환언은 부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한 자료를 통해, 그 사용 빈도나 사용 시기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 (21) ㄱ. 경주년 즉 일천팔백스십년 정월 이십삼일에 <경향보감 4:136>  
 ㄴ. 고 신부가 조선으로 향했스니 (...중략...) 무술년에 외교 디방에 가 전교 홀 예비를 하고져 해야 전교학당에 가 있다가 기히년 즉 일천팔백삼십구년 오월 초상에 불도에서 비를 타고 써났는디 <경향보감 4:136>  
 ㄷ. 영록이가 그어머니 압히 하직을 하고 죽장망혜로 나셔라 한단디 즈기 부인 셔셔 즉 연회가 역시 남복을 츠리고 나아와 먼저 오씨 부인에게 즈기 남편과 갖치 나아가 원슈 갑기를 청흔다 <비파성 106쪽>  
 ㄹ. 여러 가지 약을 쓰며 여러 가지 방법을 헿햐도 조금 효험 없이 주야 고통이 쓴이지 안이흔는디 의스는 본래 신경쇠약증(神經衰弱) 즉 기부족증이 잇는 우에 비상히 놀나고 비상히 두려운 생각이 이러나 <눈물 하:150쪽>  
 ㅁ. 몸을 피히기는 록용갓치지고 서울로 갓던 사람 즉 최군심의 가속이 문보가 용갑을 선당햐야 주어 저의가 포슈에게 부딪기지 안케 혼 일을 감격히 녀여 결초보은(結草報恩)을 혼 작덩이러니 <황금탑 78쪽>

이때의 ‘즉’은 문장에서 생략될 경우 문장의 본래 의미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당 구문이 “A 즉 B”의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환언의 접속부사로 풀이된다. 이때 A와 B는 명사구인데, 이 명사구 뒤에는 주격 조사나 주제 보조사가 결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의 예는 A와 B가 의미·형식적으로 같은 범

주라는 점에서 평행성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

물론, “A 즉 B”의 구조를 지닌다고 하여 전부 전형적 환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 (22) 나는 조필환 안희 즉 이 집의 주인 되는 조필환의 안희로 이 집에 한 붓쳐 있는 사람의 지느미 못흐는 당신에게 명령흐는 것이니 당신은 지금 이 길로 나가시오 <눈물 하:134쪽>

표면상 위의 ‘즉’은 “A 즉 B”라는 형식을 취하면서 선행하는 명사구 A 뒤에 별다른 조사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형적 환언의 ‘즉’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형적 환언이라면 A와 B를 대치하여도 문장이 잘 이해되거나 해석하는 데에 어색함이 없어야 하는바, (22)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형적 환언으로 보기 어렵다. 이때의 ‘즉’은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의 의미이다. 요컨대, (22)의 ‘즉’은 형식적으로는 환언의 접속부사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초점부사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이라면 (22)의 ‘즉’이 쓰인 자리는 초점부사 ‘곧’으로 대체될 수 있다.<sup>13)</sup> 그런 의미에서 (22)는 ‘즉’이 접속부사임을 입증하는 예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초점부사 ‘즉’이 초점부사 ‘곧’에 합류되기 직전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개화기 초기의 ‘즉’과 ‘곧’은 모두 초점부사·접속부사를 겸하고 있는 부사였지만, ‘즉’이 접속부사의 용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초점부사로서의 ‘즉’은 급속도로 퇴색된 것이다.

접속부사 ‘즉’은 다음과 같은 구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23) 일본 너각에 대신 자리 혼나를 새로 설치흐였는디 일흠은 식민 대신이라 그 직무 즉 일본 인민이 밧갓 디방에 가 사는 스무를 관계흐는 거시니 새 대신은 육군 부장 고도 씨란 이가 혼다더라 <1896.04.14. 독립신문 2면>

위 예문의 ‘즉’은 전형적 환언의 접속부사라 부를 만하다. ‘즉’에 선행하는 ‘그 직무’에는 별다른 문법 형태소가 결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즉’은 그 앞과 뒤의 말이 의미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를 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필요한 부분만 제시한다).

13) 현대 한국어의 ‘곧’은 접속부사와 초점부사의 용법을 지니기 때문이다.

- (24) ㄱ. [그 직무] 즉 [일본 인민이 밭갈 디방에 가 사는 스무를 관계하는 것(이니)]  
 ㄴ. 그 직무인즉 일본 인민이 밭갈 디방에 가 사는 스무를 관계하는 것(이니)

(24ㄱ)에서 ‘즉’의 선행 요소인 [그 직무]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즉’의 후행 요소인 [일본 인민이 밭갈 디방에 가 사는 스무를 관계하는 것(이니)]이다. 따라서 (24ㄱ)은 (24ㄴ)에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4ㄴ)은 저 위에서 설명하였던 ‘~흔 즉’ 구성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24ㄴ)은 어미 ‘-ㄴ’의 앞에 오는 요소가 접미사 ‘-흔-’가 아니라 계사라는 점에서 저 위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이런 차이는 그 선행 체언이 동사성 명사(시험)이나, 비동사성 명사(직무)이냐에 따른 것인데, 전자인 경우에는 ‘~흔즉’의 형식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인즉’이 되어 서로가 구별된다. 그런데 동사성이냐 비동사성이냐 하는 점은, 결과적으로 부사로 독립하는 ‘즉’의 성격을 결정짓는다. ‘흔즉’의 ‘즉’은 “조건”, “이유나 원인”과 관련되고, ‘인즉’의 ‘즉’은 “환언”과 관련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즉’에서 비롯된 ‘즉’이 환언의 접속부사의 기원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의 ‘즉’이 지니는 전형적 환언은 이러한 환경에서 시작되어 확대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접속부사 ‘즉’은 점진적으로 그 외연을 확대하였다. 특히, 20세기 초·중반에 이러한 경향이 보다 심화되었다. 이것은 동시대를 기점으로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된 초점부사 ‘즉’과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 (25) ㄱ. 그럼으로 思想의 自由를 行爲의 自由를 가진 自然 卽 本然의 人이 本然으로 歸하라고 因習의 道德을 傳來의 制度를 모다 破壞하고 <第四階級の 解放과 佛蘭西大革命의 地位 (一). 1921.02.21. 동아일보 1면>  
 ㄴ. 그러니 사람은 자기의 『캐릭터』 즉 성격과 소질을 충분히 판단하여 이에 적합한 행동을 취해야 되겠스니 <日常攝生法 (一). 1931.01.01. 동아일보 11면>  
 ㄷ. 구제 사업을 분류해 보면 비황(備荒) 즉 흉년을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하야 <救濟制度의 史考: 新羅仁政에서 始初 (1). 1940.01.04. 동아일보 6면>  
 ㄹ. 內容은 國民 投票制度 卽 直接民主主義를 多分이 加味한 그런 立法을 맨드러 가지고 重要 問題는 國民投票에 依해서 決定하자는 것 같습니다 <1952 回顧와 1953 展望: 政治·經濟 座談會. 1953.01.01. 경향신문 2면>

위의 예는 ‘즉’을 기준으로 한 선·후행 표현들이 매우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도

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26) ㄱ. [[自然] 卽 [本然]]  
    나. [[캐릭터] 즉 [성격과 소질]]  
    ㄷ. [[비황(備荒)] 즉 [흉년]]  
    르. [[國民 投票制度] 卽 [直接民主主義]]

전형적 환언의 ‘즉’이 쓰일 때에는 ‘즉’의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의 형식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6ㄱ)의 ‘自然’과 ‘本然’은 모두가 똑같은 명사구이다. 자료에서 검증되는 명사구 예들은 그 길이에 관계 없이 조사가 결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동일하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앞 명사구 뒤에 조사를 첨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즉’의 후행 명사구에도 그것과 동일한 조사가 첨가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따른다. (26ㄱ)을 대상으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7) ㄱ. [[自然은] 卽 [本然은]]  
    나. [[自然으로부터] 卽 [本然으로부터]]  
    ㄷ. [[自然만큼은] 卽 [本然만큼은]]

(27)은 전형적 환언으로서 평행성 원리를 잘 지키고 있다. 명사구의 길이가 길어진 경우라면, 그 명사구의 핵어(head)가 의미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주여야 한다. 이를테면, 아래 (28ㄱ)은 그러한 의미 범주의 동일성을 잘 지키는 점에서 전형적 환언이라 할 수 있다. ‘즉’에 선행하는 명사구의 핵어는 ‘째’이고, 후행하는 명사구의 핵어는 ‘以後’인데,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라는 의미이므로 적격한 표현이 된다.

이 평행성 원리만 지켜진다면, 그 명사구는 길이가 아무리 길어도 문법성에 이상이 없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관련 명사구에 [ ] 표시를 해 두었다).

- (28) ㄱ. 이와 갖치 解釋한 民衆政治의 實現은 [公衆의 意見에 依하여 政治를 左右하게 된 째] 卽 [議會政治가 確立된 以後]의 事라 할지니 <近世 民衆政治의 意義와 價値 (四). 1921.02.24. 동아일보 1면>

- ㄴ. [現代 資本主義의 國家 中の 有數한 諸國], 卽 [米國, 佛蘭西, 日本 等]이 包含되었는데 <世界的 錢慌과 朝鮮 經濟界 眞相 (一). 1931.01.01. 동아일보 7면>
- ㄷ. 더구나 [그 各個의 思潮를 必然的으로 發生케 하고 進展케 한 背後의 事實] - 卽 [그것의 社會的 乃至 經濟的 根據]에 關하여야는 이미 프로 文學側의 - 特히 金基鎭氏를 筆頭로 한 幾多의 論者의 解說이 있다. <回顧·展望·批判: 文壇諸思潮의 縱橫觀 (一). 1931.01.01. 동아일보 13면>
- ㄹ. 정부측의 답변으로서 김(金) 사회부차관은 [노무자는 애국청년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 즉 [이들은 미(美) 제8군에 제공되었으므로 8군이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점]을 드러 <傷軍·警年金法案 通過. 1953.03.19. 경향신문 2면>
- ㅁ. [主體性이 없는 民族], 즉 [「國民이 아닌 民族]은 아무 힘이 없다. <指導層이 率先해서 信念과 行動 보이라. 1966.01.01. 동아일보 7면>

위의 예들은 ‘즉’에 전후한 명사구의 길이가 꽤 길더라도 그 문법성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여준다.<sup>14)</sup>

평행성 원리는 문장 접속의 ‘즉’도 잘 설명해 준다(편의상 관련 문장에 [ ] 표시를 해 두었다).

- (29) 그리고 [所謂 男女의 同等이란 것은 完全한 人格의 對立에서부터 出發한다 하겠습니다.] 卽 [女子를 男子에게 隸屬된 一個 私有物 或은 娛樂品 甚至於 針母 乳母나 쏘는 밥장사 마누라가 아니요 國家 社會에 對하여 男子와 全然 對等한 人格者로 看做치 안으면 아니 되겠다 함이외다.] <男女의 同權은 人格의 對立. 1920.04.03. 동아일보 3면>

(29)는 우리가 활용한 자료에 관한 한, 접속부사 ‘즉’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최초의 예이다.<sup>15)</sup> (29)는 ‘즉’의 선·후행절이 ‘평서문-평서문’이며 모두

14) 환언 ‘즉’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중결법에서 일치를 보이지 못하는 예도 있다.

不能動性委縮 卽 아모리 조흔 몸이라도 適當히 쓰지 안흐면 機能을 일허버리고 <體育을 生活化 하자. 1940.01.01. 동아일보 15면>

그러나 이 예문은 ‘不能動性委縮’을 풀어서 설명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평행성 원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15) ‘곧’의 경우는 17세기 말엽에 이것과 비슷한 예문이 검출되었고, 전형적인 예문은 18세기와 19세

‘남녀 평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평행성 원리를 지키고 있다.

이것은 접속부사 ‘즉’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갔음을 의미한다.

- (30) ㄱ. 그런데 세상에는 이 가련한 약한 자를 기화로 녀이고 불상한 처디를 다항하게 녀이어 자기의 빚을 채우고자 한다. 즉 그러한 부인에게 감언리설로 꾀이기를 나는 아모 재판당을 아니 돈 얼마만 더리면 가출옥을 식힐 수 있다 <人情을 利用하여 詐欺. 1921.02.26. 동아일보 3면>
- ㄴ. 本協定은 昭和 十一年 十二月 帝國 政府와 에치오피아에서의 帝國 公使館을 廢하고 그 代身에 아지스아페바 領事館을 設置한 데에 胚胎한 것이다 卽 當時 伊國 政府는 帝國 政府에 大하야 (...중략...) 折衝을 繼續하여 와서 今般 圓滿 妥結을 본 것이다. <日伊新通商條約과 外務當局 談. 1938.01.04. 동아일보 1면>
- ㄷ. 『帝國과 眞正으로 提携할 만한 新興 支那 政權의 成立 發展을 期待하고 이와 兩國 國交를 調整하여 更生 新支那의 建設에 協力하러 한다』 内外에 聲明하였다 卽 支那에 帝國과 提携할 만한 新政權의 成立을 期待하는 帝國의 意向이 蔣政權 否認의 意思 表示와 同時에 明白히 表示되었다 <新秩序建設 事變處理의 新道標. 1940.01.01. 동아일보 9면>

이러한 예들은 1930년 이후부터 압도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일일이 예를 들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이처럼 접속부사 ‘즉’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어 발전하였다. 하나는 ‘[명사구]-즉-[명사구]’ 형식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즉-[문장]’ 형식이다. 이 두 가지 형식 모두 20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매우 활발하게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장과 문장을 전형적 환언 관계로 접속하는 ‘즉’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아래의 예가 주목된다.

- (31) 과연 하늘님이 도으샤 우리 집을 아조 망케 안니 흐심이로다 흐고 통곡흐니 운동장에 관광제인이 그 광경을 보고 목석간장이라도 다 녹을더라 즐 그 시에 허주스 집으로 다리고 도라와 남릭 만난 말슴을 살우니 윈 집안이 놀나며 위로흐고 치하흐더라 <명월정 119쪽>

위의 ‘즉’은 후행하는 명사구 ‘그 시’와 관련되어 “바로 (그때)”로 해석된다. 그런데

---

기 교체기 무렵에 등장했음을 밝힌 바 있다(‘2.1.2’ 참조).



‘바로’는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초점부사로 기능하는 부사였을 뿐, 접속부사로서의 용법은 지니지 못하였다. 따라서 (31)은 의미적으로는 초점부사와 관련되고, 형식적으로는 접속부사와 관련된 예문이다.

우리가 발견한 예는 (31)이 유일한 것이어서 선부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1920년대 이후에 나오는 ‘[문장]-즉-[문장]’의 ‘즉’이 모두 환언의 접속부사라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31)은 접속부사를 위한 징검다리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환언의 접속부사 ‘즉’은 ‘[문장]-즉-[명사구]’의 단계를 거쳐 ‘[문장]-즉-[문장]’의 구조로 안착하면서 온전한 접속부사의 자격을 획득한 것이다. 따라서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환언의 접속부사 ‘즉’은 20세기 전반기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이 온전한 접속부사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뜻풀이’ 형식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화용론, 즉 단어와 문장의 뜻과 실제 상황에 나타나는 발화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은 ‘[명사구]-즉-[명사구]’로 된 뜻풀이 형식에 해당한다. 이것은 “화용론, 바꾸어 말하면 단어와 문장의 뜻과 실제 상황에 나타나는 발화의 뜻을 연구하는 학문”의 의미로 치환될 수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뜻풀이도 환언의 한 영역에 들 수 있다. 그러한 뜻풀이 형식은 이미 1920년대의 신문에서도 등장하였다.

(32) 此에 用語 問題라 함은 勿論 敎授 用語(即 兒童에게 直接으로 敎科를 講義 口授하는 用語)와 敎科書 用語(即 敎科書 記錄에 使用하는 用語)를 併稱함이나 <敎科書 問題의 核心. 1921.02.26. 동아일보 2면>

밑줄 친 부분은 ‘명사구(即 명사구)’의 구조로서, ‘即’은 소괄호와 더불어 선행하는 명사구에 대한 뜻풀이를 표시하는 장치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 용어=교과서 기록에 사용하는 용어”라는 환언 관계가 뜻풀이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에 선행한 ‘敎科書 用語’와 ‘即’에 후행한 ‘敎科書 記錄에 使用하는 用語’는 ‘피정의항 : 정의항(종차+유개념)’이라는 관계를 취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의와 완전히 동일하다.

<5> 요약

역사적으로 ‘즉’은 시간부사, 초점부사, 접속부사의 용법을 지녔다. 먼저, 시간부사 ‘즉’은 기원적으로 중세 한국어 ‘즉자히>즉재’와 관련지을 수 있다. 시간부사 ‘즉’은 20세기를 전후하여 어느 정도의 세력을 규합하였지만 이것이 끝까지 유지되지는 못하였는데, 그것은 유의 관계에 있던 시간부사 ‘곧’의 영향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초점부사 ‘즉’은 중세 한국어의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비롯된다. 초점부사 ‘즉’은 20세기 중반까지 확인되었으나, 역시 ‘곧’과의 유의 경쟁에서 패하여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조건’이나 ‘이유’, ‘원인’을 뜻하는 ‘즉’도 19세기를 전후하여 발견된다. 이때의 ‘즉’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폭넓게 사용되었던 ‘-ㄴ즉’(‘則’에 대한 번역)과 관련된다. ‘-ㄴ즉’은 바로 앞에 선행하는 절이 조건이나 이유·원인을 나타낼 때 쓰일 수 있었다. 그런데 19세기를 전후하여 ‘X흔즉’의 ‘흔’ 부분이 생략되고 ‘즉’만이 남게 되어서, 표면적으로는 환언의 접속부사와 동일하게 되어 버렸다. 그 결과 ‘조건’의 의미는 사라지고 ‘인과’의 의미만 남아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

끝으로, 환언의 접속부사 ‘즉’은, ‘곧’과의 유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용법이다. 이미 오랜 기간 초점과 환언의 기능을 겸하였던 ‘곧’이 있었지만, 환언의 ‘즉’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즉’은 문장과 문장을 환언으로 맺어주는 전형적 표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표-7> ‘즉’의 역사적 변화

원문의 한자	분류	의미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	문법적 분류
卽	즉1	시간 시간적으로 머지않아.	즉자히 즉재	○	×	동사구-부사
	즉2	초점 다름 아닌.	○	○	×	명사구-부사
	즉3	인과 따라서, 그러므로.	-ㄴ즉	○	○	접속 부사
	즉4	환언 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	○	○	접속 부사

## 2.4. '정히'

현대 한국어 부사 '정'과 '정히'는 사실상 유의어로 취급되지만, 역사적으로 이 둘의 출발선은 결코 동일하지 않았다. '정히'가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부사로 활약하였던 것에 비하여, 부사 '정'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쓰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부사로서의 출발이 늦기는 하였으나, '정'은 오늘날에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부사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긴 역사를 자랑하였던 부사 '정히'는 오늘날에 와서 거의 쓰이지 않게 되었다.

### 2.4.1. 현대 한국어의 '정' 과 '정히'

현대 한국어 '정히'는 일부 환경을 제외하고는 거의 쓰이지 않는 부사이다. 현대 한국어 코퍼스에서도 '정히'가 쓰인 예를 찾기 어렵다. '정히'는 대체로 조건절에서 쓰이는데, 그나마도 부사 '정'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현대 한국어 '정히'는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한결(2018)에서는 현대 한국어 '정'과 '정히'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을 견주어 논의한 바 있었다. 여기에서는 김한결(2018)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과 '정히'의 특성을 밝히도록 한다.

- |                   |                            |
|-------------------|----------------------------|
| (1) 정             |                            |
| ㄱ. 굳이; 정말로, 진정으로. | ¶ <u>정</u>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
| (2) 정히(正히)        |                            |
| ㄱ. 굳이; 정말로, 진정으로. | ¶ <u>정히</u>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
| ㄴ. 틀림없이.          | ¶ 일금 일만 원을 <u>정히</u> 영수함.  |
| ㄷ. 바로.            | ¶ 때는 <u>정히</u> 춘삼월이라.      |

(1)과 (2)는 현대 한국어의 여러 사전에 기술되었던 '정'과 '정히'의 뜻풀이들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정히'는 조건절과 비조건절에서 쓰이는 경우로 양분되는데, 조건

절에서 쓰이는 ‘정히’는 ‘정’과 유의어이다. ‘정히’는 비조건절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이것이 ‘정히’와 ‘정’의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정’과 ‘정히’는 모두 조건절에서 월등한 비율로 확인된다. 이것은 ‘정’과 ‘정히’가 어휘 내적으로 조건절의 실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러한 실현 가능성이 조건의 연결 어미와 잘 호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sup>1)</sup> 조건절에서 쓰이는 ‘정’과 ‘정히’는 상호주관적 의미를 지닌다.<sup>2)</sup> 이것은 조건절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른, 화자와 청자의 상반된 입장 차이로 드러난다.

- (3) ㄱ. 청자: 화자가 인지하는 한계를 넘어서라도 조건절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ㄴ. 화자: 조건절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끝내 청자가 조건절을 실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은 조건절의 행위나 상태에 대한 청자와 화자의 전제를 정리한 것이다. 조건절에는 청자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나 상태가 존재하는데, 그것에는 어떠한 한계점이 상정된 경우가 많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점이란 ‘청자에 대한 화자의 기대치’를 뜻한다. 조건절의 내용이 그러한 기대치를 넘어서는 경우, 청자와 화자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 (4) ㄱ {정, 정히}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 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4ㄱ)의 청자는 “일이 정말 싫었지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음”을, 화자는 “청자가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만둘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정’, ‘정히’가 없는

---

1) 김한결(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 정히’를 사용하는 화자는 청자에 대한 일정한 기대치를 드러낸다. 즉, 화자는 청자가 화자 자신이 설정한 어떠한 한계(기대치)를 넘지 않기를 바라는데, 끝내 그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조건의 연결어미 중 하나인 ‘-면’과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면’은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로서,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해석하는 뜻을 나타내는바(『표준국어대사전』 참고), 이때의 ‘-면’은 위에서 언급된 화자의 기대치와 닮은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2) 김한결(2018)에서는 이를 화용론적 전제로 처리한 바 있다. 그렇지만 화용론적 전제나 상호주관적 의미는 모두 청자와 화자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ㄴ)에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 ‘정히’는 ‘청자에 대한 화자의 기대치’를 표현하는 요소이다.

(1)과 (2ㄱ)의 의미는 “굳이”와 “정말로, 진정으로”로 양분된다. 전자와 후자는 표면적 의미는 서로 다르지만, ‘청자에 대한 화자의 기대치’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ㄱ)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5) “{정, 정히}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에 대하여
- ㄱ. 화자는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 ㄴ. 청자는 조건절의 내용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 ㄷ. 화자가 청자의 심리를 고려하면 “진심으로, 정말로”가 선택된다.
  - ㄷ’. 네(=청자)가 {진심으로, 정말로}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 ㄹ. 화자가 자신의 심리를 고려하면 “굳이”가 선택된다.
  - ㄹ’. 네(=청자)가 굳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5)는 화자가 심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부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화자나 청자의 심리와는 관계없이, 화자는 ‘정’, ‘정히’가 쓰인 절의 내용이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청자에 대한 화자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의미를 공통점을 지닌다[김한결 (2018 :131~132) 참조].<sup>3)</sup> 이처럼 조건절의 ‘정’과 ‘정히’는, 명제에 대한 확실성이나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점에서 양태부사로 분류할 수 있다.

(2ㄴ, ㄷ)은 비조건절인 환경에서 확인되는 ‘정히’의 예이다. (2ㄴ)은 ‘정히’가 “틀림없이”로 해석되는 경우인데, “앞서 제시된 금액이 딱 맞는다”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정히’는 “정확하게”, “딱 맞게”로도 해석된다. 그런데 (2ㄴ)은 특정한 환경에서만 쓰이는 예로서, 숫자나 금액과 관련된 곳이 아니면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4)</sup> (2ㄷ)은 초점부사 “바로”의 예로서 “때는 다른 어느 날도 아니라 바

3) 이제부터는 “굳이”와 “정말로, 진정으로”의 의미를 모두 제시하지 않고, “정말로, 진정으로”의 의미만을 대표형으로 삼도록 하겠다. 이는 편의상의 조치이다.

4) 이러한 ‘정히’를 성상부사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통시적 정보를 고려한다면 이때의 ‘정히’는 정도부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히’는 ‘正히 NP’처럼 쓰여 후행하는 수량 관련 명사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 한국어에서 “정히 NP를 영수함”보다는 “NP를 정히 영수함”(NP: 수량사구)이 전형적이기 때문에, 우선은 ‘정히’를 성상부사로 처리하였다. 사실 “NP를 정히 영수함”과 같은 문장은 특수한 목적과 환경에서 쓰이기 때문에 거의 관용적 표현으로 보아야 할 것

로 3월”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히’가 초점부사로 기능한 예도 매우 드물다.

- (6) ㄱ.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구국운동과 절대적인 무력감 사이에 끼이게 된 한용운의 상황은 시대의 전체적인 테두리에 있어서 정히 파스칼적인 것이다. <심미적 이성의 탐구,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ㄴ. 이제 상공이 멀리 나아가고 사씨 오래 집을 떠났으니 정히 계교를 베풀 때라. <심미적 이성의 탐구,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ㄷ. 작자는 정히 그 실패품 중에 자기 이상에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버린 것이다. <역사와 민족(2/3)>

[=김한결(2018: 143) (25)번 예문]

(6)의 ‘정히’는 모두 초점부사로 해석될 만한 예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나 환경에서 쓰인 ‘정히’는 매우 드물다. 특히, (2ㄴ)이나 (6ㄴ)은 의고적 텍스트에서나 등장할 법한 문장으로서 현대 한국어의 일반적 문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만큼 비조건절에서 사용된 ‘정히’는 그 쓰임이 한정적이다. 즉, ‘정히’의 의미가 다양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정’보다 생산적인 부사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2ㄴ, ㄷ)의 ‘정히’는 각각 ‘정확히’나 ‘바로’로 쉽게 바꾸어 쓸 수 있다.

현대 한국어 ‘정’과 ‘정히’는 완전한 동의어가 아니다. 조건절의 ‘정’과 ‘정히’는 서로가 대치될 수 있지만, 비조건절의 ‘정히’는 ‘정’으로 대치될 수 없다.

- (7) ㄱ. \*일금 일만 원을 정 영수함.
- ㄴ. \*때는 정 춘삼월이라.

(7)이 비문이 되는 것은 애초에 ‘정’이 조건절에서만 쓰이는 부사이기 때문이다. ‘정히’는 ‘정’이 지니지 못한 의미·통사적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하는데, ‘정’은 구어와 문어에서 모두 쓰이는 반면, ‘정히’는 대체로 문어에서 쓰인다. 이것은 ‘정히’의 역사적 변화와 관련된다(후술됨).

현대 한국어 ‘정’과 ‘정히’의 용법과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다. 그러한 점에서 (2ㄴ)은 온전한 정상부사의 예로 보기 어렵다.

<표-8> 현대 한국어 ‘정’과 ‘정히’

분류	의미		문법적 분류
정	양태	정말로, 진정으로.	조건절에서 쓰임.
정히1	양태	정말로, 진정으로.	조건절에서 쓰임.
정히2	성상	정확히.	동사-부사
정히3	초점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현대 한국어 ‘정’은 조건절에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의 용법은 잘 찾아지지 않으므로 ‘정’에는 하나의 의미만 부여하였다. 현대 한국어 ‘정히’는 거의 쓰이지 않는 부사이지만, 그래도 일부 조건절에서 쓰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정히1’로 처리하였다. 이것은 ‘정’과의 연관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정히2’와 ‘정히3’은 오늘날 찾아보기 어려운 의미이지만, 드물게나마 쓰이는 것이므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위치를 부여하였다. 아래에서는 ‘정히’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중점적으로 보되, ‘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논의할 것이다.

#### 2.4.2. 현대 한국어 이전의 ‘정히’

현대 한국어에서는 ‘정’과 ‘정히’가 모두 부사이지만, 적어도 중세 한국어에서는 ‘정히’만이 부사로 사용되었다. ‘정’이 부사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무렵으로서, 이때가 바로 ‘정’과 ‘정히’가 모두 부사로서 기능하였던 최초의 시기였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나타나는 ‘정’과 ‘정히’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오늘날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정’과 ‘정히’는 19세기부터 현대 한국어에 이르는 200여 년의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였던 것이다.

<1> 중세 한국어의 ‘正히’

‘正히’는 ‘正’, ‘端’의 언해였는데, 이 의미는 ‘正’의 형용사 어간인 ‘正히-’와 관련된다. 중세 한국어의 ‘正히-’는 “규격이나 기준에 들어맞음”이라는 본유적 의미를 지녔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올바르다”의 의미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의미는 ‘正히’에 반영되어 있었다.

<1-1> 성상부사

‘正히’는 성상부사인 “올바로”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중세 한국어 ‘正히’가 지녔던 주요 의미 중 하나였다.

- (8) ㄱ. 正覺은 正히 알씨니 그르 알면 外道ㅣ오 正히 알면 부테시니라 <월인석보 1:51a>  
ㄴ. 慈心으로 妙密佛法을 정히 念히야 큰 雲雨 가져 썰리 오라 히시고(慈心正念妙密佛法 持大雲雨速來至此) <월인석보 10:94b>  
ㄷ. 粉과 燕脂와 瓔珞과 옷과 花鬘과 鬘과 鬘쇠로 꾸밈거든 사오나쁜 사르미 몰라 소가 貪흔 므스믈 내느니 智慧르윈 사르미 正히 슬퍼보면 거지비 모미 썸 곤히며 곡도 곤히도다(外飾粉脂 瓔珞衣服 花鬘釵釧 假莊嚴身 癡人不知 橫被誑惑 於色境界 妄生慾心 若有智人 正念觀察婦人身體 體性如是空無有主 猶如夢幻縛) <석보상절 3:26a-26b>  
ㄹ. 論語에 널오디 님금이 바블 주어시든 모로매 듯글 正히 히고 문져 맛보시며 님금이 늘고기를 주어시든 모로매 니겨 薦히시며 님금이 산 거슬 주어시든 모로매 치더시다(論語에 曰호디 君이 賜食이어시든 必正席先嘗之히시며 君이 賜腥이어시든 必熟而薦之히시며 君이 賜生이어시든 必畜之히더시다) <내훈 1:9b-10a>

(8ㄱ)에서는 ‘正히 알-’과 ‘그르 알-’이 대조를 보이고 있어서 ‘正히’의 의미가 “올바로”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8ㄴ)의 ‘정히 念히야’는 원문의 ‘正念’을 언해한 것이다. ‘정념’은 불교 八正道의 하나로, “正見으로 파악한 모든 법의 본성과 모습을 올바르게 기억하여 잊지 않는 일”을 말한다. 따라서 이 ‘정히’ 역시 “올바로”로 언해된 것이다. (8ㄷ)은 태자에게 번듯한 외양에 속지 말라고 경계하는 부분이다.



잘 꾸민 사람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므로, 여기의 ‘正히’도 “올바로”로 해석된다. (8ㄷ)은 신하가 임금에 대한 예법을 드러내므로 여기의 ‘正히’도 “올바로”로 해석된다. 이처럼 “올바로”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긋나지 않게”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正’의 본래적 의미를 잘 반영한다.

“올바로”는 부사 ‘정다이’에서도 확인된다.

- (9) ㄱ. 董仲舒 | 글오디 仁흔 사름은 그 올흔 일을 正히 하고 그 리홀 일을 씨흔디 아니흔며 그 도리를 붉키고 그 공효를 헤아리디 아니흔느니라 (董仲舒 | 曰 仁人者는 正其誼不謀其利흔며 明其道不計其功이니라) <소학언해 5:82a>  
 ㄴ. 董仲舒 | 닐오디 仁흔는 사름은 올흔 이를 정다이 하고 리케 하요몰 씨흔디 아니흔며 도리를 붉키고 공효를 헤아리디 아니흔느니라 <번역소학 8:1a>

(9ㄴ)의 ‘정다이’는 (9ㄱ)의 ‘正히’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정다이’는 파생 형용사 ‘정답-’이 부사로 파생된 결과로서, “올바로”의 뜻을 나타낸다. (9)는 표기의 변화도 보여주는데, 실제로 16세기부터 ‘正히’의 ‘正’은 한글인 ‘정’(>정)으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올바로”라는 뜻을 갖는 성상부사 ‘正히’(와 ‘정다이’)는 동사-부사이다.

- (10) ㄱ. 慈心으로 妙密佛法을 정히 念하야 [= (8ㄴ)의 일부]  
 ㄴ. 정히 慈心으로 妙密佛法을 念하야  
 ㄷ. 慈心으로 정히 妙密佛法을 念하야

“올바로”의 의미를 갖는 ‘正히’는 ‘알-, 念하-(생각하-), 살펴보-’ 등의 지각동사를 직접 수식한다. (10ㄱ)의 ‘정히’는 (10ㄴ, ㄷ)처럼 어순재배치를 해도 의미가 통할지 모르나, 그 의미는 본래의 ‘正念’과는 달라져 버린다. (10ㄴ, ㄷ)의 ‘정히’는 각각 ‘慈心’, ‘妙密佛法’을 작용역으로 하는 정도부사나 초점부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5)</sup> “올바로”로 해석되는 동사-부사 ‘正히’를 ‘正히1’로 불러 둔다.

5) (10ㄱ)이 (10ㄴ)이나 (10ㄷ)에서 어순재배치된 것이라고 한다면, ‘정히’는 동사구-부사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1-2> 정도부사

‘正히’가 정도성을 지닌 용언이나 체언을 수식하여 “정확히”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sup>6)</sup>

(11) ㄱ. 쯔 佛子 | 無數恒沙 塔을 지서 나라홀 꾸미니 寶塔 노퍽 五千 由旬이오 南北과 東西와 正히 곧 하야 二千 由旬이오 塔마다 各各 즈른 幢幡이며 구슬 서즌 帳이며 보빅엿 바오리 溫和히 울며 天龍鬼神들과 사름과 사름 아닌 것과 香華 伎樂으로 상네 供養호습는 야이 다 보느다(又見佛子 造諸塔廟 無數恒沙 嚴飾國界 寶塔高妙 五千由旬 縱廣正等 二千由旬 一一塔廟 各千幢幡 珠交露幔 寶鈴和鳴 諸天龍神 人及非人 香華伎樂 常以供養) <석보상절 13:24a-24b>

ㄱ'. 쯔 보딕 佛子 | 塔廟 無數恒沙를 밍ᄃ라 國界를 식긔기 꾸미니 보빅 塔이 높고 微妙하야 五千 由旬이며 기리 너브 正히 ᄃ티 二千 由旬이며 塔廟마다 各各 즈른 幢幡이며 구슬 交露흔 帳이며 보빅 방오리 和히 울어든 諸天龍神人과 非人과 香華伎樂으로 상네 供養하며 <법화경언해 1:85a-85b>

ㄴ. 하다가 이 몸 브리는 저근 因을 하디 아니하면 비록 無爲를 일위도 받드기도로 사르미게 나 아랫 비들 가포딕 내 馬麥과 正히 곧 하야 달음 업스리라 (若不爲此捨身微因하면 縱成無爲하야도 必還生人하야 酬其宿債호디 如我馬麥과 正等無異하리라) <능엄경언해 6:104b-105a>

ㄴ'. 부테 니르샤딕 쯔 아모 사르미나 觀世音菩薩入 일후믈 受持하야 혼 저글 절하야 供養호만 하야도 이 두 사르미 福이 正히 곧바 다른 줄 업서 百千萬億劫에 다오디 아니하리라(佛言 若復有人受持觀世音菩薩名號 乃至一時禮拜 供養 是二人福 正等無異 於百千萬億劫不可窮盡) <석보상절 21:9a>

ㄴ'. 부테 니르샤딕 쯔 아모 사르미나 觀世音菩薩入 일후믈 受持호딕 혼 뵈나 절하야 供養하면 이 두 사르미 福이 正히 곧 하야 달오미 업서 百千萬億 劫에 다오디 아니하리라 <월인석보 19:30b>

ㄷ. 이 비단과 고로와 김과 사와 로들헛 것들홀 네 다 보와니 네 정히 므슴 비단 호고져 호느다(這段疋綾絹紗羅等項 你都看了 你端的要買甚麼段子) <변역노걸대 하:26b>

6) 아래의 ‘正히’는 한문의 ‘正當’ 전체를 포함한 언해이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내가 꼭/반드시 그 하늘에 날 것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須達이 닐오딕 내 正히 그 하늘래 나리라(須達言曰 我正當生第四天中) <석보상절 6:36a-36b>

ㄱ. 이 대단과綾과 김과紗와 노들을 네 다 보아시니 네 진실로 므슴 비단을 사려 ㅎ는다(這緞疋綾絹紗羅等項 你都看了 你真簡要賣甚麼緞子) <중간노걸대 하:25a>

위의 ‘正히’는 정도부사 ‘꼭’에 해당한다. (11ㄱ, ㄱ’)의 ‘正히’는 “寶塔의 가로 세로 길이가 꼭 같음”을 뜻하고, (11ㄴ)의 ‘正히’는 “주체의 행위가 馬麥과 꼭 같음”을 뜻한다. 모두 ‘곧ㅎ-’ 구문으로서 비교의 대상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딱 들어맞음”을 의미한다. (11ㄴ)의 ‘달음 업스리라’가 그러한 의미를 상기시킨다. 이 역시 ‘正’의 본유적 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정도부사 ‘正히’는 본래의 ‘正히’에서 번져 나간 의미에 속한다. (11ㄷ, ㄷ’)은 같은 원문을 다르게 언해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의 핵심은 “차이가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복이 정확하게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正히’는 “정확히”의 의미이다. 비유를 나타내는 ‘곧ㅎ-’가 전형적인 정도부사의 예에 들고, ‘맞-(알맞-), 어울-(어울리-)’ 등의 整合동사도 이 부류에 속한다. ‘곧ㅎ-’와 정합동사는 모두 정도성을 지닌다. (11)의 ‘正히’는 동사-부사처럼 보이나, 실은 동사구-부사이다. 예컨대, (11ㄴ)의 ‘내 馬麥과 正히 곧ㅎ야’는 ‘내 正히 馬麥과 곧ㅎ야’에서 어순재배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11ㄷ)은 비단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묻는 질문으로서 “네가 정확히 무슨 비단을 사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부분이다. 한문의 ‘端的’은 “진실로”, “확실히”, “바로”, “마침” 등의 뜻을 지니고 있었는데(김원중 2013: 309), 이것은 중국어 원문이라고 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11ㄷ’)에는 해당 부분이 ‘眞’으로 바뀌어 있고, 언해도 ‘진실로’로 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의미 역시 ‘正히’의 중심 의미에서 번져 나간 의미이다. (11ㄷ)의 ‘正히’는 정도부사로서 명사구-부사이다.

정도부사 ‘正히’가 “매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12) ㄱ. 히미 다으면 漸漸 기우느니 하늬 사르미 다솟 衰 봄과 곧ㅎ니라 이우시드 러사 囹辟苦를 비르서 시름ㅎ느니 歡園에서 正히 즐거운 時節와 글디 못ㅎ도다(勢力盡ㅎ면 漸傾歛ㅎ느니 猶若天人의 見五衰ㅎ니라 憔悴ㅎ야사 始憂 囹辟苦ㅎ느니 不似歡園에 正樂時ㅎ도다) <남명집언해 상:62a>

ㄴ. 여러 가짓 소리 眞實入 더와 피릿 소리 곧도소니 ㄱ숯 비치 正히 ㄱ긱ㅎ도다(萬籟眞笙竽 秋色正蕭洒) <두시언해 초간본 6:1b>

ㄷ. ㄱ릿 덧소리 드로물 正히 시름ㅎ노니 ㅎ오사 셔셔 ㄱ르멧 비를 보노라(正

愁聞塞笛 獨立見江船) <두시언해 초간본 7:4b>

(12ㄱ)의 ‘正히’가 포함된 절은 의미적으로 선행절의 내용과 대조되는데, 이때의 ‘正히’는 후행하는 ‘즐거운’(樂)과 의미적으로 관련된다. (12ㄱ)은 대략 “초췌해져야 囹辟苦를 비로소 근심한다. 그러므로 歡園에서 보냈던 매우 즐거웠던 시절과는 같지 않다.” 정도로 해석된다. ‘正히’가 “매우”로 해석되는 예는 「두시언해」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 (12ㄴ, ㄷ)은 모두 정도부사 “매우”로 해석될 뿐, 성상부사 “올바로”나 정도부사 “정확히”로는 해석되지 않는 예들이다. 이처럼 정도성을 지닌 성분을 수식하는 ‘正히’를 ‘正히2’로 부르기로 한다.

### <1-3> 초점부사

‘곧’이나 ‘바로’와 마찬가지로,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쓰인 ‘正히’는 초점부사이다.

(13) ㄱ. 經스 一字는 正히 이 이 典이라(經之一字는 正是此典이라) <원각경언해 상 1-2:16b>

ㄴ. 이제 法界에 周徧히 ㄱ득다 니르샤몬 正히 이 第二門行相이니 나몬 門스 義理를 兼히니(今言徧滿法界者는 正是第二門行相이니 兼於餘門義理히니) <원각경언해 상 2-2:141a>

(13ㄱ)은 “經의 한 글자는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이 典이다”로, (13ㄴ)은 “法界에 곧고루 가득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다름 아닌 第二門行相이다”로 해석된다. ‘正히’에 후행하는 요소는 ‘正히’에 의하여 환기된 대안 집합의 원소 중 하나일 뿐, 환언의 대상이 아니다.

‘正히’는 “A이 正히 B이라” 구문에서도 쓰였는데, 이 역시 초점부사에 포함된다.

(14) ㄱ. 舍利弗아 아라라 내 佛子들홀 본된 다 恭敬호는 ㄱ스ㄱ로 부터씩 오니 아래브터 諸佛을 좃즈바 方便 說法을 듣즈바 이실씩 너교되 如來는 부텃 智慧 닐오물 위호야 냇느니 이제 正히 그 時節이로다(舍利弗當知 我見佛子等志求佛道者 無量千萬億 咸以恭敬心 皆來至佛所 曾從諸佛聞 方便所說法 我卽作是念 如來所以出 爲說佛慧故 今正是其時) <석보상절 13:60a-60b>

- ㄴ. 六師 | 즉재 슬보되 大王하 아라쇼셔 瞿曇 沙門이 正히 幻術의 드윳 쓰르  
미니 幻化의 法은 眞實흔 體 업스니 大王하 아라쇼셔 우리 그레 네 圍陀典  
에 닐오되 千年 二千年에 당다이 혼 幻人이 世間에 나리라 ㅎ옛느니 瞿曇  
沙門이 正히 그 사르미니이다(爾時六師卽作是言 大王 當知瞿曇沙門正是幻  
術所化作耳 幻化之法 體無眞實 大王 當知我等經書四圍陀典說言 千年二千年  
當有一幻人出世 瞿曇沙門正是其人) <월인석보 21:193a-194a>
- ㄷ. 師 | 니르샤되 네 아는다 모르는다 佛性이 ㅎ다가 常인댄 쏘 므슴 善惡 諸  
法을 니르며 劫이 다오매 니르러도 혼 사름도 菩提心 發히리 업스리니 그  
럴시 내 닐은 常 업소미 正히 이 부터 니르시는 眞常入 道 | 니라(師曰ㅎ샤  
되 汝 | 知否아 佛性이 若常인댄 更說什麼善惡諸法ㅎ며 乃至窮劫이라도 無  
有一人이 發菩提心者ㅎ리니 故로 吾說無常이 正是佛說眞常之道也 | 니라)  
<육조법보단경언해 하:20a-20b>

(14ㄱ)은 “여래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기 위하여 나왔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정도의 의미이다. ‘正히’는 ‘바로’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때의 ‘바로’는 “다름 아닌”으로 해석된다. (14ㄴ)에 있는 두 개의 ‘正히’는 모두 동일한 의미이다. 첫 번째 ‘正히’는 “구담 사문이 바로 환술이 될 뿐이다”로, 두 번째 ‘正히’는 “오래 전에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담 사문이 바로 그 사람이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14ㄷ)의 ‘正히’도 “無常이 바로 부처께서 말씀하신 眞常의 도”로 해석된다. 해석상 ‘바로’는 ‘곧’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때의 ‘바로’나 ‘곧’은 모두 초점부사이다.

이러한 용법은 ‘곧’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13), (14)의 언해문은 “A{는, 이} {곧, 正히} B이라” 구문인데 그것은 한문의 “{直, 卽, 正}是{其, 此}...”를 언해한 것이었다. 이것은 초점부사의 영역에서 ‘正’과 ‘直’, ‘卽’이 유의어로 기능하였음을 의미한다.

드물기는 하지만 비전형적 환언문이 아닌 환경에서 초점부사 ‘正히’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 (15) 그 사르미 夢中에 디ㅎ며 두드리는 소리 듣고 달 다른 物을 지소되 시혹 鼓 티  
느다 ㅎ며 시혹 鐘 티느다 ㅎ며 즉재 擘 擘 時節에 제 그 鐘을 달이 너겨 나모  
똥 소리로다 ㅎ다가 그제 문득 썩야 방앗 소리를 썰리 알오 제 집 사름드려 닐  
오되 내 正히 擘 擘 時節에 이 디홀 썩리를 惑ㅎ야 擘 소리라 ㅎ다라(其人  
이 夢中에 聞春擣聲ㅎ고 別作他物호되 或爲擊鼓ㅎ며 或爲撞鐘ㅎ며 卽於夢時에 自  
恠其鐘ㅎ야 爲木石響ㅎ다가 於時에 忽寤ㅎ야 遡知杵音ㅎ고 自告家人호되 我正  
夢時에 惑此春音ㅎ야 將爲鼓響ㅎ다라) <능엄경언해 4:130a-130b>

위의 예문은 사람이 꿈속에서 쿵쿵 짙는 소리를 듣고 북소리나 종소리인 것으로 착각했음을 말하는 내용이다. 방아 짙는 소리를 북소리나 종소리인 것으로 착각한 때가 “다름 아닌 화자가 꿈꾸고 있었던 때”이므로,7) 이때의 ‘正히’는 초점부사 “다름 아닌”으로 해석된다. 비전형적 환언문의 도움 없이도 초점부사가 쓰였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지금까지 언급한 ‘正히’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9> 중세 한국어 ‘正히’

분류	의미		문법적 분류
正히1	성상	올바로.	동사-부사
正히2	정도	정확히, 매우.	동사구-부사
			명사구-부사
正히3	초점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正히1’은 ‘正히-’의 첫 번째 의미인 “올바르다”에서 도출된 것이다. ‘正히2’는 정도성을 지닌 용언이나 체언을 수식하는 정도부사이고, ‘正히3’은 체언을 수식하는 초점부사이다. ‘正히’의 하위 의미는 ‘바르’나 ‘곧’의 일부 의미와 관련된다. ‘正히1~3’은 ‘바르’와, ‘正히3’은 ‘곧’과 유의 관계에 있었다. 즉, 중세 한국어 ‘正히’는 ‘바르’와 ‘곧’의 중간적 위치에 있었다고 할 만하다.

## <2> 근대 한국어부터 개화기까지의 ‘정히’

‘正히’의 표기는 ‘정히’로, 이것은 다시 ‘정히’로 바뀌었다. ‘정히’가 ‘정히’로 완전하게 바뀌는 시기는 대략 16세기부터 17세기 교체기로 상정된다. 물론, 이러한 표

7) ‘꿈속’의 ‘꿈’은 깨닫지 못하고 미혹해 있던 때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다. 방아 짙는 소리(본질)를 북소리나 종소리(미혹의 상태)로 착각했다는 것은 아직 깨달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음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기의 변화가 곧바로 해당 단어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 '정히'의 여러 하위 의미들은 생산적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근대 한국어 '정히'의 예는 다음과 같다.

(16) 정히1(성상부사): 올바르게.

- ㄱ. 네 마즈막 들의 만화 붓터 왕성히기늘 각각 열여드래 식 히니 정히 입시울 의 응히고 버거는 혀의 응히여시니 몹가 복쇼화곧 굿트니는 편히고 프른 이는 병들고 흰 이는 화평히고 불근 이는 살고 거므니는 위티히고 누른 이는 죽느니라(四季月애 脾寄旺各十八日히니 正應於唇이오 副應於舌히니 鮮明如桃花者는 平히고 靑者는 病히고 白者는 和히고 紅者는 生히고 黑者는 危히고 黃者는 死니라) <마경초집언해 상:27b>
- ㄴ. 관네를 못츠매 의관을 정히 히고 대궐을 향히여 직빅히고 그 아으 약슈드려 닐너 곶오디 너는 급히 드라나 문호를 보전하라(既畢禮 具衣冠望闕再拜 謂其弟岳秀曰 可急去 不可使尹氏無後) <오륜행실도 2 중:54b>

(17) 정히2(정도부사): 정확히.

- ㄱ. 의원이 니르되 모로미 썸족흔 칼노 질너 파쑹히여야 나오리라 히고 칼을 들어 지르니 피 썸어 길이 넘고 죽으니 정히 제 썸과 꺾치 되엇더라(鑿云 必須用尖刀開之方可刀下 血噴丈餘而死 一如夢中) <태상감응편도설언해 4:58b>
- ㄴ. 사름은 언머노 漢과 朝鮮이 正히 절반이라 <청어노걸대 1:9a>

(18) 정히2(정도부사): 매우.

- ㄱ. 曹操 | 정히 근심히고 이실 제 흘연이 龐統의 말을 드르니 <삼역총해 7:17b>
- ㄴ. 일일은 밤의 드르니 하쉬 터져 형세 급하다 히거늘 양예 빅성이 히로올가 두려 즉시 관속을 드리고 몸소 나아가 터진 곳을 막을식 물역이 업서 정히 위급히더니(夜報河決 詣恐害民躬率官役往塞之 正窮急) <태상감응편도설언해 2:42a>

(19) 정히3(초점부사): 다름 아닌.

- ㄱ. 너 곶오디 너 드러올 썸의 늬의 꾸지람을 도라보지 아니히고 팔포를 프라 슈빅 냥 은을 마즈움은 정히 이 일을 위함이니 무어시 앓가오리오 <을병연행록 5:48a>
- ㄴ. 關公이 니로되 승상의 니별히고 부러 河北에 형 玄德을 츠즈라 가노라 孔秀 | 니로되 河北 袁紹는 정히 曹승상의 적국이라 장군이 이 가는 디 반드시 글을 가져와시리라 <삼역총해 2:24b>
- ㄷ. 전능하신 텃쥬 | 내 심중에 들으시는 때가 정히 이 은혜를 구할 때라 <성교절요 48a-48b>

문헌 자료의 특성상 ‘정히’의 모든 의미가 시기별로 골고루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중세 한국어 ‘正히’의 의미가 17~18세기 근대 한국어 시기까지 잘 유지되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중요한 것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정히’(<正히)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그 자리를 ‘바로’(<바르)나 ‘곳’(<곧)이 대신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 시기 문헌 자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데에 기인한다. 중세 한국어부터 18세기 근대 한국어까지 대다수 문헌은 한문이나 중국어를 번역한 언해문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는 더 이상 원문이 전제되지 않았다. 이것은 ‘정히’가 번역을 위한 문어적 부사였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것은 언간 자료에서 ‘정히’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데에서 입증된다. 물론, 우연한 공백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하나만으로 ‘정히’가 문어적인 부사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19세기 말엽에 발간된 「독립신문」에서 ‘정히’가 쓰인 비율이 매우 적다는 점도 그러한 가능성을 지지해준다.<sup>8)</sup>

‘정히’의 약화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이전 시기부터 ‘정히’를 대체할 만한 다른 부사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독립신문」에는 ‘正히’와 일정 부분의 뜻이 겹치는 ‘바로’가 생산적으로 쓰였음이 확인된다.

- (20) ㄱ. 병의 근인이 어느 경낙에 잇는지 바로 아라야 약도 합당하게 쓸 것이요 약을 바로 올케 먹어야 병이 속히 나흘 터이어늘 <1899.10.03. 독립신문 1면>
- ㄴ. 사람마다 즈기 쇼견을 말흘 것 곳흐면 그새는 바로 학문이 업서 모로고 잘 못흐다면 모로거니와 <1896.10.06. 독립신문 1면>
- ㄷ. 영 아 량국이 다 대한 정부호고민 이 일에 상관이 잇고 바로 그 두 나라이 상관된 일이 아니라 <1897.10.30. 독립신문 1면>
- (21) ㄱ. 그 불상흔 사름을 구완호여 주지도 아니호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일이 곳 즈기가 당흔 것과 곳흔 것을 모로는 식둠이라 <1897.08.12. 독립신문 2면>

8) 「독립신문」에는 모두 18회에 걸쳐 ‘정히’가 나타났으나, 이 중 대부분은 ‘淨히(깨끗하게)’의 예이고 [(ㄱ)], 일부 예에서 중세 한국어 부사 ‘正히’의 용법[(ㄴ)]이 확인될 뿐이다.

- ㄱ. 아즉 돈을 만히 드러 상등 길을 만들 슈는 업스나 길이 넓게나 호고 정호게 나흐며 기천이나 정히 쳐 더러운 물건이 씻겨 가게 호고 <1896.05.09. 독립신문 1면>
- ㄴ. 국세에 급업호와 민정의 황급함이 엇지 그 이 곳치 심호라 이 정히 경장의 혼 기회라 <1897.03.23. 독립신문 2면>



- ㄴ. 불법한 일을 더의들이 헝하니 그건 궂 비도라 비도가 되거드면 란민인즉 란민은 법률상에 큰 죄인이라 <1897.08.12. 독립신문 2면>
- ㄷ. 나라를 잘 되도록 헝는 사름들이야 궂 인민의 은인이니 <1897.08.24. 독립신문 1면>
- ㄹ. 아모쪼록 내 아래 잇는 사름들을 놓혀 주고 스랑헝는 거시 궂 내가 내 몸을 놓히고 남을 스랑헝는 거스로 알기를 바라노라 <1896.09.29. 독립신문 2면>

(20)의 ‘바로’는 ‘정히’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데도 ‘정히’가 쓰이지 않고 ‘바로’가 쓰였다는 사실은, 19세기 말엽에 ‘정히’는 이미 그 세력을 상당히 잃어버렸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정히’와 일정 영역에서 유의어 관계를 형성하였던 ‘궂’에서도 확인된다. (21)의 ‘궂’은 정도부사나 초점부사로 해석되는데, 이것도 모두 ‘정히’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영역이었다.

‘정히’의 세력은 위축되고, 그것이 갖는 의미 영역을 ‘바로’나 ‘곧’이 차지하게 되는 현상은 개화기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세기의 신문과 신소설에 등장하는 ‘정히’(이표기 포함)의 예는 80개를 넘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약 200회 이상)나 ‘곧’(약 1900회 이상)에 비하면 매우 빈약한 숫자이다. 이러한 차이는 부사의 사용 양상이 문헌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요컨대, 언해문이 강제되었던 환경에서 그렇지 않은 환경으로 변화된 것이 ‘정히’(<정히)가 약화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정히’의 쇠락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세 한국어 시기부터 ‘정히’는 ‘바로’나 ‘곧’과 유의 경쟁 관계에 있었다. 중세 한국어 ‘正히’는 ‘바르’와 ‘곧’의 의미 영역과 일정 부분 중복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正히’의 외연이 매우 넓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正히’ 자신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정히’가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정히’가 등장한 대부분의 문헌은 언해문이었다. 19세기 이후 점차 비언해문의 범위가 확대되어 갔을 때 ‘정히’의 사용은 급감하였다. 그것은 바로 비언해문에서 ‘정히’가 유의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바로’나 ‘곧’에 밀려나게 되었음을 뜻한다.

고유어로 번역된 ‘바로’나 ‘곧’은 문어(언해문), 구어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쓰일 수 있었다. ‘궂’과 유의 경쟁을 벌였던 ‘즉’이 20세기에 접어들어, 역시 그 의미나 용법이 대부분 ‘곧’에 흡수된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환언과 초점의 기능을 하

는 부사에 관한 한, 한자어보다는 고유어가 언중의 선택을 받았던 것이다.

한편, ‘정히’(<정히)는 19세기를 전후하여 등장하는 부사 ‘정’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정’의 출현 역시 ‘정히’의 약화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 상술한다.

### <3> 명사 ‘正’과 부사 ‘정’

중세 한국어 ‘正히’는 부사였지만, 중세 한국어 ‘正’(>정)은 “바름” 혹은 “바른 것” 등을 뜻하는 명사였다. ‘정’은 20세기 전반기 문헌까지 한자 ‘正’이나 한글 ‘정, 정’으로 표기되었다. 명사 ‘정’은 15세기에는 한자 ‘正’으로만 표기되다가, 16세기~18세기에 이르러 ‘정, 정’으로 표기되었다. 19세기 이후에는 ‘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는 바람에 ‘정’의 어원조차 모호하게 되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표기가 ‘정’으로 고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표기의 문제는 부사 ‘정’의 의미·용법의 변화와 직결된다. 부사 ‘정’의 등장은 표기가 ‘정’으로 바뀐 어느 시기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正’으로 표기된 ‘정’은 명사였기 때문에 우리의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

다음 예는 ‘正’이 명사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22) ㄱ. 第六正助는 惺惺으로 正 삼고 寂寂으로 도움 사모미니(第六正助者는 以惺惺으로 爲正하고 以寂寂으로 爲助이니) <선종영가집언해 상:98b>  
ㄴ. 病ᄃᆞᆫ니 막대를 因ᄃᆞ야 든뇨ᄃᆞ 든뇨ᄃᆞ로 正 삼고 막대로 도움 삼ᄃᆞᆫ ᄃᆞ니(猶如病者 | 因杖而行ᄃᆞᆫ 以行으로 爲正하고 以杖으로 爲助ᄃᆞᆫ ᄃᆞ니) <선종영가집언해 상:98b-99a>

(22ㄱ)은 불교 수행 방법과 관련된 ‘第六正助’로서, “惺惺으로 正을 삼고, 寂寂으로 도움을 삼으라”라는 의미이다. ‘惺惺’은 스스로 경계하여 깨달은 모양을 이르는 말이니, 궁극의 목표인 正道라 할 수 있다. 좀 더 불교적으로 말하면, 흐리멍덩하지도 않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無記의 相을 내지 않은 상태를 이르는 말이 ‘惺惺’이다. ‘寂寂’은 고요함으로서, 외부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정도에 이르는 방편인 ‘助道’가 ‘寂寂’이다. 그러므로 (22ㄱ)의 ‘正’은 ‘도움’의

짜이 되는 명사이다. (22ㄴ)은 “막대를 짚고 다니되 다니는 자체가 목적(正)이고, 막대는 도움을 주는 수단(助)에 지나지 않음”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正’도 목적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물론, 표면상 부사처럼 보이는 ‘正’도 존재하였다.

- (23) ㄱ. 幢幡 無數는 邪曲을 짓거 正 나토샤물 應호시고(幢幡無數應摧邪表正也)  
 <월인석보 15:64b>  
 ㄴ. 幢幡 無數는 邪曲 짓고 正 나토샤물 應호시고(幢幡無數는 應摧邪表正也 | 시고) <법화경언해 4:110a>  
 ㄷ. 幢은 邪를 짓고 正 세요를 表호니라(幢은 表摧邪立正也 | 라) <능엄경언해 1:97b>

언해문만 보면 위의 ‘正’은 부사 ‘바르게’처럼 해석된다[예: 사곡을 꺾어 바르게 나타냄을(23ㄱ)]. 그렇지만 한문 원문을 고려하면 이때의 ‘正’은 부사가 아니라는 점을 금방 알게 된다. 해당 언해문의 구조는 아래와 같다.

- (24) [幢幡 無數는 [邪曲을 짓거 正을 나토삼]을 應호시고]

생략되어 있는 ‘을’은 명사 ‘正’과 관련되는 것이고, 문면에 실현되어 있는 ‘을’은 ‘[邪曲을 짓거 正을 나토삼]’과 관련되는 것이다.<sup>9)</sup> ‘正>정’이라는 표기의 변화를 제외하면, 16세기의 ‘正’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부사 ‘정’(<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몇 세기 뒤인 19세기부터였다.

- (25) ㄱ. 너는 절 살 사름임으로 내 소기지 아니호노라 <청어노걸대 6:17b><sup>10)</sup>

9) (24)의 예들이 대격조사가 두 번 나타나 해석에 약간의 혼선을 빚게 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아래는 그러한 혼선이 없는 예이다.

ㄱ. 身受心法 四念에 正 일후미 갖마로미니(於身受心法四念에 失正이 爲倒 | 니) <법화경언해 2:111a>  
 ㄴ. 무로되 알찌 도타 기리시고 이에 正 아니라 責호샤문 엇데오(問前에 讚善哉호시고 此에 責非正은 何也오) <원각경언해 상 2-3:45a>

(ㄱ)의 ‘正’에는 주어 ‘일후미’가 후행함으로써 ‘바름(正)을 잃음’이 되고, (ㄴ)의 ‘正’에는 부정의 서술어 ‘아니라’가 결합함으로써 ‘正’이 명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원문에서도 ‘正’이 명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중국어 노걸대류와 청어노걸대의 언해 방식이 약간 다르다. 다른 노걸대류에서는 해당 부분이 아

- ㄴ. 다몬 죽은 증승문 먹을 썬이 아니라 절 비가 곱흔디 먹을거시 업스면 산 증승도 잡아 먹는 새들이니라 <1897.07.06. 독립신문 1면>
- ㄷ. 조선 빅성은 언제던지 원통흔 일을 당햏야 막음에 절 미흡흔 일이 잇시면 깃것 혼다는 것이 민란을 일웃킨다던지 <1897.08.12. 독립신문 2면>
- ㄹ. 대한 인민은 가부 간에 말 혼는 사름이 혼나도 업고 만일 절 부닥기면 쏘 다른 나라를 대햏야 살너 들나 혼며 <1897.11.09. 독립신문 1면>

위의 ‘정’은 “정말로, 진정으로”로 해석된다. (25ㄱ)은 비조건절에서, 그 외의 용례는 모두 조건절에서 쓰였다는 점만 차이가 있다. (25)의 예들은 ‘정’이 명사가 아닌 부사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사 ‘정’이 상대적으로 늦게 출현하게 된 것은 ‘정히’의 영향력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미 다양한 의미와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부사가 존재하였기에, 신형인 부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문어와 구어의 차이에 있다. 부사 ‘정’은 구어를 선호하는 부사였다. 근대 한국어까지의 여러 문헌들은 대부분이 언해문이었으므로, 순수 구어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므로 애초에 구어를 선호하는 ‘정’은 기존의 문헌에서 생산적으로 쓰일 여지가 없었다.<sup>11)</sup>

‘정’은 이미 고전소설이나 언간에서도 쓰이고 있었다.

- (26) ㄱ. 브디 소녀의게 절 위을 스양햏랴 혼면 진정으로 양시의 가물 윈터 아니 혼느이다 <구운몽 서울대학교 소장 필사본 4:4a>
- ㄴ. 절 은근이 썬러혼면 네 집 방 안히 헛딤목의나 띤고 썬지 <남원고사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1:21a>
- ㄷ. 절 가고져 혼면 노쇼를 볼모로 두고 가라 <도원결의록 하:9a>

래처럼 언해되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단값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판다는 말을 하는 부분인데, 중국어 노걸대류에는 원문에 ‘정’에 대한 표현이 없다. 이것은 청어노걸대에서 원문 부분에 일정한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 ㄱ. 이 비단 갑슬 뉘 모르료 므스므려 갑슬 썬오리오(這段子價錢 誰不知道 要甚麼討價錢) <번역 노걸대 하:29b>
- ㄴ. 이 비단 갑슬 뉘 모로료 므슴아라 갑슬 썬오리오 <노걸대언해 하:26b>

11) 표기의 변화도 이와 관련된다. ‘정’은 ‘正>정’을 경험한 이후부터, 언해문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벗게 되었다. 오늘날의 ‘정’은 기원적으로 한자어 ‘正’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미 그러한 인식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현상은 ‘정’이 출현할 당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ㄴ. 절 맞지 못하거던 너 人中을 보라 <별토가 가람본 28:a>
- (27) ㄱ. 일시의 피시고 잇는 이 업시 비개스오니 정이의 덩 어려오미 올라가기로  
 덩허야 십이일간 썬나 십팔 일간 드러가개습 <추사 언간 19>
- ㄴ. 부즈간 잇씩가지 못 보오니 인정의 덩 어렵스오나 오히려 둘째의 일리오며  
 <추사 언간 28>

(26)의 ‘정’은 “정말로, 진정으로”로 해석되고, 조건절에서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늘날의 ‘정’은 ‘-거든’보다는 ‘-면’을 선호하는데, 이것은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소설이 기록된 당시에 거의 비슷하게 확인된다. (26ㄴ)처럼 ‘정’이 ‘-거든’과 호응한 예는 생각보다 적고, 대부분의 예는 (26ㄱ~ㄷ)처럼 쓰였던 것이다.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소설은 상대적으로 구어에 가까운 텍스트이다. 구전이 비교적 자유롭게 일어나는 이들 텍스트의 특성상, ‘정’의 실제 사용 범위는 보다 넓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7)은 언간에서 나타난 ‘덩’의 예이다. ‘덩’이 비조건절인 환경에서 “정말로, 진정으로”의 의미로 쓰였다는 점이 인상적인데, 이것은 ‘정’과 ‘정히’가 완전히 무관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부사 ‘정’의 출현 시기는 18세기~19세기 교체기로 상정된다.

이상의 사항들은 ‘정’과 ‘정히’가 일부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부사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은 구어를, ‘정히’는 문어를 선호하는 부사였다. 그런데 ‘정’과 ‘정히’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서 변화·과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은 점차 조건절에서 주로 쓰이게 되었지만, ‘정히’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었다. ‘정’과 ‘정히’가 둘 중 어느 한쪽에서 기원한 것이라면, 이러한 통사적 제약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정’의 용법은 매우 한정되었지만, ‘정히’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정’은 “정말로, 진정으로”로 해석되는데, 이 의미는 오늘날에 이르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히’는 근대 한국어 시기까지 다양한 의미와 용법을 지니고 있었다. ‘정’이 ‘정히’에서 비롯되었다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라면 이러한 의미와 용법의 불균형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과 ‘정히’는 의미의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별개의 부사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정히’의 상당수 영역은 ‘바로’와 ‘곳’에 의하여 대체되었다. 그렇지만 ‘정히’의 의미나 기능이 모두 일순간에 소멸되었던 것은 아니다. 몇몇 환

경에서는 여전히 ‘정히’가 쓰일 수 있었고, 또한 특정 의미 영역에서는 ‘정’과 유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에서 상술한다.

#### <4> 20세기 이후의 ‘정’과 ‘정히’

‘정’의 사용 빈도는 20세기에 이르면서 꾸준히 증가하였다.

(28) ㄱ. 정 그러홀 터이면 고만두십시오 <화의혈 38쪽>

ㄴ. 마누라의 의향이 정 그러홀 디경이면 허라을 흡시다 그러 <화세계 14-15쪽>

ㄷ. 정 그러실 디경이면 곳 인마를 차려 들이려니와 무슨 곡절이 있나 보웨다 <마상루 79쪽>

(28)의 ‘정’은 양태부사(“정말로, 진정으로”)이다. 이 예문은 모두 대화문으로서, 구어를 선호한다는 ‘정’의 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중세 한국어부터 언해문에서 주로 쓰였던 ‘정히’와 크게 비교되는 부분이다.

‘정히’(<정히>)는 20세기 이후부터 거의 한글로 표기되었지만, ‘正히’라는 표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않았다. ‘正히’라는 표기는 192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꾸준히 쓰이다가 1940년대 이후 거의 사라졌다.

(29) ㄱ. 『(...전략...) 施政에 大刷新을 加할 事를 企圖한 지 正히 一年』이라 함에는 甚히 得意인 模樣이나 <總督 訓示를 讀함. 1920.09.05. 동아일보 1면>

ㄴ. 正히 此際에 現代 書畫家의 多數를 網羅하야 書畫 振興에 努力할 使命 下에 設立된 書畫 協會의 主催로 第一回 書畫 展覽會가 京城에 開하얏음을 聞見하고 <書畫 協會 展覽會 所感. 1921.04.07. 동아일보 1면>

ㄷ. 日本의 以上 諸 條件이 朝鮮의 그것과 正히 反對됨에 至하야는 農業으로는 有利히 競爭에 處할 수가 잇지마는 <朝鮮과 農業 (五). 1921.10.17. 동아일보 1면>

위의 ‘正히’는 신문의 표기법을 따른 것에 불과하지만, 해당 의미는 모두 이전 시기의 ‘正히’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의 ‘정히’는 문어문과 구어문에 모두 등장하였다. 이것은 문어문에서 주로 쓰이던 ‘正히’의 특성에 구어문에서 주로 쓰이던 ‘정’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역설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역사

가 길었던 ‘정히’가 새롭게 탄생한 ‘정’의 몇몇 속성을 닮아간 것이다.

20세기 초반부터는 ‘정히’가 조건절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였다.

- (30) ㄱ. 고장이 정히 심하면 할 일 업시 중로에서 불시착륙(不時着陸)을 하리라고 <空中의 勇者 安昌男君. 1922.11.08. 동아일보 3면>
- ㄱ'. 정히 위급할 경우에는 증기(蒸氣) ‘뽕푸’로 대동강의 진흙물이라도 끌어올려 백반(白礬)을 타서 먹을 받게는 짠 도리가 업는 참담한 경우를 당하얏는데 <濁流는 減退되었스나 府民은 飢渴에. 1923.08.03. 동아일보 3면>
- ㄴ. 둘 중에 아무것도 안이라면 필경 업흐로 쓰러졌다 정히 혹하게 되면 각구로도 슨다 아무래도 바루 슬 수가 업스면은 매윗든가 약은 푸는 것이 상수다 <貞操 (五). 1926.02.14. 동아일보 3면>
- ㄷ. 정히 그 말이 욱심나거든 먼저 퇴병을 하면 곳 말대로 시행하겠소 <新釋水滸傳 (578). 1929.12.22. 동아일보 3면>
- ㄷ. 정히 그계 안되거던 아래 옷간에 게시도록이나 힘 좀 써 줍소 그려 <海鳥曲 (78). 1932.02.09. 동아일보 3면>

조건절에 등장한 ‘정히’는 거의 예외없이 “정말로, 진정으로”로 해석되는데, 이것은 동일한 환경에서 쓰이는 ‘정’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정히’ (“정말로, 진정으로”)는 이 시기부터 별개의 부사였던 ‘정’에 합류되기 시작하였다. 현대 한국어 조건절에서 ‘정’과 ‘정히’가 마치 유의어처럼 기능하게 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30ㄱ')은 표면상 조건절이 아니지만, 사실상 조건절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구문이다(예: 정히 위급하면). 이 역시 오늘날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20세기 초·중반까지는 비조건절에서 쓰인 ‘정히’도 다수 발견된다. 가장 많이 확인되는 것은 초점부사로서의 용법이다.

- (31) ㄱ. 其 商品의 六〇%는 정히 日本 商品이다. <自由를 熱望하는 埃及의 近況 (一). 1920.04.12. 동아일보 2면>
- ㄴ. 우리의 이러날 쎄는 정히 이새이라고 열변을 발휘하다가 쏙흐로 노예와 가튼 굴욕을 맞고 오히려 살을 필요가 잇스랴 <今日은 第四百四十四回 米國獨立紀念祭. 1920.07.04. 동아일보 3면>
- ㄷ. 이런 기회를 타서 무리 독감이거나 혹은 위협으로 혹은 꼬임으로 피와 기름을 빨아 그 배를 채우고 불의의 쾌락을 취하니 보턴교 가튼 것은 정히 그

런 종류의 하나이다 <普天教 問題와 공포에 썩는 민중을 생각하고, 1924.09.29. 동아일보 2면>

- ㄷ. 오늘은 정히 나의 길일(吉日)이니 그대들은 다가티 즐겨워 하라! <夫娘 (五). 1930.03.01. 동아일보 4면>
- ㄹ. 썩으로 먹고 알로 먹는다는 것은 정히 이런 일을 가르친 말이었다 <歸農運動 (181). 1930.04.04. 동아일보 3면>
- ㅁ. 각 방면에 긍한 충분한 자료의 수집은 정히 초미의 급임으로 정치 경제 법률 노동 운동 농민 운동 종교 교육 문화의 각 부문에 긍하여 실증적 통계적 조사를 하며 아울러 내외의 리론을 도구하여 그 성과를 대중의 아페 제공하라는 것이라 하얏다 <社會事情=研究會組織. 1931.09.15. 동아일보 2면>

(31)은 비전형적 환언문으로서 “A는 다름 아닌 B이다”로 해석된다. 여기에 등장한 ‘정히’는 초점부사 ‘바로’, ‘곧’과 동일한 것으로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히’는 이러한 구문 속에서 꽤나 오랫동안 사용되었는데, 현대 한국어 사전의 “때는 정히 춘삼월이라”와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정히’의 다양한 용법들이 확인된다.

(32) 정상부사(“올바로”)

- ㄱ. 장군께서는 째짝 놀라서 별씩 이러나 안즈시닛가 문이 사르르 열리며 앓가 나왔든 어엿분 부인이 드러왔습니다 장군께서는 안색을 정히 하시고 안즈서서 “남녀유별한데 엇지하여 이런 밤중에 남자가 자는 방에 아모 말도 업시 드러 오시나뇨” 하시엿습니다 <傳說의 朝鮮 (四十一). 1927.10.18. 동아일보 3면>
- ㄴ. 아모리 병신이라도 제 자식처럼 어여쁜 것은 업다 이 말은 조선 영화계를 두고 정히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일반팬이 조선영화라하면 거의 맹목적으로 무조건 하고 환영하는 것이 조선 영화 팬들의 공통한 심리이다 만일 이러한 심리가 일반화 한다면 - 즉 조선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가티 일반화 한다면 물산 장려 가튼 것은 썩들지 안코도 제절로 될 것이다. <『세 동무』를 보고. 1928.05.08. 동아일보 3면>

(33) 정도부사(“정확히”)

- ㄱ. 령하 十四三七의 무서운 치위가 사람을 죽이던 이튿날(十五일) 서울에는 봄스비와 가튼 쫘쫘 미지근한 비가 쏘다져서 길스바닥은 정히 해빙하는 중 춘과 갓다 <嚴冬에 봄비. 1931.12.16. 동아일보 2면>
- ㄴ. 唐의 律詩 一, 二도 정히 이와 같으되다 <第二回 時調募集考選後 (上).



1939.11.16. 동아일보 3면>

- ㄷ. 팔뚝에 찬 백금 시계 바늘은 정히 자정을 가르치는데 닭이 웬 닭이 우나.  
<사랑의 다각형 (14). 1930.04.10. 동아일보 5면>
- ㄹ. 세관 창고 화재로 인한 물자 결핍의 차제 정히 五千톤을 산하는 물자를 소  
실하게 되었으면 국각적 견지로도 크나큰 손실이라 안할 수 없는 바인데  
<物資 需給에 支障 季節의 商品 輻輳로. 1940.02.25. 동아일보 7면>

(34) 정도부사(“매우”)

- ㄱ. 우리의게는 정히 무엇보다도 긴급한 일이다 <巡廻講演團 永永 解散.  
1920.07.19. 동아일보 3면>
- ㄴ. 바위 새에 누르게 피인 신이화는 정히 아름다워서 중용한 성분 도원의 봄빛  
이 김허감을 말하는데 <天父의 恩寵 下에. 1921.04.27. 동아일보 3면>
- ㄷ. 장결핵(腸結核)이 틀림없습니다 장결핵으로 회복되기는 정히 어렵습니다 금  
후 이삼 개월 이상 더 부지하기란 좀 문데로 생각합니다 <病狀은 腸結核  
完治는 極難 保釋된 金昌淑. 1929.05.26. 동아일보 2면>

대부분의 의미는 이전 시기와 대동소이하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한다.<sup>12)</sup>

1950년대를 기준으로 하여 ‘정히’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낮아졌다. 1940년대까지는 ‘정히’가 그러저럭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1950년대 이후부터는 일부 환경에서만 그 존재가 확인될 뿐이다. ‘정히’는 조건절에서는 ‘정’에 밀리고, 비조건절에서는 ‘바로’나 ‘곧’(<곧>)에 밀렸던 것이다. ‘정히’가 조건절에 등장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그것도 신어였던 ‘정’에 이끌린 결과였다. 일부 사전에서는 ‘정’과 ‘정히’를 문체의 차이로 정리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면 매우 당연한 지적이다. 구어를 상정하고 생성된 ‘정’과, 문어를 위주로 사용된 ‘정히’는 그 출발점부터 달랐기 때문이다. 애초에 대화문의 조건절을 위주로 만들어진 ‘정’이 문어문에서 생산적으로 쓰일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비조건절에 등장하는 ‘정히’는 ‘정’으로 대체될 수 없다. 이것은 문어문에 기반한, 중세 한국어 ‘正히’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대 한국어의 ‘정’과 ‘정

12) (32ㄴ)의 ‘정히’에 어순재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초점부사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말은 정히 조선 영화계를 두고 한 말이라 할 수 있다’로 쓰이면 이때의 ‘정히’는 후행하는 명사구인 ‘조선 영화계’를 한정하는 초점부사(“다름 아닌”)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어의 부사는 선행 요소를 한정하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어순재배치를 상정하지 않는 이상 (32ㄴ)의 ‘정히’는 초점부사로 처리하기 어렵다. (32ㄴ)의 ‘정히’는 후행하는 서술어 ‘하-’를 수식하는 성상부사(“올바로”)로 처리해 둔다.

히'는 완전한 동의어가 될 수 없다.

<5> 요약

중세 한국어 '正히'는 성상부사와 정도부사의 측면에서는 '바로'와, 초점부사의 측면에서는 '곧'과 유의 관계에 있는 부사였다. '正히'는 중세 한국어부터 근대 한국어 시기까지 언해문에서 폭넓게 사용되었으나, 20세기를 전후하면서 잘 쓰이지 않는 부사가 되어 버렸다. '정히'(<정히<正히)는 언해문에 특화된 문어였는데, 언해문의 비중이 줄면서 '정히'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던 것이다. '정히'와 꾸준한 유의 관계를 이어온 '바로'(<바르)나 '곧'(<곳)의 영향도 '정히'의 약화에 일조하였다. '바로'와 '곧'은 문어와 구어를 불문하고 폭넓게 쓰일 수 있었던 부사였기 때문이다. 부사 '정'의 출현과 확대도 '정히'의 약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정'은 양태 의미와 관련되는 부사로서, 주로 구어문과 조건절에서 사용된 부사였다. 20세기 중반부터 '정히'는 조건절에서 '정'의 유의어처럼 기능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정히'의 정체성이 거의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조건절에서는 '정'에 합류되고, 비조건절에서는 '바로'나 '곧'에 밀려버린 결과가 오늘날의 '정히'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0> '정히'의 역사적 변화

원문의 한자	분류	의미		중세 한국어	근대 한국어	현대 한국어	문법적 분류
正	정	양태	정말로, 진정으로.	×	○	○	화자의 태도를 반영
	정히1	양태	정말로, 진정으로.	×	×	○	화자의 태도를 반영
	정히2	성상	정확히.	○	○	○ (일부 환경)	동사-부사
	정히3	정도	정확히, 매우.	○	○	약화됨.	동사구-부사 명사구-부사
	정히4	초점	다름 아닌.	○	○	약화됨.	명사구-부사

### 3. 상징성 부사류

상징성 부사란 의성어·의태어에서 비롯되었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사를 일컫는 부류로서, ‘꼭’, ‘꼭히’, ‘딱’, ‘딱히’ 등이 포함된다. 이 부류는 모두 근대 한국어 이후의 문헌에서 확인되며, 경우에 따라 양태 의미가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는 공통점이 있다. ‘꼭-딱’, ‘꼭히-딱히’ 혹은, ‘꼭-꼭히’, ‘딱-딱히’와 같은 어형의 유사성도 지적할 수 있다.

상징부사는 모음이나 자음에 의한 대립쌍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졸졸-줄줄’, ‘깡충깡충-경중경중’ 등), ‘꼭’, ‘딱’도 그러한 대립을 보인다(‘꼭-꼭’, ‘딱-딱-탁’ 등)는 점에서 이 부류는 상징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렇지만 ‘꼭’, ‘딱’이 비상징부사로 기능할 때에는 그러한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후술됨), ‘꼭히’, ‘딱히’는 비상징부사로만 쓰인다는 점,<sup>1)</sup> 일반적인 상징부사는 비상징부사의 용법으로는 잘 쓰이는 않는다는 점 등은 이 부류와 상징부사가 적지 않은 차이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상징성 부사류 역시 다양한 유의 경쟁을 경험하였다. ‘꼭’은 근대 한국어 시기에 의태어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작용역이 확대되어 양태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 등의 용법을 지니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꼭’의 모든 용법은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꼭히’는 ‘꼭’의 일부 의미를 담당하였던 유의어였다. ‘꼭히’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딱히’와도 일정한 유의 관계를 형성하였는바, 이러한 유의 관계가 ‘꼭히’의 소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딱’은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상징부사로서 의성어와 의태어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딱’에는 정도부사, 시간부사, 초점부사 등의 용법이 있었고, 이 용법들은 오늘날까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딱히’는 근대 한국어부터 등장한 부사로서 부정문에서만 쓰인다는 제약이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제약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

1) ‘꼭’, ‘딱’이 어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꼭히’, ‘딱히’를 상징부사로 처리할 근거가 없다. 물론, ‘꼭히’와 ‘딱히’가 특정 문맥이나 환경에서 ‘꼭’이나 ‘딱’의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때의 ‘꼭’, ‘딱’은 비상징부사인 경우이다(후술됨). 단어 형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난다. 상징부사는 초·중·종성의 일부나 음절의 일부를 반복하여 형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히’나 ‘딱히’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상징부사로 처리하기 곤란하다.

### 3.1. ‘꼭’류

현대 한국어 부사 ‘꼭’과 ‘딱’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단음절로 된 부사라는 점, 몇몇 의미가 상통할 수 있다는 점, 출발이 상징부사라는 점, 표면적으로 ‘X이~히’형 부사를 짝으로 가졌다는 점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면밀히 살펴보면 ‘꼭-꼭히’의 관계와 ‘딱-딱히’의 관계는 꽤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전자는 ‘꼭’이 먼저 등장한 뒤 ‘꼭히’가 거기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딱히’가 먼저 등장하고 ‘딱’은 후발 주자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꼭’과 ‘꼭히’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현대 한국어 ‘꼭’과 ‘꼭히’의 용법도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이다. 편의상 이들은 “‘꼭’류”로 불러 둔다.

#### 3.1.1. 현대 한국어의 ‘꼭’

‘꼭’은 상징부사와 비상징부사로 분류되지만, 상징부사 ‘꼭’에는 의태어 용법만 존재한다.

##### <1> 상징부사

의태어로 쓰이는 ‘꼭’부터 살펴기로 한다.

- (1) 꼭 다문 입술/항아리에 김치를 꼭 눌러 담다./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았다./무서워서 눈을 꼭 감았다./내 손을 꼭 잡아라./눈물을 꼭 참다./방에 꼭 들어박혀 있다.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사전에도 여러 예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상 ‘꼭’이 수식할 수 있는 서술어의 종류는 상당히 많다. ‘꼭’은 ‘딱’과 더불어 현대 한국어에서 생산적으로 쓰이는 의태

어이다.

의태어 ‘꼭’은 ‘꼭’이나 ‘꼭’과 일정한 계열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 (2) ㄱ. 내 손을 {꼭, ??\*꼭, 꼭} 잡아라.
- ㄴ. 어머니는 아들을 {꼭, ??\*꼭, 꼭} 껴안았다.
- ㄷ. 눈물을 {꼭, 꼭, ??\*꼭} 참다.
- ㄹ. 방에 {꼭, 꼭, ??\*꼭} 들어박혀 있다.
- (3) ㄱ. 밥을 {꼭꼭, 꼭꼭, 꼭꼭} 눌러 담았다.
- ㄴ. 방문을 {꼭꼭, 꼭꼭, 꼭꼭} 걸어 잠갔다.
- ㄷ. {꼭꼭, 꼭꼭, \*꼭꼭} 참아라.
- ㄹ. 숨통이 {?꼭꼭, 꼭꼭, 꼭꼭} 막힌다.

대체로 서술어에서 “힘주다”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면 ‘꼭’이 수식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꼭’이 꾸밀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하기 어렵다[(2)]. 의태어 ‘꼭, 꼭, 꼭’은 첩어로도 실현될 수 있다[(3)]. 역시 서술어에서 “힘주다”라는 의미가 드러나면 ‘꼭꼭, 꼭꼭, 꼭꼭’이 자유로이 쓰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다른 양상을 띤다. 이것은 첩어 ‘꼭꼭, 꼭꼭, 꼭꼭’이 서술어의 특정한 의미 자질과 호응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sup>2)</sup> 상징부사(의태어)로 기능하는 ‘꼭’은 동사-부사로서, 이를 ‘꼭1’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 <2> 정도부사

비상징부사 ‘꼭’에는 정도부사, 초점부사, 양태부사 등이 포함된다. 비상징부사 영역에서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정도부사 ‘꼭’이다. 정도부사 ‘꼭’은 “정확히”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부사이다.

- (4) ㄱ. 옷이 몸에 꼭 맞는다.

---

2) ‘꼭꼭’은 공간적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아래의 예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여기에 쓰인 ‘꼭꼭’은 ‘꼭꼭’이나 ‘꼭꼭’으로 대체되기 어렵다.

- ㄱ. 이 상자는 꼭꼭 차 있어 물건을 더 넣을 수 없다.
- ㄴ. 숨을 쉬려면 숨통이 꼭꼭 막히는 것 같고, 가슴이 짓눌리는 듯이 갑갑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심훈, 영원의 미소》

- ㄴ. 그 선물, 정말 내 마음에 꼭 들어.
- ㄷ. 많은 양의 뜨거운 물을 담기에 꼭 알맞은 주전자였다.
- ㄹ. 철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꼭 같다.
- ㄹ'. 철수의 생각이 꼭 내 생각과 같다.

‘맞-’, ‘들-’, ‘알맞-’, ‘같-’은 모두 특정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포함된 서술어인데, 이러한 평가는 일정한 정도성을 나타낸다. 서술어가 화자의 주관적 평가라고 한다면 ‘꼭’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그러한 평가를 위한 기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꼭’은 동사-부사이지만 동사구-부사이기도 하다. 예컨대, (4ㄷ)은 “A가 B와 꼭 같-” 구문이지만, 이것은 (4ㄷ')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4ㄷ')은 ‘꼭’의 작용역이 ‘내 생각과 같-’ 전체도 가능하고, ‘내 생각’만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무엇이든 간에 ‘꼭’이 정도부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전자는 동사구-부사이고 후자는 명사구-부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꼭’이 동사(구)-부사로 기능하는 경우는 ‘꼭2-1’이라 하고, 명사구-부사로 쓰이는 경우는 ‘꼭2-2’이라 하여 구분한다.

‘꼭2-2’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5) ㄱ. 콜롬버스가 미(美) 대륙을 발견한 것이 올해로 꼭 5백 년이 된다.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 ㄴ. 그러나 결국 원 통에서 꼭 세 통이 모자란 상태에서 전역의 날이 왔다.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 작문(국어국문학과), 전자파일,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ㄷ. 물건의 꼭 절반이 되는가 정확히 헤아리지도 않았다.
- ㄹ. 세 사나이는 온양에서 꼭 일주일을 보냈다.

‘꼭’이 수량 표현 명사구를 수식할 때는 “정확히”로 해석된다. 수량 표현 역시 정도성이 전제되었다는 점에서 (4)와 (5)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꼭’의 작용역이 용언이냐[(4)], 체언이냐[(5)]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꼭’은 화자의 평가가 해당 기준에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부사이다. 따라서 ‘꼭’은 선택된 부분을 선택되지 않은 영역에 비하여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도부사 ‘꼭’은 ‘딱’으로 대치하여 쓸 수도 있다.

### <3> 초점부사

‘꼭’과 ‘딱’의 유사성은 여러 군데에서 지적되는데, 명사구-부사가 정도부사와 초점부사로 해석된다는 점도 그러하다. 명사구-부사가 정도부사가 된다는 점(‘꼭 2-2’)은 바로 앞에서 지적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명사구-부사가 초점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언급하겠다.<sup>3)</sup>

- (6) ㄱ. 다른 총각들도 많은데, 왜 꼭 저 사람만 만나니?  
ㄴ. 그는 꼭 선생님 앞에 서면 말을 더듬는다.

(6ㄱ)의 초점은 명사구 ‘저 사람’으로서, ‘꼭’은 명사구에 대한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킨다. (6ㄱ)의 선행절에서 이미 ‘다른 총각들’이라는 대안 집합의 원소가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환경의 ‘꼭’은 “하필”,<sup>4)</sup> “다름 아닌” 등으로 해석되는 초점부사로 인식될 만하다. (6ㄴ)의 ‘그’는 유독 ‘선생님 앞’에서만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므로, 다양한 발화 환경들을 제치고 ‘선생님 앞’이라는 환경이 초점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여러 발화 환경 중에서도 ‘선생님 앞’이 으뜸이 되므로, 이때의 ‘꼭’은 “특히”로 해석된다.<sup>5)</sup>

그런데 (6)의 ‘꼭’은 양태부사 ‘반드시’와 흡사한바, 아래에서 이러한 ‘꼭’이 양태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할 것이다.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꼭’이 어떤 때는 초점부사로, 어떤 때는 양태부사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은 ‘꼭’의 작용역과 관련된다. ‘꼭’이 명사구와 관련되면 초점부사가 되고, 문장의 명제 전체와 관련되면 양태부사가 된다는 것이다. 즉, 초점부사와 양태부사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다. ‘꼭’이 초점부사와 양태부사로 기능하는 데에는 사실 휴지(pause)라는 음운적 장치도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 점도 아래에서 다룬다. 초점부사 ‘꼭’은 ‘꼭3’이라 칭한다.

3) (6)은 초점부사와 양태부사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양태부사 용법은 아래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초점부사 용법만 살펴본다.

4) ‘하필’은 평가성 양태부사인 동시에 초점부사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4장을 참고한다.

5) “특히”는 ‘딱히’의 하위 의미 중 하나이다. ‘딱히’에 대해서는 3.2.3을 참고한다.

#### <4> 양태부사

다음은 ‘꼭’이 양태부사(“반드시”, “정말로”)로 쓰인 예이다.

- (7) ㄱ. 내가 꼭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 ㄴ. 그리고 꼭 비밀을 지켜 주세요.
- ㄷ. 약속을 꼭 지킵시다.
- ㄹ. 난 꼭 대답을 들어야겠소.
- ㅁ. 죽기 전에 고향에 꼭 가고 싶다.

이때의 ‘꼭’은 문장 내의 용언이나 체언을 직접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와 관련한 화자의 태도를 반영하는 부사이다. (7ㄱ~ㄷ)은 각각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이 고, (7ㄹ, ㅁ)은 희망과 관련되는 표현으로서, 이러한 문장에서 진리치를 따지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진리치를 따지기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화자의 양태적 의미가 도드라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태부사는 문장 내 특정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므로, 문장 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특색도 있다. 예컨대, ‘약속을 꼭 지킵시다 : 꼭 약속을 지킵시다’[(7ㄷ)], ‘난 꼭 대답을 들어야겠소 : 꼭 난 대답을 들어야겠소’[(7ㄹ)]처럼 ‘꼭’의 위치가 달라진다고 해도,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sup>6)</sup>

앞서 초점부사와 양태부사로 이해된다고 했던 예를 활용하여, ‘꼭’이 양태부사로 해석되는 대목을 논의하기로 한다.

- (8) ㄱ. 다른 총각들도 많은데, 왜 꼭 저 사람만 만나니?
- ㄴ. 그는 꼭 선생님 앞에 서면 말을 더듬는다.

양태부사 ‘꼭’은 문장 내 특정 성분이 아닌 문장의 명제 전체를 수식한다. 따라서,

---

6) 이때의 ‘꼭’은 ‘딱’으로 대치되지 않는다. ‘꼭’과 ‘딱’이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문장의 ‘꼭’은 “반드시”나 “정말로”로 해석되기는 하지만, ‘딱’을 넣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 ㄱ. 그는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 ㄴ. 다 모였는데 꼭 있어야 할 두 사람이 빠졌어.

위의 ‘꼭’에는 양태적인 면도 있지만 정도성도 있으며, 이런 정도성이 느껴지는 표현에는 정도부사 ‘딱’이 쓰일 수 있다. 즉, ‘딱’에는 양태부사 용법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8ㄱ)의 ‘꼭’은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만 만나-’는 명제 전체를 작용역으로 삼으며, (8ㄴ)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꼭’이 양태부사로 이해될 때는 ‘꼭’ 뒤에 휴지가 온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부사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해도 휴지가 뒤따른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이런 휴지가 동반되는 것은 대부분의 양태부사에 공통되는 현상이다. 반면에, 초점부사 ‘꼭’은 휴지의 도움 없이, 뒤따르는 명사구만을 작용역으로 한정한다. 양태부사 ‘꼭’을 ‘꼭4’로 불러 둔다.

<5> 요약

‘꼭’은 상정부사와 비상정부사로서 쓰인다. 상정부사는 의태어를 뜻하고, 비상정부사는 정도부사, 초점부사, 양태부사를 뜻한다. 상정부사 ‘꼭’을 가장 우위에 둔 것은 통시적 정보를 고려한 결과이다. ‘꼭’이 정도성 용언이나 체언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도부사 ‘꼭’을 ‘꼭2-1’, ‘꼭2-2’로 분류하였다. 꼭’은 체언을 수식하여 “하필”, “다름 아닌”, “딱히”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고, 양태부사로서 “반드시, 정말로”의 의미를 나타낼 때도 있다. 이를 각각 ‘꼭3’과 ‘꼭4’로 분류하였다.

<표-11> 현대 한국어 ‘꼭’

분류		의미		문법적 성격
상정부사	꼭1	의태어	야무지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죄는 모양.	동사-부사
비상정부사	꼭2-1	정도	정확히.	동사-부사
				동사구-부사
	꼭2-2	정도	정확히.	명사구-부사
	꼭3	초점	하필, 다름 아닌, 특히.	명사구-부사
꼭4	양태	반드시, 정말로.	화자의 태도를 반영	

### 3.1.2. 현대 한국어 이전의 ‘꼭’

역사적으로 ‘씩’(>딱)은 18세기와 19세기 교체기 무렵에, ‘씩이’(>씩히>딱히)는 17~18세기에 등장하는 반면, ‘꼭’(>꼭)과 ‘씩이’(>씩히)는 모두 19세기에 동시다발적으로 문증된다. 이를 통해 ‘씩-씩이’의 관계와 ‘씩-씩이’의 관계가 사뭇 다르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씩히’는 사실상 소멸된 부사이다. 적어도 ‘씩히’의 출현 당시에는 ‘씩히’도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씩히’의 출현과 소멸은 역사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1> 20세기 이전의 ‘씩’

부사 ‘씩’은 고전소설이나 판소리 사설에서 ‘씩’이라는 어형으로 등장한다. 당시의 ‘씩’은 상징부사와 비상징부사로서의 용법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점,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였다는 점에서 ‘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씩’ 역시 18세기와 19세기 교체기에 등장한 단어라 할 수 있다.

#### <1-1> 상징부사

‘씩’은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에서 주로 의태어로 쓰였다. 모음조화에 의한 분화형인 ‘씩’도 같은 시기에 등장하였다.

- (9) ㄱ. 특기 놈의 등슬미를 씩 집어 올리니다 <별주부전 국립도서관 소장본 6a>
- ㄴ. 특기 췌족헌 췌동이을 씩 물고 오리이라 <토별산슈록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본 6a>
- ㄷ. 입술을 씩 담을고 스스로 자기의 혀를 깨물어 버렸다 <신숙주부인전 6쪽>
- ㄹ. 마조 안저 밥 먹고 씩 췌안꼬 잠을 자셔 잠시도 離別 말고 <적벽가 9b>
- ㅁ. 나는 췌저 불을 분니 입짐은 읍고 독훈 너는 눈을 씩 지러면 눈물니 찰찰 흘을 제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112b>
- ㅂ. 화문이 씩씩 맛게 부으난디 <춘향가 백성환 창본 30a>
- ㅅ. 장부의 힝스들은 슈야직원 업드튼니 속이 그리 췌분넉가 췌드랑 손을 너어

- 꼭꼭 썰너도 말을 안니흐니 <춘향가 백성환 창본 18b>
- (10) ㄱ. 쏘 굴의 안전 역구리를 쏘 지리면 <춘향전 흥윤표 소장 154장본 134b>
- 나. 쏘 조흔 쇠꼬지로 쏘 질너 즈버다가 부즈집에 팔게 되면 <별주부전 국립도서관 소장본 7b>
- 다. 누가 허리를 쑥쑥 찌르고 쏘 쑥쑥 찌르는 섬에 <소상강 5쪽>
- 르. 훗날 천 집고 집고 싸 지 휘휘친 가무 현 쑥쑥 놀너 누루 황 <춘향가 백성환 창본 8b>

당시에 가장 흔하게 쓰이던 표현은 “~을 {쑥, 쑥} 찌르-”였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서술어들이 의태어 ‘쑥, 쑥’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다. ‘썰안-’, ‘누르-’, ‘담을-’ ‘맛-’, ‘물-’, ‘집-’ 등이 대표적인데,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서술어들이 의태어 ‘쑥, 쑥’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쑥, 쑥’은 첩어로도 쓰였는데, 이 사실은 ‘쑥, 쑥’이 의태어였음을 재확인시켜 준다. 예컨대, (9b)의 ‘맛-’(>맛-)을 수식하는 ‘쑥쑥’은 의태어이지 정도부사가 아니다. 의태어 특성상 다양한 서술어와 호응할 수 있는데, (9b)은 정도성을 지니는 서술어가 우연히 의태어의 수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sup>7)</sup>

“힘주다”라는 의미가 간취되는 ‘꽹’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 (11) ㄱ. 눈을 쑹 감고 <신숙주부인전 18쪽>
- 나. 칼머리가 쑹 질은니 <춘향전 흥윤표 소장 154장본 121a>
- 다. 붓치로 운봉의 엽홀 쑹 질니면 <춘향전 흥윤표 소장 154장본 131a-131b>
- 르. 靑龍刀 드난 칼노 연흔 목을 쑹 썩은면 <적벽가 42a>
- ㄷ. 조고마흔 오장치에 모도 너어 쑹 동여셔 <박홍보가 신재효본 흥-19>
- 비. 덕정의 불집게로 불알을 쑹 집어도 눈도 아니 깜작인다 <박홍보가 신재효본 흥-2>
- 사. 흥부놈아 흐고 두머피를 불싰 뒤어 뒤곡뒤를 쑹 집흐며 몽둥이를 직근 썩거 <흥부전 경관 25장본 국립중앙도서관본 04a>
- (12) 그덕 덕갈니를 그져 덤벽 굽고 골닥지를 아쥬 쑹쑹 파먹을 썩 <별주부전 국립도서관 소장본 22b>
- (13) ㄱ. 쑹쑹 저 집비들키 우름 운다 <심청전 국립중앙도서관 완판 하:25b>

7) 물론, 이후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정도성 서술어와 ‘쑥’이 호응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쑹’에서도 확인된다.

- 나. 고기약 고기약 콕콕 허난 거션 관가에서 즈늬을 두리 장삼 오장으로 두다  
려도 즈늬 복중에 잇난 말얼 손톱만치 변치말고 꿰케이 허라년 쇼일세 <춘  
향전 충주박물관 소장본 48a>

(11)의 ‘콕’은 힘주어 특정한 행위를 하는 서술어들을 수식하였는데, 이러한 서술어들은 대체로 ‘콕’이나 ‘콕’의 수식을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콕’이 ‘콕’이나 ‘콕’의 일부 의미에 특화된 의태어임을 알려준다. ‘콕’은 첩어로 쓰일 수 있었지만[(12)],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콕’, ‘콕’과 달랐다. (13)의 ‘콕콕’은 동물의 울음소리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콕콕’에 해당한다.<sup>8)</sup>

의태어 ‘콕’은 신문보다 신소설에서 훨씬 자주 등장하였다.

- (14) 가. 방에 문을 콕 다치고 <1896.11.30.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6쪽>  
나. 그 통을 덕기를 콕 닳고 <1896.12.15. 대조선독립협회회보 7쪽>  
다. 허허 그럿치만은 신문에 콕콕 집어넣는 것이 올키는 다 올라 <1898.06.15. 매일신문 3면>
- (15) 가. 급히 그 남자의 손목을 콕 붓들더니 <비행선 88쪽>  
나. 한 손으로 길동이를 쓰러다가 콕 썬안으면서 <만인계>  
다. 혼침 가다가 로파가 거름을 쥘쥘하고 정숙이를 콕 질으며 <목단화>  
라. 제 눈에 조흔 것만 보면 영창이의게 보너준다고 콕콕 쓰두엇다가 인편잇슬 썬마다 보너기도 하고 <주월식 16쪽>
- (16) 가. 그 마누라의 엽흘 콕 지르며 <귀의성 하:36쪽>  
나. 곰방뒤에 엽초 혼 뒤를 콕콕 놀너 담아 <치악산 하:40쪽>  
다. 손에 들고 잇는 지게 작딕이를 콕 썬서 들고 <은세계 20쪽>  
라. 기극은 자괴 엽헤 누엇건늘 기극을 콕콕 썬으며 <비행선 201쪽>  
마. 엽낭에서 도장 쓰너더니 년월 밋헤다 콕 썬어쥬며 <빈상설 19쪽>  
바. 얼굴 빛이 자연 푸르락붉으락 허여 입은 콕 담을고 말은 안이허나 <치악산 하:34쪽>

의태어 ‘콕’은 신문에서 매우 드물게 등장하였다. 이것은 의태어에 의해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이, 신문에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거나 잘 쓰이지 않는 표현이었기

8)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콕콕’만 의성어로 실려 있고, ‘콕콕’은 의태어로만 실려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 둔다.

때문일 것이다. 같은 시기의 신소설에는 의태어 ‘썩’이 제법 등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문체의 차이로 해석되는데, 의태어는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자주 쓰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전 시기의 자료와 마찬가지로, 신소설에도 ‘썩썩’, ‘썩썩’과 같은 첩어가 등장하였다.

그런데 같은 신소설 내에서도 ‘썩’과 ‘썩’은 미묘한 분화를 보였다. 신소설 내에서 ‘썩’과 ‘썩’의 비율은 결코 비슷하지 않았다. 신소설에서 의태어 ‘썩’이 쓰이기는 하였으나, ‘썩’의 전체 비중에서 보면 의태어 ‘썩’의 비율은 현저히 낮았다. 반면, 신소설에 쓰인 ‘썩’의 예는 거의 대부분이 의태어였다. 이것은 ‘썩’이 의태어로서의 역할보다는 다른 부사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썩’이 담당하던 의태어 기능은 ‘썩’이 오롯이 담당하게 되고, 대신 ‘썩’은 비상징부사로 변화하였던 것이다. 즉, 19세기에는 ‘썩’이 전형적인 의태어로 대접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썩’의 의태성 탈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썩’의 경우에 비견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가 있다.

- (17) ㄱ. 나중에는 모다 우습판이 되고 썩 강릉으로 가기로 헛더라 <죽서루: 데칠 서싱이 궤계을 써서 돈을 취흙. 19쪽>
- ㄴ. 버러먹을 사름보다 만히 싱길터이라 험잡질을 아쥬 막어 전국 인민이 썩 알기를 이 세상에서 의복 음식을 엇어 먹고 살냐면 썩 흘니고 일을 헛던지 학문을 비화 가지고 무슴 스업을 헛던지 헛여야 <1898.04.09. 독립신문 1면>
- ㄷ. 썩 그러이 나도 그러이타고 공부홀스 므음도 안 나고 춤 심심헛야 못 견디여 이러홀스 것 갓트면 츠라리 부산으로 도라가는 편이 도아 <죽서루: 데일 루상헛긱의 한화. 5쪽>
- ㄹ. 자 썩 이러케 결정한 이상은 그믄 오날브터 이 디방을 버리고 썩나야 홀스 것이다 엇던가 갈스 곳도 썩 사십리 읍페 그 무엇이랴던가 헛는 썩막이 잇스니 <죽서루: 데칠 서싱이 궤계을 써서 돈을 취흙. 6쪽>

표기만 본다면 위의 ‘썩’은 의태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의태어 ‘썩’은 동사-부사이고 지시사를 수식하는 일이 없었는데, ‘썩’이 동사구-부사처럼 쓰인 다거나[(17ㄱ)] 지시형용사를 수식[(17ㄷ, ㄹ)]하기 때문이다. 즉, (17)의 ‘썩’은 비상징부사로서 (17ㄱ)의 ‘썩’은 양태부사(“반드시”)이고, (17ㄴ~ㄹ)의 ‘썩’은 정도부사(“정확히”)이다.<sup>9)</sup> 요컨대, 의태어의 표지로 쓰이던 ‘썩’이, 양태부사와 정도부사

의 용법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쑥’의 작용역이 변화·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양태부사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의 ‘쑥’이 의태어로만 기능하였던 것은 아니었다.

- (18) ㄱ. 인함이 재배하고 오라뵈 잇는 방으로 나와 일로대 나는 진정이 쑥 심천동을 차저 가서 형의 원혼이나 위로코저 하니 길이나 가라쳐 주옵소서 <김인향전 41쪽>
- ㄴ. 또한 무자하란 이내 팔자에 다시 취쳐한들 쑥 생자하리라고 할 슈도 업고 <녀장군전 2쪽>
- ㄷ. 이 큰 길의 伏兵ᄇᆞᆫ야 쑥 잡자 ᄇᆞᆫ 일리나 너가 누기라고 제 잔씨의 넘것는야 <적벽가 34b>

위의 ‘쑥, 쑥’은 양태부사 “반드시, 틀림없이”로 해석된다. 이때의 ‘쑥, 쑥’은 ‘쑥’으로 대치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사를 직접 수식하는 부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태어로 보기 어렵다. (18ㄷ)의 ‘쑥’은 상징부사가 아니라 양태부사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부분은 조조가 복병으로 자신을 ‘반드시’ 잡으려 하는 제갈량을 비유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에서 ‘쑥’이 양태부사로 쓰인 용례는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쑥’은 의태어였다.

양태부사 ‘쑥’의 예는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sup>10)</sup>

- (19) ㄱ. 이거슨 쑥 진보ᄇᆞᆫ라ᄇᆞᆫ 뜻시 업는 연고라 <1896.07.25. 독립신문 1면>
- ㄴ. 령락 업시 법률노 다슬녀 중벌을 법률터로 쑥 입을 줄 알면 <1898.03.19. 독립신문 1면>
- ㄷ. 만일 전국 인민이 나라가 문명 진보ᄇᆞᆫ야 세계에 부강지국 쑥 되기를 원할 것 ᄇᆞᆫ면 <1897.08.24. 독립신문 2면>

9) (17ㄷ)에는 ‘쑥’, ‘쑥’이 쓰였지만, 이 둘은 모두 정도부사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0) 아래의 예는 상징부사 ‘쑥’과 양태부사 ‘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헌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이미 ‘쑥’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양태부사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ㄱ. 쑥 눌러라[固壓 強壓] <국한회어 43>  
ㄴ. 쑥[必] <국한회어 33>

- ㄱ. 일 의론할 때에 거조가 제제 창창하야 혼잡한 일이 업고 썩 중의를 좇차 대쇼 스무를 결정하니 <1896.12.03. 독립신문 1면>
- ㄴ. 사람이 다 알듯기 물고기는 썩 물 안에서만 살지 물 밖에 나오면 혹 속히 죽고 더디 죽을망녕 죽기는 다 일반적으로 죽나니라 <1897.07.15. 독립신문 1면>
- ㄷ. 어질고 능한 주는 포양하야 썩 상은 주고 반다시 벌은 주어 능치 못한 주로 하여금 무릅스고 벼슬하며 죄 잇는 주로 하여금 요형이 면치 말게 훈즉 <1897.12.07. 독립신문 1면>

위 예문의 ‘썩’은 “반드시”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썩’은 “정말로, 진정으로”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 (20) ㄱ. 다른 대한이 외국들과 교제하느니 이런 편벽된 말을 약조 속에다 넣는 것은 썩 지혜 잇는 일인지 몰을너라 <1897.11.18. 독립신문 1면>
- ㄴ. 그 식둠에 망한 학문을 중시 숭상하는 것은 썩 지혜가 잇는 일인지 알 수가 업고 <1898.03.08. 독립신문 1면>
- ㄷ. 나보다 주먹심 넉넉한 자 압헤서는 그 옷시 내 것인 줄을 썩 믿을 수가 업고 <1898.06.11. 매일신문 1면>

개화기를 전후하여 ‘썩’의 작용역은 보다 확대되었고, 그 결과 ‘썩’은 추측 표현과 호응하여 “정말로, 진정으로”의 의미로 쓰일 수 있었다.

매우 드물지만 ‘썩’이 초점부사로 쓰인 경우도 있었다.

- (21) 넷사람의 말과 갖치 상 아티 호랑이를 길넛다 하는 말이 썩 내게 두고 한 말이 라. <소학사전 77쪽>

위의 예문은 “~라는 말이 바로 나를 두고 했던 말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때의 ‘바로’는 수식하는 체언 자리에 다양한 원소들을 환기시키기 때문에 초점부사(“다름아닌”)가 된다. 그렇지만 양태부사와 ‘썩’과 초점부사 ‘썩’의 비중은 의태어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18~19세기 교체기의 ‘썩’은 대부분이 의태어였다.

<1-3> 정도부사

의태어 ‘쑥’, ‘쑥’, ‘쑥’은 동사-부사였는데, 이것은 ‘쑥’이 애초에는 동사-부사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부사가 서술어를 직접 수식하여 해당 서술어의 특정한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sup>11)</sup>

개화기에는 ‘쑥’이 비동작성 서술어를 수식하는 정도부사의 예가 다수 발견된다.

- (22) ㄱ. 그 두두러진 우희로 쏠이 쑥 못게 들썩엇는디 <1897.07.01. 독립신문 1면>
- ㄴ. 유리 병 하나을 어더 쑥 맞는 병 마기로 막고 <1896.11.30. 대조선독립협회회보 17쪽>
- ㄷ. 그 아티 달닌 불상흔 인싱들은 이거시 스리에 쑥 합당흔 도리로 녀이니 엇지 익달지 안으리오 <1898.04.02. 매일신문 1면>
- ㄹ. 리치가 쑥 그러흐고 쑥 붉은 증거가 잇스니 <1898.02.12. 협성회회보 1면>
- ㅁ. 그러나 이것이 그 반다시 쑥 그리 흐리라고 이르는 것은 아니로디 <1899.11.07. 독립신문 2면>

(22 ㄱ, ㄴ)의 ‘쑥 {못-, 맞-}’은 고전소설 및 판소리 텍스트에서는 상징부사의 예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쑥쑥 {못-, 맞-}”, “\*쑥 {못-, 맞-}”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때의 ‘쑥’은 서술어의 정도성을 수식하는 정도부사 용법을 획득한 것으로 생각된다. (22 ㄷ)은 “A가 B에 쑥 합당흐-” 구문이고, (22 ㄹ, ㅁ)은 ‘쑥’이 지시형용사를 수식한 예이다. ‘쑥’이 모두 정도성과 관련된 표현을 직접 수식한다는 점에서 이때의 ‘쑥’은 동사-부사인 정도부사(“정확히”)로 해석된다. (22 ㅁ)에는 ‘반다시#쑥’(‘#’은 단어 경계임)이 있어, ‘쑥’이 양태부사(“반드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부사 ‘쑥’은 ‘긋흐-’ 구문에서도 쉽게 확인되었다.

- (23) ㄱ. 심지에 농스짓는 것식지라도 빅 년 전이나 지금이나 쑥 맞창가지요 <1896.07.25. 독립신문 1면>
- ㄴ. 그 준 사름의 죄가 썩은 사름과 쑥긋더라 <1897.11.20. 독립신문 4면>

11) 이런 양상은 ‘쑥’과 흡사하다. ‘쑥’도 동사-부사가 기원이었는데 점차 그 영역이 동사구-부사까지 확대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쑥’도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 ㄷ. 글의 뜻은 몰고 입으로 넓기문 흐는 것과 쑥 긱지라 <1897.09.25. 독립신문 1면>
- ㄹ. 우리 생각에는 법률 졸업한 사람들이 외국 법률 학스와 쑥 긱다고 말할 수는 업스되 <1896.06.20. 독립신문 2면>
- ㅁ. 그런고로 숨 쉬는 경계가 다른 증승과 쑥 긱나 다른 룩디에 잇는 증승들은 공기를 마시고 <1897.07.15. 독립신문 1면>
- ㅂ. 무론 어느 나라고 나라가 서서 잇스면 그 서서 잇는 경계가 쑥 긱와 긱하 <1898.03.03. 독립신문 1면>
- ㅅ. 다른 일과 말과 생각이 쑥 선현네 긱친 것과 긱할 것 긱면 <1896.08.29. 독립신문 1면>

(23ㄱ)을 제외한 예문은 모두 “A가 B와 쑥 긱—” 구문이다.<sup>12)</sup> 이러한 구문의 ‘쑥’은 A와 B가 의미적으로 동질적이므로, 이때의 ‘쑥’도 정도부사 “정확히”로 해석된다. ‘긱—’ 구문의 ‘쑥’도 동사-부사가 전형이지만 동사구-부사로 쓰인 예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23ㄷ, ㄸ)]. 이것도 ‘쑥’의 작용역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쑥’이 명사구를 수식하는 정도부사로 가능한 예는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동사(구)-부사인 정도부사가 널리 쓰이고 있었으며,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명사구-부사인 초점부사가 존재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우연한 공백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 <1-4> 특이한 용법

20세기의 ‘쑥’의 용법도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의태어, 양태부사, 정도부사로서의 용법이 모두 확인된다. 다만 ‘쑥’을 초점부사로 처리할 만한 적극적인 예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료상의 한계로 해석된다. 아래에서는 이전 시기에 서 등장하지 않았던 표현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언급할 것은 ‘쑥—’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 (24) ㄱ. 여보 청주집갓치 쑥 긱 사람은 처음 보았소 <고목화 상:12쪽>
- ㄴ. 여보 별소리마오 쑥 긱 사람이 세상에 옛의 별로 잇답던넛가 <구의산 상:19쪽>

12) (23)의 ‘맛창가지—’ 구문은 긱— 구문과 통사-의미적으로 유사하므로 동일 유형으로 처리하였다.

- ㄷ. 그 꼭하고 아정하던 아희가 졸디에 마음이 변하여 늙은 어미를 본체 안이  
하고 타국으로 갖스리 십어 <모란병 85쪽>
- ㄹ. 예구 아씨 이것이 윈 일이오 아씨갓치 꼭하고 밍운 양반이 사름의 못당홀  
루명을 쓰고 친정으로 쏘써 가신단 말씀이오 <금국화 상:69쪽>

당시의 ‘꼭하-’는 대부분 ‘꼭흔’과 같은 관형어나 ‘꼭하고’와 같이 접속형으로 실현되었다. ‘꼭하-’는 현대 한국어 사전에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그 의미는 “성질이 차분하고 정직하며 고지식하다”이다. (24)의 ‘꼭하-’도 이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당시의 몇몇 대역어 사전에서도 ‘꼭하-’의 의미를 제시한 바 있었다.

- (25) ㄱ. 꼭하다: Juste, ferme, fidèle, probe, loyal. <한불사전(1880)>
- ㄴ. 꼭하다: To be just, to be firm, to be true. <한영사전(1897)>

두 사전에서 기술한 ‘꼭하-’의 의미는 놀랍도록 비슷하다. 프랑스어의 ‘juste’는 “올바르다, 정당하다, 공평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인 동시에, “정확하게, 바르게, 바로, 꼭” 등의 의미를 갖는 부사이기도 하다. ‘ferme’ 이하의 의미들은 대체로 “굳건하다, 확고하다, 성실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부사로서, 영어의 해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24)에서 사용된, “성질이 차분하고 정직하며 고지식하다”라는 의미는 “올바르다, 성실하다”와 관련된다. 따라서 사전의 뜻풀이는 당시의 ‘꼭하-’라는 서술어를 상당히 정확하게 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꼭하-’와 함께 등장한 것이 ‘꼭 되-’이다. 이때의 ‘꼭’은 “이번에 꼭 될 거야”의 ‘꼭’ (“반드시”)과는 다른 의미라는 점에서 주의해야 한다.

- (26) ㄱ. 복삼이가 무릅을 툇 치며 (복삼) 올치 그 계교가 꼭 되엇네 그싸진 놈 헤  
아릴 것 무엇이나 <고목화 하:136쪽>
- ㄴ. 그놈 죽은 다음에야 누가 걸너 우리 둘이 밍음터로 사라보지 못헛겟소  
(너) 그 계교가 꼭 되얏소 자- 그러면 내가 몬져 가서 꼭 기다리리다 <구  
의산 하:39쪽>
- ㄷ. 이 손님은 서울 신스(紳士)인데 본인다려 부탁헌 일이 잇셔 사면으로 심방  
하던 차에 이런 말씀을 드른즉 꼭 되엇소 여보 본전 썩고 리 남으면 고만

이지 꼭 기싱이랄 것 무엇 잇소 <명월정 21쪽>

ㄹ. 귀속말을 한참 동안이나 흐닛가 경지가 무릅을 탁치며 (경) 올소 셔방님  
말이 꼭 되었소 년소흔 량반이 의스도시럽지 늙은 나는 익만 쓰면서 그딤  
싱각도 못히소 구려 <원양도 102쪽>

ㅁ. 허부령의게는 무심흐고라도 눈치도 보이지 마시오 (성) 마누라 말이 꼭 되  
얏소 이름은 셔중이 짜중이라고 췌더라도 너 필적은 그 익가 알 것이니 그  
러케 흐는 것이 제일 상칙이야 <재봉춘 107쪽>

(27) ㄱ. 김덕이는 제 속중으로 흐는 말이 올라 인제는 꼭 된 일이다 <명월정 84쪽>

ㄴ. 리시종의 입이 귀밧까지 버러지며 (리) 그 말삼이 꼭 될 일이오 너가 그날  
저녁을 일즉 아니 먹고 그리로 갈 것이니 아주머니 응응 <산천초목 12쪽>

(27)과 같은 몇 예만 제외하면, 신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꼭 되다’ 용례는 (26)처럼 과거 시제 종결문에서 쓰였다. 이것은 ‘꼭 되-’ 용법의 편중성을 드러내는 일로 생각된다. 현대 한국어 사전이나 당시의 외국어 대역어 사전에 ‘꼭되-’ 항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sup>13)</sup> ‘꼭 되-’는 하나의 단어라기보다는 ‘꼭 #되-’라는 ‘부사(수식어)+용언(피수식어)’의 관계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꼭 되-’는 “NP가 꼭 되-” 구문으로 실현되었는데, 이 ‘꼭’은 NP에 해당하는 대상이 화자의 생각에 정확하게 들어맞음을 보인다. 따라서 이때의 ‘꼭’은 정도부사이고, ‘꼭 되-’는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되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아래의 ‘꼭바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28) ㄱ. 년전에 청인의 습십륙계 흘 썩에는 문테를 잘 풀고 쏘 썩만 잘 꾸여도 길  
흐거니와 쏘 남의 썩을 잘 사셔 꼭바로 붓치고 보면 십전에도 습십곱이오  
<명월정 36쪽>

ㄴ. 이럿케 말습흐기가 대단 황송흠이다만은 의사가 흐는 것은 말을 꼭바로 허  
는 범이을시다 <금국화 하:64쪽>

ㄷ. 령감 마음에 마즈시도록 골느 볼 터이오니 령감의셔는 엇던 즈격을 취흐시  
는지 꼭바로 말습흐십시오 <월하가인 15쪽>

이 말은 오늘날의 ‘똑바로’를 생각나게 한다. 오늘날 ‘똑바로’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 “틀리거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라는 뜻을 갖는 부사이다.<sup>14)</sup> 그러

13) 오늘날에는 “NP가 꼭 되다”는 거의 쓰이지 않고, “NP{대로, 처럼} 꼭 되다”가 쓰인다.

나 오늘날의 사전에는 ‘꼭바로’(<꼭바로)라는 부사는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꼭바로’가 ‘똑바로’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4)</sup> (28ㄱ)의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것과 관련되는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곧게”라는 뜻으로, (28 ㄴ, ㄷ)의 해당 부분은 추상적인 것과 관련되는 “틀리거나 거짓 없이 사실대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용법은 고전소설이나 관련 관소리 사설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꼭’에 다양한 의미들이 첨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1920년대 이후부터는 앞서 언급된 특이한 용법들이 점차 사라지고 ‘꼭’은 오늘날의 쓰임으로 자리 잡게 된다.

## <2> 1920년대 이후의 ‘꼭’

1920년대 이후에도 ‘꼭’의 주요 용법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꼭’이 상징부사(의태어), 양태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로 기능한 예가 모두 확인된다. 편의상 의태어의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용법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먼저, ‘꼭’이 양태부사로 쓰인 경우이다.

- (29) ㄱ. 꼭 그런 것도 아니언마는 진정할 수가 업시 맘이 설레고 모든 것이 슴허다  
 <再生 (123). 1925.07.03. 동아일보 4면>
- ㄴ. 내 엽흘 썬날 때에는 꼭 국향이가 제 형의 대신으로 머리맞헤 안저 잇섯다  
 <浮萍草 (六十五). 1920.06.27. 동아일보 4면>
- ㄷ. 원리 조선의 불교를 진흥하는데 꼭 일본인 승려와 결탁할 필여가 잇슬가요  
 <佛敎 改宗 問題 (三): 改宗의 必要가 何在. 1920.06.26. 동아일보 3면>
- ㄹ. 이를 說明不得이라 하야 꼭 朝鮮 佛敎의 改革上의 莫大한 影響이 잇다 함은 아니오  
 <滅亡이나 復活이나 (二). 1920.05.10. 동아일보 4면>
- ㄹ. 그리고 좁아서 느런이 잘 수가 업스닛까 엇딕겨서 자면 그 終日 더럽게 다  
 니든 발이 꼭 내 뺨에 가 닳지 그 고린내란 오든 잠이 다 다라나오 <大邱  
 에 갓든 일을 金瑪利亞兄에게 第三信 (一). 1920.06.18. 동아일보 3면>
- ㅂ. 希臘語 拉典語에서 譯出함은 知的 練習으로는 적어도 代數 及 幾何의 研究

14) 이 뜻풀이들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따온 것이다.

15) 이것은 ‘꼭 같이 : 똑같이’, ‘꼭 같다 : 똑같다’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가 꼭 數學 專門家 될 志望을 有치 아니함과 同一한 價値가 有하다 <英國教育에 在한 古文學 (二). 1920.06.25. 동아일보 4면>

- 八. 一. 캐취볼 二十分, 二, 푸리벳팅 四十分. 三, 레글더벳팅 五十分. 四, 씨 | 트녹크 四十分. 五, 쉐스런닝 二十分. 六一週一回規則과 作戰 研究會. 야구 연습은 꼭 이 우와 가치 해야 됩니다. <第三回 全朝鮮 野球 大會 所感 (十). 1922.11.02. 동아일보 3면>

양태부사 ‘꼭’은 “반드시” 혹은 “정말로”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 부터는 이러한 양태부사 ‘꼭’이 급증하게 된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꼭’은 “반드시”, “정말로”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이것은 ‘꼭’의 전형적 용법이 양태부사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920년대 이후의 신문 자료에서는 ‘꼭’이 수량 표현과 호응한 예가 다수 등장한다.

- (30) ㄱ. 로중에 엇더한 방면자의 친척 한 사람이 잇서 권연 썬내여 피우매 모든 사람들은 럽치와 테모도 도모지 불고하고 쉼을 지여 달너들러 “어 권연이 구료! 꼭 일 년을 주리엿소” 하며 <愛兒야! 吾兄야!. 1920.04.30. 동아일보 3면>
- ㄴ. 허가 청원을 제출한 지가 올봄에 꼭 이 개년이 되오 <海女 問題의 落着. 1920.05.05. 동아일보 3면>
- ㄷ. 내 주의 내 철학은 꼭 세 가지인데 누구든지 들으면 비웃겠지마는 나는 철저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그 주의에 충실하엿네 <魔都의 香불 (一二五). 1933.05.04. 동아일보 4면>
- ㄹ. 그는 백부가 S정에 포목상을 내고 잇는 것을 빙자하고 두 번-꼭 두 번 시내에 들어왔다. <꾸부러진 平行線 (十四). 1935.04.09. 동아일보 3면>
- ㅁ. 이것만 해도 여섯 명 아녀요? 거게다가 저하고 아범과 어멈까지 치면 꼭 아홉 명이지요. <애기네판. 1939.02.11. 동아일보 4면>

‘꼭’이 수량 표현을 수식한 예도 개화기 이후에 많이 검출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정작 개화기 자료에서는 그 예가 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는 우연한 공백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쓰인 ‘꼭’은 “정확히”의 의미를 갖는 정도부사이다. 주목할 점은 ‘꼭+수량 표현’ 구성이 ‘꼭+수량 표현’ 구성보다 시기적으로 앞섰다는 사실이다. 문헌의 보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꼭’이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1930년대로

추정되는데, ‘꼭’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수량 표현과 함께 쓰였던 것이다. 적어도 수량 표현에 관한 한, ‘씩’보다는 ‘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이다.

‘꼭’이 초점부사처럼 보이는 예도 존재한다.

(31) 현은 (...중략...) 그중에서 옥색 양봉투에 영문으로 깃봉을 쓴 편지 하나를 끌어  
서, “자 이거 뉘 글썤지 알어?”하고 정선의 눈앞에 든다. “응 그거 리박사 글씨  
같구려”하고 정선도 놀란다. 정선도 꼭 이런 봉투에, 이런 글씨의 편지를 가끔  
받는 까닭이다. <흙 (셋짱권) (廿五). 1932.12.18. 동아일보 3면>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꼭 이런 봉투’라고 했을 때 그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생각난다는 점이다. 편지를 받는 봉투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런 봉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꼭’은 초점부사(“다름 아닌”)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31)의 ‘꼭’은 정도부사 “정확히”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따라서 이것을 ‘꼭’이 초점부사로서의 쓰임을 어느 정도 획득한 예문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도부사로 기능한 것으로 다루고자 한다.

### <3> 요약

‘꼭’은 19세기부터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텍스트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꼭’은 처음부터 상징부사와 비상장부사의 용법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씩’과 매우 유사하였다. ‘꼭’은 20세기 교체기까지 주로 의태어로 쓰였지만, 양태부사, 정도부사, 그리고 드물지만 초점부사의 용법도 지니고 있었다.

‘꼭’의 비상장부사 용법은 상징부사 용법이 확대된 결과이다. 즉, 상징부사 ‘꼭’은 그 성격상 동작동사와 어울리는 것이 정상이었지만, 그것이 비동작성 서술어와 호응하면서 정도부사, 양태부사 용법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20세기로 접어들면서 ‘꼭’은 ‘꼭흔, 꼭흐고’처럼 ‘꼭흐-’라는 파생어로 쓰이기도 한다. 한 단어로는 취급할 수 없는 ‘꼭 되-’의 용법과 부사 ‘꼭바로’가 발견되는 것도 이 시기이다. ‘꼭>꼭’의 의태어로서의 용법, 정도부사와 양태부사로서의 용법은 1920년 이후에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러나 ‘꼭흐-’와 ‘꼭 되-’, ‘꼭바로’ 등은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표-12> ‘꼭’의 역사적 변화

분류		의미		19세기	20세기	21세기	문법적 분류
상징 부사	꼭1	의태어	야무지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죄는 모양.	○	○	○	동사-부사
비 상징 부사	꼭 2-1	정도	정확히.	○	○	○	동사-부사 동사구-부사
	꼭 2-2	정도	정확히.	우연한 공백	○	○	명사구-부사
	꼭3	초점	하필, 다름 아닌, 특히.	○	우연한 공백	○	명사구-부사
	꼭4	양태	반드시, 정말로.	○	○	○	화자의 태도를 반영

### 3.1.3. 현대 한국어의 ‘꼭히’

#### <1> ‘꼭히’의 용법

‘꼭히’는 오늘날에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32) ‘꼭히’에 대한 현대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

- ㄱ. 『표준국어대사전』: → 꼭3.
- ㄴ. 『연세 한국어사전』: 해당 사항 없음.
- ㄷ.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해당 사항 없음.
- ㄹ. 『새우리말 큰사전』: 해당 사항 없음.
- ㅁ. 『우리말 큰사전』: =꼭3①      ¶ 꼭히 그가 말한 곳이 아니어도 좋으니...
- ㅂ. 『금성판 국어대사전』: 해당 사항 없음.

대다수의 사전에서는 ‘꼭히’의 항목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설령 사전에서 ‘꼭히’를 올리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비표준어로 처리하거나[(32ㄱ)], ‘꼭’의 유의어로 처리하는 것이 고작이다[(32ㄴ)]. 이것은 ‘꼭히’가 현대 한국어에서 사어화된 단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뒤에서 상술했지만, ‘꼭히’가 거의 쓰이지 않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일부 사전에서나마 ‘꼭히’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또 그것이 ‘꼭’이라는 부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어도 ‘꼭히’가 오늘날에 이르기 직전까지, ‘꼭’과 유의 경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sup>16)</sup>

- (33) ㄱ. 성생활의 이니셔티브를 꼭히 남자가 쥐어야 한다는 법은 없잖아요? <살아남은 자의 슬픔,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ㄴ. 꼭히 부부 간의 사랑이 성생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중년기 건강클리닉>
- ㄷ. “관고(官庫)의 곡식을 털었으니 돌려주는 것이 적굴 사람들의 나중 일을 봐서라도 유리할 것입니다.” “꼭히 그렇지만은 않다네.” <객주 5>
- ㄹ. 나는 김석희가 변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꼭히 내가 들어야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라고도.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
- ㅁ. 반면 40대 중반을 넘어서 점점 연령이 증가되면 그 변화의 정도 역시 폭이 커진다. 그러니까 40대 전반에 적절하게 계획을 세워 인간 도크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꼭히 인간 도크를 이용했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년기 건강클리닉>
- ㅂ. 안사람이 그곳으로 간 연유가 꼭히 병 수발 때문이었소? <野丁 (348). 1992.02.27. 동아일보 13면>

(33)은 ‘꼭히’가 양태부사 ‘꼭’으로 해석되는 예이다. 양태부사 ‘꼭’은 “반드시”나 “정말로”의 의미를 지니는데, (33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반드시”로 해석된다. (33ㄷ)의 ‘꼭히’는 의문법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정말로”로 해석될 뿐, 그것이 양태부사라는 점은 동일하다. “반드시”나 “정말로”는 ‘꼭’의 하위 의미 중 하나로서, ‘꼭히’는 마치 ‘꼭’의 특정 의미를 담당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16)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오늘날에 즈음하여 사어화된 단어의 의미나 문법적 특성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다행스럽게도 현대어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말뭉치에서 발견된 ‘꼭히’의 몇몇 용례가 있어, ‘꼭히’의 의미와 문법적 특징을 파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꼭히’는 ‘딱히’와 거의 유사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 (34) ㄱ. 가족사진과 반지, 착착 접은 강이의 배넷저고리를 캡슐 안에 집어넣었다. 뚜껑을 꼭 닫았다. 공기가 들어가면 색깔이 변하고 부식될지도 모른다. 따로 진공 처리를 하거나 아르곤 가스를 주입해서 산화를 막을 수도 있겠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것은 영원한 보존이 아니라 차라리 세월이 흐를수록 지속될 부식이나 변색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나는 꼭히 그렇다고도 대답할 수는 없다. <우리는 만난 적이 있다>
- ㄴ. 심호흡을 하며 한참 걷다가 꼭히 갈 곳도 없으면서 지하철을 탔다. <조용한 변화 물결 북녘을 가다 (3). 1990.04.12. 한겨레 5면>
- ㄷ. 꼭히 그런 개인적 감정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토론자의 견해를 일거에 깔아뭉개는 듯한 그 자식의 태도에 부아가 치민 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다. <단힌 교문을 열며,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35) ㄱ. 막상 버스에 오르긴 올랐지만 꼭히 누구네엘 가야겠다고 작정을 한 것은 아니었던지라 버스가 혼잡한 아파트 단지를 빠져 새로 연장된 남부순환도로를 따라 썩! 하고 속력을 내기 시작하자 덜컥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햇무리. 1987.01.05. 경향신문 10면>
- ㄴ. “여길 떠나시면 또 어디로 가시려요?” “글쎄요. 정처가 없는 처지이니 꼭히 어디라고 말하기가 거북하오” <野丁 (848). 1993.08.08. 동아일보 17면>
- ㄷ. 단천(端川)을 떠나긴 하였으나 꼭히 어디서부터라곤 할 수 없지요. <객주 5>

‘딱히’는 주로 부정문에서 쓰이는데(후술됨), 위의 ‘꼭히’는 모두 부정문이나 그에 준하는 표현과 호응한다는 점에서 ‘딱히’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34)의 ‘꼭히’는 초점부사로서 “꼭”[(34 ㄱ)]이나 “특별히”[34(ㄴ, ㄷ)]로 해석되고, (35)의 ‘꼭히’는 정도부사 “정확히”로 해석된다. 이러한 특성은 모두 ‘딱히’에서도 확인되는바, ‘꼭히’는 ‘딱히’와도 유의 경쟁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의 내용은 ‘꼭히’가 소멸하게 된 원인을 암시한다. ‘꼭히’는 ‘꼭’과의 유의 관계를 형성한 동시에, ‘딱히’와의 유의 관계도 형성하였는데, 이는 ‘꼭히’의 정체성을 흐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술한다.

## <2> 요약

‘꼭히’는 현대 한국어에서 사실상 사어화된 단어이다. ‘꼭히’는 양태부사였다는 점에서 ‘꼭’의 유의어로 생각되지만, 한편으로는 부정문에서 초점부사와 정도부사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딱히’의 유의어로도 생각된다. 현대 한국어 ‘꼭히’는 ‘꼭’이나 ‘딱히’로 대체되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어휘 내적 기반이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단어였다.

### 3.1.4. 현대 한국어 이전의 ‘꼭히’

#### <1> 19세기의 ‘꼭이/꼭히’

부사 ‘꼭이/꼭히’는 19세기 후반부터 문헌에서 등장한다. ‘꼭이/꼭히’는 양태부사, 정도부사로 쓰였다는 점에서 ‘꼭’과 흡사하다(이하 ‘꼭이’로 통칭함). 발견되는 ‘꼭이’의 예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관계로, 아래에는 19세기에 발견되는 대부분의 용례들을 제시한다.

- (36) ㄱ. 냇적에 대벽왕도 여기 싸젓술 췌 전능흐신 췌췌셔 구흐시지 아니흐엿더면  
    꼭이 죽엿술지라 <턴로력당 23a>  
    나. 요힝 흐 사름이 와서 만류흐야 그 손에 버셔낫스니 그럿치 아니흐더면 꼭  
    이 죽을 번흐엿노라 <턴로력당 26b>  
    다. 장한의 말이 올타 흐야 일제히 오션의게 말흐디 우리가 상량흐야 보니 꼭  
    이 죽일 죄러이다 흐디 <턴로력당 38a>
- (37) ㄱ. 풍풍우우(風風雨雨)에 어늬 늘을 꼭히 질덩홀 슈 업스니 그만흐고 가시면  
    이 사름도 비록 용우흐나 엿지 췌다름이 업슬이오 <1898.06.09. 매일신문  
    1면-2면>  
    나. 혹 범과 흐는 자는 영을 어권 죄로 다스리며 영 전에 단척으로 이왕 짚거  
    슨 연척을 너허 꼭이 삼십 척으로 매매흐야 일준 시헝케 흐여지이라 흐엿  
    다더라 <1897.03.16. 독립신문 4면>
- (38) 일본에 망명흐야 잇는 대한 사름들을 환국 식힐 일에 디흐야 귀정흐엿다는 말이

있다 하나 일본 공스가 꼭이 그 일노 인연하야 의부에 갖던지 혹 다른 외교에 상  
관되야 갖던지 더간 리허는 즈세히 알 슈 업노라 <1899.08.15. 독립신문 3면>

(36)~(38)의 ‘꼭이’는 각각 양태부사(“반드시”, “정말로”), 정도부사(“정확히”), 초점  
부사(“다름 아님”)로 기능하였는데, 대체로 ‘꼭’의 용법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sup>17)</sup>

이미 19세기부터 ‘꼭이’와 ‘꼭’이 동시에 문증된다는 점은 언어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암시한다.

(39) ㄱ. 괴독도 | 곶으되 실상 그곳시 잇느니 내는 꼭이 밋노라 <턴로력당 54b>

ㄴ.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세상의셔는 구속홀 방도가 업는 줄 꼭 밋는 고로 만  
일 도를 비반하면 영이 죽을 터이매 <턴로력당 58b>

위의 ‘꼭이’와 ‘꼭’은 모두 양태부사 “반드시”로 해석된다. 그러나 ‘꼭이’와 ‘꼭’은 표  
기상 ‘이’의 유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꼭이’는 형태적으로 유사성을  
지니고 있던 다른 ‘X이’형 부사에 유추된 결과로 생각된다.

## <2> 20세기의 ‘꼭히’

20세기 초엽부터 중엽까지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꼭이’가 꾸준히 쓰이는 가운  
데, ‘꼭히’도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  
지나 상대적으로 그러하였다는 것이고, 20세기 초·중반을 기점으로 ‘꼭이>꼭히>꼭  
히’로 표기가 일원화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 ㄱ. 관승이 출진을 헛소마는 마음을 꼭이 미들 수 업스니 장수 두엇을 뒤를 쫓  
차 보내서 그를 감시도 하려니와 도읍기도 하게 헛스면 조켓소이다 <新釋  
水滸傳 (566). 1929.12.10. 동아일보 3면>

ㄴ. 그러니까 살우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리케 사랑해주시는 아들이니까  
아마 자식이 들이는 말씀이라도 꼭이 올흔 줄만 알으신다 하면 반듯이 잘

17) (37ㄱ)의 ‘꼭이’는 ‘씩이’(>딱히)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용례가 적극  
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시기의 ‘꼭이’와 ‘씩이’가 현저한 유의 관계를 보였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 들어주실 줄 압니다 <歸農運動 (146). 1930.02.23. 동아일보 3면>
- ㄷ. 그러나 그가 꼭이 두목의 초막으로 간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특  
 특한 질문을 하기에 부족할 줄을 알았다. <大盜傳 (60). 1930.03.21. 동아  
 일보 3면>
- ㄹ. 그것은 돌이켜 근로력(勤勞力)을 멸살시키는 一종의 폐단도 불무함으로 병  
 자나 불구자 이외에는 꼭히 로동케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全朝鮮有志人  
 士總網羅 窮民救濟對策紙上座談會 (完). 1932.07.27. 동아일보 4면>
- ㅁ. 그만한 經費의 能力이 있으면 勿論 조타 그러나 萬一 圖書館 事業의 經營  
 이 꼭히 이러한 巨財를 要하여야만 經營할 수 있는 것이라면 筆者는 決코  
 이 拙筆이나마 試하지 안흔 것이다 <圖書館은 어떤 것? (4). 1936.01.31.  
 동아일보 3면>
- ㅂ. 이거요. 누가 어대 자네를 꼭히 나쁘게는가? <黎明期 (29). 1936.02.02.  
 동아일보 3면>

위의 ‘꼭히’(<꼭이)는 양태부사(“정말로”, “반드시”)로 해석된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꼭히’는 ‘꼭’의 이표기처럼 쓰여, 이전 시기 ‘꼭’이 지니고 있던 특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꼭히’는 부정문에만 쓰인다는 제약이 없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꼭히’는 ‘딱히’와도 유의미한 접점을 지니게 되었다.

- (41) ㄱ. 姓을 알고 이름을 꼭이 알아뒀야만 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時間의  
 位置 위에서. 1957.08.15. 경향신문 4면>
- ㄴ. 꼭이 그 불꽃 속으로 가고픈가? <終幕 (上). 1962.01.09. 동아일보 4면>
- ㄷ. 발이 빠였는지 상했는지 꼭이 알 수가 없어서 창덕이는 무지막지하게 발목  
 을 잡아 다리기도 하고 주물러 주기도 하였다. <길 (32). 1953.03.23. 동  
 아일보 2면>
- ㄹ. 捕虜들이 以北으로 自進自脫했다고 宣傳할 可能性도 꼭이 없다고 斷定할  
 수 없다고 한다 <政治會談의 展望 (完). 1953.09.10. 동아일보 1면>

표기상 ‘꼭히’가 등장하지는 않으나 이는 자료상의 한계로 해석된다. (41ㄱ, ㄴ)의 ‘꼭이’는 각각 양태부사 “반드시”, “정말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꼭히’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렇지만 (41ㄷ, ㄹ)의 ‘꼭이’는 부정문에서 쓰였다는 점, 각각 정도부사와 초점부사로 쓰였다는 점에서 ‘딱히’(<씩히<씩히)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41ㄷ, ㄷ)의 ‘꼭이’는 ‘딱히’로 대치하여도 해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딱히’로 해석되는 ‘꼭히’의 비율은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하는데, 앞서 살펴본 (34), (35)의 예가 그러하다. 이것은 현대 한국어의 ‘꼭히’가 이미 자신의 영역을 다른 부사들에 의하여 점령당하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꼭히’와 ‘딱히’는 상호 간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은 두 부사의 지니는 형태적·의미적 공통점 때문으로 보인다. ‘꼭’이나 ‘씩’은 형태적으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1음절 부사에서 2음절 부사인 ‘X이~히’가 유추로 탄생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 더불어 ‘꼭히’와 ‘딱히’의 의미 역시 일부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 이는 이들 부사가 유의 경쟁을 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씩 : 씹히’의 쌍이 등장한 것은 ‘꼭 : 꼭히’의 등장보다 앞서므로, 이러한 유의 경쟁을 촉발한 것은 ‘딱히’(<씩히<씩히)쪽이었다고 볼 수 있다.

‘꼭히’는 ‘딱히’와의 유의 경쟁을 펼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꼭’과도 경쟁을 펼쳐야 했다. ‘꼭히’가 쓰일 수 있었던 환경은 ‘꼭’으로도 대치가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 역시 ‘꼭히’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언중의 선택을 받은 것은 ‘꼭’이나 ‘딱히’였다.

### <3> 요약

‘꼭이’가 처음으로 문중되는 시기는 19세기 후반이다. ‘꼭이’가 양태부사, 정도부사, 초점부사였다는 사실은 ‘씩’과 흡사하였으나, 그 사용 예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씩’과 차이를 보였다. 20세기 이후에는 ‘꼭이’와 ‘씩히’가 모두 확인되지만, 이는 표기의 차이에 불과할 뿐, 용법의 차이는 없었다. 20세기 초·중반을 기점으로 하여 표기는 ‘꼭이>씩히>꼭히’로 일원화되었다. ‘씩히’는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씩’의 용법과 매우 유사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딱히’와도 유사성을 지니게 되었다. 즉, ‘씩히’는 한편으로는 ‘씩’과 경쟁을, 다른 한편으로는 ‘딱히’와 경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둘에 밀려서 오늘날에는 사어가 되고 만다.

<표-13> ‘꼭히’의 역사적 변화

분류	의미		19세기	20세기	21세기	문법적 분류
꼭히1	양태	반드시, 정말로.	○	○	×	화자의 태도를 반영
꼭히2	정도	정확히.	○	○	×	동사구-부사 명사구-부사
꼭히3	초점	특별히, 다름 아닌.	○	○	×	명사구-부사

## 3.2. ‘딱’류

‘꼭-꼭히’를 “꼭’류’로 칭한 것처럼 ‘딱-딱히’는 “딱’류’로 부를 수 있다. 현대 한국어 ‘딱’류는 ‘꼭’류와 매우 흡사하다. 어형의 유사성을 비롯하여 일부 용법이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점, 그러면서도 다양한 용법이 존재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물론, ‘딱’류와 ‘꼭’류 사이에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꼭히’는 오늘날 사어가 되었으나, ‘딱히’는 여전히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그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딱’류와 ‘꼭’류는 몇몇 부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다.

### 3.2.1. 현대 한국어의 ‘딱’

‘딱’은 동음이의어와 다의어가 모두 공존하는 부사이다. 그런데 동음이의어와 다의어에 대한 접근이 사전마다 조금씩 다른 관계로, 그 의미들이 대부분 직관적이지 않게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단어로 취급된다거나, 혹은 별개의 의미처럼 보이는 것들이 동일한 단어의 다의어로 취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의미를 일일이 분석하고 제시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다.

사전에 풀이된 ‘딱’의 용법은 크게 상징부사와 비상징부사로 나뉜다. 상징부사는 다시 의성어와 의태어로 나뉘고, 비상징부사는 정도부사, 양태부사, 초점부사 등으로 분류된다. 아래에서는 이 분류 순서에 따라 ‘딱’의 용법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상징부사

의성어 ‘딱’의 풀이는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 (1) ㄱ. 비바람에 나뭇가지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다.

- ㄴ. 날카로운 것으로 대나무를 내리치자 딱 하고 갈라진다.
  - ㄷ. 그 부인은 자기 자녀와 함께 구둣발로 딱, 딱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같이 불렀다.
  - ㄹ. 기분이 붕하고 하늘로 오르는가 싶더니 뭔가 딱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 (2) ㄱ. 작은 돌맹이가 날아들어 벽에 딱 부딪쳤다.
- ㄴ.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는 순간에 뼈가 딱 부러진 거야.

사전에서는 위의 예들은 “가늘고 굳은 물건이 부러질 때 나는 소리”,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거나 서로 부딪치는 소리” 등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1)의 ‘딱’은 의성어로만 이해가 되는 반면, (2)의 ‘딱’은 의태어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ㄴ)의 ‘딱’은 “넘어지는 순간에 정확하게 맞추어 뼈가 부러지는 모양”으로도 이해되는 것이다. 의성어 ‘딱’이 쓰이는 본질적 환경은 (1ㄴ)과 같은 ‘딱 하고’이다. 이것은 “‘딱 하고’처럼 ‘딱’이 인용되었음을 뜻하는데, 이때 요구되는 인용 표지는 ‘하는’이 아니라 ‘하고’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 (3) ㄱ. 나뭇가지가 딱 {하고, \*하는} 소리를 내며 부러져 버렸다.
- ㄴ. 구둣발로 딱, 딱 {하고, \*하는} 박자를 맞추면서 노래를 같이 불렀다.
  - ㄷ. 뭔가 딱 {하고, \*하는} 머리에서 소리가 나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 ㄹ. 벽에 딱 {하고, \*하는} 부딪쳤다.
  - ㅁ. 뼈가 딱 {하고, \*하는} 부러진 거야.

(3)에서 ‘하고’가 가능하고 ‘하는’이 불가능한 것은, ‘하고’가 동사구 전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고’가 생략될 때, 의성어 ‘딱’은 동사구-부사가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용 표지 ‘하고’가 쓰이지 않으면, ‘딱’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의성어 ‘딱’의 중의성 문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기원과도 관련되는데, 이것은 아래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우리는 의성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1), (2)의 ‘딱’을 ‘딱1-1’로 부르되, “어떤 대상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로 풀이한다.

사전에서 “~는 모양”, “~는 모양을 나타낸다” 등으로 풀이된 것은 대체로 의태어 ‘딱’이다.



- (4) 가. 그는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서 있었다.
- 나.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딱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
- 다. 한길 한복판에 딱 버티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 댄다.
- (5) 가. 똑똑 소리와 함께 어깨가 딱 벌어진 청년이 들어섰다.
- 나. 헛간 모서리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오다가 모서리에서 둘이 딱 마주친다.
- 다. 비행기 폭파 소식을 들은 그녀는 입을 딱 벌리고 한참 동안 다물지 못했다.
- 르. 진흙 덩이가 담에 딱 들러붙었다.<sup>1)</sup>

의성어 ‘딱’이 ‘하고’를 요구한다면, 의태어 ‘딱’은 ‘하니’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딱#하니’(‘#’은 단어 경계임)보다는 ‘떡#하니’가 훨씬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의태어 ‘딱’과 ‘떡’은 어떤 차이가 있다. 예컨대, “입을 딱 하니 벌리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을 떡 하니 벌리고”가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딱’과 ‘떡’의 기능 부담량과 관련이 될 것이다. ‘딱’은 상징부사 외의 다른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떡’은 순수하게 의태어로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의태어라도 동작성 서술어와 상태성 서술어 중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난다. 동작성 서술어는 접어 ‘딱딱’이 쓰일 수 없는 반면[(4)], 상태성 서술어는 ‘딱딱’이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5)].

의태어 ‘딱’은 모두 동사-부사이다. 물론, 의태어 ‘딱’이 동사구-부사로 쓰이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동사-부사인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색하거나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5가)의 “어깨가 딱 벌어진 청년”와 “딱 어깨가 벌어진 청년”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기 어렵다. 이것은 ‘딱’이 의태어로서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를 한층 강조하므로, 서술어와 멀리 떨어져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4), (5)에 쓰인 표현들은 대부분 관용어처럼 사용된다. 의태어 ‘딱’은 모음조화에 의한 분화형인 ‘떡’으로 대체될 수 있다. ‘딱 벌어진 : 떡 벌어진’[(5가)], ‘딱 벌리고 : 떡 벌리고’[(5다)]처럼 (4), (5)의 나머지 예들도 ‘딱-떡’의 대체가 가능하다.<sup>2)</sup> 의태어 ‘딱’은 ‘딱1-2’로 부르기로 한다.

1) 『표준국어대사전』 ‘떡’ 항목의 예를 수정한 것이다.

2) 상징부사와 비상징부사를 구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딱-떡’의 대체 가능성 여부가 그러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 <2> 비상징부사

상징부사가 아닌 부류는 대체로 문장 내의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나 평가와 관련된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정도부사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정도부사 ‘딱’은 동사-부사로서 “정확히”의 의미를 지닌다.

- (6) ㄱ. 옷이 몸에 딱 맞는다.  
    ㄴ. 그런 여자는 딱 질색이다.  
    ㄷ. 소풍 가기에 딱 좋은 날씨다.  
    ㄹ. 그건 이발소 그림으로 딱 어울리겠다.  
    ㅁ. 어찌면 그렇게 내 생각과 딱 들어맞는지.  
    ㅂ. 한 사람이 누워 자기 딱 알맞은 방이 있었다.

(6)의 서술어는 정도성을 지니는 동시에 화자의 심리와 관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6)의 대부분은 “NP{에, 로} 딱 V” 구문으로서, ‘딱’에 선행하는 명사구는 서술어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기준이 된다. 이때 ‘딱’은 명사구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100%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이다.<sup>3)</sup> 이처럼 어느 특정한 영역만이 부각되고 그 외의 영역은 화자의 선택에서 멀어졌다는 점에서, 정도부사 ‘딱’은 초점부사와 일정 부분 닮은 면이 있다.<sup>4)</sup> 그러한 의미에서 정도부사 ‘딱’은 “화자가 생각한 것과 꼭 같다고 느낄 정도로”라는 본래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정도부사 ‘딱’과 의태어 ‘딱’의 구분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3) ‘바르’나 ‘정히’의 특정 의미가 ‘딱’과 비슷하다. ‘바르’나 ‘정히’는 중세 한국어 한문 ‘正’을 언해한 것인데, ‘딱’은 원문의 한자가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4) 정도부사 ‘딱’이 적극적으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킨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수량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과 관련된 것은 분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승(2015)에서 제시한 ‘주관량’ 개념이 참고된다. 주관량(Subjective Quantity)이란 수량 표현에 대하여 화자가 지니고 있는 주관적 언어 심리 행위로서, 주관 대량(어떤 양이 화자의 심리적 기준보다 많은 것)과 주관 소량(어떤 양이 화자의 심리적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분류된다[이상 양해승(2015)].

ㄱ. 주관 대량: 서울에는 무려 40mm의 비가 내렸다.

ㄴ. 주관 소량: 서울에는 고작 40mm의 비가 내렸다.

‘무려’와 ‘고작’은 후행하는 수량 표현의 많고 적음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낸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딱’은 후행하는 수량 표현이 화자의 마음에 정확하게 들어맞음을 의미하는 주관량 표지가 될 것이다.

- (7) ㄱ. 진흙 덩이가 담에 딱 들러붙었다. [= (5ㄷ)]  
 ㄱ'. 진흙 덩이가 담에 떡 들러붙었다.  
 ㄱ". 진흙 덩이가 담에 {딱, 떡} 하니 들러붙었다.  
 ㄴ. 소풍 가기에 딱 좋은 날씨가. [= (6ㄷ)]  
 ㄴ'. \*소풍 가기에 떡 좋은 날씨가.  
 ㄴ". \*소풍 가기에 {딱, 떡} 하니 좋은 날씨가.
- (8) ㄱ.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과 딱 들어맞는지.<sup>5)</sup> [= (6ㄷ)]  
 ㄴ.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과 떡 들어맞는지.  
 ㄷ.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과 {딱, 떡} 하니 들어맞는지.

(7ㄱ)의 ‘딱’은 후행하는 서술어가 정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도부사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cf: 잘 붙어 있다, 덜 붙어 있다, ...). 그렇지만 (7ㄱ)의 ‘딱’은 의태어 ‘떡’으로 대체되거나, ‘{딱, 떡} 하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전한 정도부사로 처리하기 어렵다. 반면에, (7ㄴ)의 ‘딱’은 의태어 ‘떡’으로 대체되거나 ‘{딱, 떡} 하니’가 쓰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도부사로 분류된다. 그런데 (8)의 ‘딱’은 상징부사(의태어)나 정도부사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중의적이다. 이것은 의태어 ‘딱’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다. 의태어 ‘딱’은 수식할 수 있는 서술어의 범주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는데,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는 ‘딱’이 정도부사로서 기능하게 되었던 것이다.<sup>6)</sup> 동사-부사로 쓰인 정도부사 ‘딱’은 ‘딱2-1’로 처리한다.

‘딱’은 명사구-부사로 쓰여 “정확히”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9) ㄱ. 딱 한 잔만 하세요.  
 ㄴ. 자리는 딱 세 개가 비어 있었다.  
 ㄷ. 거기서도 딱 3년만 채우고 광산을 떠나야 해.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10)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의 딱 가운데 지점에 상점을 세우기로 했다.

(9)는 ‘딱’이 수량 표현을 수식하는 경우인데, (9ㄱ, ㄴ)의 ‘수관형사+체언’ 구성이나 (9ㄷ)의 시간 표현이 모두 수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량이나 시간도 일정한

5) 『표준국어대사전』 ‘떡’ 항목의 예를 수정한 것이다.

6) 이것은 현대 한국어에서 ‘딱’이 여전히 생산적인 의태어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도성을 지니는데, ‘딱’은 이러한 정도성의 영역 중에서 다른 수량이나 시간대를 배제하고 해당 수량이나 시간을 부각시키는 역할은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딱’은 역시 명사구-부사인 초점부사와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딱’에 후행하는 수량 표현은 단수이거나 극히 한정된 수량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보조사 ‘만’, ‘뿐’과 호응하기도 한다.<sup>7)</sup> 정도부사 ‘딱’은 위치 명사인 ‘중앙’이나 ‘가운데’를 수식하기도 한다. ‘중앙’이나 ‘가운데’는 양극단이 전제되며, 그 두 지점은 곧은 직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상의 직선 한 가운데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 부사 ‘딱’의 역할이다. 따라서 ‘딱’이 위치 명사를 수식할 때는, (10)의 ‘김포 슈퍼와 형제 슈퍼’처럼 양쪽 끝을 드러내는 표현이 문면에 등장할 수도 있다. 명사구-부사인 정도부사 ‘딱’은 ‘딱2-2’로 불러 둔다.

동사-부사 ‘딱’이 달성동사를 수식할 경우에는 “일시에, 갑자기”로 해석된다.

(11) ㄱ. 담배를 딱 끊다.

ㄴ. 창문을 닫자 소음이 딱 그쳤다.

ㄷ.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자 소란스럽던 소리가 딱 멈췄다.

(11)의 서술어는 “일정한 단계를 거침”과 관련되어 있다. ‘끊-’, ‘그치-’, ‘멈추-’는 행위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데, 이러한 단계성은 시간과 밀접하다. 해당 서술어의 끝단(극점)은 행위나 상태의 완료를 의미하는바, 이 서술어들은 행위나 상태가 완료되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러한 행위나 상태의 완료에는 일정한 시간이 소모되기 마련인데, ‘딱’은 그러한 시간의 소모를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한다. 즉, ‘딱’은 단계적·순차적 과정을 건너뛰고 목적지에 곧바로 도달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일시에, 갑자기”라고 해석되는 ‘딱’은 ‘딱3’으로 칭한다.<sup>8)</sup>

명사구를 수식하는 ‘딱’은 초점부사로 해석되기도 한다.

7)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만’, ‘뿐’은 초점의 기능을 지니는 보조사이다. 초점 보조사와 호응하는 ‘딱’의 성격이 어느 정도 짐작되는 대목이다.

8) ‘딱’은 ‘直’의 의미를 지닌 ‘곧바로’와 통하는 면이 있다. 이것은 ‘直’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장”이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 (12) ㄱ. 딱 철수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가.  
 ㄴ. 내게 주어진 장소는 딱 이 자리뿐이었다.

초점부사는 후행하는 명사구를 수식함으로써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키고, 하나의 원소에 초점을 부여하는데, (12ㄱ)의 ‘철수’와 (12ㄴ)의 ‘이 자리’가 그러하다. 이때의 ‘딱’은 “다름 아닌”으로 해석된다. ‘딱’이 초점부사로 쓰일 수 있는 까닭은 정도부사의 특성 때문이다. ‘딱’은 정도성을 지닌 대상의 특정 지점, 시간, 수량을 ‘정확하게’ 짚음으로써 그 외의 다른 것들을 배제하고 선택된 요소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확성을 지향하는 정도부사에서 비롯된 부수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대안 집합의 여러 원소들 중에서 하나의 원소에 초점을 부여하는 초점부사와 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명사구-부사 ‘딱’은 초점부사로 원용될 수 있다. 초점부사 ‘딱’은 초점 보조사의 도움을 받아서 초점의 기능을 보다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 초점부사 ‘딱’은 ‘딱4’로 불러 둔다. 지금까지 언급된 ‘딱’의 용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4> 현대 한국어 ‘딱’

분류		의미		문법적 성격
상징부사	딱1-1	의성어	어떤 대상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딱 하고’ 형식 동사구-부사
	딱1-2	의태어	굳건하다고 믿거나 놀라움, 긍정적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양.	‘딱 하니’ 형식 동사-부사
비상징부사	딱2-1	정도	정확히.	동사-부사
	딱2-2	정도	정확히.	명사구-부사
	딱3	시간	일시에, 갑자기.	동사-부사
	딱4	초점	다름 아닌.	명사구-부사

상징부사를 맨 처음으로 둔 것은 통시적 해석을 고려한 결과이다. ‘딱’(<썩)의 발생 초기에는 의성·의태어 용법만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딱1-2’는 후행하는 서술어를 직접 수식함으로써 부사와 서술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므로, ‘딱1-2’는 일종의 관용 표현처럼 인식된다. ‘딱2’의 작용역은 화자의 심리와 정도성이 반영된 서술어에 국한된다. 그런데 ‘딱1-2’와 ‘딱2-1’은 모두 동사-부사라는 점에서, 그리고 ‘딱1-2’가 일부 정도성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이 둘은 혼동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딱1-2’와 ‘딱2-1’은 의태어 ‘떡’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된다. ‘떡’으로 대체가 되는 것은 ‘딱1-2’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딱2-1’이다. ‘딱’의 본령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딱2-2’는 명사구를 수식하는 정도부사라는 점에서 ‘딱2-1’보다 후순위로 설정하였다. ‘딱3’은 정도성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시간부사라는 점에서, ‘딱4’는 ‘딱’이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별개의 부사로 처리하였다.

### 3.2.2. 현대 한국어 이전의 ‘딱’

의태어 ‘딱’은 매우 생산적으로 쓰였으며, 오늘날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딱’이 등장한 것은 근대 한국어 시기이지만, 다양한 용법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였다. ‘딱’은 한편으로는 정도성 서술어를, 다른 한편으로는 명사구를 수식하게 됨으로써 그 수식의 범위가 한층 확장되었다.

#### <1> 19세기 전후의 ‘썩’

‘썩’(>딱)이 고전소설 및 판소리 텍스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면, ‘썩’의 발생 시기는 18세기와 19세기의 교체기로 생각된다. 당시의 ‘썩’은 대부분 의태어였다.

- (13) ㄱ. 심봉사 두 손을 썩 벌이고 이러서며 <심청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완판하:22a-22b>  
 ㄴ. 박통이 흥가운디 썩 버러지며 흥군 호령 썩 병학지남으로 흥것다 <박타령 71a>  
 ㄷ. 박씨 물어 와거덜낭 어서 급피 날을 다고 손싸닥을 썩 버리니 저 제비 거

동 보소 <박타령 48b>

- ㄹ. 이 주머니 싱긴 품이 무엇을 너려 흐면 주둥이를 썩 벌려서 山쟁이도 들어갈  
듯 너코 보면 썩 오무려 前과 도로 갖터진다 <박홍보가 신재효본 흥-36>
- ㄹ. 구름 갖튼 벌연 독교 좌우 청장 썩 벌이고 좌우편 부축 급창 물식 진한모  
수철육 빅주전티고를 느려 엇비시기 놀너 띠고 <열여춘향슈절가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완판 84장본 하:3b>

- (14) ㄱ. 광자와 승단의 날니 용즈 썩 붓치고 <춘향전 흥운표 소장 154장본 8a>
- ㄴ. 홍상작락을 거듬거듬 세류홍당의 썩 붓치고 <춘향가 장자백 창본 31b>
- ㄷ. 가로 약간 낙문 머리 기미 승토 엇게 흐야 이마의 썩 부치고 <박타령 66a>
- ㄹ. 닐산 밋딕 굴노 한 쌍 산슈털 번거지 남닐광단 안을 울여 날니 룡썩 썩 붓  
치고 <춘향가 백성환 창본 27a>
- ㄹ. 명월이가 드러을 오난디 나군자락을 거듬거듬 거더다가 세로 흥당의 썩 붓  
치고 아장아장 드러을 오더니 <열여춘향슈절가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완판 84장본 하:4a>

- (15) 주먹의 심을 주워 달여들며 이 썩 흐난 소리 지야썩이 울이인다 <춘향가(남창) 26a>

표기의 차이를 불문에 부친다면,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표현은 ‘썩 벌리-’, ‘썩 붓치-’이다. 이 두 가지 표현은 텍스트 종류나 계열을 불문하고 다수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러한 표현들이 보편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썩 벌리-’, ‘썩 붓치-’는 오늘날의 ‘딱 벌리-’, ‘딱 붙이-’로 계승된다는 점에서, 당시에 이러한 표현이 이미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썩’은 의성어가 아닌 의태어였는데, 모음조화에 의한 분화형 ‘씩’이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의성어 ‘씩’은 대체로 (15)처럼 처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태어·의성어 ‘썩’은 표면적으로 구별되는 상징부사였던 셈이다.

고전소설이나 판소리계 텍스트에는 ‘썩 벌리-’, ‘썩 붓치-’ 외에도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였다.

- (16) ㄱ. 의양니 밀층을 썩 열쓰리며 <계우사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499쪽>
- ㄴ. 누을 탁 츠즈고 눈을 썩 부릅썩소 <변강전 32b>
- ㄷ. 고지 뒤로 썩 지치고 비를 압푸로 썩 너밀고 <적벽가 30a>
- ㄹ. 나는 네 궁둥이여 썩 붓터서 네 허리를 잔썩썩고 <열여춘향슈절가 동경대학  
오구라문고 소장 완판 84장본 상:35a>

- ㄱ. 불기쌈을 싹 썰여노니 응의 흐던 이가 그쌈 기절하야구는 <박홍보전 임형택 소장본 6b>
- ㄴ. 미간이 광활흐디 가족으로 몸을 싹고 두 눈을 싹 감고 심청 불너 소리 흐되<심청전 국립중앙도서관 완판 하:2b>
- ㄷ. 눈물 현 적 읍시하고 즈즈는 썸으로 눈을 싹 붙읍써도 눈물니 덩수등굴게 싹싹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47b>
- ㄹ. 요리도리 양금양금 강장강장 사랑사랑 팔작 썸여 날여오다 즈리 압혀 싹마도쳐 즈리 코 만지며 아야 코야 <별도가 가람본 19a>
- ㅈ. 족금 올이시요 다앗쇼 족금 너리우시요 드앗쇼 싹 자바 글근 거시 손 족금 미끌어져 알아시웁 글거 노니 눈이 싹 불거져서 <변강전 33a>

‘쌈’의 수식을 받는 서술어만 하더라도 ‘열쓰리-’, ‘부릅쓰-’(2회), ‘너밀-’, ‘붓-’, ‘썰이-’, ‘감-’, ‘마도치-’, ‘잡-’ 등인데, 동작성 서술어가 대부분이고 몇몇 상태성 서술어도 존재하였다. ‘쌈’은 이러한 서술어들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장치였다. ‘쌈, 싹’은 별개의 의태어와 호응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상징부사로서의 성격이 보다 뚜렷하게 부각되었다. ‘탈 츠즈고 : 싹 부릅썸쇼’[(16ㄴ)], ‘싹 짓치고 : 싹 너밀고’[(16ㄷ)], ‘쌈 자바 : 싹 불거져서’[(16ㅈ)] 등이 그 예이다.

고전소설과 판소리 계열의 텍스트에서 등장하는 ‘쌈’은 모두 상징부사(동사-부사)로서,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다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정도부사 ‘쌈’은 확인하기 어렵다. 물론, (16)의 여러 서술어 중에서도 정도성과 관련된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쌈’을 전형적인 정도부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

## <2> 개화기의 ‘쌈’

개화기 이후를 기점으로, ‘쌈’의 수식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다. 이것은 ‘쌈’이 그 세력을 계속 확장하였음을 의미한다. 호응하는 동사의 숫자를 계속 늘려 간다는 것은 ‘쌈’의 작용역이 다른 범주로 확장될 전조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신자전」(1915)에 사용된 ‘쌈’의 예를 먼저 언급해 둔다.



- (17) ㄱ. 呀 [하] 입 ㅅ 벌일
- ㄴ. 𪛗 [거] 입 ㅅ 벌일
- ㄷ. 𪛗 [치] 입 ㅅ 벌일

세 한자의 훈은 모두 “입 ㅅ 벌일”인데, 이것은 앞서 「별주부전」에서도 한 번 등장한 표현이다[(13ㄱ)]. 이미 ‘입을 ㅅ 벌이고’와 같은 표현은 당시에 널리 일상화되었던 것이다. (17)의 한자가 15세기에 쓰였다면 그 훈은 “입 병으릴”이었을 것인데, 그 가능성을 「두시언해」에서 엿볼 수 있다.<sup>9)</sup>

- (18) 閨城入 南녀귀 입 병으렛는 듯고 巴江入 빅를 베며 썩찰도다(呀然閨城南 枕帶巴江腹) <두시언해 초간본 13:15b>

‘呀’는 “입 병으렛는”으로 번역되어 있다. 해당 언해와 협주인 “呀는 虛加反訶니 張口兇 | 라”를 종합하면, ‘呀’는 “입 벌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의미한다. 15세기에 “\*입 ㅅ 병으릴 [하]”처럼 쓰지 않았던 까닭은, 15세기 당시에는 ‘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가 개화기를 전후한 시기에 의태어 ‘ㅅ’이 등장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언어 표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신자전」에서 ‘呀’를 “입 벌일”로 하지 않고 “입 ㅅ 벌일”로 한 것은, 한자의 훈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이것은 의태어 ‘ㅅ’이 당시의 어휘 체계 속에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았음을 암시한다.

‘ㅅ’이 모든 문헌에서 고르게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 (19) ㄱ. 정부에 늙흔 관원들이 다 아라샤 황족 압해 ㅅ 꾸러안져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게 하며 <1987.06.05. 독립신문 3면>
- ㄴ. 진실 썩로 질근 목고 의리 호심 경암 가삼에 ㅅ 붓치고 복음 신 들메 치고 구원 투구 갖쳐 쓰고 <1903.08. 신학월보 3권 8호:340>
- ㄷ. 친밀헝세 친밀헝세 헝더니 참말 ㅅ 드러봣나 보데 (...중략...) 군민과 국조가 그러케 밀접헝면 필경은 ㅅ 드러봣는 속이니 더 두고 보세 <1909.11.18. 대한매일신보 2면>

9) (17)의 한자들이 「훈몽자회」, 「유합」, 「천자문」 등 한자 학습 자료에는 등장하지 않아 「두시언해」의 예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의 신문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씩’은 그다지 생산성이 없는 부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 필자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종의 신문에서 확인되는 ‘씩’의 용례는 (19)가 전부였다. 확인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문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씩’은 문어보다는 구어에서 선호되는 부사였고, 따라서 문어가 위주인 신문에서는 그다지 선호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동안 ‘씩’이 출현하였던 자료는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의 ‘씩’은 이전 시기의 한국어에서나 현대 한국어에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씩’은 신소설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었다. 확인되는 예가 상당수인 관계로, 편의상 「고목화」의 예만 제시한다.

- (20) ㄱ. 입을 **씩** 담을고 눈치만 보고 안져서 <고목화 상:6쪽>  
 ㄴ. 박부장이 스송선 **씩**지기로 갑동이 뒤통슈를 **씩** 썩리며 <고목화 상:35쪽>  
 ㄷ. 별안간의 오가가 **씩** 들어와서 방문 압홀 **씩** 막아섰고 <고목화 하:84쪽>  
 ㄹ. 뒤를 **씩** 바라서 가더니 기천가 뒤문 **씩** 압헤 가 **씩** 서며 <고목화 하:91쪽>  
 ㅁ. **씩** 일어서드니 마누라는 쓸너 줄 **씩** 걸을도 업시 울장가지를 **씩** 썩거 들고 방향도 몰고 **씩** 찻가다가 <고목화 상:34쪽>

‘씩’(‘씩’ 포함)은 ‘썩리-’, ‘막아셔-’, ‘셔-’, ‘썩-’을 수식하는데, 이것은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씩’의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문헌상의 한계로 인하여 이런 표현들이 이전 시기에 우연히 등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의태어 특성상 다양한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가정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 시기의 ‘씩’이 다수의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21) 가로막아 셔서 <구의산>, 갈라 **씩**친 <추월식>, (눈을) 감고 <두견성>, **씩**기 붓치고 <목단화>, 담을고(다물고) <고목화>, 덩거를 **씩**니 <쌍옥적>, (스침이틀) **씩**고 <월하가인>, 마쥬치니 <비행선>, (귀가) **씩**치게(막히게) <쌍옥적>, (가슴이) **씩**친다(막힌다) <두견성>, **씩**바져 잇고 <화의혈>, (입을) **씩**리고(별리고) <산천초목>, **씩**되고 셔며 <홍도화>, (눈을) **씩**으으며 <황금탑>, (싸귀를) **씩**치며 <황금탑>, **씩**드리지며 <화의혈>, (쌍을) **씩**치며 <추풍감수록> 등.

이 시기의 ‘짝’은 어지간한 서술어는 다 수식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압도적 빈도를 자랑하는 것은 이전 시기부터 관용적으로 쓰였던 ‘짝 벌이-’, ‘짝 붓치-’이다. 그 밖에 ‘(압해) 짝 셔-’, ‘짝 마쥬치-’, ‘(눈을) 짝 감-’ 등도 종종 쓰이는 표현이었다. 오늘날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는 ‘시치미를 딱 떼-’가 「월하가인」에서 ‘스침이를 짝 세고’라는 표현으로 등장하였음도 지적해 둔다. 이 시기의 ‘짝’ 역시 다양한 범주의 서술어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특정 용언이나 자질만 수식하는 부사로 처리하기 어렵다. (21)의 서술어는 대체로 인간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들이지만, 그것 외에 별도의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때의 ‘짝’은 의태어로서의 성격이 강력하였던 것이다.

의태어 ‘짝’은 의성어 ‘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다. 아래는 우리가 확보한 자료 중에서 ‘짝’이 의성어로 사용된 최초의 예이다.

(22) 짝짝 흐는 소리 나거늘 불노 비최니 두 늘그니 <후슈호던 19:85쪽>

「후슈호던」은 낙선재본 번역 소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 중 하나이다.<sup>10)</sup> 정확한 번역 시기를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후슈호던」의 번역 시기를 18세기로 소급한다면, 의성어 ‘짝’은 이미 18세기부터 쓰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시기의 자료에서는 의성어 ‘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의성어 ‘짝’은 대체로 첩어로 쓰였다.

(23) ㄱ. 흥보되이 아니 밋고 손뻑을 짝짝 치며 <박타령 15b>

ㄴ. 女人이 째짝 놀나 손바닥을 짝짝 치며 <변강전 29a>

‘짝’은 ‘손뻑’과 ‘손바닥’을 치는 의성어로서 연속된 소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의성어 ‘짝’은 두 번 연속된 ‘짝짝’으로 쓰였다. 아래에 몇몇 예를 더 든다.

10) 「후슈호던」은 중국 明末清初에 크게 유행되었던 가정·군담·의협 소설인 「後水滸傳」을 번역한 것이다. 「후슈호던」은 원전인 「後水滸傳」도 현재로서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는 점, 완산 이씨 『중국소설회모본』(1762)에 ‘後水滸誌’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낙선재본 번역 소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이상 박재연 1996:231~233 참조).

- (24) ㄱ. 쏜성 어미가 손바닥을 마조 싹싹 치며 디굴디굴 굴며 웃더니 <월하가인 25쪽>  
 ㄴ. 여기가 특등이오 변쇼는 더리 가오 헉며 손바닥을 두어 번 싹싹 쳐 쏘이를 불으더니 <산천초목 18쪽>  
 ㄷ. 별안간의 장악원이 룡좌기<sup>ᄒᆞ</sup>는 소리쳐로 쏹쏹 쭈루룩 솔솔 싹싹 별 소리가 다 나더니 <남원고사 파리 동양어학교 소장본 5:22a>  
 ㄹ. 요사이는 젓 잘 먹너 아-나..... 헉며 혀로 싹싹 소리를 내니 어린 으히는 싨타고 울고 <송뢰금 4쪽>  
 ㅁ. 글력이 아모리 강건<sup>ᄒᆞ</sup>기로 솜웃에 찬비를 마즈니 압니가 싹싹 맞치며 사지가 사시나무 썰니<sup>ᄒᆞ</sup>야 <고목화 상:50쪽>  
 ㅂ. 동희 바다로 들어오는 영동 바람은 흡흡 눅기게 치운디 우아릭 의복은 함 싹 젓고 턱이 싹싹 맞치어 촌보를 더 가지 못<sup>ᄒᆞ</sup>고 <쌍옥적 90쪽>  
 ㅅ. 갓득이나 주린 속에 오장에서부터 넉 썰너서 스지는 스시나무 모양으로 혼 들이고 우아릭 이가 싹싹 맞쳐서 참아 견딜 슈 업는 쭈 <추풍감수록 6쪽>

위의 예들은 현대 한국어로 치면, “이빨이 딱딱 마주치-, 턱이 딱딱 마주치-, 손바닥을 딱딱 치-, 혀로 딱딱 소리를 내-” 등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다.

그런데 의태어 ‘싹’이 첩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

- (25) ㄱ. 드러가 보고셔 엇지<sup>ᄒᆞ</sup>던지 헉겓다 헉더니 쭈문을 싹싹 닳아 곁고 마루 압헤 와 셔니 <구의산 상:40쪽>  
 ㄴ. 등을 밀어 너야 쫓고 대문을 싹싹 닳아 곁으니 이월이가 분<sup>ᄒᆞ</sup>고 절통<sup>ᄒᆞ</sup> 싨각을 헉면 달너드러 산월의 싹이라도 치고 육설이라도 헉겓지마는 <원양도 45쪽>

문맥상 위 예문 모두 “문을 딱 닫아걸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싹싹’은 의태어로 풀이된다. 이상의 내용을 감안하면, 의성어는 ‘싹싹’을 선호하고, 의태어는 대체로 단음절 ‘싹’을 선호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25)의 ‘싹’은 의태어이면서도 ‘싹싹’의 형식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다. 이것은 의성어 ‘싹싹’과 의태어 ‘싹’이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래의 예도 의성어와 의태어의 동일 어원설을 지지한다.

- (26) ㄱ. 무슨 싨각을 쭈ᄒᆞ더니 홀연 쭈억으로 방바닥을 싹 치며 허 너가 쭈속에 서 지<sup>ᄒᆞ</sup>는 모양이지 <목단화>

ㄴ. 나는 네 궁둥이여 서서 허리를 발짝 치고 사라가며 네 불기짱을 싹싹 치며  
이라 이라 흐거든 <춘향가 장자백 창본 21a>

(26ㄱ)의 ‘싹’은 “주먹으로 방바닥을 ‘딱’ 하고 치며”로 해석하면 의성어가 되고, “주먹으로 방바닥을 ‘과단성 있게’ 치며”로 해석하면 의태어가 된다. (26ㄴ)의 ‘싹싹’도 “네 불기짱을 ‘딱딱’ 소리가 나게 치며”(의성어)로 해석되거나, “네 불기짱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치며”(의태어)로 해석된다.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도 상징부사 ‘딱’을 이중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딱’의 뜻풀이는 “단단한 물건이 부러지거나 서로 부딪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인바, ‘딱’이 의성어로도, 의태어로도 쓰일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이 뜻풀이가 ‘딱’의 본질이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정보는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 정보만으로는 의성어와 의태어의 선후 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의성어·의태어 ‘싹’이 문중되는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문헌 자료에서도 의성어·의태어의 선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우리는 의성어에서 의태어가 비롯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자연계의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나타낸다고 할 때, 모양 모방보다는 소리 모방이 우선일 것으로 생각된다. 인지적으로 볼 때, 소리를 들을 때는 즉시 그것을 소리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모양을 보고 그것을 언어화할 때는 한 단계 더 사유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성(onomatopoeia)은 단어 형성, 특히 어근 창조(root creation)에 크게 작용하므로 의성설(onomatopoeic theory)은 언어의 기원에 대한 유력한 주장이 되기도 했던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조성식 외 1990: 831 참조). 요컨대, 의성어 ‘싹’과 의태어 ‘싹’이 거의 동시대에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둘 중에서는 의성어가 먼저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즉, 의태어는 의성어의 존재를 전제한다.

### <3> 1920년대 이후의 ‘딱’

‘싹’이 최초로 등장한 시기부터 20세기 초엽까지 ‘싹’의 주된 용법은 상징부사였지만, 1920년대를 전후하여 비상징부사 ‘싹’도 등장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이후의 ‘싹’은 상징부사로서의 용법과 그 외의 용법으로 양분된다.

먼저, 상징부사 ‘싹’의 예부터 보기로 한다.

- (27) ㄱ. 팔장을 **씩** 기고 매우 쾌심한 모양으로 곱무송을 쳐다보았다 <浮萍草 (五十四). 1920.06.10. 동아일보 4면>
- ㄴ. 車中에서 露西亞 사람을 하나 만나서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해야 보랴 하얏스나 다음 語句의 對答이 **씩** 막힐 뜻하여 怯내고 잇다가 <釋王寺에서 (一). 1920.06.12. 동아일보 1면>
- ㄷ. 한 번 보고 곳 그의 職業을 알겠소 통통하고 **씩** 바라진 몸을 和服에 壼싸 가지고 <滿洲 가는 길에 (二). 1920.06.24. 동아일보 1면>
- ㄹ. 그 壼해는 壼씬 어더마진 苦力 老爺 한 분이 입 **씩** 버리고 섯소 <滿洲 가는 길에 (四). 1920.06.26. 동아일보 1면>
- ㅁ. 리화학당(梨花學堂) 壼해는 녀학싱이나 나올싸 겁이 남인지 괴마 순사 한 명이 눈을 **씩** 건어부치고 서서 잇고 <朝鮮獨立運動의 一大史劇 萬人의 注目할 第一幕이 開하다. 1920.07.13. 동아일보 3면>
- ㅂ. 그리서 팔십오 원을 내노코 소곱비를 잡고자 한즉 그 농군은 **씩** 버티면서 “자아 인제 壼정이 떠러졌스니 한잔 먹여야지요 이것은 의례히 내는 전례요” <浮萍草 (八十). 1920.07.13. 동아일보 4면>
- ㅅ. “담배 한 개 주게” 하는 이가 잇거든 이륙혈를 내어 대이는 것이 가장 조흘 것이다 그 사람은 정녕 놀내어서 눈을 **씩** 감고 소리를 칠 것이다 <『담배 한 개 주게』 하는 이에게. 1920.07.27. 동아일보 3면>
- ㅇ. 그 壼해 큰 帑양목이 서잇스즉 거괴서 침에 올으던 편 쪽 문을 열고 눈을 **씩** 감고 썬어나려라 <浮萍草 (一零六). 1920.08.28. 동아일보 4면>
- ㅈ. 국향이 말을 하고 국향이 노리를 하다니 나는 꿈이나 안인가 하고 눈을 **씩** 떴다 <浮萍草 (一零九). 1920.08.31. 동아일보 4면>
- ㅊ. 경치 구경을 하다가 방으로 들어간즉 또 연미복 입은 ㅅ이가 들어와서 두 발꿈치를 **씩** 부치고 괴착자세를 하면서 <浮萍草 (一一零). 1920.09.01. 동아일보 4면>

위의 예문은 「동아일보」의 창간 1920년 4월 1일부터 1년 동안의 신문 자료에서, ‘씩’이 등장한 예 전부를 보인 것이다. 텍스트의 종류는 일반 보도 기사, 소설, 기행문 등으로 다양하다. (27)의 관련 부분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 순서대로 “팔장을 딱 기고”, “대답이 딱 막힐 듯하여”, “딱 바라진 몸”, “입 딱 벌리고”, “눈을 딱 건어부치고”, “딱 버티면서”, “눈을 딱 감고”(2회), “눈을 딱 떴다”, “두 발꿈치를 딱 붙이고” 등이 된다. 이러한 표현은 이전 시기는 물론, 그 당시에도 널리 쓰였던 것이다. 첩어인 ‘씩씩’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 (28) ㄱ. ‘쨌녕스’는 놀나서 입을 썉 버리고 ‘케네디’의 아프로 와서 동상을 지버 가  
려 하였다 <엘렌의 功: 一, 움켜진 주먹 (七). 1921.02.27. 동아일보 4면>  
ㄴ. ‘엘렌’ 양의 고모는 접대실에 안저 우리를 기다리다가 도적을 쫓아가서 죽  
을 변하든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입을 썉썉 버리고 놀났다 <엘렌의 功:  
四, 얼은 금고 (一). 1921.03.19. 동아일보 4면>  
ㄷ. ‘움켜진 주먹’이 갑자기 도려서서 ‘마이컬’의 멱둥이를 잡고 이가 썉썉 마조치  
도록 혼드러 논 뒤에 <엘렌의 功: 五, 독약 썬린 방 (二). 1921.03.29. 동아  
일보 4면>

(28ㄴ)의 ‘썉썉’은 의태어인데, 그것은 동일한 환경인 (28ㄱ)을 통해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시기에 의성어 ‘썉썉’이 나타난 예도 어렵지 않게 확  
인된다. (28ㄷ)은 위와 동일한 텍스트이지만, 여기에 나온 ‘썉썉’은 의성어이다. 이  
것은 첩어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시의 ‘썉’이 의성어와 의태어로서 확고한 위치를  
지녔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썉’이 상징부사 외의 용법으로 기능한 경우이다. 이것은 ‘썉’이 의태어  
로서의 성격을 탈피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29) 잘 사라도 제 팔조 못 살라도 제 팔조지 누구 탓 헐 것도 업슴이다 눈썹은  
썉 부엉이 갓흔 권가 다라논 게 저러케 원통훈가 <고목화 하:81쪽>

이 예는 몇 가지 면에서 기존의 ‘썉’과 구별된다. 먼저, 이 문장은 이전 시기의 자  
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던 “A는 썉 B 갓하-” 구문으로서 오늘날의 “A는 딱 B  
와 같-” 구문과 동형을 이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썉’이 표면적으로 체언 ‘부엉  
이’에 선행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썉’은 동사-부사로서 반드시 서술어 바로 앞에서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썉’이 동사구-  
부사로 기능하여, 표면적으로는 명사와 수식 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인다. 즉, (29)  
는 ‘썉’이 정도성을 지닌 서술어와 결합하여 상징부사로서의 용법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들었음을 암시한다. 이 두 가지 변화는 1920년대 이후부터 아래  
와 같이 보다 구체화된다.

첫째, ‘썉’이 정도성을 지닌 서술어와 결합하는 경우이다. 1920년대 이후부터는  
이러한 경우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썉’의 용법이 이전과는 제법 달라

졌음을 의미한다.

- (30) ㄱ. 그럼으로 될 수 있는 대로 구두는 발 견양을 내어 가지고 **짜** 맛도록 맞추어 신는 것이 제일입니다 <양화 신는 이들의 알어둘 뻗뻗 가지 주의 (下). 1927.12.22. 동아일보 3면>
- ㄴ. 一은 良藥이오, 二는 養生이니, 이 두 가지가 **땀** 들어맞어야 비로소 健康 回復의 光明이 번적인다. <一은 良藥 二는 養生. 1933.11.07. 동아일보 1면>
- ㄷ. 그는 “내 꿈은 대개 맞는다 내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땀** 맞는 때가 있다”<sup>11)</sup>고 꿈이 맞은 때의 예를 들어가면서 여간 열심이 아니었다. <春日 隨想: 計算된 꿈 (三). 1936.03.26. 동아일보 7면>
- (31) ㄱ. 보시는 바와 갓치 아직 집이 이리케 좁은데 식골서 **짜**답 몰고 넘우 만히 와서 **짜** 질색입니다 <門牌의 來歷談 (七): 타고난 팔자지만 세상도 야속해요. 1926.01.08. 동아일보 5면>
- ㄴ. 자네가 들어가 가지고 오게, 난 어려서부터 송장허구는 **땀** 질색이야. <烽火 (五). 1933.09.01. 동아일보 3면>
- (32) ㄱ. 米價는 그냥 잇고 豐年만 들었스면 **짜** 조켓는데 <豐年恐慌과 農民의 覺醒 (一). 1930.11.05. 동아일보 4면>
- ㄴ. 저야말로 남을 위해 살았서요. 인제는 싫어요, **땀** 싫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은 …… <赤道 (118). 1934.05.12. 동아일보 3면>

위의 예는 ‘짜’이 정도성을 지닌 ‘질색이-’, ‘맞-’, ‘들어맞-’, ‘좋-’, ‘싫-’ 등을 수식한 예이다. 이러한 ‘짜’이 의태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이 의태어라면 ‘짜’으로도 쓰여서 이러한 서술어를 수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짜 질색이-”와 같은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정한 환경에서 상징부사 ‘짜’이 의태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고, 별도의 용법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때의 ‘짜’은 정도부사(“정확히”)에 해당한다.

‘땀’이 달성동사를 수식하면서 시간부사로 해석되는 경우도 등장한다. 이 역시 ‘땀’의 의태성 약화에 해당한다.

- (33) ㄱ. 느저서 아홉 時나 지나 집에 도라와 본즉, 뒤房에서 丈母의 한참 지절대던

---

11) 편의상 원본에는 찍히지 않은 단는 따옴표를 추가하였다.



소리가 짹 끈치며 한 손에 남포를 들고 마중 나오는 사람이 있다. <『小』의 暗影 (廿四). 1922.01.26. 동아일보 1면>

- ㄴ. 이 기쁨! 이 감격! 그러나 그 뒤에 온 것은 싸느란 현실이었다. 그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 커다란 난관(難關) 앞에서 딱 멈처지고 말았든 것이다. <地軸을 돌리는 사람들 (四二). 1933.09.22. 동아일보 6면>
- ㄷ. “왕우이”가 손을 들어 가리키려고 하는 찰나에 “쨌스·뻬드”의 음향이 일시에 딱 그쳐 버렸다. <薔薇의 寢室 (162). 1957.11.09. 경향신문 4면>

‘딱’은 ‘끈치-’, ‘멈처지-’, ‘그치-’를 수식하는데, 해당 서술어는 모두 의미적으로 단계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서술어를 수식하는 ‘딱’은 시간부사로서 “일시에, 갑자기”로 해석된다. (33ㄷ)은 ‘일시에#딱’(‘#’은 단어 경계임)이 쓰여, 시간 의미가 중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의 ‘딱’은 “갑자기”로서 ‘일시에’는 ‘딱’을 한층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딱’이 시간부사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한다.

둘째, ‘썩’이 표면적으로 체언에 선행하는 경우이다.

- (34) ㄱ. 해마다 계절이 되면 지상으로 여러 번 말씀을 했고 주의 사항을 알게 했지 마는 딱 일을 당하고 보면 당황해지고 냉정을 일혀서 비극을 이르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에서 얼른 알 수 있는 이질과 역리의 증세. 1937.08.07. 동아일보 3면>
- ㄴ. 춤추든 남자와 그대로 나라니 교의로 오든 자경은 거기 성낸 곱과 같이 씨 근거리고 앉엇는 상만과 딱 눈이 마조치자 자경은 태연히 고개를 돌려 “어 때요 오로라도 이만하면 오락장으로는 권찬쵸?” <密林 (239), 1937.11.11. 동아일보 3면>
- ㄷ. 하물며 邑客인 讀者도 勿論 村人士와 同感인듯 淸소 定價表에는 딱 金額이 붙이엇것만 審査한 바에 依하면 五錢 乃至 十錢 差別이 잇다니 <交換室, 1938.08.18. 동아일보 6면>
- ㄹ. 멀리 南方에 渭河를 隔하여 隴海線을 西進하는 貨物列車같은 것이 잇엇는데 爆音을 듣자 딱 進行을 멈췄다 <崩壞一路의 赤都 西安大空襲記, 1939.01.20. 동아일보 1면>

본래 여기에 등장한 ‘썩’은 동사-부사였다. 예컨대, “딱 눈이 마조치자”[(34ㄴ)]는 “눈이 딱 마조치자”로 쓰였던 것인데, 이것도 ‘썩’의 ‘의태성 약화’로 해석된다. ‘썩’

은 후행하는 서술어와의 결속력이 약화되면서 일반 부사처럼 위치를 달리할 수 있게 변화된 것이다.

(34)의 ‘딱’(<짝)은 동사구-부사로 변화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딱’의 작용역은 체언이 아니라 동사(구)였다. 그렇지만 ‘동사-부사 > 동사구-부사’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딱’이 체언을 수식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35) ㄱ. 미리부터 예고는 받아 알었으나 딱<sup>12)</sup> 첫날 지면을 대할 때 귀사가 얼마나 애를 쓰었는가 뚜렷이 보임에는 실로 감사하고 경탄할 뿐이외다. <새 철자법 사용은 조선말 통일을 촉진한다. 1933.04.05. 동아일보 2면>
- ㄴ. 보통 사람 같으면 ‘너히 고을 소산은 무엇이나 돈은 얼마나 있느냐? 쌀은 몇 천 석이나 있느냐 녹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미주알고주알 다 캐여 묻는 것이 사람의 상정인데 정시는 딱 한 마디 잘 왔느냐 소리를 한 뒤에는 입을 봉해 버렸다. <洪景來 (127). 1949.03.06. 동아일보 2면>
- ㄷ. 그리다가 이번 保聯에 加入하라는 新聞 發表를 보고 感動되어 딱 한 번 清算을 表明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속았다: 轉向者座談會 (上). 1949.11.02. 동아일보 2면>

‘딱’은 정도성을 수식하는 부사로 변화하는 동시에 체언에 선행하는 부사로도 변화하였는데, 이는 ‘딱’이 정도성 명사를 수식하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35 ㄱ)은 ‘딱’이 ‘첫날’을 수식하는 예인데, 1930년대를 전후하여도 이 예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구성을 찾기 어렵다.<sup>13)</sup> 사실상 최초의 예라고 생각되는 (35 ㄱ)조차도 ‘첫날’이라는 명사 형식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당시만 하더라도 수량 표현이 전형적인 정도부사로서 인정받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것은 ‘딱+수량 표현’의 전형적 구성이 보다 후대에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35 ㄴ, ㄷ)은

12) 표기는 ‘짝’이 아니고 ‘딱’이다. 동아일보는 1933년 4월 1일부터 조선어학회의 신철자법(윤곽만 드러난)에 따라 신문을 발간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우리 동아일보는 4월 초하루날부터 지면을 十三단계로 하는 동시에 새로 만든 신철자법에 의한 활자를 쓰게 되었다. 조선어 철자는 조선어의 권위자 다수로 조직된 조선어학회에서 방금 철자안을 작성하는 중임으로 아직 완전한 통일안이 되었다 할 수는 없으나 그 체계는 첫음으로 본사에서는 종래의 혼란한 상태로부터 통일을 급히 함이 급무인 줄 알고 이에 신철자법으로 신문을 만들게 된 것이다.” <새 철자법 사용은 조선말 통일을 촉진한다. 1933.04.05. 동아일보 2면>

13) 현대 한국어의 맞춤법에 의하면 ‘첫날’은 한 단어이지만, 본래 구성은 ‘첫+날’로 된 것이기 때문에 수량 관련 표현으로 처리하였다.

‘딱+수량 표현’의 전형적인 구성이라고 할 만하다. 1930년대부터 1949년 사이에 별다른 ‘딱+수량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딱’이 수량 표현을 수식하는 정도부사로 쓰인 시기는 오늘날에 가까운 시기였을 것이다.

1930~1940년대에는 ‘딱’이 명사구를 직접 수식한 예를 찾기 어렵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러한 예가 종종 확인된다.

(36) ㄱ. 문득 영수는 꿈 생각을 했다. 정말 기분이 내키지 않는 꿈이었다. 왜 자기는 딱 그런 꿈만 꾸는 것일까. 짜증이 날 그런 꿈이었다. <노래하는 시계 (3). 1958.05.24. 경향신문 4면>

ㄴ. “갑자기 일이 생겨서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오. 二, 三일 후에 집으로 가겠소. 안심하오.” 딱 이것뿐이었다. <季節의 風俗圖 (209). 1959.06.04. 동아일보 4면>

(37) ㄱ. 어떤 사람이 집이나 터를 잡히고 돈을 빌릴 때 딱 얼마를 빌릴 테니 얼마로 이 집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 民法 解説 (11). 1960.01.13. 동아일보 3면>

ㄴ. 그날 저녁 아무 때까지 치러야 할 殘金이 다 準備되었으나 딱 얼마가 不足하여 契約金만 損害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蕩子여 돌아오라: 隨感 「眞과 僞」 (其二). 1961.04.14. 경향신문 4면>

(36)의 ‘딱’은 ‘그런 꿈’, ‘이것’을 수식하고 있다. ‘딱’은 ‘그런 꿈’과 ‘이것’을 포괄하는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키므로, 이때의 ‘딱’은 초점부사(“다름 아닌”)로 이해된다. (37)은 미지칭을 나타내는 ‘얼마’가 ‘딱’의 작용역이다. 특별히 정해진 금액이 없으므로, 이때의 ‘딱’은 정도성을 드러내는 체언을 수식하는 정도부사(“정확히”)이다.

<표-15> ‘딱’의 역사적 변화

분류		의미		19세기	20세기	21세기	문법적 분류
상징 부사	딱 1-1	의성어	어떤 대상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	○	○	○	동사구-부사
	딱 1-2	의태어	굳건하다고 믿거나 놀라움, 긍정적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양.	○	○	○	동사-부사
비 상징 부사	딱 2-1	정도	정확히.	×	○	○	동사-부사
	딱 2-2	정도	정확히.	×	○	○	명사구-부사
	딱3	시간	일시에, 갑자기.	×	○	○	동사-부사
	딱4	초점	다름 아닌.	×	○	○	명사구-부사

### 3.2.3. 현대 한국어의 ‘딱히’

‘딱히’의 사전 뜻풀이는 소략한 편이므로, 편의상 모든 의미와 용례를 아래에 제시하도록 한다.

(38) ㄱ. 『표준국어대사전』: 정확하게 꼭 집어서.

▶ 딱히 갈 곳도 없다./딱히 뭐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싫은 느낌은 아니었다.

ㄴ.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똑똑하게 뚜렷이, 분명히.

▶ 글썸, 시간은 딱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금방 일어섰으니까요./딱히 이것이다 하고 꼬집어낼 수는 없어도

뭘랄까, 뭉클 솟구치는 열기가 있었다./내용이 딱히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태여 희극적이라고만도 말하기 어려웠다.

ㄷ. 『고려대 한국어사전』: 분명하게 꼭 집어서.

ㄹ. 딱히 할 일이 없다./이곳에는 딱히 보고 싶은 데가 없다.

사전에 제시된 예들은 모두 ‘딱히’가 통사적으로 부정문과 호응한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딱히’를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부사로 처리하기는 어렵다(후술됨). 일단 여기에서는 부정문과 호응하는 ‘딱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딱히’가 갖는 이러한 통사적 특징은 결과적으로 ‘딱히’의 의미를 제한하게 되었다. 기원적으로 ‘딱히’는 부정문이라는 특정한 통사 구조 안에서 기능하는 부사였기 때문에, 별개의 여러 의미를 획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38)에 제시된 ‘딱히’의 뜻풀이는 크게 초점부사와 정도부사로 분류된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라는 뜻풀이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상기시키는 표현으로서 초점부사와 관련된다.

- (39) ㄱ. 그렇게 딱히 잘 한다고 할 게 없어. <일상대화\_취미, 형태소 분석 전자파일>
- ㄴ. 응원가 공모까지 했는데, 딱히 이거다 싶은 게 없었죠. <조선일보 2002년 기사: 문화>
- ㄷ. 2분기 실적 발표 이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2002년 기사: 경제>
- ㄹ. 이건 전통이기 때문에 딱히 답할 만한 것이 없다. <고려대학교 교양 국어작문(국어국문학과), 전자파일,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ㄱ. 위급한 상황에서 딱히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사람들은 먼저 119 구조대를 찾는다. <좋은생각 1999년 12월호>
- ㄷ. 나에게 자전거를 빌려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었지만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에게만 무엇을 준다는 것은 딱히 마음 내키는 일이 아니었다. <배낭여행,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딱히’는 명사구를 수식하여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킨다. 예컨대, (39ㄱ)에서는 화자의 여러 취미나 특기가, (39ㄴ)에서는 ‘응원가1, 응원가2, 응원가3, ...’ 등이 대안 집합의 원소로서 상정된다. 그렇지만 실제로 환기된 원소들 중에서 무엇이 초

점을 받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39c)에서 ‘딱히’의 수식을 받는 ‘떠오르는 모멘텀’에는 ‘X분기 실적, 지난달 실적, 5월의 실적, ...’ 등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상정된다. 미리 언급된 ‘2분기 실적 발표’는 문맥에 의하여 선택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처럼 문맥에 의한 초점을 제외하면, 초점부사 ‘딱히’에 의하여 선택된 원소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이것은 (39)의 나머지 예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초점부사 ‘딱히’가 명사구를 직접 수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도 존재한다.

(40) 내용이 딱히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구태여 희극적이라고만도 말하기 어려웠다. [= (38c)]

위의 ‘딱히’는 명사구 ‘내용’을 수식하지도 않을뿐더러, 그에 후행하는 작용역이 문면에 분명하게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39)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40)의 ‘딱히’는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부사로 인정된다. ‘딱히’에 선행하는 ‘내용’은 대안 집합의 범주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한 다양한 원소들이 ‘딱히’에 의하여 환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비극·희극과 관련되는 여러 내용”인데, 이 문장은 부정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초점을 받은 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부정문이라는 통사적 특징이, 초점을 받을 명사구(‘딱히’의 작용역)가 문면에 직접 등장하는 것을 저지한 셈이다.

이 점은 초점부사 ‘하필, 하필이면’을 생각나게 한다.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하필, 하필이면’에 의해 선택된 초점은 화자가 가장 선호하지 않았던 원소였다. 선호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부여하는 것이 ‘하필, 하필이면’이라면, 대안 집합이 있다는 것까지는 떠올려 주면서도 결국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게 하는 것이 ‘딱히’이다. 따라서 초점부사 ‘딱히’는 “다름 아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딱히’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꼭 집어서”라는 의미와 관련되므로, “특별히”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초점부사 ‘딱히’(“특별히”)는 반드시 명사구에 선행해야 한다는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 (41) ㄱ. 그렇게 잘 한다고 할 게 딱히 없어.  
 ㄴ. 응원가 공모까지 했는데, 이거다 싶은 게 딱히 없었죠.  
 ㄷ. 2분기 실적 발표 이외에는 떠오르는 모멘텀이 딱히 없었기 때문이다.  
 ㄹ. 이걸 전통이기 때문에 답할 만한 것이 딱히 없다.  
 ㅁ.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딱히 없는 사람들은 먼저 119 구조대를 찾는다.  
 ㅂ. 이 많은 아이들 앞에서 그 아이에게만 무엇을 준다는 것은 마음 내키는 일이 딱히 아니었다.

(41)은 (39)의 ‘딱히’의 위치를 명사구 뒤로 어순재배치한 결과이지만, ‘딱히’는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초점부사 “특별히”로 해석된다. ‘딱히’가 초점부사 “특히”로 해석되는 경우도 확인된다.

- (42) ㄱ. 딱히 원수라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허태식 전무이다. <서울 1984 (135). 1984.06.09. 경향신문 6면>  
 ㄴ. 한 번 잘못 뽑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칫 막심한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유권자로서는 후보의 성향과 행적을 소상히 아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딱히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의사당의 前科 알고 싶다. 1999.12.25. 동아일보 5면>

(42)의 ‘딱히’는 초점을 받은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특별히”로 해석하기 어렵다. (42)에서 ‘딱히’의 수식을 받은 것은 명사구로서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상정되고 그 중에서 하나의 원소가 선택되는바, (42ㄱ)에서는 ‘원수로 지목할 사람’이, (42ㄴ)에서는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선택된 원소이다. “특별히”는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키는 데에 머무르지만, “특히”는 환기된 원소들 중 초점을 받은 원소가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특출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부사이다. 이는 ‘딱히’가 부정문이 아닌 환경에서 실현된 의미이지만, 그렇다고 부정문이 아닌 환경의 ‘딱히’가 모두 “특히”로 해석되지는 않는다(후술됨).

별개의 사전 뜻풀이인 “똑똑하게 뚜렷이, 분명히”는 정도부사와 관련된다.

- (43) ㄱ. 글썄, 시간은 딱히 몇 시인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금방 일어섰으니까요. [= (38ㄴ)]
- ㄴ. 인쇄물을 뿌리고 갔다는 소화 유신 연맹 총본부라는 단체나 명고옥 대판 광도의 테러 집단이 어떤 성격의 무리들인지, 이런 일부 일본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딱히 알 수 없다. <동아일보, 칼럼(90)>
- ㄷ. 그 구석에는 딱히 정체를 알 수 없는 큼직한 목조(木鳥)가 있다. <유재현의 역사 문화기행: 메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 ㄹ. 다시 차를 몰아 사원 몇 군데를 다녔지만 사원에서만 크메르 분위기가 역력할 뿐 일상에서는 생김새가 다른 것을 빼고는 딱히 구분하기 어렵다. <유재현의 역사 문화기행: 메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43ㄱ)은 ‘딱히’가 명사구를 수식하는 예이고, 그 외의 예들은 모두 ‘딱히’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예이다. 그렇지만 (43)은 모두 ‘딱히’가 정도성을 지닌 성분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초점부사 “특별히”와 의미적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딱히’는 정도부사로 “정확히”로 해석된다.

‘딱히’는 양태부사의 용법도 지닌다.

- (44) ‘보안상’이란 이유로 청와대 전체의 전화를 쓰게 돼 있는 사람만 쓰는 것은 이른바 ‘보통 사람’의 집무 시대에 어긋나는 게 아닐까? 딱히 꼭 필요한 특수 부서 외엔 어엿하게 기재해 알게 하라. <국민기자석: 청와대·국방부 전화번호부에 기재했으면. 1988.08.31. 한겨레 4면>

위 예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권위주의에서 탈피하여 청와대나 국방부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때의 ‘딱히’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부사 “반드시, 정말로”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딱히’가 양태부사로 기능한 예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딱히’는 부정문과 호응하여 초점부사나 정도부사로 쓰이는바, 그것이 ‘딱히’의 전형적 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 ‘딱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6> 현대 한국어 ‘딱히’

분류	의미		문법적 성격
딱히1	초점	특별히, 특히.	명사구-부사
딱히2	정도	정확히.	명사구-부사 동사구-부사
딱히3	양태	반드시, 정말로.	화자의 태도를 반영

### 3.2.4. 현대 한국어 이전의 ‘딱히’

‘딱히’의 직접적 소급형은 ‘썩히’, ‘썩이’로서, 이것이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17세기 중반 이후이다. 이 ‘썩히’, ‘썩이’는 초점부사라는 점, 부정문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세기를 전후하여 ‘싹히’(<썩히/썩이>)에 몇몇 변화가 감지된다. 이전 시기에서 적극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양태부사나 정도부사의 용법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21세기 초엽에는 부정문이 아닌 환경에서 등장한 ‘딱히’(<싹히>)도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딱히’의 통사적 특성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아래에서는 이런 점을 중심으로 하여 ‘딱히’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20세기 이전의 ‘썩히’, ‘싹히’

현대어 ‘딱히’의 어원으로 생각되는 최초의 어형은 17~18세기 인간 자료에 나오는 ‘썩히’, ‘썩이’이다. 이 ‘썩히’, ‘썩이’의 의미나 용법은 오늘날과 거의 동일하였다(이하 ‘썩히’로 통일함).

(45) ㄱ. 어마님의 반찬도 썩히 업고 즈로 시당히여 하시나 아프것도 뇨기히실 거시

업스니 <은진송씨 동충당 송준길가 언간-03>

ㄴ. 요스이 반찬이 썩히 업서 노치너 진지도 ㄱ이업고 <은진송씨 동충당 송준길가 언간-41>

위의 두 예는 아랫사람인 화자가 집안의 어른에게 음식을 잘 대접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썩히’는 “마땅한 음식이 없음”을 표현하는바, 초점부사 “특별히”로 풀이된다.<sup>14)</sup> 물론 ‘썩히’의 수식을 받을 만한 명사구가 표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는데,<sup>15)</sup> 이는 부정문과 호응한다는 ‘썩히’의 통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썩히’는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킬 수는 있으나, 부정문과 호응하면서 선택된 원소가 무엇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초점부사 ‘썩히’의 작용역이어야 할 명사구가 문면에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다[(40) 참조]. 오늘날의 ‘딱히’가 주로 부정문에서 쓰이는 것은, 어떠한 변화의 결과가 아니라 그 기원이 부정문을 요구하는 부사였기 때문이다. ‘썩히’가 부정문과 호응하였던 예는 21세기 초엽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썩히’는 18~19세기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다가,<sup>16)</sup> 20세기 초 신소설에 이르러 ‘썩이’라는 어형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46) (정) 아 그러면 이혼을 혼단 말씀이오닛가

(상) 썩이 그런 것이 아니야 아즉 친정에 가서 잇스면 그 사이 어머니 마음을 아모쪼록 회심하시게 주선하잔 말이야 <안의성 89-90쪽>

14) (45)의 ‘썩히’에서 ‘썩히-’의 의미를 간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점부사 ‘썩히’를 “사정이나 처지가 애처롭고 가엾다”의 ‘썩히-’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썩히-’와 ‘썩히’는 표기의 유사성 정도만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썩히-’는 15세기 이후의 연해 자료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지만,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의 언간에서 주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ㄱ. 담비장은 보내나 다른 반찬도 못 혀 보내니 썩히다. 눈은 쪼끔 낫다 즉일 모 <신창맹씨가 「자손보전」 소재 언간-30>

ㄴ. 집안히셔도 반찬 살 의스를 못 혀니 도석이면 썩하고 절박히 ㄱ이업다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9-105>

ㄷ. 우리도 계유이시나 당마과 농가 일의 하 썩히고 절박히니 아므라타 업스며 뉴의 더욱 굵굵히 거시 찰이 ㄱ이업다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9-027>

ㄹ. 우리는 계유 이시나 제는 다드라 겨신디 아모것도 어이 엇 못혀 당을 보와도 살 것 업고 굵굵하기 ㄱ이업고 가지가지 민망히 보리타작은 막 혀니 열 섬이 대되 못 혀니 하 썩히니 ㄱ이ㄱ이업서 호노라 <은진송씨 제월당 송규렴가 「선찰」 소재 언간-9-031>

15) ‘썩히’에 선행하는 ‘반찬’은 대안 집합의 부류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16) 아마도 자료상의 한계일 것이다.

약간의 표기 차이가 있지만, 부정문에서 양태부사로 기능하였다는 점에서 위의 ‘씩이’도 오늘날의 ‘딱히’와 큰 차이가 없다. 이때의 ‘씩이’는 명사구를 수식한 초점부사처럼 보이지만, 이는 양태부사 “정말로”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문맥상 실제로 ‘이혼’을 하자는 것이 아닐뿐더러, 대안 집합의 원소들도 쉽게 연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 ‘씩이’는 양태부사 ‘꼭’(>꼭)으로도 해석된다.<sup>17)</sup> 이것은 ‘씩이’가 ‘꼭’이나 ‘씩’과 같은 상징성 부사와 관련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딱히’(<씩이)는 부정문이 아닌 환경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는데, 이때는 ‘딱히’의 본래적 의미라기보다는 ‘꼭’이나 ‘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꼭’이나 ‘딱’은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모두 쓰이는 부사라는 점이 참고된다.

## <2> 20세기 이후의 ‘딱히’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사이에는 ‘씩히’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이 역시 문헌의 한계로 풀이된다. 1940년대 중반부터는 ‘딱히, 딱이’(이하 ‘딱히’로 통일함)라는 표기가 주를 이루었다.

- (47) ㄱ. 建國 以後의 文化面을 回顧해 보아도 別로 感銘깊게 생각되는 것이 없읍니다 딱이 建國 以後라고는 할 수 없으나 조선어학회 지은 「조선말큰사전」의 發刊이 文化的으로는 가장 意義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感銘깊든 일. 1949.08.15. 경향신문 4면>
- ㄴ. 三八線 分斷으로 因해서 歸國한 以後로 가 壼지 못한 채 돌아가셨다는 先考와 生死를 딱히는 모르되 돌아가셨을 것으로 推測되는 어머님 <樂冬之辯 1954.12.05. 경향신문 4면>
- ㄷ. 그런 것 같기도 했으나 그렇다고 딱이 말할 수도 없는 심정이었다. <荊冠 (151). 1956.03.25. 동아일보 4면>
- (48) ㄱ. 이 사람은 세상일을 죄다 어렵게만 생각하는 모양일세 그려? 뭐 매독에야 六〇六호면 그만 아닌가? 또 림질은 아직 딱히 낫는 약이 없으니까 맥물을 데워서 시쳐 내준다 한들 약이 조타 나뿌단 말은 없는 법이거든 ..... 하하 ..... <寂滅 (10). 1937.06.13. 동아일보 4면>

17) ‘꼭’과 ‘씩’은 모두 상징부사에서 기원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씩’에는 양태부사로서의 용법이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씩’과 다르다. (46)의 ‘씩이’는 ‘딱’이 아닌 ‘꼭’으로 해석해야 자연스럽다.

ㄴ. 季節 가운데서도 어느 것이 좋다고 딱히 골라잡고 내세울 수가 없다. <푸른 빛. 1949.06.18. 경향신문 2면>

(47)은 ‘딱히’가 정도부사(“정확히”)로 쓰인 예이고, (48)은 ‘딱히’가 초점부사(“특별히”)로 쓰인 예이다. 정도부사 ‘딱히’가 20세기 이후에 확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도부사 ‘딱히’가 이 시기부터 등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헌의 한계와 보수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20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정도부사 ‘딱히’가 등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정도부사의 예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47)의 예들은 모두 부정 표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1950년대 이후의 자료를 보면, ‘딱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정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딱히’가 부정문이나 부정적 표현과 호응하여 사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외의 환경에서 쓰이는 것이다. 이것은 ‘딱히’의 외연이 점차 확대·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먼저, ‘딱히’가 부정 서술어 ‘없-, 아니-, 못하-’와 호응한 경우이다.

- (49) ㄱ. 가령 분실계를 내는 사람들이 모두 善意의 사람이라면 모르되 고의로 이것을 낸 경우에도 딱히 무어라 할 對策이 없는 것이다. <『保手』 흔들리는 公信用. 1970.12.26. 동아일보 6면>
- ㄴ. “그중 한 방은 쓰시고 나머지 한 방은 글방으로 하시고 또 남은 방은 그 아이들이 기숙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도 좀 생각해볼 틈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딱히 가실만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임궫정傳 (111). 1984.01.11. 동아일보 11면>
- ㄷ. 이들에게는 딱히 취미랄 게 없는 경우도 많고 화제거리가 궁해 여럿이 모여서도 재미없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30대 會社人間 (26): 技術職—“昇進 한계로 不滿 커요” 1985.06.25. 동아일보 11면>
- ㄴ. 딱히 밝혀 말할 수는 없으나, 해주가 최종구에게 상애를 정식으로 추천한 뒤부터다. <窓을 南으로 (166). 1968.03.28. 동아일보 2면>
- ㄹ. 어떤 것이 꼭 맞는 말이라고 딱히 잘라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京鄉살롱. 1972.02.21. 경향신문 6면>
- ㄷ. 나주에서 두 소문의 뿌리를 캐느라고 애썼습니다마는 딱히는 알 수 없고, 견훤 쪽에서 퍼뜨린 듯합니다. <王建 (211). 1981.09.16. 동아일보 9면>

- ㅅ. 2천만 선에서 3천만 선으로 넘어간 것이 언제였는지 딱히 그 날짜와 시간을 그은 線은 없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과는 사뭇 다른 생각을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4천만의 人口. 1983.07.28. 동아일보 2면>
- ㅇ. 물론 정례가 어머니의 장수를 딱히 믿은 것은 아니었다. <焦土 (165). 1978.02.01. 경향신문 5면>

이 ‘딱히’의 의미는 이전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딱히’는 (49ㄱ~ㄷ)에서 초점부사(“특별히”)로, (49ㄹ~ㅅ)에서 정도부사(“정확히”)로,<sup>18)</sup> (49ㅇ)에서 양태부사(“정말로”)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는 현대 한국어 ‘딱히’의 전형적 용례라 부를 만하다.

다음으로, ‘딱히’가 부정 서술어가 아닌 환경에서 나타난 경우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어휘적 부정문, 내용상 부정적인 문장, 의문문, 긍정문 등이다. 그런데 의문문, 긍정문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부정문이라는 환경에서 크게 벗어나는 예라고 하기 어렵다.

#### <2-1> 부정문 계열에서 쓰인 ‘딱히’

어휘적 부정문에 ‘딱히’가 등장한 경우인데, 이는 ‘딱히’가 부정문에서 쓰인 경우와 흡사하다.

- (50) ㄱ. 그러기에 교주가 달려드는 것에 과히 놀라지는 않았으나 워낙 무슨 영문인지를 딱히 모르는 터라 답답하여 부르르 떨었다. <鷄龜山 (246). 1964.09.01. 경향신문 3면>
- ㄴ. 딱히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근처란다. 아차산성(阿且山城)이라고 있었는데 이 성에서 신라하구 고구려가 크게 붙었다 <王建 (36). 1981.02.21. 동아일보 9면>
- ㄷ. 법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전문가들도 딱히 어느 쪽이 옳다고 판정을 내리기도 힘들고 기껏 ‘良識에 따라 도의적으로 잘 해결되기 바란다’는 태평스러운 의견만을 내세우고 있다. <餘滴. 1979.02.14. 경향신문 2면>

18) (49ㄱ)의 ‘딱히’는 ‘딱’으로 대치가 되어도 해석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때의 ‘딱’은 의태어가 아니라 정도부사 “정확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위 예문에는 ‘없-’나 ‘아니-, 못하-’ 등과 같은 부정 서술어들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서술어 의미상 부정의 의미와 관련이 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50ㄱ, ㄴ)의 ‘모르-’, (50ㄷ)의 ‘힘들-’가 그 서술어들이다. (50)의 ‘딱히’는 모두 정도부사(“정확히”)이다.

어휘적 부정어가 직접 선택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그것에 준하는 것도 있다.

- (51) ㄱ. 딱히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얘기할 데가 적은 청소년들에게 崔씨는 부모가 되고 형이 된다. <앞서가는 사람들 (5). 1986.01.16. 경향신문 7면>  
 ㄴ. “머릿속이 일단 물들고 나면 고것이 피보다 더 진하다니깐 그 지경이야” 민홍은 딱히 대꾸할 말이 궁해져 책갈피로 눈길을 물었다. <쥐잡기. 1991.01.01. 경향신문 26면>

이 ‘딱히’는 초점부사(“특별히”)이다. (51ㄱ)의 ‘적-’은 “많지 않다”라는 의미 때문에, (51ㄴ)의 ‘궁해져-’는 “풍족하지 않다” 또는 “풍족하지 못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부정과 관련된다.

부정문 형식이 아니지만 문장 구조상 부정문으로 해석되는 곳에서 ‘딱히’가 쓰이기도 한다.

- (52) ㄱ. 그러나 두 쑤씨의 ‘공안 통치’ 배경 주장은 딱히 盧 대통령을 겨냥했다기보다 이른바 공안 세력을 주축으로 한 親衛 그룹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公安 통치와 물갈이論. 1991.04.06. 동아일보 5면>  
 ㄴ. 재야 운동은 딱히 어떤 직업적 활동가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지식인, 종교인, 박해받는 정치인의 혼성부대였다. <‘새시대 광장’과 야권 통합. 1994.04.14. 한겨레 3면>  
 ㄷ. 그것은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사회를 보는 이론을 갖지 못하는 상황”을 지칭하며 “딱히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현상을 뜻한다기보다는 지식과 삶이 겹도는 현상”이다. <‘겹도는 말 헛도는 삶’ 이대로 좋은가. 1994.06.08. 한겨레 9면>

이것은 모두 “딱히 NP<sub>1</sub>이라기보다는 NP<sub>2</sub>”라는 양보 구문이다. 이런 양보 구문에서는 ‘NP<sub>1</sub>’이 부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부정문과 같은 효과를 갖는 것이다. 이

러한 양보 형식의 ‘딱히’ 구문은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생성된 듯하다.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고른 것에 해당하므로, 이 역시 초점부사(“특별히”)의 범주에 들 만하다.

#### <2-2> 긍정문에서 쓰인 ‘딱히’

‘딱히’는 긍정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두 가지 경우로 분류된다. ‘딱히’가 평서문과 의문문에서 쓰이는 경우가 그것인바, 전자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53) ㄱ. 이러건 저러건 한국문인협회와 국제펜클럽 한국 본부의 회장단 선거일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해소하기 딱히 좋은 축제의 자리다. <文人들 선거일을 기다리며. 1983.01.10. 동아일보 6면>
- ㄴ. 딱히 원수라고 지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허태식 전무이다. <서울 1984 (135). 1984.06.09. 경향신문 6면> [= (42ㄱ)]
- ㄷ. 한 번 잘못 뽑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고 자칫 막심한 피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유권자로서는 후보의 성향과 행적을 소상히 아는 것은 유권자의 당연한 ‘알 권리’라고 할 것이다. 딱히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후보로 나서지 않으면 그만 아닌가. <의사당의 前科 알고 싶다. 1999.12.25. 동아일보 5면> [= (42ㄴ)]

(53ㄱ)의 ‘딱히’는 ‘좋-’을 작용역으로 삼는 정도부사이다. 이러한 ‘딱히’는 ‘딱’과 대체해도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오늘날에는 (53ㄱ)과 같은 예가 잘 수용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만큼 ‘딱히’는 부정문과 호응하는 것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53ㄴ, ㄷ)은 ‘딱히’가 조건절에 쓰인 예로서, 초점부사 “특히”로 해석되는 예이다.

‘딱히’가 긍정문에 쓰였다고 하여, 긍정문의 ‘딱히’가 모두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긍정문이라고 하더라도 ‘딱히’가 드러내는 의미 영역에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의미는 서로 대치될 수 없다. 요컨대, (53ㄱ)의 ‘딱히’는 “특히”로 해석하기 어렵고, (53ㄴ, ㄷ)의 ‘딱히’는 “딱”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딱히’는 부정적 표현의 도움 없이도 의문문에서 쓰일 수 있다.

- (54) ㄱ. “제가 어찌 얼굴을 들고 밖으로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못들면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애긴가?” “제가 살아날 길은 자문(自刎)하는 일뿐이겠지요” <野丁 (543). 1992.09.19. 동아일보 17면>
- ㄴ. “너희 아버지는 요즘 근력이 어떠시냐?” “제가 미처 아버지님 안부 말씀두 전해 올리지 못했구먼요. 전에는 더러 봄두 타시는 것 같더니만 올해는 신관이 편하신지 진지두 잘 잡숫구 봄 타는 기색도 없으십니다.” “네 아버지가 올해 딱히 신관 편한 까닭이 무어냐?” <면동 (197). 1988.04.21. 동아일보 8면>
- ㄷ. “폐거리들의 수효가 딱히 몇이라 합디까?” “황망 중에 본 터라 다섯인지 여섯인지 소간묘맥을 찾을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野丁 (236). 1991.11.01. 동아일보 12면>
- ㄹ. “합자는 딱히 무엇인가?” “시생은 다만 김유사로만 불러 주십시오. 시생을 백지에매한 위언(僞言)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요귀(妖鬼)로만 아는 부류들이 없지 않아 본색을 밝히기가 주저되니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野丁 (489). 1992.07.22. 동아일보 13면>
- ㄴ. “... 어떻게 소식 들었어요?” “고려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들었는데, 걱정스럽게 전해 주더군요” “딱히 위중하다구요?” “예” <梨花에 月白하고 (465): 奇皇后傳. 1976.10.05. 경향신문 4면>
- ㄷ. 상품권요? 안 그래도 과소비 과소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딱히 필요가 있을까요? <상품권 고액권 위주 발행 부작용 우려 높다. 1994.04.07. 동아일보 10면>
- ㄹ. 하룻밤에 쌀 한 가마가 결코 쌀 값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밤들을 딱히 그렇게 값을 매겨 셈해야만 하는가. 장전택은 몸을 팔고 한 영섭 씨는 그 몸을 샀다는 얘기가 된다. <비바람 속으로 떠나가다 (63). 1981.05.15. 경향신문 10면>

(54ㄱ, ㄴ)의 ‘딱히’는 각각 “특별히”, “특히”의 의미를 지닌 초점부사이고, (54ㄷ, ㄹ)의 ‘딱히’는 “정확히”의 의미를 지닌 정도부사이다. (54ㄴ~ㄹ)의 ‘딱히’는 양태부사인데, (54ㄴ, ㄷ)은 “정말로”로, (54ㄹ)은 “꼭”으로 해석된다.<sup>19)</sup>

아래의 문장들은 전형적인 의문문이 아니지만, 모두 기저에 의문문을 내포문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별로 다르지 않다.

19) (54)의 대다수가 소설이라는 점이 특이하다. 즉, 문학 작품과 신문에서 쓰이는 ‘딱히’의 통사적 특징이 달랐다는 것인데, 이것도 문체의 차이로 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 (55) ㄱ. 내가 까닭을 밝혀 드리면 꾸지람은 없으실 게요. 딱히 내가 마음이 쓰이는 것은 부인의 뜻이 어떠한가 하는 게요 <면동 (386). 1988.11.26. 동아일보 9면>
- ㄴ. 하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딱히 ‘국가기밀’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野黨으로서는 되도록 정보위원의 숫자가 많아야만 안기부가 ‘국가기밀’ 뒤로 숨으려고 할 때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회정보위 구성 난항 예고. 1993.12.09. 동아일보 8면>
- ㄷ. 눈으로 봐서 기생층 알이 있는 소채인지 아닌지 분별도 어렵거니와 딱히 청정 소채라고 믿을 만하냐는 가짜에 오래 속아 온 일반의 업자에 대한 불신이 여기에 큰 작용을 한다. <淸淨 소채 우리 食卓에 오르려면. 1969.04.17. 동아일보 6면>
- ㄹ. 백만과는 진작부터 말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신씨집 대문간에서 추태를 보였고 딱히 그럴 처지면 무슨 놈의 말라비틀어진 학교인가 싶었다. 딸에게 걸었던 기대가 한순간에 맥없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그녀는 사시나무 떨 듯 속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客傭 (113). 1972.06.23. 동아일보 4면>

(55ㄱ, ㄴ)의 ‘딱히’는 초점부사 “특히”로, (55ㄷ, ㄹ)은 각각 양태부사 “반드시”, “정말로”로 해석된다. 이처럼 오늘날로 오면서 ‘딱히’는 다양한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여전히 ‘딱히’가 부정 표현과 잘 호응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예는 앞으로 ‘딱히’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잘 보여 준다.

### <3> 요약

‘딱히’는 17세기 중반부터 인간 자료를 중심으로 드물게나마 등장하였다. 당시의 ‘쪽히’는 부정문에서 쓰이는 초점부사(“특별히”)였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딱히’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자료상의 한계로 인하여 18~19세기에는 ‘쪽히’(>씩히)의 예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20세기 초반의 신소설에서 양태부사 ‘씩이’의 예가 확인된다. 초점부사와 양태부사로서의 ‘씩이’(>딱히)는 이미 당시에 활발하게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0세기 초반의 자료에서는 ‘딱히’가 정도부사(“정확히”)로 사용된 예도 확인된다. 문헌의 보수성을 감안하면, 이미 20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딱히’의 세 가지 용법(초점부사, 정도부사, 양태부사)이 모두 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딱히’는 20세기 초반까지 거의 대부분 부정문과 호응하였으나, 20세기 중반부터는 ‘딱히’의 사용 환경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딱히’(<쌩이)는 ‘없-, 아니-, 못하-’ 등의 순수 부정 서술어만 요구하던 부사였다. 그렇지만 20세기 중반부터 어휘적이거나 내용상 부정적인 문장에서도 쓰이게 되었고, 심지어 의문문이나 긍정문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의 ‘딱히’가 점차 부정문이 아닌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임을 암시한다.

<표-17> ‘딱히’의 역사적 변화

분류	의미		19세기	20세기	21세기	문법적 분류
딱히1	초점	특별히, 특히.	○	○	○	명사구-부사
딱히2	정도	정확히.	×	○	○	명사구-부사 동사구-부사
딱히3	양태	반드시, 정말로.	×	○	○	화자의 태도를 반영

## 4. 평가성 부사류

‘하필’(何必)<sup>1)</sup>에 의하여 초점을 받는 원소는 다른 원소들에 비하여 선호도가 ‘매우’ 떨어지므로,<sup>2)</sup> ‘하필’의 수식을 받은 체언에는 화자의 “못마땅함”, “탐탁지 않음” 등의 부정적 가치가 드러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필’이나 ‘하필이면’은 평가 양태 (evaluative modality)를 드러내는 ‘평가성 부사’로 칭할 수 있다.<sup>3)</sup> 그런데, 평가 양태부사와 평가성 부사는 유사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도 존재한다.<sup>4)</sup>

- (1) ㄱ. 다행히 비가 내렸다.  
    ㄴ. 다행히 철수가 도와주었다.
- (2) ㄱ. 하필 비가 내렸다.  
    ㄴ. 하필 철수가 도와주었다.

‘다행히’는 평가 양태부사로서, 명제 전체 혹은 명제 내의 특정 성분에 초점을 부여한다. (1ㄱ)의 ‘다행히’는 명제 전체에만 초점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지만, (1ㄴ)의 ‘다행히’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sup>5)</sup> 이것은 평가성 부사인 ‘하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다행히’와 ‘하필’은 명제 전체를 초점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대안 집합이 쉽게 환기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1ㄱ)의 ‘다행히’에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환기되기 어렵지만, (2ㄱ)의 ‘하필’에는 다양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환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6)</sup> 평가 양태부사 ‘다행히’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환기되지 않거나 환기가

---

1) 현대 한국어에서 ‘하필’과 ‘하필이면’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하필’을 통하여 이 두 가지 어형을 아우르고자 한다. 물론, 단독형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하필’이나 ‘하필이면’으로 나타낼 것이다.

2) 이러한 연유로 최규련(2005)에서는 ‘하필’을 제외 초점사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3) 평가 양태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emotive modality’(감정 양태, 혹은 정감 양태)로 불리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평가 양태를 양태의 범주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명제에 대한 화자의 감정·평가를 양태로 인정하는 입장에는 이선웅(2001), 임채훈(2009), 박진호(2011), 김건희(2016), 김병건(2016), 강영리·서취아·박진호(2018) 등이 있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는 임동훈(2003), 임동훈(2008), 박재연(2006) 등이 있다.

4) 이러한 차이점은 ‘하필’, ‘하필이면’이 초점부사라는 사실과 관련된다.

5) “철수가 도와준 사실이 다행스럽다”의 의미라면 명제 전체에 초점이 부여된 것이고, “다행히 {철수가, 영수가, 그 사람이, 짝궁이, ...} 도와주었다”처럼 후행하는 명사구에 대안 집합의 원소를 환기시키는 경우라면 명제 내의 주어(명사구)에 초점이 부여된 것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반면, 평가성 부사 ‘하필’은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필’, ‘하필이면’은 특정한 통사 구조의 도움 없이 부사 자체만으로 초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시성 부사와 다르고,<sup>7)</sup> 언제나 부정적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성 부사와도 다르다.<sup>8)</sup>

‘하필’이 오늘날과 같은 뜻을 갖게 된 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였는데, 20세기 이후부터는 ‘하필이면’도 문헌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필이면’은 기원적으로 ‘하필’에 계사와 연결어미 ‘-면’이 결합된 것이지만, 이를 단순한 활용이나 파생으로 다루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다. 오늘날의 ‘하필’과 ‘하필이면’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쓰이고 있지만, ‘하필이면’이 처음 등장할 당시에는 ‘하필’과 ‘하필이면’에 의미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현대 한국어 ‘하필’과 ‘하필이면’의 용법을 함께 고찰하고, 그 이전 시기의 ‘하필’에 대해 논의한 뒤, ‘하필이면’의 문체를 살펴보기로 한다.

---

6) 날씨가 화창하거나, 눈이 오거나, 구름이 끼는 상황은 모두 감내할 수 있었지만, 비가 오는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었다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난다. 이때 ‘날씨가 화창함, 눈이 옴, 구름이 낀’ 등은 모두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라 할 만하다.

7) ‘하필’, ‘하필이면’은 비전형적 환언문의 도움 없이도 초점을 나타낸다.

8)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타의 양태부사와 차이가 있다.

## 4.1. 현대 한국어의 ‘하필’

### <1> 현대 한국어 사전의 뜻풀이

현대 한국어 사전에서는 ‘하필’만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고 ‘하필이면’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하필’과 ‘하필이면’이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하필이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사전에서 언급된 ‘하필’의 뜻풀이를 살펴보고, 이후에 ‘하필’과 ‘하필이면’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하필’의 사전 뜻풀이는 소략한 편이다.

#### (3) ‘하필’에 대한 사전 뜻풀이

##### ㄱ. 『표준국어대사전』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꼭.

㉮ 하필 오늘같이 더운 날 대청소를 할 게 뭐야./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제가 가야 합니까?/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서서 편싸움을 벌인 이 사건이 하필 자기의 관할 안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게 그는 유쾌하지가 않았다. <<한승원, 해일>>

##### ㄴ. 『연세 현대한국어사전』

[못마땅해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물음의 문장에서 흔히 써서] (다르게 하거나 다르게 되지 않고) 어찌 꼭 그렇게.

㉮ 최종철이 왜 하필 자기에게 그렇게 심하게 굴었는지를 수진은 아직도 알 수 없었다./하필이면 이런 판에 정전이 될 게 뭐야.

##### ㄷ. 『고려대 한국어사전』

달리하거나 달리 되지 않고 어찌하여 꼭. 되어 가는 일이나 결정된 일이 못마땅하여 돌이켜 묻거나 꼭 그래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캐물을 때 쓰인다.

㉮ 왜 하필 나야?/나는 왜 하필 그날 결석을 했을까?

현대 한국어 사전에 기술된 ‘하필’의 뜻풀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언급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하필’의 상호주관적 의미이며, 둘째는 ‘하필’과 ‘하필이면’의 관계이고, 셋째는 뜻풀이 자체의 적합성이다. 이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하필’의 상호주관적 의미이다. ‘하필’은 한자어 ‘何必’에서 온 것인 만큼, 개별 한자의 의미가 해당 부사의 의미에 잘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어찌(하여)”, “꼭”과 같은 의미는 각각 ‘何’와 ‘必’의 의미인데,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런데 사전에는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표준국어대사전』), “못마땅해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물음의 문장에서 흔히 써서”(『연세 현대한국어사전』), “되어 가는 일이나 결정된 일이 못마땅하여 돌이켜 묻거나 꼭 그래야 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캐물을 때 쓰인다”(『고려대 한국어사전』)처럼 한자어에서 간취되지 않는 의미가 등장한다.<sup>9)</sup> 이러한 의미는 청자가 고려되고 청자로부터 특정한 행동이나 의식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상호주관적으로 해석된다.<sup>10)</sup> 따라서 ‘하필’의 의미 기술은, 그 본유적·어휘 내적 의미와 거기에 추가된 상호주관적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으로, ‘하필’과 ‘하필이면’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다.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이 두 부사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이고 있다.<sup>11)</sup> 그렇지만 그것은 ‘하필’과 ‘하필이면’이 유의어라는 사실만 알려줄 뿐, 아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 (4) ㄱ. ‘하필이면’이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면 활용형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ㄴ. ‘하필이면’이 하나의 단어라면 다수의 사전은 왜 그것을 등재하지 않았는가?
- (5) ㄱ. ‘하필이면’이 활용형이라면 형태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ㄴ. ‘하필이면’이 단어라면 형태 분석은 어떻게 되는가?

(4)는 사전의 의미 기술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활용형을 표제어로 등재하지는 않는다. 『고려대 한국어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에서는 ‘하필이면’이 등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사전에서는 이를 활용형으로 인정을 하는가? 이는 곧 (5ㄱ)으로 연결된다. (5ㄱ)은 ‘하필이면’의 형태적 특성과 관

---

9) 현대 한국어 사전에는 이러한 의미들이 기술이 되었느냐는 여부로도 분류될 수가 있다. 이러한 의미는 상호주관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은 사전의 뜻풀이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매우 타당한 것이다. 다만, 이상의 질문에 대한 것들은 사전학이나 어휘론, 의미론 등에서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므로,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10) 물론, ‘하필’이 혼잣말이나 화자의 생각만으로 쓰일 수도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경우이다.

11) ‘하필’의 예문으로서 ‘하필이면’을 제시한다거나(『연세 현대한국어사전』), ‘하필’의 참고어로서 ‘하필이면’을 제시한 것(『고려대 한국어사전』)이 그러하다.

련되어 있다. ‘하필이면’이 활용형이라면 그것은 계사가 통합한 ‘하필이-’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고작이-’, ‘제법이-’ 등을 떠올리면, ‘부사+계사’의 구성은 충분히 가능한 구성이지만, ‘하필이-’는 현대 한국어에서 공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구성이므로 ‘하필이면’은 ‘하필이-’의 활용형일 수 없다. 그러나 ‘이면’이라는 보조사를 상정하지 않는 한, ‘하필이면’이 기원적으로 계사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원적으로 계사의 활용형이던 ‘하필이-’가 왜 ‘-면’이라는 연결어미와 통합하여 하나의 굳어진 단어처럼 쓰이게 되었냐는 것이다. 이것이 (5ㄴ)과 관련된 문제이다.

기원적으로 계사의 활용형이라고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도 이를 활용형으로 분석해야 하는가? 혹은, 현대 한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면 해당 단어의 형태적 구성은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러한 의문들은 조금 뒤에 이어질 역사적 자료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풀릴 것이다. 우선은 현대 한국어 공시적으로는 ‘하필이면’이 활용형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 따라서 이를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등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sup>12)</sup>

끝으로, ‘하필’의 뜻풀이가 지니는 적합성에 대한 문제이다. ‘하필’은 본래적·어휘내적 의미와 상호주관적 의미를 고려해야만 합리적으로 해석된다. 사전 뜻풀이에는 본래적 의미인 “어찌하고 꼭”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나, 이 뜻풀이가 만족스럽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뜻풀이는 의문문만을 고려한 결과인데, ‘하필’은 의문문은 물론 다른 문장종결법과도 얼마든지 호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6ㄱ)].

사전의 상호주관적 의미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상호주관성의 대상이 되는 ‘주인공’에 대한 문제이다. 편의상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상호주관적 의미를 제시한다.

- (6) ㄱ. 형이 찾아간 곳은 하필 돌이네 집이었다.  
 ㄴ. 하필 가는 곳이 돌이네 집이니?

12) 현대 한국어 ‘기왕이면, 가뜩이나, 걸핏하면’도 모두 부사로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을 지니게 된다. 뒤에서 설명하게 되겠지만, 엄밀한 기준에서 ‘기왕이면, 가뜩이나, 걸핏하면’ 등의 부사들은 동위의 것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면’이나 ‘-나’와 같은 특정한 연결어미가 통합한 요소들이 접미사적인 성격을 띠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하필이면’은 “하필하면”, “하필이나”와 같은 활용형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 세 부류의 부사와 성격이 같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라는 의미를 기준으로 삼으면, (6)에서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한’ 인물은 각각 문장의 주체인 ‘형’[(6ㄱ)]과 ‘너’[(6ㄴ)]가 된다. 반면, 『연세 현대한국어사전』의 “못마땅해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물음의 문장에서 흔히 써서”를 취하면, (6)에서 ‘못마땅해 하거나 섭섭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어느 경우이건 화자인 ‘내’가 된다. 결국, 사전에서 나타내는 상호주관적 의미의 ‘주인공’은 주체나 화자 중 어느 한쪽만이 선택되는 셈이다.

문장의 주체와 화자 중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는 ‘하필’의 상호주관적 의미를 옹기 기술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호주관적 의미가 합리적으로 기술되려면 주체와 화자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필’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으로 이어진다.

- (7) ㄱ. 주체는 선택 가능한 원소들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나, 그 원소는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하필’을 쓴다.
- ㄴ. 화자가 느낀 부정적 가치는 “못마땅함”, “탐탁지 않음” 등이다.
- ㄷ. ‘하필’과 관련되는 말이 주체의 동작과 관련될 때는 주체가 “굳이” 그 동작을 감행하려 한다고 화자는 믿고 있다.
- ㄹ. ‘하필’과 관련되는 말이 주체의 상태와 관련될 때는 주체가 “공교롭게도” 그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화자는 믿고 있다.
- ㅁ. 화자는 주체(=청자)의 그 동작이나 상황이 주체에 의해 수정되기를 바란다.

(7)을 사전 뜻풀이 형식에 가깝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8) ㄱ.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주체가 선택하지 아니하고 굳이.
- ㄴ.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주체에 의해 선택되지 않고 공교롭게도.

현대 한국어 ‘하필’은 대체로 둘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주체가 동작성과 관련되면 “굳이”로, 주체가 상태성과 관련되면 “공교롭게도”로 해석된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어떤 말이 쓰이는 전제이거나 상황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의 뜻풀이에 ‘화자’나 ‘주체’라는 표현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다소 지나친 처사이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를 제외하고 ‘하필’의 의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9) 하필(초점부사): (기대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굳이. 또는 (기대한 것이 선택되지 않고) 공교롭게도.

## <2> 현대 한국어 ‘하필’의 의미 특성

‘하필’은 후행하는 명사구에 초점을 부여하는 명사구-부사인데, 대체로 초점을 받은 명사구의 대안 집합이 문면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초점부사에도 이런 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sup>13)</sup> 이것은 유독 ‘하필’에서 두드러진다.

- (10) ㄱ. 댄 곡식도 많은데 왜 하필 통보리인가요? <한국일보 96-02 과학>  
ㄴ. 그러나 번쩍거리는 높은 계급장을 단 장교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를 지목했을까 싶어 설마하면서도 대답은 하려고 하였다. <소설 창작 강의>  
ㄷ. 아직 이른 아침, 자리도 많은데 하필이면 내 자리를 뺏은 ‘굴러온 돌’에게 향의의 눈빛을 보낸 뒤 그 앞자리에 앉았다. <여의주/ 젊은 그대, 어휘 의미 분석 전자과일>

(10ㄱ)에서 ‘하필’에 의하여 초점을 받은 것은 ‘통보리’인데, 선행절에 이미 ‘댄 곡식’이라는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대안 집합의 다른 원소들이 이미 선행절에 제시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초점을 받은 대상이 화자가 기대한 원소가 아니라는 점이 ‘하필’의 중요한 특징이다. ‘하필이면’이 쓰인 (10ㄴ, ㄷ)도 위와 동일하게 풀이된다.

기대된 원소가 아니라는 사실은 화자가 달갑지 않게 여기는 원소라는 뜻인데, 그것은 ‘하필’의 유무에 의해 금방 확인된다.

- (11) ㄱ. 댄 곡식도 많은데 왜 하필 통보리인가요? [= (10ㄱ)]  
ㄱ'. 댄 곡식도 많은데 왜 통보리인가요?  
ㄴ. 장교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이면 자기를 지목했다. [(10ㄴ)에 대한 수정]  
ㄴ'. 장교가 수많은 사람 중에서 자기를 지목했다.

13) 예컨대, “철수가 들른 곳은 다른 도시도 아닌 바로 마산이었다”처럼 쓰이는 초점부사가 있지만, ‘하필’에 비할 바는 아니다.

(11ㄱ)은 많은 곡식들 가운데 ‘통보리’가 선택된 데에 대한 화자의 심정이 잘 드러난 표현이다. 화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곡식을 원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는 ‘통보리’만큼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즉, (11ㄱ)의 ‘통보리’는 여러 곡식 가운데 화자가 가장 탐탁지 않다고 생각한 선택지이다. 반면, ‘하필’이 생략된 (11ㄱ’)에서는 그러한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하필이면’과 관련된 (11ㄴ, ㄴ’)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필’에 대한 대안 집합이 극도로 제한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12) ㄱ.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도 많이 찾아오는데 왜 하필 검은 나비에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 <두부>

ㄴ. 세탁소도 있고 문방구도 있고 구멍가게도 있는데 하필이면 왕대포집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사 가던 날>

(12)에서 ‘하필’의 초점을 받은 것은 각각 ‘검은 나비’와 ‘왕대포집’이다. (12ㄱ)은 ‘노랑나비, 흰나비, 호랑나비’라는 3개의 원소만이, (12ㄴ)은 ‘세탁소, 문방구, 구멍가게’라는 3개의 원소만이 선택지로서 제시되었다. 이들은 본래 ‘수많은 나비’나 ‘여러 종류의 자영업소’ 등으로 표현될 만한 것들인데, 그중에서도 매우 한정적이고 특정한 것들만이 대안 집합의 원소로 등장한 것이다. (12)의 화자는 ‘수많은 나비’나 ‘여러 자영업소’ 중에서 자신이 생각한 범위 내의 선택지들을 제시하였지만, 실제로 ‘하필’의 초점을 받은 것은, 화자의 기대와 다른 것이었다. 이처럼 대안 집합이 제한된 구문에서 ‘하필’이 쓰일 경우, 화자의 공교로움이나 아쉬움이 더욱 극적으로 드러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하필’이 유발하는 대안 집합은 문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

(13) ㄱ. 왜 하필이면 강원도로 가? <주제대화\_연애에피소드, 형태소 분석 전자파일>

ㄴ. 그러다가 하필 아기 원숭이들이 놀고 있는 나무 밑으로 왔습니다. <(민거나 말거나) 동물 이야기>

ㄷ. 병역 비리를 없애려는 정부의 자세가 잘못이 아니라 하필이면 선거를 두 달 앞둔 지금이냐는 점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월간중앙 2월호>

(13)에는 대안 집합이 문장 내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대안 집합의 원소는 대부분 문맥에서 직·간접적으로 등장하므로<sup>14)</sup> ‘하필’의 대안 집합을 짐작하 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13ㄱ)의 대안 집합은 ‘한국의 시·도 단위 행정 구역’이 된다.

이렇게 ‘하필’의 초점 성분으로 선택된 요소는 언제나 화자에 의해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지 못하고, 화자는 그것에 대하여 의아스러움이나 아쉬움을 드러낸다.

(14) ㄱ. 빗속에 달리는 지름길은 1996년 발행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아스팔트 신 작로, 그런데 가로수는 하필 중국 단풍이다. <참여로 여는 생태공동체: 어느 근본주의자의 환경 녀두리>

ㄴ. 왜 하필이면 강원도로 가? [= (13ㄱ)]

(14ㄱ)은 상태성이 부각되는 문장으로서 “공교롭게도”로 해석되고, (14ㄴ)은 동작 성이 부각되는 문장으로서 “굳이”로 해석된다. (14)의 화자는 내적으로 그러한 상황이나 행위가 배제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하필’을 사용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모든 수종”이 가로수가 될 수 있고[(14ㄱ)], “한국의 모든 시·도 단위 행정 구역”이 출장의 대상 지역일 수 있다[(14ㄴ)]. 그런데 화자의 대안 집합에서 ‘가로수’로서의 ‘중국 단풍’이나 ‘출장 지역’으로서의 ‘강원도’는 가장 선호도가 떨어지는 원소이다. 즉, ‘하필’의 수식을 받은 원소는 화자가 바라지 않은 대상으로서 결과적으로는 화자가 못마땅하거나 공교롭다고 생각하는 대상이다.

이처럼 ‘하필’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평가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는 문맥이나 통사 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므로, ‘하필’은 문맥에 얽매이지 않는 부사에 속한다.<sup>15)</sup> ‘하필’은 그 어휘 내적 의미가 매우 강력한 부사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된 다른 종류의 부사들과는 차별화된다.

14) 선택 가능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은 의미적으로 동위에 있다. 따라서 전체 문맥을 고려하면 생략된 대안 집합이 무엇인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15) 김원경(2013: 39~46)은 이러한 종류의 체언 수식 부사를 양태성 체언 수식 부사로 처리하고 있다. 양태성 체언 수식 부사는 문맥에 자유로운 부사로서, ‘겨우, 고작, 다만, 천생, 무려’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문맥에 의존적인 정도성 체언 수식 부사로서, ‘거의, 근, 바로, 아주, 가장’ 등이 대표적이다.

### <3> 요약

현대 한국어에서 ‘하필’과 ‘하필이면’은 별다른 의미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부사이다. 그럼에도 사전에 ‘하필’은 등재가 되어 있으나, ‘하필이면’은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하필이면’이 활용형으로 해석되기도 어려우므로, ‘하필이면’은 ‘하필’의 유의어로서 사전에 등재될 필요가 있다. ‘하필’은 초점부사이지만, 화자가 초점을 받은 원소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가 양태와 관련된다.

## 4.2. 현대 한국어 이전의 ‘하필’

오늘날의 ‘하필’은 중세 한국어 한문의 ‘何必’과 관련된 단어이다. 중세 한국어의 ‘何必’은 통사적 구성으로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하필’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다. 하나의 단어로서 ‘하필’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근대 한국어 시기부터였다. 이때부터 ‘하필’이 한문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 의미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한편,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하필이면’이 등장하게 된다. 형태면에서 ‘하필이면’은 ‘하필’에 ‘이면’이 덧붙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의 ‘이면’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설명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20세기 초·중반의 ‘하필’은 여러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하필이면’은 그중에서 현재 한국어 ‘하필’의 의미를 선택하였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하필이면’은 ‘하필’과의 형태·의미면에서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 <1> 중세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하필’

원래 ‘하필’은 한자와 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단어로 기능하고 단독의 의미를 지니는 말로 인식된다. 그렇지만 중세 한국어 ‘何必’은 오늘날의 ‘하필’과 달랐다.

- (15) ㄱ. 엇데 구퇴여 호오사 後五百歲를 니르뇨(何必獨言後五百歲오) <금강경언해 상:76a>  
    ㄴ. 位 제 늦가온 디 이실 썩니언덩 엇데 구퇴여 諦를 觀호는 무리 혼골으티 다 小를 일우리오(位自居卑언덩 何必觀諦之流 | 一概同其成小 | 리오) <선종영가집언해 하:62b>  
    ㄷ. 엇데 구퇴여 밀 들어와 무르리오(何必走馬來爲問) <두시언해 초간본 3:53b-54a>
- (16) ㄱ. 엇디 받드시 고터 作호리오(何必改作이리오) <논어언해 3:6b>  
    ㄴ. 엇디 받드시 利를 니르시느니잇고(何必曰利잇고) <맹자언해 1:2a>

(15)는 15세기 중세 한국어의 ‘何必’에 대한 언해로서, 크게 ‘何’ 부분과 ‘必’ 부분으로 양분되어 있다. (16)은 16세기 중세 한국어의 ‘何必’에 대한 언해인데, ‘엇데’

가 ‘엇디’로 변화하고, ‘구티여’가 ‘반드시’로 변화한 점이 눈에 띈다.<sup>16)</sup> ‘엇테’와 ‘엇디’는 형태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구티여’와 ‘반드시’도 의미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들 언해는 각각의 한자에 대한 충실한 직역이라 할 만하다. 이 ‘何’는 한문에서나 언해문에서 전형적으로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로서, 적어도 15세기 중세 한국어에서 ‘何必’은 의문문으로만 언해되는 것이 당연하였다. ‘何必’의 ‘何’와 ‘必’이 각각 직역되었다는 사실은, ‘何必’이 아직까지는 하나의 단어 혹은 하나의 단위로 쓰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당시의 ‘何’는 의문문을 만드는 요소로서 인식되었으며, ‘必’은 특정한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17)</sup>

중세 한국어에서 ‘何必’을 하나의 단어 혹은 한 단위로 인식하지 않았던 까닭은 ‘何’의 언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한국어 ‘何’는 주로 의문사로 언해되었으나, ‘何’가 특정한 의미의 한자와 결합하였을 때에는 그것이 달리 언해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何必’(>하필)이 그러하고, 다음에서 설명될 ‘何況’(흐물며>하물며)도 그러하다.

- (17) ㄱ. 本來 覓 보는 거시어니 엇테 흐물며 드로믈 得흐리잇고(本所不見이어니 何況得聞이리잇고) <능엄경언해 4:3b>
- ㄴ. 舍利弗아 十方世界 中에 오히려 두 乘이 업거니 엇테 흐물며 세히 이시리오(舍利弗아 十方世界中에 尙無二乘커니 何況有三이리오) <법화경언해 1:186b>
- ㄷ. 엇테어뇨 내 이거스로 흐 나라홀 다 주어도 오히려 업디 아니콘 엇테 흐물며 諸子 | 썩녀(所以者何오 以我此物로 周給一國흐야도 猶尙不匱온 何況諸子 | 썩녀) <개간법화경 2:26>
- (18) ㄱ. 흐물며 이 中엿 生住異滅 分劑頭數 | 썩녀(何況此中엿 生住異滅分劑頭數 | 썩녀) <능엄경언해 4:102b>
- ㄴ. 흐물며 어버신들 내야 주며 가시며 子息이며 姪인들 주며 와 비는 사르믈

16) 이것은 시기의 차이로 볼 수도 있고, 문헌상의 차이로 볼 수도 있다. 「논어언해」나 「맹자언해」는 사서 언해의 일부인데, 그러한 언해서에서는 ‘何必’을 위와 같이 언해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언해자에 따른 차이로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근대 한국어 시기의 「논어율곡언해」는 ‘何必’을 ‘엇디 구티여’로 언해한 반면, 박통사, 노걸대류에서는 ‘何必’을 ‘엇디 반드시’로 언해하였기 때문이다.

17) 따라서 15세기 중세 한국어에서는 ‘하필이면’과 같은 표현은 등장할 여지가 없었다. ‘하필이면’은 1차적으로 ‘하필+이면’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하필’이 하나의 단위라는 사실이 전제되었을 경우에 만 가능한 분석이기 때문이다.

주리어(何況能與 父母妻子 奴婢作使 及來乞者 ) <석보상절 9:12a-12b>

ㄷ. 흐믓며 菩薩을 보며 듣고 여러 가짓 香花 衣服 飲食 寶貝 瓔珞으로 布施 供養호미썸녀(何況見聞菩薩 以諸香華衣服飲食寶貝瓔珞布施供養) <월인석보 21:159b-160a>

(19) ㄱ. 흐믓며 너나든 천라이썸녀(況餘財物) <석보상절 9:13a>

ㄴ. 흐믓며 썸 因이 업서 本來 잇는 고디 업스니썸녀(況復無因호야 本無所有 | 썸녀) <능엄경언해 4:59b>

ㄷ. 흐믓며 썸 方便으로 더 火宅에 싸혀 濟度호미썸니잇가(況復方便於彼火宅而 拔濟之) <월인석보 12:34a>

중세 한국어의 ‘何況’은 (17)처럼 ‘엇데 흐믓며’로 언해되기도 하지만, (18)처럼 ‘흐믓며’로만 언해되는 경우가 더 많다.<sup>18)</sup> 그렇지만 ‘흐믓며’는 ‘況’에 대한 언해인데 [(19)], 이것이 ‘何況’ 전체를 아우르는 언해가 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원문에 있는 ‘何’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17)과 (18)은 모두 의문문으로 언해되는 것이 상식이며 실제로 (17)과 (18)은 모두 의문문으로 언해되어 있다.<sup>19)</sup> (18)을 통해, 문면에 드러난 ‘흐믓며’는 ‘況’에 ‘주르’ 이끌린 언해이며, 원문의 ‘何’는 대체로 의문문이라는 통사적 구문으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何況’의 ‘何’와 ‘況’이 매우 긴밀한 관계였기에 (18)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何況’의 언해 양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0) ㄱ. ‘何’와 ‘況’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언해에 반영된 경우[=(17)]

ㄴ. ‘況’의 의미만 언해에 반영된 경우[=(18), (19)]

ㄷ. ‘何’의 의미만 언해에 반영된 경우(문증되지 않음.)

직역 위주인 중세 한국어 언해 양상을 고려하면, (20ㄱ)이 가장 전형적인 언해일 것이나, (20ㄴ)도 만만치 않은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은 ‘何’나 ‘況’이 모두 의문문을 만든다는 문법적인 특색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한편,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

18) 물론, 이것은 문헌에 따른 언해의 차이로 귀결될 수도 있다. 대체로 「법화경언해」 계열에서는 ‘何況’을 ‘엇데 흐믓며’로 언해하였고, 그 외의 문헌에서는 ‘何況’을 ‘흐믓며’로만 언해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는 문헌에 따라 언해의 양상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문헌에 따른 언해의 양상을 비교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19) (19)에는 ‘흐믓며 (...중략...) 이썸녀’ 구문이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의문문의 한 종류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썸녀’ 구문에 대해서는 장윤희(1996)을 참고.

(20ㄷ)도 가능할 터인데(즉, ‘何況’이 ‘엇데’로만 언해되는 경우), 이러한 예는 잘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何況’의 ‘何’가 언해에서 매우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何必’의 언해 양상도 ‘何況’처럼 정리할 수 있다.

- (21) ㄱ. ‘何’와 ‘必’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언해에 반영된 경우[=(15), (16)]
- ㄴ. ‘必’의 의미만 언해에 반영된 경우(문증되지 않음.)
- ㄷ. ‘何’의 의미만 언해에 반영된 경우(문증되지 않음.)

그렇지만 ‘何必’에 관한 한, 중세 한국어에서는 (21ㄱ)만 확인이 될 뿐, (21ㄴ, ㄷ)은 확인되지 않는다. 적어도 중세 한국어 시기까지는 ‘何必’이 하나의 단어 혹은 단위로 인식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반면, 근대 한국어로 접어들면서 (21ㄷ)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 (22) ㄱ. 모든 의논이 다 ㄹ트니 이제 엇지 지란하야 의심하리오(兪謀既同 今何必持疑)  
    <자훈전칙 2b>
- ㄴ. 엇지 날을 죽이려 하노뇨(何必欲殺我) <태상감응편도설언해 5:21b>

위의 ‘何必’에 대한 언해에는 ‘必’의 의미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의 언해자가 ‘必’의 언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보기보다는, ‘何必’의 관계가 매우 긴밀해졌다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2)의 ‘엇지’는 “어찌 반드시”로 풀이하더라도 해석에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何必’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근대 한국어 이후부터는 “어찌, 어찌 반드시”의 의미를 획득하였다.

‘하필’이 하나의 단어로서 문헌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9세기 근대 한국어 시기이다. 이러한 등장이 가능하였던 것은 바로 (22)와 같은 인식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19세기 말~20세기 초반의 ‘하필’

‘하필’이 오늘날과 같은 뜻을 갖게 된 시기는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이르렀다고 하여 ‘하필’이 곧바로 오늘날의 의미를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의 ‘하필’에는 근대 한국어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전 시기까지 ‘하필’의 의미는 “어찌, 어찌 반드시”였는데, 그것이 19세기~20세기 교체기에서도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당시의 외국어 대역어 사전에서 확인된다.<sup>20)</sup>

(23) ㄱ. H'apfil: Comment se fait-il que ... ?

ㄴ. 하필(何必): 엇지. 반듯. Why? How indeed? Why forsooth?

(23ㄱ)은 「한불사전」에 반영된 ‘하필’의 프랑스어 번역이다. (23ㄱ)은 “왜 그러니? 어째서 그러니?” 정도로 의역되는데, 이를 좀 더 부연하면 “도대체 왜 그러니?” 정도가 된다. 당시의 ‘하필’은 의문문에서만 쓰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것은 (22)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23ㄴ)은 「한영사전」(1897/1911)에 반영된 ‘하필’의 번역이다. (23ㄴ)은 ‘하필’이 “엇지”(어찌) 또는 “반듯”(반드시)의 의미를 지님을 보이고 있다. “엇지”는 ‘何’의 의미이고 “반듯”은 ‘必’의 의미로서, 역시 중세 한국어 ‘何必’에 대한 이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것이 당시의 정확한 뜻을 표현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당시의 ‘하필’은 근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의 뜻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에서 편찬되는 여러 사전류에서는 ‘하필’을 “어찌 반드시”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3ㄴ)의 뜻풀이는 ‘하필’이 “어찌” 또는 “반드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반드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을 부정확하게 반영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sup>21)</sup>

“어찌, 어찌 반드시”로 해석되는 ‘하필’은 고전소설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24) ㄱ. 스스로 정을 금티 못하야 문득 니러나 혼 글을 드려 곁오디, 던전성음멸경  
효(轉戰城陰滅獍梟)호니 희안고관괴유교(解鞍孤館氣猶驕) | 로다 공성하필

20) 개화기를 전후하여, 외국인 선교사, 외교관, 의사들이 우리나라 말과 자국어(漢語)를 연결시키는 여러 사전을 편찬한 바 있다. 이 사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경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여 해당 뜻풀이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한불사전」과 「한영사전」만을 예로 든다.

21) 위의 사전에서는 이를 ‘((엇지))((반듯))’과 같은 형식으로 제시해 놓았음을 덧붙여 둔다.

명종덕(功成何必銘鐘鼎)고 원향원용차취요 | (願向元戎借翠翹)라! 이 글 쓰든, 성미퓌서 여러번 싸호매 모든 도적을 멸하니 기르마를 외로운 관의 와 벗기매 기운이 오히려 교만호도다 공을 일으매 엇디 반드시 붓과 소퇴 사 기리오 <후슈호던 5:49쪽>

- ㄴ. 중당의 곁고 보니 그 글의 하필되 ㉠싱기사귀일몽간의 ㉡견정하필누잠잠 이라마는 ㉢세간의 최유단장쳐하니 ㉣초록강남인미환을 ㉤이 글 뜻선 사람의 죽고 사난 게 혼 씬 속이니 정을 잇쓰러 엇지 반드시 눈물을 흘이라만 은 세간의 가장 단장한 곳시 잇스니 풀풀린 강남의 사름이 도라오지 못 하난포다 <심청전 국립중앙도서관 완판 상:28a-28b>

고전소설 속의 한시에 등장한 ‘하필’은 “어찌 반드시”(엇디 반드시, 엇지 반드시)로 번역되었다. (24ㄱ)은 구개음화나 두음법칙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가 적극적으로 표기된 점 등으로 보아 18세기 이전에 지어진 작품으로 생각된다. 반면, (24ㄴ)은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는 데다가, ‘·’도 ‘하다’, ‘사름’과 같은 극히 의고적인 표기 외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으므로, 19세기 이후의 자료로 판단된다. ‘하필’은 “어찌 반드시”의 의미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것이다.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에 등장하는 ‘하필’의 일부 예도 “어찌, 어찌 반드시”로 해석된다.

- (25) ㄱ. 디방관의 스무가 하필 만스 쇼송쑤이리오 <1897.05.06. 독립신문 2면>  
 ㄴ. 지금은 본국 사름들도 일어파를 흥히 번력홀 이가 만히 잇슬 듯하단디 하필 외국 사름으로몬 귀어히 쓰려고들 호는지 <1899.10.25. 독립신문 4면>

이 ‘하필’은 “어찌, 어찌 반드시”로 해석된다. 문장종결법이 의문문인 점도 ‘何必’이라는 한자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임을 방증해 준다.

그렇지만 당시의 ‘하필’은 “어찌, 어찌 반드시”로 해석될 수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굳이, 구태여”로도 해석될 수 있었다.

- (26) ㄱ. 공쑤 사름 중에는 결전 못하셔 상랍홀 이가 엽서서 하필 강화 사름의게 막 중홀 상랍을 주엇다가 더런 디경에 이르렀는지 <1899.10.03. 독립신문 2면-3면>

- ㄴ. 기명훈 나라의 장영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문 빅성의게 돈 거두는 것문 그 모양으로 흐라 하니 그러홀진디 하필 룡축의게문 문져 슈세 흐리오 <1899.08.15. 독립신문 2면>
- ㄷ. 이제 황상 성조에 도읍는 신하가 업는디 황티즈씨셔 디리 흐시는 썩는 어 디셔 그 사름이 나리오 하필 황티즈 던하로 디리케 흐심을 구흐노 <1898.07.19. 매일신문 4면>

위의 ‘하필’은 “어찌, 어찌 받드시”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굳이, 구태여”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마도 이런 이중적인 쓰임이 확대된 결과가 ‘하필’의 의미를 바꾼 것이 아닌가 한다.

‘하필’이 “굳이, 구태여”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 (27) ㄱ. 다문 토론 문제로 통상회에 연결흐는 것이 곳 동회(同會)라 일 업고 연결문 흐는 동회야 하필 문 안에서 흐잘 것 무엇 잇쇼 <1898.09.23. 독립신문 2면>
- ㄴ. 누구든지 별 열심으로 제 본분을 다 흐엿스면 성인인 줄을 알 것이라 흐섯 습니다 그런즉 하필 별 일을 싱각지 마시오 <경향보감 2:387-388>
- ㄷ. 치위를 막자흐면, 구타여 비단 옷가. 국스를 흐자흐면, 하필 영웅이라. 이 마도, 국민의 동심 함력이, 데일일 뜻. <1909.10.15. 대한매일신보 1면>

(27ㄱ)의 경우는 ‘하필’이 의문문과 호응하였으나, ‘무엇 잇쇼’가 “그럴 것 없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평서문이다.<sup>22)</sup> 그러므로 (27ㄱ)은 ‘하필’에 “어찌”의 뜻이 없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27ㄴ)은 ‘하필’ 뒤에 명령문이 온 경우이다. ‘하필’에 “어찌”의 뜻이 있다면, 이것은 “어찌 별일을 생각지 마시오”가 되어 역시 비문이 된다. (27ㄷ)의 ‘하필’이 “굳이, 구태여”의 의미임은 그 앞에 위치한 ‘구타여’로써 확인된다. (27ㄷ)의 앞 두 문장은 “(...전략...) 구태여 비단 옷이냐. (...중략...) 굳이 영웅이겠느냐”의 대응을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신소설에 나타난 ‘하필’의 의미는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언론의 문체는 다소 도식적·의고적인 반면에, 신소설의 문체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이므로, 이전 시기의 의미와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sup>23)</sup>

22) ‘하필’이 “어찌”의 뜻이라면 이 부분은 “어찌 ~ 무엇 잇쇼”라는 이중 설명 의문문이 되어 비문이 된다.

- (28) 가. 스쥬인을 허구 만흔 집에 하필 안잠마누라집에다 덩하고 삼시스로 만반 진슈를 차려먹이며 <구마검 40쪽>
- 나. 조상이 인도하고 귀신이 지사를 하얏던지 조선 각도의 뉘흔 산이 허다하게 뵈이느 줌 하필 홍양 팔영산을 가르치며 <구의산 하:62쪽>
- 다. 더욱 괴상흔 것은 그 나모가 우리 식집 사당 뒤뜰에 박여 있고 그 까치가 허구 만은 나모에 하필 그 나모에 가 지즌 일이지 <구의산 상:86쪽>
- 르. 이익 네가 엇지 되야 내게 와 잇던지 허구 만흔 하인 줌 하필 너를 붓잡고 이런 말 허기는 네가 날로 보나 등으로 보나 내 부탁 괘시 안이홀 줄로 밋 엇는디 그리느냐 <구의산 상:41쪽>
- 로. 즈기 업는 사이에 혜경은 줌츄원의 장권 씨의 줌기로 하구 만흔 사름 줌에 하필 즈기의 척종 되는 리정위와 밋서 결혼식을 거행<sup>ᄒᆞ</sup>얏는지라 <두견성 상:22-23쪽>
- 리. 인제야 자세 알아본즉 그러치 안이흔 집 즈손일네그려 외입을 식이면 허구 만흔 계집이 엇의 업서셔 하필 자네갓흔 스통을 억울히 식힐 식둑 잇나 <모란병 32쪽>
- 사. 예구 분히라 삼신도 눈깔이 머릿지 이왕 나를 점지<sup>ᄒᆞ</sup>거든 허구 만흔 량반에 밋구명을 다버리고 하필 상놈의 집에다 티어나게 히던가 <빈상설 45쪽>
- 오. 예그 낙으리 마음에 무엇이 쟁기던가 보오 허다흔 돈에 그 돈이 하필 우리 집 돈인 줄 엇지 짐작을 ᄒᆞ섯터란 말씀이오 <월하가인 69쪽>
- 자. 일이 공교히 되노라고 신방을 허구마는 방에 하필 현씨 부인만 다른 처쇼로 올마 거쳐케 ᄒᆞ고 평일에 금주 잇던 방에다 썸엇스나 <옥호괴연 47쪽>
- 차. 예그 나도 눈깔이 어두엇지 장안 만호 허구 만흔 홀아비에 하필 이 집으로 왔던가 <홍도화 하:30쪽>
- 카. 지금 이 말씀을 드르시면 혹 디경소괴ᄒᆞ야 허구 만흔 혼처에 하필 귀밋머리 맛 푸는- 처녀와 혼인을 안이<sup>ᄒᆞ</sup>고 미장가 신랑이 과부와 혼인을 ᄒᆞ랴노 <홍도화 상:71쪽>
- 타. 필경 네가 작란ᄒᆞ라 단이로라고 더러 썸여노앗지 허구 만흔 성명에 하필 구씨는 한나도 업단 말이냐 <화세계 157쪽>
- 표. 박씨 부인은 그 말을 썸 고지드러 허다 ᄒᆞ 도흔 신랑은 다 버리고 하필 줌 년 상처ᄒᆞ 자리를 스면 듯보더라 <화세계 4쪽>

23) 당시의 신문에도 오늘날의 '하필'의 의미가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그 비중은 신소설만 못하였다.

일본 헌병 분견소장이 병영 몇십 명을 거느리고 진중군에 잇슬 초로 와서 동헌을 청구ᄒᆞ다 ᄒᆞ니 다른 공회도 허다ᄒᆞ디 하필 군수가 거쳐ᄒᆞ는 동헌을 청구ᄒᆞ는지 모르거니와 <1907.11.16. 대한 매일신보 2면>

ㅎ. 너 팔즈가 방정마저서 허구 만흔 혼저를 다 싣타고 하필 구참령인지 그한 테다 네 혼인을 덩히다가 이세신지 성례를 못식엿구나 <화세계 100쪽>

위 예문은 20세기 초반의 여러 신소설에 등장한 ‘하필’에서, 오늘날의 의미를 지닌 것들만 가린 것이다. 그것은 ‘하필’에 선행하는 ‘허구 만흔, 허다 혼, 허다하게’ 등의 표현에서 확인된다. 현대 한국어 ‘하필’에는 선택 가능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선행하기도 하는데, ‘허구 만흔’ 등이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하는 표현이다. “이런 많은 원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대되지 않은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 때 ‘하필’을 쓰기 때문이다. 이처럼 (28)은 신소설의 ‘하필’이 현대 한국어적 용법으로 쓰였음을 잘 보여준다.

이미 당시에도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였다.

- (29) ㄱ. 설혹 보너기로 여기 단기던 하인도 잇는디 하필 싱면부지 모로운 사람들 보닐 리가 잇나 <홍도화 상:38쪽>
- ㄴ. 장가를 들야면 엇의가 합흔 신부가 업셔서 하필 남의 완덩흔 신부에게 장가를 들야고 몰경계흔 거스를 호오 <비파성 66쪽>
- ㄷ. 설혹 타인이 그른 일을 흐더터도 단정코 금지호실 터이온디 어디 여즈가 업다고 하필 서빙 잇는 계집을 상종호려 호심닛가 <화중화 30쪽>
- ㄹ. 오륙삭이 지나도록 김씨 리씨 박씨 최씨 이외 별별성 가진 사름이 다 만히 그 절에를 티왕호앗서도 하필 구씨라고는 지나가는 걸직 한나도 업는지라 <화세계 156쪽>

(29ㄱ)의 ‘여기 단기던 하인도 잇는디’는 ‘허고 만흔 하인 중에’와 유사하고, (29ㄴ)의 ‘엇의가 합흔 신부가 업셔서’와 (29ㄷ)의 ‘어디 여즈가 업다고’는 ‘허고 만흔 {신부, 여즈} 중에’와 유사한 표현인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다. 특히, (29ㄹ)은 (28ㄷ)과 같은 맥락에서 쓰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편의상 두 예문을 나란히 제시한다.

- (30) ㄱ. 필경 네가 작란호라 단이로라고 더러 썩여노앗지 허구 만흔 성명에 하필 구씨는 한나도 업단 말이나
- ㄴ. 오륙삭이 지나도록 김씨 리씨 박씨 최씨 이외 별별성 가진 사름이 다 만히 그 절에를 티왕호앗서도 하필 구씨라고는 지나가는 걸직 한나도 업는지라

(30ㄱ)의 ‘허구 만흔 성명에 하필 구씨’는 (30ㄴ)의 ‘김씨 리씨 박씨 최씨 이외 별 별성 가진 사름이 (...중략...) 하필 구씨’와 구조적으로 평행한 것이다. 다만, (30ㄴ)은 (30ㄱ)에 비하여 보다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세밀화되고 구체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추상적이냐 구체적이냐는 차이가 있으나, (29)의 밑줄은 ‘허구 만흔’ 등의 대안 집합의 원소들과 동일한 원소들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20세기 초반의 ‘하필’에는 “공교롭게도”의 의미도 존재하였다.

(31) ㄱ. 응 용이에 마디로다 불선불후 하필 오늘 병이 낫단 말이냐 오냐 그리히라 보내주마 <화의혈 29쪽>

ㄴ. (식주인) 나는 열일곱이요 일흠은 송련(松蓮)이랍니다 (김진보) 송련이 그 일흠 이상헌데 하필 송련니야 <츄턴명월 51쪽>

(31ㄱ)의 ‘불선불후’(不先不後)는 “공교롭게도”라는 뜻이로서 이 의미는 현대 한국어 ‘하필’의 의미와 관련된다. 따라서 (31ㄱ)은 “공교롭게도 하필”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공교롭게도 오늘 병이 낫단 말이냐”와 “하필 오늘 병이 낫단 말이냐”라는 의미적으로 흡사한 표현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31ㄱ)의 ‘하필’은 현대적 의미의 ‘하필’이라고 할 수 있다. (31ㄴ)은 ‘하필’ 앞에 ‘허고 만흔 이름 중에’와 같은 말이 삽입되리라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말이 포함될 경우 해당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신소설에는 대안 집합들의 원소가 문면에 직접 드러나는 것 없이, 오로지 ‘하필’만 쓰인 예문도 많다. 그렇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대안 집합의 원소가 언제나 ‘하필’ 앞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소설의 ‘하필’은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이미 현대 한국어 용법에 거의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32) ㄱ. 우리 대한 습천리 강토도 보전호고 우리 녀즈 루빅년 금슈도 면호리니 지식을 넓히려면 하필 어렵고 어려운 십 년 이십 년 비와도 턴치를 면치 못 할 한문이 쓸 디 잇소 <자유중 9쪽-10쪽>

ㄴ. 쪽섬길로 오는 슝에게도 무러보고 이길로 오는 슝보고도 무러보아도 못보앗다 갖기 다 일반인디 하필 이리로만 차즈갈 필요가 업스니 우리 셋시 각각 갈나서 세 군터로 쏘츠 가읍시다 <비파성 55쪽>

ㄷ. 편지를 가지고 왔스면 사랑으로 와서 제 말로 나으리 마님을 불너달라 흘

- 일이지 하필 나잇는 방으로 들어왔서 쏘 저놈이 나 자는 방은 엇지 알아슬  
가 <금국화 상:18쪽>
- ㄹ. 리쥬스 나리 안령이 오섯슴넛가 날이 그리 춥지 안터니 하필 어제 오날 더  
히요 <송뢰금 100쪽>
- ㅁ. 원슈는 외나무달이의셔 만난다구 하필 그놈의 집으로 어정어정 올 까닥이  
잇나 <한월 하:85쪽>
- ㄴ. 인물도 늘마다 익숙히 보았고 공부도 갖치 하고 녀오 도흘까 ..... 하필 시  
골 구석에 눈도 코도 못 보던 사름에게로 보닛라드시니 <홍도화 상:13쪽>
- ㄷ. 이씨에 리씨의 친정어머니 김씨는 그 썬을 보옥갓치 길너 내여 고르고 골  
나 식집을 보닛드는 것이 하필 풀싯해 이슬 갖흔 홍판서의 아달 남식으로  
사위를 삼아 <홍도화 상:42쪽>
- ㄹ. 각처에 편지를 급히 붓친 일인디 김가가 하필 대구로 그 편물을 팔너가자  
리대구가 맞춤 그곳에를 단이러 가서 희한하게 서로 만나 <화세계 220쪽>
- ㅁ. 밍 본 썬 습듯 습도 크게 못 쉬고 업터러 잇는디 일이 공교히 되느라고 그  
중 압선 사름이 실족을 하며 하필 변주부 습어 잇는 곳에 가 썬러져더라  
<황금탑 98쪽>
- ㄴ. 빅오기 려각 주인인 심부름으로 남 문안장에 가 돈챇던 말로 빅가 곱하셔  
술 먹으러 드러가던 말로 하필 식주가 집에를 드러갓다가 미인계(美人計)  
에 썬러져 돈 일어 브리던 소경력을 낫낫치 리약이를 하니 <황금탑 15쪽>

(32ㄱ, ㄴ)의 ‘하필’은 “굳이, 공교롭게도”라는 오늘날의 의미 외에도 “굳이, 구태  
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하필’은 대체로 오늘날의 의미로 해석하  
는 것이 자연스럽다.

요컨대, 19세기와 20세기 교체기 무렵에 ‘하필’은 “어찌, 어찌 반드시”라는 한자  
어 의미로 쓰였지만, “굳이, 구태여”라는 의미를 거쳐, 오늘날의 “굳이, 공교롭게도”  
의 의미로 변화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하필이면’이 등장한다. ‘하필이면’은  
“굳이, 공교롭게도”라는 오늘날의 의미만 지닐 뿐, 이전 시기의 의미는 드러나지 않  
는다. 이 점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 <3> 20세기 전·중반기의 ‘하필’

여기에서는 192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쓰인 ‘하필’의 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한(下限) 시기를 1960년대로 잡은 것은 ‘하필이면’의 등장을 고려한 결과이다. 이 시기에 ‘하필이면’이 새로이 등장하여 ‘하필’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당시에 간행된 사전에 등재된 ‘하필’의 뜻부터 제시하기로 한다.<sup>24)</sup>

- (33) ㄱ. 『표준 조선말 사전』(1947): 어찌 반드시. 무슨 필요가 있어서.
- ㄴ. 『수정증보 조선어 사전』(1949): 무슨 필요가 있어서. 어찌 반드시.
- ㄷ. 『우리말 큰사전』(1957):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어찌 꼭.
- ㄹ. 『신찬 국어대사전』(1963): 어찌 반드시. 무슨 필요가 있어서.
- ¶ 하필 왜 그것을 가지고 오나?
- ㅁ. 『한한 대자전(漢韓大字典)』(1966): 어찌 반드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사전 뜻풀이에는 ‘어찌’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어찌 반드시”, “어찌 꼭”과 “무슨 필요가 있어서”가 주종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보았던 “다른 방도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말 큰사전』(1957)에 처음으로 등장한 의미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 이처럼 20세기 중엽의 사전에 ‘하필’의 의미가 한자어 의미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점은 의외이다. 개화기 이후 ‘하필’은 이미 오늘날의 획득하였는데도, 그것이 사전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필’에 관한 한, 당시의 사전은 상당히 보수적 태도를 취한 셈이다.

1920에서 1950년대 사이의 신문에서 등장한 ‘하필’의 용법을 보기로 한다.

- (34) ㄱ. “(...전략...) 하필 일본 사람만 위하여 명치덩 한 곳만 설치 하얏느냐”고 물은즉 <何必 日人 部落에만. 1920.04.10. 동아일보 3면>
- ㄴ. 유대국에도 상고에는 잇섯스니 유대혼도 될지라 하필 조선혼이라 하리오 <耶蘇教側의 觀察. 1920.09.04. 동아일보 3면>
- ㄷ. “네 잘 알아드렸습니다 그러치만 신돈이가 칼을 가지고 다닐까는 십지 안습니다” “그야 알 수 업지 하필 신돈이뿐이겠나 그놈의 신변에는 무관들도 잇스니까” <大盜傳 144. 1931.05.29. 동아일보 3면>
- ㄹ. 檢事局에 對한 民衆의 要望은 何必 이 事件에 局限하여서리오. <檢察 當局의 戒肅을 要望함. 1946.05.04. 동아일보 1면>

24) 우리가 확보한 자료는 1940년대 이후의 것이지만, 이때 간행된 사전들은 그 첫 작업이 1930년대부터 시작된 것이어서 20세기 전·중반기에 쓰인 ‘하필’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ㄱ. 主權意識의 圓滿한 確保와 民主國家의 正常的 發展을 爲한 것이라면 何必 이것만이 必要하라 <改憲과 民意. 1954.06.24. 동아일보 2면>

위의 ‘하필’은 의문문과 호응하였다는 점에서 “어찌, 어찌 반드시”로 풀이된다. 그러나 오늘날에 가까워질수록 ‘하필’이 한자어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다. 1960년대 자료에서는 “어찌, 어찌 반드시”의 ‘하필’은 거의 찾기 어려운데, 그만큼 ‘하필’의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변화·고정되어 갔던 것이다.

아래의 예는 그러한 ‘하필’의 의미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35)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하필 승상(丞相)과 이부(吏部)나 참정(參政)이 간여 하겠습니까? 고대수(顧大嫂) 한 분이 말아 보면 족할 겁니다.” ㉡“왜 하필 고대수 부인한테 부탁한단 말이오?” 국왕은 연청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같이 묻는 것이었다. <星群 (1498). 1965.02.06. 동아일보 8면>

(35)에는 두 개의 ‘하필’이 등장하였는데, ㉡의 ‘하필’이 오늘날의 의미(“굳이, 공교롭게도”)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필’ 앞에 대안 집합을 표현하는 ‘하고 많은 사람 중에’를 넣어 보면 문맥이 훨씬 매끄러워지기 때문이다. 의문사 ‘왜’가 쓰인 것도, 이 ‘하필’이 ‘어찌’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준다.<sup>25)</sup>

㉠의 ‘하필’은 이전 시기의 의미(“어찌, 어찌 반드시”)로도, 오늘날의 의미(“굳이, 공교롭게도”)로도 읽힐 수 있다. 판단의 핵심은 ‘하필’에 후행하는 명사구에 초점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은 ‘자질구레한 일’을 담당할 만한 대안 집합의 원소에 ‘승상, 이부, 참정’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미를 취한다면 ㉠의 ‘하필’은 초점부사로서 오늘날의 의미인 “굳이”로 해석된다.

그런데 초점부사 ‘하필’의 본령은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거의 다 배제하고, 끝내는 화자가 가장 원하지 않았던 원소에 초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필’은 하나의 원소에만 초점을 두는 것을 ‘선호’하는 부사인 셈이다.<sup>26)</sup> 따라서 ㉠에서

25) ‘왜 어찌’와 같은 연속된 의문 형식은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6) ‘하필’에 두 가지 이상의 대안 집합의 원소가 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ㄱ. 왜 하필 여행하는 데가 경상도와 강원도야?

ㄱ'. 왜 하필 여행하는 데가 경상도 또는 강원도야?

ㄴ. 다른 곡식도 많은데 하필이면 콩, 팥, 보리를 주시나요?

초점을 받는 원소가 세 개나 등장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필’을 온전한 초점부사로만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때의 ‘하필’은 전통적 의미인 “어찌”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처럼 중의적으로 풀이되는 ‘하필’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한자어 의미가 약화되고 새로운 의미가 대두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시의 ‘하필’은 “굳이”나 “구태여”로 해석되기도 한다.

- (36) ㄱ. 그러면 그 歌詞들을 歌曲이라 할 수도 있고 노랫가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何必 時調라고만 할 것이 무엇이나 할 이도 잇겠지마는 <時調의 形態 (二). 1940.03.07. 동아일보 4면>
- ㄴ. 또 한 가지는 何必 特別 講習의 길을 取하지 안터라도 中等校 卒業生의 遊軍을 만히 登用하는 것도 敎員難 解消의 한 捷勁일 터인데 <橫說堅說. 1940.03.09. 동아일보 1면>
- ㄷ. 今日의 演奏家가 獲得해야 할 聽衆은 敎養層이다(敎養層은 何必 知識 階級을 意味함은 아니다.) <音樂時評 (上). 1940.04.14. 동아일보 5면>
- ㄹ. 꼭 더 한 번만 그리운 저 北海金剛엘 갔으면 하기는 뭐 물이 맑은 바다가 何必 東海岸으로 꼭 海金剛뿐이겠느냐고 마음을 돌려 以南으로 江陵이나 浦項이나 南海 統營 같은 데라도 가보고도 싶으나 <海愁 (4). 1949.03.22. 경향신문 3면>
- ㅁ. 우리의 이러한 提言에 對해서, 公明 選舉는 하늘이 무너져도 어쩔 수 없는 既定 事實인데, 何必 수선스럽게 굴잘 게 무어나 <總選舉의 公明性 (下). 1954.05.03. 동아일보 1면>
- ㅂ. 설사 이번에 실패하면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다. 또 하필 文理大만이 至上의 求學處는 아닐 것이며, 亞流 大學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황설수설. 1965.02.06. 동아일보 1면>

오늘날로 더 가까워진다고 하여 “굳이”나 “구태여”의 의미를 지니는 ‘하필’의 수가

---

화맥이 전제되어 있다면, 위의 예문들은 현대 한국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표현들이다. 이 경우, 화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안 집합의 원소는 다수가 된다. (ㄱ, ㄱ')에서는 ‘경상도’와 ‘강원도’가, (ㄴ)에서는 ‘콩’, ‘팥’, ‘보리’가 초점을 받은 것인데, 모두가 화자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던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다. 이러한 문장은 비문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하필’의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듯하다. 이러한 예문들은 현대 한국어 코퍼스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역시 ‘하필’은 하나의 초점만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이고 인상적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한자어 의미를 지니는 ‘하필’이 오늘날로 오면서 점차 줄어드는 사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36ㄱ, ㄴ)의 ‘하필’은 “어찌”로 해석할 수 없다. 이때의 ‘하필’이 “어찌”라고 한다면, “何必 時調라고만 할 것이 무엇이냐”는 “어찌 (반드시) 時調라고만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36ㄷ)은 ‘하필’ 뒤에 의문문이 쓰여 “어찌 (반드시)”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굳이, 구태여”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부사 ‘꼭’과 조사 ‘만’을 감안하면, “꼭 海金剛뿐이겠느냐”는 “어찌 꼭 ~ 이겠느냐, 어찌 ~ 뿐이겠느냐”로도, “굳이 꼭 ~ 이겠느냐, 굳이 ~ 뿐이겠느냐”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꼭’과 ‘뿐’은 ‘어찌’와 ‘굳이’를 연결하는 말로 이해된다. 그 외의 예문들은 의문문과 관련이 없으므로 ‘하필’을 “어찌, 어찌 반드시”가 아닌, “굳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대 한국어 ‘하필’의 의미가 “굳이, 공교롭게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36)의 ‘하필’ 역시 오늘날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굳이”는 한편으로는 “어찌”와,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의 ‘하필’과 관련된 매개물이었던 셈이다. 한자어 뜻대로 이해되던 ‘하필’이 오늘날의 ‘하필’의 의미를 갖게 된 데에는 “굳이”라는 의미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 (37) ㄱ. 이와 갖치 지식을 엇기 위하여 열심함은 하필 여자계뿐이 아니라 일반 사회를 위하여 감사라고 축복할 만한 일이라 하겠스며 지금 출석하는 학생 십팔 명의 나히는 십삼 세로 삼십 세짜라더라 <女子夜學會. 1920.04.23. 동아일보 3면>
- ㄴ. 더구나 國際聯盟의 本部 갖흔 것도 許多한 나라 가운데 何必 그 나라에 두는 것은 意味가 깎지 아니한가? <教育振興論 (二). 1920.09.11. 동아일보 1면>
- ㄷ. 以上 兩個性과 三個力은 何必 女子에게만 必要한 것이 아닌 것은 勿論이나 특히 女性으로서 此等 性格이 잇슨 뒤에 비릇오 確實한 淑德과 才藝를 兼備한 人格的 女性이 된다 <貞操의 將來 (九). 1931.05.08. 동아일보 4면>
- ㄹ. 친척도 없고 의논할 이도 없다 해서 얼마든지 신용할 만한 사람을 얻을 수가 잇을 텐데 하필 내지 여자를 얻어 사무를 매긴다는 것은 실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家庭顧問欄. 1940.03.14. 동아일보 4면>
- ㅁ. ‘판스·홀’ 춘향각(春香閣)의 주인은 춘향이가 아마 ‘판스’계(界)에 명성이 높았던 줄만 아시는 게지오 그렇지 않다면 어찌서 하필 ‘판스·홀’ 간판이 춘향이 이름이 필요할 리가 있나요 <美風과 傳說 살리라. 1946.10.20. 경향신문 3면>

- ㄴ. “왜? 무슨 일이 생겼나?” “아아니.” “그런데 하필 밤에 떠난다고 야단인가?”  
 <久遠의 情火 (127). 1954.07.19. 경향신문 2면>
- ㄷ.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땅에 묻히기를 원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何必 國軍墓地를 擇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國軍과 직접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4·19 學生墓地. 1965.01.19. 동아일보 5면>

여기에 등장한 ‘하필’은 오늘날의 ‘하필’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런 예는 1920년대에도 자주 보이지만, 1930년대를 거치고 현대로 내려올수록 훨씬 빈번하게 쓰이게 된다. 그것은 ‘하필’의 절대 다수가 오늘날의 의미로 고착되어 가고 있음을 뜻한다.

(37ㄱ)에서 주목할 점은 “하필 여자계뿐이 아니라”에 있는 ‘뿐’이다. (37ㄱ)의 ‘뿐’은 “어찌”와 관련을 맺지 못한다. “어찌(하필) 여자계뿐이 아니라”라는 말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의 ‘하필’에는 한자어 의미가 배제되는 대신에, 교량적 의미인 “굳이, 구태여”나 오늘날의 의미인 “굳이, 공교롭게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런데 ‘뿐(뿐)’ 역시 초점이 한 군데에만 놓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현대 한국어 ‘하필’이 초점부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초점이 하나임을 알려주는 ‘뿐’과도 충분히 호응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하필’이 “굳이”와 관련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37ㄱ)의 ‘하필’은 오늘날의 의미로 풀이된다.

(37ㄴ, ㄷ)은 대안 집합의 원소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하필’로 해석된다. (37ㄷ)도 ‘하필’ 앞에 ‘다른 많은 이름 다 두고’를 넣으면, 매우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그 외의 예문에 쓰인 ‘하필’도 이런 몇 가지 해석 방법을 동원하면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 <4> ‘하필이면’의 등장

1950년대부터는 ‘하필이면’이 등장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달리 당시의 ‘하필이면’은 ‘하필’과 완전한 동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하필이면’이 쓰인 자리를 ‘하필’이 쓰일 수 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자유롭게 성립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는 ‘하필’로 대체될 수 있는 ‘하필이면’의 예이다.

- (38) ㄱ. 金始顯은 五, 六월에 걸쳐 徐法務長官에게서 二백만 원 張總理에게서 백만 원 新羅會에서 五백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권총 구입비 二백만 원을 徐相日에게서 빌려 써야 되는가 <李大統領 狙擊 事件에 新波紋. 1952.09.05. 동아일보 2면.>
- ㄴ. 왜 그대로 두어도 낙선할 李대통령을 하필이면 살해하는 최후 수단을 써야 할 것인가 또 만약 民國黨이 李대통령 살해를 수행하려면 왜 늙은이들에게 쓰지도 못할 권총을 마련케 하겠는가 <22일에 問招받은 金始顯이 式場壇上에 着席했다는 事實은 果然 있을 수 있는 것인가? 1952.09.05. 동아일보 2면>
- ㄷ. 왜 하필이면 서장실에서 취조를 하였으며 또한 영등포 살인 및 강도 등 잔인한 강력 범죄의 용의자라면 포박도 안 하고 서장 홀로 있는 데다가 방치하였는가? <具體的 證據 내라. 1954.02.18. 경향신문 2면>
- ㄹ. 民國黨의 曹泳珪君 야담과 평易한 말로서 定評 있는 一場의 詰難 質問에서 ‘何必이면 불쌍한 通學生을 울릴 것이 무엇이나’고 호통치니 <廉恥없어 못할 國政監査. 1954.08.28. 경향신문 1면>
- ㅁ. “이러한 演劇 脚本에서 何必이면 申翼熙氏가 ‘모델’이 될 것이 무엇이며 國家에 有功有勳한 사람을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고 <威·金 兩氏의 證言. 1954.11.03. 경향신문 1면>
- ㅂ. 이 改憲 波動에 어리둥절해진 것은 國民 大衆이요 왜 改憲表決의 可票數가 一三六이라던가 一三四라던가 論議할 餘地가 없는 수효로 나타나지 않고 何必이면 말썽 많은 一三五라는 數가 나타났던가 (...중략...) 良心이 살아 있는 限 그만한 정도의 常識이란 남아 있을 줄로 아는데 왜 何必이면 “狂道”를 取하려는 것인가? <多數決의 悲哀. 1954.12.09. 동아일보 1면>
- ㅅ. 혼해 빠진 것이 고급차인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택씨-’로 하였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잘한 일인 상싶지는 않다 <甲午記者手帖에서 (9). 鎮海會談. 1954.12.28. 동아일보 2면>
- ㅇ. 날치기가 성해도 분수가 있지 그래 하필이면 현직 경관의 비위를 거스르게 하여 싸움하는 척하고 작당하여 몰려들며 그 틈에 ‘쓰리’질을 하다니..... <돋보기. 1955.04.16. 경향신문 3면>
- ㅈ. “당신 그 반지는 항시 몸에 지니고 다닐 터인데 강도가 하필이면 시계만 달라 하고 보석 반지는 안 달랍디까?”고 일침 놓으며 추궁하자 그 여인 고개를 푹 숙여 허위 신고이었음을 고백..... <돋보기. 1955.05.09. 경향신문 2면>
- ㅊ. 또한 그가 중국대사관에서도 비공식적인 모종 특수 임무를 수행한 적이 있었다는 점 또는 그가 하필이면 중국 대사관 부무관이 책임 보관 중이던 비밀 문서가 든 ‘뺨’을 절취하였다는 점 등에다가 또다시 체포될 것을 두려워

- 하여? <自殺 動機는 무엇. 1955.06.22. 경향신문 3면>
- ㄱ. 쌀값이 뛰고 않 뛰고는 國內의 全般的인 經濟 事情 및 一般의인 物價 體系와 直接·間接의 關聯이 있는 것인데 何必이면 農林長官의 목만 짚리우는 것입니까. <橫說豎說. 1955.09.01. 동아일보 2면>
- ㄷ. 腐敗와 挾雜과 醜聞에 관한 件을 訓練치 않을 바에야 何必이면 말쟁 많은 그런 人物을 그 자리에다 配置하여 놓는 것인지가 疑問이로다. <橫說豎說. 1955.09.22. 동아일보 2면>
- ㄹ. 稀代の 예로 事件으로서 世人의 興味를 끌었던 事件인지라 그것을 模擬公判함으로서 雜誌社가 돈버리를 해 보겠다는 心情은 모르는 바 아니로되, 模擬病을 따르는데 何必이면 왜 그렇게도 低級하고? <橫說豎說. 1955.10.16. 동아일보 2면>
- ㅎ. 그런데 삼선교에서 돈암동 종점까지는 불과 두 정류장밖에 안 되는 터임에도 그것이 무슨 염치없는 처사인지 하필이면 삼선교를 종점으로 만들어 미아리 정능리 등지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승객들의 불평을 사게 하는지…… <돋보기. 1955.12.07. 경향신문 3면>
- A. 保守黨으로서 內閣責任制를 들고나오는 限에 있어서 何必이면 民主黨과 갈라져서 政黨을 조직치 않으면 안 될 理由가 어디 있느냐 하는 大義名分이 서기 어렵다는 點이다. <橫說豎說. 1955.12.15. 동아일보 2면>

우리가 이용한 자료 중 ‘하필이면’(‘왜 하필이면’ 포함)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38 ㄱ)이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신문 자료에서는 ‘하필이면’이 종종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필이면’보다는 ‘하필’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은, ‘하필이면’ 자리에 ‘하필’을 대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이때의 ‘하필’은 오늘날의 의미인 “굳이, 공교롭게도”로 해석된다.

그런데 ‘하필이면 → 하필’의 대치가 성립한다고 하여 그 역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었다.

- (39) ㄱ. 事務의 簡素化! 何必 銀行뿐만이 않이다 <西獨逸의 片貌 (完). 1952.10.19. 경향신문 2면>
- ㄴ. 發明하고 創案하는 能力은 사람만이 特有的 것이라고 하였으나 飛行機나 텔레비존을 利用한다고 해서 이것을 文明 生活이라고 한다면 원숭이가 主人하고 같이 飛行機를 탔다고 원숭이 역시 文明 生活을 하는 것이라고

評價해 주어야 할 일이다. 何必 원숭이뿐일까 파리나 빈대 같은 虫類도 그것이 어떠한 제대로의 意識을 가졌다면 이 역시 文明 動物이라고 해서 틀림없을 것이다. <獨白錄 (8): 원숭이와 文明. 1953.07.10. 경향신문 2면>

(39ㄱ)의 ‘하필’을 ‘하필이면’으로 바꾸면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 그렇다고 (39ㄱ)의 ‘하필’이 한자어 의미인 “어찌, 어찌 반드시”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39ㄱ)은 평서문이기 때문이다. 이때의 ‘하필’은 “굳이”라고 해석할 때 가장 자연스럽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1950년대 초반의 ‘하필’은 “굳이”로 해석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39ㄴ)의 ‘하필’은 ‘하필이면’으로 대치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산뜻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문맥이나 문장종결법을 고려하면 이 ‘하필’은 ‘하필이면’보다는 “어찌”나 “굳이”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1950년대 초반까지도 ‘하필’에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하필’의 의미 외에, 그 이전 시기의 의미였던 “어찌”나 “굳이”의 의미가 산재해 있었다. 그 이전보다는 사용 빈도가 훨씬 줄어들었으나, 그렇다고 ‘하필’이 이런 의미들과 완전히 결별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은 ‘하필이면’의 등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 (40) ‘하필이면’이 등장하게 된 배경

- ㄱ.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sup>27)</sup> ‘하필’은 “어찌”나 “굳이”의 뜻보다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하필’의 뜻으로 현저히 많이 쓰이게 되었다.
- ㄴ. 빈도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어찌”, “굳이”의 의미로 쓰이는 ‘하필’이 존재하고 있었다. “어찌”와 비교해 보면, “굳이”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었다. 이 시기의 “하필”에서 “어찌”의 의미를 찾아내기는 매우 어려웠다.
- ㄷ. 이러한 상황에서 언중들은 오늘날 ‘하필’의 의미만을 갖는 또 다른 대안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필이면’이라는 형식으로 쓰이게 되었다.
- ㄹ. ‘하필이면’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하필’의 의미도 덩달아 오늘날의 ‘하필’의 의미로 급격히 의미가 고정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은 ‘하필’과 ‘하필이면’이 의미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27) 연대의 상정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1950년대의 ‘하필’에 주목할 만한 의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즉, ‘하필’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다가 ‘하필이면’의 영향을 받아 한 가지 의미로 고정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하필이면’은 오늘날의 ‘하필’의 의미만 반영하기 위한 장치였지만, 역설적이게도 ‘하필이면’은 ‘하필’이 지니고 있던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배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5> ‘하필이면’의 형성 과정

‘하필이면’은 ‘하필’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즉, ‘하필이면’에서 ‘-이면’이 생략되어서 ‘하필’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필’에 ‘-이면’이 통합하여 ‘하필이면’이 생성된 것이다. ‘하필’에 ‘-이면’이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유추의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유추와 관련하여 개화기에 등장하였던 ‘물론(勿論)ㅎ-’와 ‘물론이-’가 주목된다. ‘물론(勿論)ㅎ-’와 ‘물론이-’는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 부사 ‘물론’과 ‘~은 물론이다’로 계승되었는데, 당시의 ‘하필’ 역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다.

개화기 시기의 ‘물론ㅎ-’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 형태소의 의미 그대로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어 ‘물론이-’의 용법과 동일한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였다(김연희 2015: 749).<sup>28)</sup>

- (41) ㄱ. 하늘님 도는 과연 권능이 계시도다 드른 나라를 물론ㅎ고 이 두어 나라히 교화에 유익을 얻은 거슬 보면 <1902.06. 신학월보 2권 6호: 276>  
 ㄴ. 촌가를 써나지 못ㅎ야 서울은 물론ㅎ고 읍늬와 영문을 구경치 못ㅎ고 지내는 사람이 혹 일 이 터도 잇스며 <1897.09.30. 독립신문 1면>

(41ㄱ)은 “논의하지 않다, 언급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인 ‘물론ㅎ다<sub>1</sub>’의 예이고, (41ㄴ)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쓰인 ‘물론ㅎ다<sub>2</sub>’의 예이다. 위 예에서는 둘 다 ‘물론ㅎ고’라는 활용형으로 등장해 있지만, ‘물론ㅎ다<sub>1</sub>’은 ‘물론ㅎ고’ 외에 ‘勿論ㅎ면, 물론ㅎ기로, 물론ㅎ다더라, 勿論ㅎ이라’ 등의 활용형으로도 많이 나타났다. 반면, ‘물론ㅎ다<sub>2</sub>’는 ‘물론ㅎ고’라는 활용형이나, ‘~은 물론ㅎ고’라는 구성으로만 표현되었다. 이것은 ‘물론ㅎ다<sub>2</sub>’의 문법화로 이어지는바, 오늘날의 ‘~은 물론이고’ 구성

28) 김연희(2015)에서는 전자를 ‘물론ㅎ다<sub>1</sub>’로, 후자를 ‘물론ㅎ다<sub>2</sub>’로 구별하고 있다. 편의상 이 글도 그러한 구별을 따랐다.



은 ‘~은 물론하고’에서 변화된 결과이다.<sup>29)</sup>

1920년대 전반기에 ‘何必코’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何必하-’의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주목의 대상이다.<sup>30)</sup>

(42) 於是에 排日의 根源인 米國을 볼 적에 自由니 平等이니 平和니 하고 恒常 써든다  
黑人種을 奴隸로 함이 正義인가 人道인가 何必코 東洋의 黃色人種의 入國을 制限  
함이 平和이며 平等인가 <對米國民大會를 보고. 1924.06.23. 동아일보 1면>

위의 ‘何必코’는 “어찌” 정도로 해석된다. 우리가 확보한 자료에서 ‘하필이면’이 처음으로 문증된 때는 1952년이었고[(38ㄱ)], 그 이전의 자료에서 ‘하필하-’와 관련된 예는 (42)이 유일하다. 이를 고려하면, ‘하필하-’는 ‘何必코’라는 표현으로 우연히, 또는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 이후의 신문 자료에서 ‘하필하면’, ‘하필하니’의 존재가 확인된다.

(43) ㄱ.朴씨가 무슨 운명의 장난에서인지 죄과도 많으려면 하필하면 ‘파렴치범’이며 일종의 ‘국사범’이라고 불리울 ‘밀수범’이 되어 철창에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시계밀수’란 죄과- <六月에 釋放된 話題의 세 人物. 1958.06.2. 동아일보 4면>

ㄴ. “술은 내가 살게요. 댁에게 술값을 내라는 식일까 봐요? 내게 얼마간의 돈이 있어요.” “왜 하필하면 나를 택했죠?” “같이 서 있었기 때문이죠.” <木馬위의 女子. 1976.10.04. 경향신문 5면>

ㄷ. “(...전략...) 어이, 그러지 말고...” “해필허니 워짜 요런 시국에 아프고 근대요. 다 재수 드러와 그리 된 것잉께나도 워쩍 도리가 읊소.” 송동주는 여자를 뿌리치고 빠른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216). 1999.01.25. 한겨레 17면>

‘하필하-’의 활용형은 매우 드물게 등장하는데, 특히 (43ㄷ)의 ‘해필허니’<sup>31)</sup>는 방언이라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예이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표기를 감안하

29)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논의는 김연희(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30) 이 말은 ‘기필코’를 생각나게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기필코’는 부사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고, ‘기필하다’라는 말도 “꼭 이루어지기를 기약하다”라는 뜻을 갖는 동사로 등재되어 있다.

31) ‘해필(奚必)’은 표준어에서 ‘하필(何必)’과 같은 표현이지만, 현재 여러 방언에서는 거의 절대적으로 ‘해필’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전남방언사전』: 650, 『경북방언사전』: 504 등).

면, ‘何必코’라는 표현은 우연히, 또는 잘못 등장한 말로 보기 어렵다. 즉, 현대 한국어 시기로 접어들 무렵에 ‘하필ㅎ-’라는 용언이 등장하였고, 그것은 ‘何必ㅎ고, 何必ㅎ면, 何必ㅎ니’ 등으로 실현되었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표현은 중앙어와 지역어를 가릴 것 없이 일정 부분 쓰일 수 있었다. 하지만 어간 ‘하필ㅎ-’와 그것의 활용형이 극히 드물었다는 점은 역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과 관련된 의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기로 한다.

- (44) ㄱ. ‘하필ㅎ-’의 어근 ‘하필’의 의미는 무엇인가?
- ㄴ. ‘하필’ 뒤에 ‘-ㅎ-’가 통합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ㄷ. ‘하필ㅎ-’와 ‘하필이-’는 어떤 관계에 놓인 말인가?
- ㄹ. ‘하필이-’는 왜 ‘하필이면’ 외의 다른 활용형으로는 쓰이지 못하는가?

(44ㄱ)은 개화기의 ‘물론ㅎ-’가 두 가지 뜻을 지닌 것과 관련된다. 우리가 발견한 ‘하필ㅎ-’의 최초의 예인 ‘何必코’는 “어찌”의 뜻으로 해석된다[(42)]. 그것을 “굳이”나 오늘날의 ‘하필’의 의미로 해석하면 어색하기 때문이다. 해당 문장이 의문문이라는 점도 ‘何必코’가 “어찌”의 의미로 쓰였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 준다. 예가 하나밖에 없어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애초에 ‘하필ㅎ-’는 ‘하필’의 본래적 의미인 “어찌, 어찌 반드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44ㄴ)은 이미 하나의 부사인 ‘하필’ 뒤에 ‘-ㅎ-’가 다시 결합하게 된 이유를 묻는 것이다. 이것은 ‘부사의 용언화’라고 부를 만한 절차 때문인데, 이와 관련된 한국어의 대표적 문법 형태는 ‘-하다’와 ‘-이다’이다. ‘-하다’는 [동태적] 상황과, ‘-이다’는 [정태적] 상황과 관련된다.<sup>32)</sup> 따라서 (44ㄴ)은 다시 두 가지 의문으로 나뉜다. 하나는 왜 ‘-하다’나 ‘-이다’가 여기 뒤에 통합해야 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둘 중에서 ‘-이다’가 아닌 ‘-하다’가 선택되었느냐이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문의 번역 및 유추와 관련된다.<sup>33)</sup> 편의상, 근대 한국어에 등장하는 ‘물론ㅎ다<sub>1</sub>’을 예로 든다.

32) 앞서 ‘-흔즉’, ‘-인즉’을 언급한 부분에서도 동일한 설명을 시도한 바 있었다. 동사성과 관련되는 ‘-흔즉’은 조건, 이유나 원인으로 해석되고, 비동사성과 관련되는 ‘-인즉’은 환언으로 해석되었다.

33) ‘-하다’나 ‘-이다’가 선택되는 문제는 (44ㄷ)과도 관련되는데, 이 문제는 아래에서 거론된다.

- (45) 梶와 梁과 枋과 桁을 勿論하고 塵土 | 만히 衰亂하야시면 보야흐로 울코(勿論 梶梁枋桁하고 塵土 | 多衰亂이면 方是요) <증수무원록언해 2:9a>

한문(구결문) ‘勿論 梶梁枋桁하고’는 언해문에서 ‘梶와 梁과 枋과 桁을 勿論하고’로 나타나므로, ‘물론하고’는 ‘물론 ~하고’에서 비롯된 것이다(김연희 2015: 761~763 참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러한 절차와 직결되는 ‘하필하고’의 예는 찾기 어렵다. 다만, 아래의 자료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 (46) 그럭저럭 밤이 이윽도록 도포쟁이와 말벗이 되었는데 나에게 글 한 수를 준다  
 “雲水藏跡意自閑, 不知桂玉隨時艱, 興亡盛衰皆天理, 何必區區處世間”  
 이에 나도 붓그러움을 잊고 화답하였스니  
 “爲避風雲獨作閑, 高明豈不濟時艱, 風雲元是由人力, 何必區區遁世間”  
 이리하여 하로밤을 새이고 나서 다시 상류로 올라간다  
 <災後一年: 洛東江沿岸 (五). 1926.07.18. 동아일보 5면>

(46)은 글쓴이와 나그네 한 사람이 같은 배를 타고 수해 현장을 지나면서 서로의 심사를 한시로 나타낸 장면이다. 나그네는 흥망성쇠가 모두 하늘의 뜻이니 “어찌 구구히(구차히) 세간에서 욕심을 부리랴”라고 말한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이를 맞받아, 그런 인생관을 은연중에 비판하면서 풍운이란 원래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므로 “어찌 구구히(구차히) 세간을 벗어나 숨어 사랴”라고 답한다. 만약 ‘하필’이 쓰인 한문 부분에 구결을 달고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것은 아래처럼 표현되었을 것이다.

- (47) ‘하필 ~하다’ 유형(한문+구결)  
 ㄱ. 何必 區區 處世間하라  
 ㄴ. 何必 區區 遁世間하라  
 (48) ‘~을 하필하다’ 유형(우리말 번역)  
 ㄱ. 구구히(구차히) 처세간을 하필하라  
 ㄴ. 구구히(구차히) 둔세간을 하필하라

실제 자료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46)→(47)→(48)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필하다’가 생성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앞서 언급하였던 한문(구결문)의

번역이란 (45)를 말한 것이고, 유추란 (47), (48)을 염두에 둔 것이다. 요컨대, ‘물론 ~하고’라는 구결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물론하고’가 생겨났고, 그 과정에 ‘유추’되어 ‘하필하고’가 생성되었던 것이다.

(44ㄷ)은 ‘하필하면 → 하필이면’의 대체 관계를 뜻하는바, ‘-하면’이 ‘-이면’에 자리를 넘겨주게 된 까닭을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하필’을 동태적으로 인식하느냐, 정태적으로 인식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것은 ‘하필’의 의미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하필’이 한자어 의미로 쓰일 때는 동태적으로만 해석되고, ‘하필’이 “굳이”의 의미를 거쳐 오늘날의 의미로 변화하였을 때에는 정태적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로 한다.

- (49) ㄱ. 우리는 언어학을 공부한다.  
 ㄴ. 우리가 하는 것은 언어학 공부이다.

(49ㄱ)의 ‘공부한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49ㄴ)의 ‘공부이다’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49)의 ‘-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을, ‘-이-’는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일을 담당하는 형식인 것이다. 우리는 이를 각각 동태적, 정태적이라는 이름으로 표현하였다.

현대 한국어 ‘하필’(정태적)과 ‘걸핏하면’(동태적)의 비교를 통해서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 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걸핏하면’은 ‘걸핏’이 부사로 쓰인다는 점, ‘걸핏하면’ 외의 다른 활용형이 없다는 점에서 ‘하필’과 매우 닮아 있다. ‘걸핏’에는 ‘-이면’이 아닌 ‘-하면’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 (50) ㄱ. 아버지가 걸핏하면 내게 호통을 치는 것은 내가 누나나 형처럼 돈을 벌어 오지 못한다고 해서였다. <작은 어릿광대의 꿈>  
 ㄴ. 불안하고 우울하고 걸핏하면 화를 잘 낸다. <문화의 시대>  
 ㄷ. 걸핏하면 발끈하고 썩썩 소리를 지르며 이를 악물고 대드는 것이 고양이, 족제비, 삼 같은 놈이 있으랴. <한국현대수필을 찾아서,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ㄹ. 더구나 장차 시집가서 시집살이로 고생할 때 걸핏하면 친정에 편지질이나 하게 되니 글을 배우지 말라 해서 야학당에도 다니지 못했던 것이다. <나,

고은,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ㄱ. 경찰관들의 잇단 수난은 한마디로 국가의 공권력을 우습게 알고 걸핏하면 대들기를 서슴지 않는 그릇된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향신문 96-07 사설>
- ㄴ. 공산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당독재의 폐기, 언론·출판·사상의 자유 등에 대하여 그렇게도 환영의 뜻을 밝히는 당국이 왜 걸핏하면 국가보안법에 걸어 학생들이나 출판업자들을 구속하는가? <한겨레신문, 칼럼(90)>
- ㄷ. 호텔가에 떠도는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는 난감한 소식에 따르면 고작해야 이사관이나 서기관급인 일개 검식관들이 걸핏하면 재벌 그룹 사장급인 특급 호텔 총지배인들의 코뼈를 무시로 쳐 대고 귀싸대기를 올렸다고 하니 그 세도가 어디에 이르렀음인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식도락 보헤미안,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50ㄱ)에서 ‘걸핏하면’의 주체는 ‘아버지’로서, 이 ‘걸핏하면’에는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 주체의 생략 여부에서만 차이가 날 뿐, 그 외의 예들도 주체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다를 바 없다.

반면에, ‘하필’은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일과 관련된다.

- (51) ㄱ. 하필 변압기 근방에서 녹슬은 공기파이프가 폭발하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킨 것이었다.<sup>34)</sup>
- ㄴ. 하필 잠바 차림의 두 사내가 나타난 것도 그때였다.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ㄷ. 저녁 근무는 하필 수도사 마순경이었다.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ㄷ. 하필 노조위원장 언니가 들어갈 때 미경도 입구에 들어서게 됐다.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ㄱ. 하필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논술고사까지 봐야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할 것이다. <창조적인 글쓰기,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34) 코퍼스의 원문은 ‘하필이면’이지만, 의미 전달과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하필’로 대체하였다.

하필이면 변압기 근방에서 녹슬은 공기파이프가 폭발하면서 연쇄작용을 일으킨 것이었다.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ㄷ. 하필 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통계란 일반적인 경우를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김서방이나 이서방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필공원 94 봄, 어휘 의미 분석 전자파일>
- ㄸ. 하필 냉각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인 이 날, 비축했던 완제품을 한꺼번에 빼돌리는 것은 노조를 분열시키려는 작전이 차례로 실패하자 공장을 타지로 옮기거나 위장폐쇄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어느 화가의 승천, 형태 의미 분석 전자파일>

(51ㄱ)의 ‘하필’은 ‘변압기 근방에서 녹슨 공기 파이프가 폭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공기 파이프가 폭발한 것’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이지도 않은 것이다. (51ㄴ)의 ‘하필’ 역시 우연히 그런 장면을 맞닥뜨린 것과 관련되는 것일 뿐, 주체의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다. 나머지 예들도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이때의 ‘하필’은 한자어 의미(“어찌, 어찌 반드시”)가 아닌, 오늘날의 의미(“굳이, 공교롭게도”)이다. “굳이, 공교롭게도”는 20세기 전후한 시기에 등장하여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의미 변화가 ‘하필’을 정태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고, 그 결과 ‘-이면’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다.<sup>35)</sup>

(44ㄷ)은 두 가지 질문과 관련된다. 첫째는 ‘하필이-’는 왜 활용을 하지 못하느냐이고, 둘째는 ‘하필이-’에는 연결어미 ‘-면’만 결합하느냐이다. ‘하필이-’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필’의 의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하필’은 두 번의 의미 변화를 거쳐 오늘날의 의미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의미를 담당하는 ‘하필이면’의 출현도 경험하였다. 결국 ‘-이면’은 ‘하필’이 이전 시기의 의미와 단절하였다는 것을 알리는 일종의 ‘징표’인 셈이다. ‘하필’은 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연하거나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는 대체 형식 역시 부사일 수밖에 없었다. 애초에 ‘하필이-’는 ‘하필이면’ 외의 다른 활용형을 가질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35) 지금까지의 논의는 신구형의 관계로 ‘하필하면’과 ‘하필이면’의 관계를 설명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신구형의 문제로 보지 않고, 방언형 간의 문제로 보는 방법도 있다. 같은 시기에 A 지역에서는 ‘하필하-’가 쓰였고, B 지역에서는 ‘하필이-’가 쓰였는데, 언어 접촉에 의해 두 말이 같은 지역(이른테면, ‘서울’)에 함께 쓰이면서 세력 다툼을 벌여 승자와 패자가 갈렸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도 승패가 갈린 것은 ‘하필’의 의미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좋다. 역사적으로 신구형의 관계가 사실인지, 언어 접촉에 의한 방언 간 세력 다툼이 진실인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오늘날 ‘하필이면’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사 ‘하필’과 동일한 용법을 지닌다고 하여 반드시 ‘하필이면’이 선택된다는 보장은 없다. 예컨대, ‘해필허니’를 보면 ‘\*하필이니’도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일 수 있다. 이 ‘하필이면’이 선택된 것은 부사 ‘하필’과 연결어미 ‘-면’이 의미면에서 매우 강력한 연관을 맺었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 연결어미 ‘-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의미가 들어 있다.

(52) ‘-면’의 의미

- ㄱ.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비가 오면 눈을 갈자./내일 날씨가 좋으면 소풍을 가겠다.
- ㄴ. 일반적으로 분명한 사실을 어떤 일에 대한 조건으로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봄이 오면 꽃이 핀다./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 ㄷ.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  
 ¶ 눈이 오면 좋을 텐데./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 ㄹ. 뒤의 사실이 실현되기 위한 단순한 근거 따위를 나타내거나 수시로 반복되는 상황에서 그 조건을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  
 ¶ 꼬리가 길면 잡힌다./책만 읽으면 준다.

(이상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져옴.)

‘하필’과 관련한 것은 (52ㄷ)의 의미이다. ‘하필’의 의미는 화자의 기대치와 관련된다. 주체의 행위나 상태를 화자가 동의할 수 없을 때 ‘하필’을 쓰는데, 그것은 주체의 행위·상태에 대한 화자의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필이-’가 다른 어미를 취하지 않고 ‘-면’만을 취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

<6> 요약

중세 한국어의 ‘何必’은 ‘엇데 구퇴여’, ‘엇디 반드시’로 언해되던 한문 표현이었다. 근대 한국어 시기에 접어들면서 ‘何必’의 ‘何’와 ‘必’은 그 관계가 몹시 긴밀해져서, 둘이 합해진 것이 마치 하나의 독립된 단어처럼 인식되었다. 19세기 이후의 근대 한국어 자료에서 ‘하필’이라는 표기가 문면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20

세기 중반의 ‘하필’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 ①근대 한국어에서 비롯된 “어찌, 어찌 반드시”, ②오늘날의 의미인 “(선택 가능한 대안 집합의 원소들을 두고) 굳이, 공교롭게도”, ③앞의 두 가지를 교량적으로 이어주는 “굳이, 구태여”가 그것이다. “굳이, 공교롭게도”라는 의미는 초점을 드러내는 의미로서, 이 의미는 20세기 초·중반부터 문헌에서 발견된다.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하필이면’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 ‘하필’에는 ①과 ③의 의미가 크게 약화되는 대신, ②의 의미가 주된 것으로 쓰이게 된다. 언중들은 ②의 의미만을 드러내는 단어로써 ‘하필이면’을 사용하게 되었고, 이것은 ①~③의 의미를 나타내었던 ‘하필’의 의미를 ②의 의미로 고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오늘날의 ‘하필’과 ‘하필이면’은 주로 ②의 의미로 해석되고, 그 둘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필이면’의 출현은 동태적인 의미가 정태적인 의미로 바뀐 것과 연관된다. ‘하필’이 “어찌”의 뜻을 가지고 있었을 때, ‘물론히-’ 등의 어형에 유추되어 ‘하필히-’라는 표현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하필’의 의미는 ①에서 ③을 거쳐 오늘날의 의미인 ②로 굳어지면서 동태적 의미가 정태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다. 이 의미 변화 과정은 동태적 의미와 관련되는 ‘-히(>하)-’를 정태적 의미와 관련되는 ‘-이-’로 교체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하필’에는 화자의 기대와 관련되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이 어미 중에서 ‘-면’을 택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하필’과 함께 ‘하필이면’이라는 또 다른 부사가 쓰이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8> ‘하필’의 역사적 변화

원문의 한자	부사 분류		근대 한국어	개화기 한국어	현대 한국어	문법적 분류
何必	하필	초점	어찌, 어찌 반드시.	어찌, 어찌 반드시, 굳이, 구태여.	굳이, 공교롭게도.	명사구-부사
	하필이면	초점	×	굳이, 공교롭게도.	굳이, 공교롭게도.	명사구-부사



## 5.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체언 수식 부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다의성의 측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서, ‘바로, 곧, 즉, 정히’, ‘꼭, 꼭히, 딱, 딱히’, ‘하필, 하필이면’ 등이 그 연구 대상이었다. 체언 수식 부사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품사 분류나, 개별 부사의 특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이 연구는 해당 부사들의 여러 의미와 용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대하여 온전한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아래에서 본론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겠다.

제2장에서는 지시성 부사류를 다루었다. 지시성 부사는 선행 요소가 후행 요소를 의미적으로 강하게 부각시키는 부사로서, ‘바로, 곧, 즉, 정히’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류의 공통점은 중세 한국어부터 등장하였다는 점, 따라서 부사의 의미를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양태적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 주로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지시적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 등이다. 이 부류의 부사는 한문 원문에 대한 번역어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해당 부사에는 개별 한자의 의미가 반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세 한국어 ‘바르’는 ‘直’과 ‘正’을 언해한 부사였는데, ‘正’보다는 ‘直’의 의미가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直’에는 정상부사(“곧게”, “곧장”), 시간부사(“곧바로”), 정도부사(“매우 가까이”), 초점부사(“다름 아닌”) 등의 용법이 있었고, ‘正’에는 정상부사(“올바로”, “있는 그대로”)의 용법만 있었다. 시기나 자료에 따라 약간의 공백이 없지는 않으나, ‘바르’의 모든 의미는 큰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바르)는 매우 단단한 위상을 지닌 부사였다고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 ‘곧’은 “시간적으로 머지않아”와 “다름 아닌”의 의미를 지녔는데, 전자가 시간부사(卽, 便, 輒)이고 후자가 초점부사(卽, 則, 直)였다. 시간부사 ‘곧’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경우와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를 모두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다르지 않았다. 비전형적 환언문에서 쓰인 초점부사 ‘곧’은, 초점부사 ‘즉’과의 유의경쟁에서 승리하여 오늘날에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중세 한국어 ‘곧’은 환언의 접속부사로 쓰이지는 않았으나, 근대 한국어 시기 이후부터 2단계를 거쳐 환언의 접속부사로 기능하게 되었다. 하나는 18세기~19세기 교체기에 문장과

문장을 접속(환언)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화기를 전후하여 명사구와 명사구를 접속(환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 한국어의 ‘곧’은 시간부사, 초점부사, 환언의 접속부사 용법을 모두 지니게 되었다.

중세 한국어 ‘즉’은 용법의 부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사이다. ‘즉’은 ‘卽’을 그대로 읽은 한자어인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초점부사(“다름 아님”)의 용법만 존재하였다. 시간부사로서의 용법은 ‘즉자히, 즉재’가, 인과의 접속 용법은 ‘-ㄴ즉’이 담당하였던 것이다. ‘즉’이 가장 다양한 용법을 지녔던 시기는 근대 한국어로서, 시간부사(“시간적으로 머지 않아”), 초점부사, 인과의 접속부사(“따라서, 그러므로”), 환언의 접속부사(“다시 말하면, 바꾸어 말하면”) 등의 용법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간부사와 초점부사의 용법이 ‘곧’에 합류되면서, 오늘날의 ‘즉’은 인과와 환언의 접속부사로만 기능하게 되었다.

‘정히’(<正히)도 ‘즉’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한 부사였다. ‘正히’는 한자 ‘正’을 언해한 것인데, 성상부사(“올바로”), 정도부사(“정확히”), 초점부사(“다름 아님”)로 쓰였던 부사였다. ‘正히’는 언해문에 특화된 부사였으므로, 언해문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19세기를 기점으로 그 용법이 대폭 축소되었다. ‘정히’는 비조건절에서는 유의 관계에 있던 ‘바로’나 ‘곧’에 대치되기 시작하였고, 조건절에서는 신어인 ‘정’에 대치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오늘날 ‘정히’는 일부 환경에서만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제3장에서는 상징성 부사를 다루었다. 상징성 부사류란 의성어·의태어에서 비롯하였거나, 그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류로서, ‘꼭, 꼭히, 딱, 딱히’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부류는 근대 한국어 시기부터 등장한다는 점, 양태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 어형의 유사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공통점으로 삼을 수 있다.

‘꼭’은 18세기~19세기 고전소설 및 판소리계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의태어였다. 의태어 ‘꼭’은 “야무지게 힘을 주어 누르거나 죄는 모양”의 의미로서 후행하는 서술어의 의미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19세기부터 ‘꼭’의 작용역이 크게 확대되었는데, 특히 양태부사(“반드시, 정말로”)로서의 기능이 급격하게 대두되었다. 그 외에도 ‘꼭’은 정도성 용언이나 체언을 꾸미는 정도부사(“정확히”)나, 체언에 선행하여 초점을 부여하는 초점부사(“하필, “다름 아님”, “특히”)로 쓰일 수 있었다. 이후 ‘꼭’(<꼭)은 별다른 변화 없이 오늘날에 이르렀다.

‘꼭이’(>꼭히)는 19세기 후반부터 양태부사(“반드시, 정말로”), 정도부사(“정확히”), 초점부사(“특별히, 다름 아님”)로 기능하였고, 20세기까지도 이 용법을 유지

하였다. ‘꼭히’는 ‘꼭’, ‘딱히’와 유사한 면이 많았는데, 그 결과 ‘꼭’이나 ‘딱히’에 합류되어 오늘날에는 사어가 되었다.

‘씩’은 19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등장한 상징부사로서 의성어(“어떤 대상에 부딪혔을 때 나는 소리”)와 의태어(“굳건하다고 믿거나 놀라움, 긍정적 평가 등을 나타내는 모양”)로 기능하였다. 20세기를 기점으로 상징부사 ‘씩’의 작용역이 확대되어, ‘씩’은 정도부사(“정확히”), 시간부사(“일시에, 갑자기”), 초점부사(“다름 아닌”) 등으로까지 쓰일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딱’(<씩)은 대부분의 용법을 유지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발생 초기와 오늘날의 용법이 가장 이질적인 부사는 ‘씩히’이다. ‘씩히’는 17~19세기 언간 자료에서 부정문과 호응한 초점부사(“특별히”)였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씩히’는 개화기 이후부터 양태부사(“분명히”)와 정도부사(“정확히”)의 용법도 획득하였다. 그렇지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순수 부정문이 아닌 환경에서도 ‘딱히’가 사용되면서 초점부사(“특히”)와 같은 용법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것은 ‘딱히’의 사용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제4장에서는 평가성 부사를 다루었다. 평가성 부사류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는 양태부사로서 ‘하필’과 ‘하필이면’이 이 부류에 속한다. 이 부류는 특정한 통사 구조의 도움 없이 부사 자체만으로 초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 언제나 화자의 부정적 가치를 드러낸다는 점, 다의적 용법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앞의 두 부류와는 차이를 보인다.

중세 한국어 ‘何必’은 의문문에서 ‘엇데 구티여’, ‘엇디 반드시’로 언해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하필’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하필’이 독립된 부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당시의 ‘하필’은 근대 한국어에서 비롯된 “어찌, 어찌 반드시”의 의미, 현대 한국어의 의미인 “굳이, 공교롭게도”, 현대 한국어와 근대 한국어의 의미 사이를 이어주는 “굳이, 구태여” 등의 세 가지 의미가 혼재하고 있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하필’의 현대 한국어 의미만 남게 되고 나머지 의미는 거의 사라지게 된다.

1950년대부터는 ‘하필이면’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현대 한국어 ‘하필’의 의미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한 언중들의 노력이었다. ‘하필이면’은 ‘동태적 → 정태적’ 의미의 변화를 잘 나타내는 결과물로서, ‘물론 ~하고 → 물론하고’와 같은 변화에 유추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체언 수식 부사를 다루기는 하였지만, 제한된 범위의 부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물론, 이것은 부사의 다의적 용법을 역사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부사의 출현이나 용법의 변화 과정은 개별 부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각 부사의 역사적 변화 과정을 일관되게 논의하거나, 공통의 기준으로 아우르는 것은 쉽지 않다. 제한된 지면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없으므로, 추후에는 더 많은 수의 체언 수식 부사가 연구 대상에 포함되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성 부사류를 ‘하필, 하필이면’으로 한정할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평가성 부사류는 초점부사나 평가 양태부사와 연관 지어 고민할 부분이 많은바, 여기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체언 수식 부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체언 수식 부사는 선행 연구처럼 부사와 관형사의 품사 범주로 다룰 수도 있고, 정도성이나 양태성을 중심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 또한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의성의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앞으로는 체언 수식 부사를 더욱 풍성하게 다룰 만한 연구 방법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사전류>

- 『경북방언사전』, 이상규(2000), 태학사.
- 『고려대 한국어사전』, <http://dic.daum.net/index.do?dic=kor>
- 『고어대사전』, 박재연·이현희(2016), 선문대학교 출판부.
- 『금성관 국어대사전』, 김민수 외(1991), 금성출판사.
-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강남형(1949), 영창서관.
- 『신찬 국어대사전』, 동아출판사(1963), 동아출판사.
- 『언어학사전』(3판), 이정민 외(2000), 박영사.
- 『연세 현대 한국어사전』, <https://ilis.yonsei.ac.kr/dic/>
- 『영어학 사전』, 조성식(1990), 신아사.
- 『우리말 큰사전』(3판), 한글학회(1994), 어문각.
- 『우리말 큰사전』, 한글학회(1957), 을유문화사.
- 『전남방언사전』, 이기갑, 고광모, 기세관, 정제문, 송하진(1998), 태학사.
- 『중조대사전』, 박재연(2002),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 『표준 조선말 사전』, 이윤재·김병제(1947), 어문각.
-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필사본 고어대사전』, 박재연(2010), 학교방.
- 『한글편지 어휘사전』, 황문환 외(2016), 역락.
- 『한불자전』(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1880), par les missionnaires de Corée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Yokohama: C. Lévy.<sup>36)</sup>
- 『한영자전』(A Korean-English dictionary), Gale, J.(1897), Yokohama: Kelly & Walsh, Limited.<sup>37)</sup>
- 『한한대사전』, 이상은(1966), 민중서관.
- 『한한대사전』,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2003), 단국대학교출판부.
- 『허사사전』, 김원중(1989), 현암사.
-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Random House(1999), Random House.

36) [http://ia800504.us.archive.org/20/items/DictionnaireCoren-franais/coreen\\_dictionnaire.pdf](http://ia800504.us.archive.org/20/items/DictionnaireCoren-franais/coreen_dictionnaire.pdf)

37) [https://archive.org/download/KoreanEnglishDictionary/korean\\_dictionary.pdf](https://archive.org/download/KoreanEnglishDictionary/korean_dictionary.pdf)

## <논저류>

- 강신항(2003), 『수정증보 훈민정음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강영리·서취아·박진호(2018), 가능 표현의 실현 용법에 대하여 ‘-을 수 있-’ 및 일본어·중국어의 대응 표현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0,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313~346.
- 고영근(2010), 『제3판 표준 중세 국어문법론』, 집문당.
- 고영근(2011), 『텍스트 과학』, 집문당.
- 고창운(1986), 전제 이론과 국어의 전제 분석,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구본관(1993), 국어 파생접미사의 통사적 성격에 대하여, 『관악어문연구』 1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17~140.
- 구본관(1998), 『15세기 국어 파생법에 대한 연구』, 『국어학총서』 30, 태학사.
- 구본관(2001), 접미사 ‘-이’의 종류와 성격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 실제-이광호교수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1169~1190.
- 구현정(1989), 현대 국어의 조건월 연구,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현정(1996), 조건씨끝의 연구사, 『한국어 토씨와 씨끝의 연구사』, 박이정.
- 권재일(1985), 『국어의 복합문 구성 연구』, 집문당.
- 권재일(1987), 강조법과 그 실현 방법, 『인문과학논총』 19,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57~73.
-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 김건희(2016), 국어 양태의 특수성-다른 양태소 및 문법소와의 공기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70, 한국어학회, 1~54.
- 김건희(2017), 부사 ‘여간’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45, 한말연구학회, 5~35.
- 김경훈(1996), 現代國語 副詞語 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광희(2011), 대용 표현 연구의 이론과 논점, 『7인의 젊은 학자들이 본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269~335.
- 김병건(2016), 한국어 평가양태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70, 국제어문학연구회, 7~28.
- 김선영(2003), 현대 국어의 접속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선효(2002), 현대 국어의 관형어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선효(2005), 문장부사 설정에 대한 재고, 『언어와정보사회』 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6~54.
- 김선희(1985),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 187, 한글학회, 123~139.
- 김성규(1994), 中世 國語의 聲調 變化에 대한 研究,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은(2010), 후보층 구문의 운율구 형성 양상,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7), 영어와 한국어 초점사 비교 분석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18,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03~625.

- 김승곤(2017), 『국어 부사 분류』, 글모아출판.
- 김연희(2015), 개화기 ‘물론(勿論)하다’에 대한 고찰, 『어학연구』 51-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747~770.
- 김 옴(2014), ‘커녕’ 및 관련 표현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용범(2004), 초점과 주제의 음성학적 관련성, 『언어와정보』 8-1, 한국언어정보학회, 27~52.
- 김용범(2005), 서평: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의미와 기능 분석-』, 『텍스트언어학』 19, 한국텍스트언어학회, 395~419.
- 김원경(2008), 『정보처리문법의 이해』, 역락.
- 김원경(2013), 체언 수식 부사의 범주와 자질, 『언어학연구』 29, 한국중원언어학회, 27~52.
- 김은영(2002), 영어 초점 부가어의 의미 분석-even과 only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은영(2010), 체언 수식 부사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역락.
-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정아(1998), 『중세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태학사.
- 김주원(1995), 중세 국어 성조와 경상도 방언 성조의 비교 연구-「뭇노퐁 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로-, 『언어』 20-2, 한국언어학회, 1~28.
- 김주필(2011ㄱ), 『국어의 음운현상과 음운변화 연구』, 역락.
- 김주필(2011ㄴ), 『음운변화와 국어사 자료 연구』, 역락.
- 김진영, 김현주, 김동건, 이성희, 김필래(1998), 『토끼전 전집』, 박이정.
- 김진영, 김현주, 김영수, 김지영(1997), 『심청전 전집』, 박이정.
- 김진영, 김현주, 최혜진, 이의철, 강호봉(1997), 『흥부전 전집』, 박이정.
- 김한결(2018), 부사 ‘정’, ‘정히’에 대한 공시적 연구-현대 한국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7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25~155.
- 남기심·고영근(1985/1993), 『표준국어문법론』 개정판, 탑출판사.
- 남승호(1985), 국어의 접속문 구성과 양상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두임림(2014),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조사 ‘-이’, ‘-는’, ‘-으랴’, ‘-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목정수·연재훈(2002), 상징부사(의성·의태어)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한국어학』 12, 한국어학회, 89~118.
- 문순홍(1990), ‘체언 수식 부사’ 소론, 『청람어문학』 3, 청람어문학회, 137~147.
- 민경모(2012), Deixis의 개념 정립에 대한 일고찰, 『한국어의미학』 37, 한국어의미학회, 27~52.
- 민현식(1987), 한국어 부사에 대한 연구-중세국어 부사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61, 한국어교육학회, 201~248.

- 민현식(1992ㄱ),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1),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223~252
- 민현식(1992ㄴ), 중세국어 성상부사 연구(2)-평가부사를 중심으로-, 『어학연구』 28-1, 서울대학교어학연구소, 99~124.
- 민현식(2002), ‘부사성’의 문법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10, 한국어의미학회, 227~250.
- 박갑수(1994), 『국어문체론』, 대한교과서.
- 박선우(1988), 중세어 부사 ‘안직, 아직, 맛, 가장’의 의미연구, 『한국어학』 7, 한국어학회, 159~191.
- 박선우(1995), 15세기 국어 부사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선자(1996), 『한국어 어찌말의 통어의미론』, 세종출판사.
- 박성하(2009), 현대중국어 시태부사 ‘正’의 어법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2000), 한국어 부사의 문장 계층적 유형론, 『어학연구』 36-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615~642.
- 박소영(2004), 『한국어 동사구 수식 부사와 사건구조』, 『국어학총서』 48, 태학사.
- 박여성(1995), 간텍스트성의 문제-현대 독일어의 실용 텍스트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 한국텍스트언어학회, 83~122.
- 박재연(1996), 낙선재본 『후슈호던』 연구-古語 資料를 중심으로-, 『중국소설논총』 5, 한국중국소설학회, 231~273.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국어학총서』 56, 태학사.
- 박진호(2009), 재귀사, 『학여와 함께하는 국어학-임흥빈교수 정년퇴임기념-』, 태학사, 45~64.
- 박진호(2011ㄱ),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289~322.
- 박진호(2011ㄴ), 韓國語에서 證據性이나 意外性의 의미성분을 포함하는 문법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25.
- 박진호(2015), 『한한대사전(漢韓大辭典)』의 뜻풀이에 대하여, 『동양학』 5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89~210.
- 박진호(2016), 單義(monosemy)와 多義(polysemy)-문법화와 유형론의 관점에서-, 『국어의미론의 심화』, 『윤평현 선생 정년퇴임 기념논총-국어의미론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2-』, 역락, 189~218.
- 배진영(2012), 구어와 문어 사용역에 따른 정도부사의 분포와 사용 양상에 대한 연구, 『국제어문』 54, 국제어문학회, 95~140.
- 백채원(2010), 중세 한국어의 정도 부사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백효동(2016), 조건·가정 연결 어미 ‘-거든’의 통시적 변화 유형에 대한 연구-『소학』·『삼강행실도』·『노걸대』·『박통사』 이본 자료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봉원덕(2004), 국어 시간부사의 통사·의미적 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반석(2017), 접속부사어 ‘이때/그때’ 연구, 『국어학』 81, 국어학회, 191~226.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4), 『고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문법』, 교육인적자원부.
- 서정수(2005), 『한국어의 부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서태룡(1978), 國語 接續文에 대한 研究-接續語尾의 意味機能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서태룡(1979), 內包와 接續, 『국어학』 8, 국어학회, 109~135.
- 서태룡(2006), 국어 품사 통용은 이제 그만, 『국어학논총』, 태학사, 359~389.
- 설성경(1993), 춘향전의 개성적 표현에 관한 연구, 『연세교육과학』 42,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83~97.
-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 손남익(2006), 부사의 의미론-어휘적 관점에서-, 『한국어의미학』 52, 한국어의미학회, 139~161.
- 손민숙(1987), 한국어 조건문 연구, 『겨레어문학』 11, 건국대국어국문학회, 273~293.
- 송석만(1996), 담화 내의 화제와 초점의 의미 관계, 『영미어문학연구』 12, 영미어문학회, 1~33.
- 송재영(2011), 영어와 한국어 지시어의 용법 차이 연구,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91~108.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형성 연구』, 『국어학총서』 18, 태학사.
- 신서인(2011), 문장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국어학회, 207~238.
- 신서인(2014), 담화 구성 요소를 고려한 문장부사 하위분류, 『한국어의미학』 44, 한국어의미학회, 89~118.
- 신서인(2017), 양태 표현의 다의성과 구조적 중의성, 『우리말글』 72, 우리말글학회, 1~29.
- 신우봉(2016), 제주방언 정도부사 연구-목록과 분류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34, 영주어문학회, 5~36.
- 신주철(1998), 전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1998), 대용어,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665~688.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심재기, 조항범, 문금현, 조남호, 노명희(2011),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 교양.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해승(2015), 한국어의 주관량 표현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예선희(2010), 척도초점사 even의 문법화에 대하여-주관화, 상호주관화, 서법성을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54-4,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157~172.
- 오민석(2008), 일부 수식언의 품사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학』 41, 한국의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105~126.
- 옥태권(1984), 국어의 촛점화 현상, 『두메 박지홍 스승 회갑 기념 논문집』, 문성출판사, 173~191.

- 왕비비(2017), 한국어 부사 유의어의 통시적 연구-시간부사, 정도부사, 성상부사, 양태부사를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왕 철(2011), 한국어 순간부사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왕문용·민현식(1993), 『국어 문법론의 이해』, 개문사.
- 우인혜(1991), 우리말 시제·상 표현과 시간 부사, 『한국언어문화』 9, 한국언어문화학회, 161~200.
- 우형식(2006), 관형사, 『왜 다시 품사론인가』, 197~226.
- 유영영(2016), 한국어 명사와 부사의 중복 범주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유창돈(1975), 『어휘사 연구』, 이우출판사.
- 유필재(2007), 후기중세국어 부사파생접미사 ‘-이’의 형태음운론, 『국어학』 49, 국어학회, 3~31.
- 윤영은(2000), 고정합축과 전제, 『어학연구』 36-3,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45~572.
- 윤영은(2002), 『언어의 의미 현상-영어와 한국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 윤영은(2013), 언어의 중의성, 『언어의 의미 및 화용 이론과 실제』-형식 의미론적 관점과 인지 의미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사, 40~98.
- 윤평현(2005), 『현대국어 접속어미 연구』, 박이정.
- 윤평현(2008), 『국어의미론』, 역락.
- 이광호(1992), 유의경쟁의 통시적 고찰( I ), 『문화와융합』 13-1, 문학과언어학회, 99~124.
- 이광호(2001), 시간부사의 통시적 고찰-노결대의 이분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20, 언어과학학회, 229~248.
- 이광호(2009), 『의미 분석론』, 역락
- 이광호(2004), 『근대국어문법론』, 태학사.
- 이규호(2008), 체언 수식 부사, 『국어학』 51, 국어학회, 3~28.
- 이금영(2016), ‘그러-/그리-’ 계열 접속 부사의 통시적 고찰, 『인문학연구』 10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5~247.
- 이금희(2014), 체언 수식 부사의 발생과 의미,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77~310.
- 이기문(2000),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이동석(2005), 『국어 음운현상의 공시성과 통시성』, 한국문화사.
- 이동석(2015), 중세국어 부사 파생법의 연구 성과와 과제, 『국어사연구』 21, 국어사학회, 95~153.
- 이상훈(2009), 부사 ‘하물며’의 의미, 『국어학논집』 6, 역락, 209~222.
- 이상훈(2011), 중세국어 양보부사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선영(2014), 명제와 양태, 『한국어의미학』 43, 한국어의미학회, 303~320.
- 이선웅(2001), 국어의 양태 체계 확립을 위한 시론, 『관악어문연구』 2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17~339.

- 이성만 역(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역락, K, Brinker.(1997), Linguistische Textanalyse: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 E. Schmidt.
- 이성만 역(2006), 『텍스트의 구조와 이해』-텍스트언어학의 새 지평-, 배재대학교출판부, Vater, H.(2001),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Struktur und Verstehen von Texten, München: Wilhelm Fink.
- 이성연(2002), 구약 요나의 결속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학』 48, 한국언어문학회, 241~255.
- 이성연·안정순(2004), 구약 『아가』의 환언과 대응형 연구, 『새국어교육』 67, 한국국어교육학회, 229~247.
- 이수련(2007), 시간 지시사의 인지론적 해석, 『한글』 277, 한글학회, 159~184.
- 이수미·김민국(2009), 새로운 유형의 관형사 설정에 관한 연구, 『한말연구』 4, 한말연구학회, 165~194.
- 이신형(2010), ‘화제-초점’의 의미기능과 텍스트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8), 접속어미의 통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465~490.
- 이은섭(2011),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 『국어학』 61, 국어학회, 291~321.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채완(1999), 『국어 문법론 강의』, 태학사.
- 이익환(1984), 『현대 의미론』, 민음사.
- 이익환(1985), 『의미론 개론』, 한신문화사.
- 이재원 역(2004), 『텍스트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W, Dressler.(1973), Einführung in die Textlinguistik,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 이정훈(2009), 한국어 후보층 구문의 구조, 『어문연구』 3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31~54.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역락.
- 이주행(1989), 후기 중세국어 시간부사의 통사, 의미론적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14-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01~121.
- 이지영(2006), 중세국어(中世國語) ‘아직, 안즉, 안즉, 안직’의 의미(意味)와 통사적 특징, 『어문연구』 34-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09~135.
- 이진화(2003), 국어 조건 연결어미 연구-‘-면, -어야, -거든’의 의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찬규(2001), 문장 의미 해석을 위한 한국어 동사의 층위별 의미 자질 구조화, 『한국어의 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133~170.
- 이창용(1984), 연결어미 ‘-거든’의 의미적, 통사적 분석, 『국어연구』 7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317~337.

- 이현희(1986), 中世國語 內的 話法의 性格, 『한신논문집』 3, 한신대학교, 191~227.
- 이현희(1988), 『小學』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形態·統辭의 측면을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5, 한신대학교, 205~248.
- 이현희(1991ㄱ), 15세기국어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적 연구(I)-화법, 사유, 인지, 감각동사의 구문 유형을 중심으로-, 『주시경학보』 7, 주시경연구회, 28~99.
- 이현희(1991ㄴ), 중세국어 명사문의 성격,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김완진선생 회갑 기념논총-』, 민음사, 504~536.
- 이현희(1993),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편, 55~77.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 연구』, 신구문화사.
- 이현희(1996), 중세국어 부사 ‘도로’와 ‘너무’의 내적 구조, 『이기문교수 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644~659.
- 이현희(2005), 중세국어의 형태론적 두 현안, 임홍빈 외,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 마당』, 태학사, 629~639.
- 이현희(2007), 19세기 초기부터 20세기 초기까지의 한국어는 어떤 모습이었나-주로 문법사적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1~40.
- 이현희(2009), ‘조초’의 文法史,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129~175.
- 이현희(2010), 근대한국어의 잉여적 파생접미사 덧붙임 현상, 『한국문화』 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3~22.
- 이현희, 두임림, 사화, 스기야마 유타카, 정혜린, 김소영, 김주상, 백채원, 가와사키 케이코, 이상훈, 김한결, 김민지, 왕철(2014), 『훈민정음의 한 이해』, 역락.
- 이흥매(2011), 부사 ‘적어도’의 한정 의미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61~83.
- 이흥매(2013), 한국어 환언문 연구, 『한국어의미학』 40, 한국어의미학회, 219~248.
-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임규홍(1986), 국어의 분열문에 관한 연구,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55~175.
- 임동훈(2003), 국어 양태 체계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27~153.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의미학』 26, 한국어의미학회, 211~249.
- 임동훈(2011),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39~63.
- 임동훈(2012), ‘은, 는’과 중형의 의미 관계, 『국어학』 64, 국어학회, 217~271.
- 임성규(1989), 현대 국어의 강조법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임유중(1999), 『한국어부사연구』, 한국문화사.
- 임유중(2005), 『수식언의 문법』, 경진문화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채훈(2003), 시간부사의 문장의미 구성, 『한국어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155~170.
- 임채훈(2009), 事件 好否 評價 樣態性 表現 研究-意味 體系 設定 및 表現 項目 提示를 中心으로, 『어문연구』 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55~81.
- 임홍빈(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국어연구회.
- 임홍빈(1979), 용언의 어근 분리 현상에 대하여, 『언어』 4-2, 한국언어학회, 55~76.
- 임홍빈(2007), ‘이/가’ 주제와 배타적 제시, 『한국어의 주제와 통사 분석』, 서울대학교출판부, 363~513.
-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 1』,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장경희(1995), 국어의 양태 범주의 설정과 그 체계, 『언어』 20-3, 한국언어학회, 191~205.
- 장경희(1997), 국어 대화에서의 서법과 양태, 『국어교육』 93, 한국어교육학회, 255~275.
- 장봉순(2012), 영어 전제에 대한 의미. 화용론적 연구, 강원대학교 언어학과 석사학위논문.
- 장소원(1998), 문체,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689~716.
- 장영희(1994), 현대국어 화식부사의 의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장영희(2001), 국어 관형사의 범주와 기능, 『한국어의미학』 8, 한국어의미학회, 201~220.
- 장요한, 조지연, 정혜선, 박미영, 정한데로, 김한별(2014), 『『석보상절』 권24와 『월인석보』 권25의 역주 및 비교 연구』, 역락.
- 장윤희(1996), 중세국어 ‘-이쓰녀’ 구문의 구조와 성격, 『관악어문연구』 2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339~376.
- 장인봉(2002), 직시의 화용론, 『화용론 연구』, 태학사, 47~88.
- 장혜진(2016), 20세기 전기 구어에 나타난 정도부사의 실현 양상, 『한국어학』 71, 한국어학회, 153~179.
- 전명희(2016), 『계량분석을 통한 한국어 양태부사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하우.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43, 한국언어학회, 215~237.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한글학회, 171~200.
- 전정미(2008),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강조법 연구, 『한말연구』 23, 한말연구학회, 367~390.
- 전정예(2010), 새로운 국어사 연구론, 경진.
- 전혜영(1983), 가정 조건문 연구, 『이화어문논집』 6, 이화어문학회, 29~39.
- 정동경(2013),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병철(2011),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부사 ‘바로’의 체계적 다의성 연구, 『담화와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183~207.
- 정성애(2011), 국어 부사의 통사론적 고찰, 신라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동홍(2017), 한국어의 빈도부사 연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조은경(2016), 시간 부사와 시제 표지의 공기에 관한 말뭉치 기반 시간 지향성 해석, 『담화와 인지』 23-1, 담화·인지언어학회, 207~228.

- 조익선(1988), 국어 정도부사의 고찰-중세·근세어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 주지연(2008), 한국어 지시어 ‘이’, ‘그’, ‘저’가 결합한 시간표현 부사의 통시적 연구, 『관악어문연구』 3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09~123.
- 채 완(1975), 助詞 ‘는’의 意味, 『국어학』 4, 국어학회, 93~113.
- 채 완(1998), 특수조사,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 기념 논총-』, 태학사, 115~138.
- 채숙희(2010), ‘이’, ‘그’ 계열 지시어의 인용표지적 성격에 대하여, 『형태론』 12-2, 형태론, 217~239.
- 최규련(2005), 『국어의 초점사 현상-의미와 기능 분석-』, 한국문화사.
- 최낙복(2009), 『개화기 국어 문법의 연구』, 역락.
- 최용환(2012), 국어 부사의 통사적 지위와 표상, 『우리말글』 54, 우리말글학회, 25~55.
- 최윤지(2007), 『한국어 분열문의 의미 연구-정보 구조를 중심으로-』, 『국어연구』 202, 국어연구회.
- 최윤지(2016), 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재용·이민행(1999), 초점, 『형식의미론과 한국어기술』, 157~205.
- 최종원(2016), 긴밀한 절 공기를 형성하는 부사적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1937/1971), 『우리말본』, 정음사.
- 최현배(1937/1982),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2016), 『한국어 형태론』, 역락.
- 최홍렬(2005), 『정도부사의 유의어 연구』, 역락.
- 파베우 키다(2015), 한국어 품사 통용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한 길(2014), 『우리말 어찌씨의 짜임새 연구』, 역락.
- 한 길(2016), 『우리말의 통사 어찌씨 연구』, 역락.
- 한경숙(2016), 중국어 부사 ‘正’, ‘正在’, ‘在’ 時相(Tense and Aspect) 자질 중한 대조 분석, 『한중인문학연구』 53, 한중인문학회, 365~381.
- 한국텍스트언어학회(2004),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 한재영(1996), 16세기 국어 구문의 연구, 신구문화사.
- 한정환(1993), 국어 시간표현의 조응적 해석, 『언어』 18-1, 한국언어학회, 123~140.
- 허 웅(1975),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I)』, 태학사.
- 홍종선(1991), 국어의 시간어 연구-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2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3~245.

- 홍종선, 김서형, 고경태, 김태훈, 이현희, 함희진, 이숙경(2006), 『후기 근대국어 형태의 연구』, 역락.
- 홍종선, 성지연, 김현주, 김혜영, 박상진, 박미영(2006), 『후기 근대국어 통사의 연구』, 역락.
- 황선영·이공주(2002), 구조적 중의성 해결을 위한 명사 수식 부사 연구, 『인지과학』 13-4, 한국인지과학회, 43~53.
- 황화상(2009), 관형사와 부사의 품사 설정에 대하여-이른바 체언 수식 부사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42, 한국어학회, 317~344.
- 후 총(2017), 부사 ‘바로’의 통사 및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Anna-Maria De C.(2010), On the Focusing Function of Focusing Adverbs, *Linguistik online* 44, 99~116.
- Beaugrande, R de & W Dressler.(1981), *Introduction to Textlinguistics*, 김태욱·이현호 역(1991), 『담화텍스트언어학입문』, 양영각.
- Bloomfield, L.(1933), *Language*. New York: Holt.
- Bolinger, D.(1985), Two Views of Accent. *Journal of Linguistics* 21. 79~123.
- Chafe, W. L.(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hafe, W. 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s of View. In C. Li(ed.), *Subject and Topic*. London: Academic Press. pp. 25~56.
- Chomsky, N.(1969), *Deep Structure, Surface Structure, and Semantic Interpretation*. IULC. Reprinted in Chomsky, N., *Studies on Semantics in Generative Grammar*. The Hague: Mouton(1972).
- Dic, S.(1978), *Functional Grammar*. Amsterdam: North-Holland.
- Gussenhoven, C.(1983), Focus, Mode and the Nucleus. *Journal of Linguistics* 19. pp. 377~417.
- Halliday, M. A. K.(1966), Intonation System in English. In A. McIntosh and M.A.K. Halliday(eds.), *Patterns of Language*. London: Longman.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part 2. *Journal of Linguistics* 3. pp. 199~244.
- Halliday, M. A. K. & Hassan R.(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Longman.
- Jackendoff, R. S.(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Cambridge, Mass: MIT Press.
- Jackendoff, R. S.(2002), *Foundations of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obs, J.(1983), *Fokus und Skalen, Zur Syntax und Semantik der Gradpartikeln im Deutschen*, Tübingen: Niemeyer.

- Jacobs, J.(1988), Fokus-Hintergrund-Gliederung und Grammatik, in H. Altmann(ed.), *Intonationsforschungen*, Tübingen: Niemeyer, 89~134.
- Kate K.(2000), *Semant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 Basingstoke: Macmillan, 이영현·유재근 역(2003), 『의미론의 신경향』, 한국문화사.
- König, E. & P. Siemund.(2000), ‘Intensifiers and reflexives A typological perspective’, in: Zygmunt Frajzyngier and Traci Curl (eds.), 41~74.
- König, E.(1981), The meaning of Scalar Particles in German. In: Eikmeyer, Hans-Jürgen/Rieser, Hannes (eds.): *Words, Worlds, and Contexts. New Approaches in Word Semantics*. Berlin/New York, de Gruyter: 107~132.
- König, E.(1991), *The Meaning of Focus Particles: A Comparative Perspective*, London, New York: Routledge.
- König, E.(1993), Focus particles. In: Stechow, Arnim von/Jacobs, Joachim (eds.): *Syntax/Syntax: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eitgenössischer Forschung/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9.1. Berlin/New York, de Gruyter: 978~987.
- Kraak, A.(1970), Zinsaccent en Syntaxis. *Studia Neerlandica* 4. 41~62.
- Ladd, D. R.(1980), *The Structure of Intonational Meaning: Evidence from English*.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Levy, D. M.(1979), Communicative goals and strategies: Between discourse and syntax, *Syntax and Semantics* 12, Academic Press, 170~195.
- Liu, M.(2017), Varieties of alternatives-Mandarin focus particles, *Linguistics and Philosophy* 40-1, 61~95.
- Moser, M.(1992), Focus Particles: Their definition and relational structure, *Papers from the 28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1,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397~411.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 J, Svartvic.(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Longman.
- Quirk, Randolph et al.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ochemont, M. S.(1986), *Focus in Generative Grammar*, Amsterdam: Benjamins.
- Rooth, M. E.(1985). *Association with Focu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Rooth, M. E.(1992), *A Theory of Focus Interpretation*, *Natural language Semantics* 1, 75~116.



- Rooth, M. E.(1996), Focus, *The Handbook of Contemporary Semantic Theory*, Oxford: Blackwell.
- Saeed, J. I.(2003), *Semantics: Second Edition*, Malden, MA: Blackwell Pub, 이상철 역 (2004), 『최신의미론』, 한국문화사.
- Schmerling, S. F.(1976), *Aspects of English Sentence Stress*. Austin: Texas University Press.
- Selkirk, E. O.(1984), *Phonology and Syntax: The Relation between Sound and Structure*, Cambridge, Mass: MIT Press.
- Simon, DiK, et al.(1981), on the typology of Focus phenomena, *Perspectives on Functional Grammar*, university, Amsterdam, 41~74.

<Abstract>

## A Historical Study on Adverb Modifying Noun

Kim Han Gyul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n adverb is a part of speech modifies a certain part of a sentence, but sometimes modifies an entire sentence. Moreover, an adverb could have a different meaning depending on its scope or subject of modification. In the case of Korean, an adverb has acquired various usages while experiencing the change/expansion of its scope: in this process, just like a focus adverb and a degree adverb, it has acquired even the usage of modification of n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process of change in an noun modifying adverb from the perspective of polysemy. In this study, it was divided into three types: ‘Baro, Got, Jeuk, and Junghi’; ‘Ggok, Ggokhi, Ddak, Ddakhi’; and ‘Hapil, Hapilemyeon’.

First, there are directive adverbs: Directive adverbs are used when a preceding element is used to strongly emphasize a following element and they include ‘Baro, Got, Jeuk, and Junghi’. During the middle age, ‘바르’(直, 正) was used as a descriptive adverb, a time adverb, and a degree adverb, but in the modern Korean, it was used as a focus adverb as well. Since then,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usage of ‘Baro’(<바르) till now. During the Middle Age, ‘Got’ was used as a time adverb (卽, 便, 輒) and a focus adverb (卽, 則, 直), but in the modern Korea, it obtained the usage of sentence conjunction, and of noun phrase conjunction since the modern civilization and it has been used as a conjunctive adverb for typical paraphrase. Therefore, ‘Got’ has been used as a time adverb, a focus adverb, and a conjunctive adverb for paraphrase.

On the other hand, in the middle age, 'Jeuk'(卽) was solely used as a focus adverb, but in the modern Korean, it was used as a time adverb, a focus adverb, and a conjunctive adverb for casual relation and paraphrase. However, its usage as a time adverb and a focus adverb was absorbed in 'Got', and now, it is only used as a conjunctive adverb for casual relation and paraphrase. In the middle age, 'Ehi'(正) was used as a descriptive adverb, a degree adverb, and a focus adverb, but from the 19th, its usage has been significantly decreased due to the influences of 'Baro', 'Got', and 'Jung', which are in the similar relation.

Second, there are symbolic adverbs. Symbolic adverbs are the one derived from or closely related to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nd they include 'Ggok, Ggokhi, Ddak, Ddakhi'. 'Ggok' is a mimetic word used since the modern age, but from the 19th, it has obtained various other usages such as a modal adverb, a degree adverb, a focus adverb, and so on. 'Ggokhi'(<꺄꺄히) was used as a modal adverb, a degree adverb, a focus adverb from the late 19th to the 20th, but no longer in use since it was emerged with 'Ggok' and 'Ddakhi' around the mid-20th. 'Ddak'(<꺄꺄) was appeared around the 19th, mainly used as onomatopoeia or a mimetic word, but in the 20th, it obtained various other usages, including a degree adverb, a time adverb, and a focus adverb. 'Ddakhi (<꺄꺄히)' is shown to make the first appearance in the modern age: it was used as a focus adverb for a negative sentence, but soon it became to be used as a modal adverb and a degree adverb. Recently, it is used for other than negative sentences.

Third, there are appraisal adverbs. Appraisal adverb is a modal adverb, used for describing a speaker's negative appraisal of the proposition, and 'Hapil' and 'Hapileemyeon' are included. In the middle age, '何必' was not an independent adverb, but started to be recognized as a single unit since the 19th. At the time, 'Hapil' had three different meanings: 'how come, necessarily' originated from its meaning in the modern Korea; "as irony, as it so happens", the meaning of today; and 'intentionally, on purpose', the meaning connecting the two other

meanings of the aforementioned, but after the mid-20th, only the meaning of today has survived. 'Hapileemyeon' is an adverb, first appeared in the mid-20th, which reflects solely the modern meaning of 'Hapil'.

Many previous studies on noun modifying adverbs focus on the classification of word classes, or properties of individual adverb type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ould find its significance from the fact that it has addressed various usages of noun modifying adverbs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and pursued the complete interpretation of every usage of the subject.

Keyword: adverb, noun modifying adverb, conjunctive adverb, modal adverb, symbolic adverb, time adverb, degree adverb, focus adverb, polysemic word, onomatopoeia, mimetic word, causal relation, paraphrase

Student identification number: 2011-30002